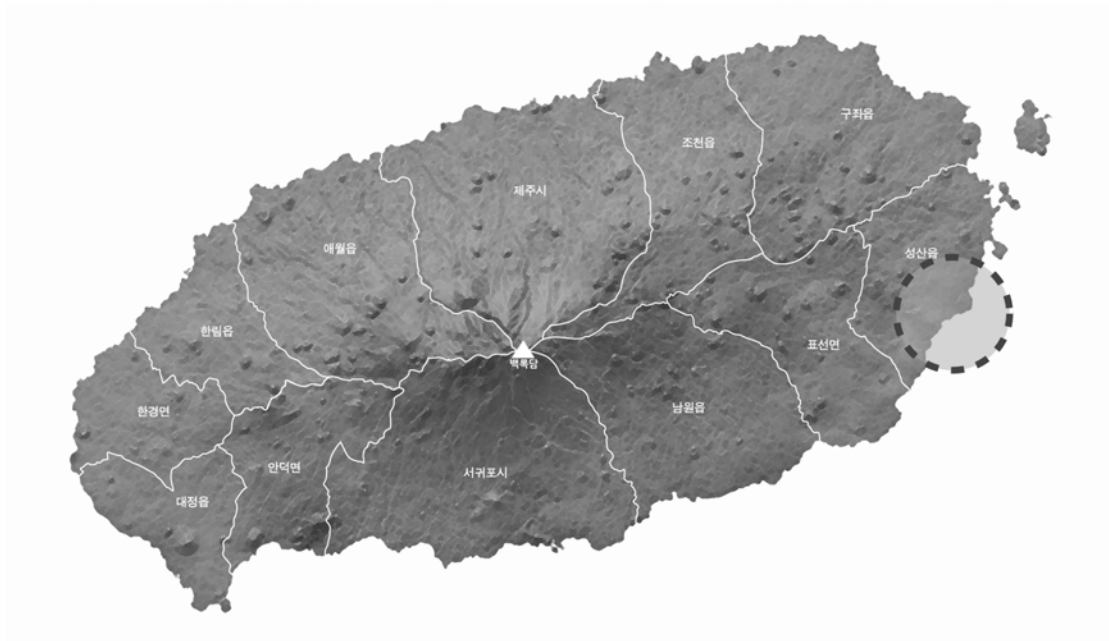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57-01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28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순자
조사지점: 성산읍 온평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8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10
제2장 성산읍 온평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1
2.2. 조사 기간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11
2.4. 전사	13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3. 밭일	60
5. 바다일	138
7. 식생활	197
2. 제보자 일생	32
4. 들일	103
6. 의생활	169
제2절 어휘	
1. 인체	286
3. 친족	299
5. 음식	308
7. 생업	322
9. 민속	337
11. 자연	340
13. 식물	358
2. 육아	292
4. 의복	303
6. 가옥	317
8. 수와 단위	334
10. 신앙	340
12. 동물	348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성산읍 온평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송옥금(여, 1943년생)

강문홍(남, 1938년생)

강백년(여, 1938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과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강문홍	40:43	○
2. 제보자 일생	구술 2-1. 제보자 일생	송옥금	6:54	○
	구술 2-2. 제보자 일생	송옥금	1:00:00	○
3. 밭일	구술 3-1. 밭일 1 보리~조농사	송옥금	22:09	○
	구술 3-2. 밭일 2 조~기타농사	송옥금	47:10	○
4. 들일	구술 4. 들일	강문홍	1:08:55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송옥금 외	52:58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송옥금	41:36	○
7. 식생활(음성)	구술 7-1. 식생활 1 밥과 국~범벅과 수제비	송옥금	42:23	○
	구술 7-2. 식생활 2	송옥금	42:57	○

	김치~장담그기			
	구술 7-3. 식생활 3 떡류~기타	송옥금	42:41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강문홍	01:32:21	×
9. 신앙	구술 9. 신앙	강문홍	07:24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송옥금	01:16:14	×
11. 놀이	구술 11. 놀이	송옥금	36:15	×
12. 통과례	구술 12-1. 통과례 1 출생, 혼례, 상례	송옥금	57:31	×
	구술 12-2. 통과례 2 상례	송옥금	48:37	×
	구술 12-3. 통과례 3 제례	송옥금	21:42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송옥금	59:20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음성)				구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과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1. 인체 얼굴과 머리	송옥금 강백년 외	54:46	○
	어휘 1-2. 인체 2 상체, 하체	송옥금	30:18	○ ○
2. 육아	어휘 2. 육아	송옥금	58:59	○ ○
3. 친족	어휘 3. 친족	송옥금	36:32	○
4. 의복	어휘 4. 의복	송옥금	48:36	○
5. 음식	어휘 5-1. 음식 1 주식, 부식, 별식, 부엌과 그릇 1	송옥금	01:32:35	○
	어휘 5-2. 부엌과 그릇 2	송옥금	01:14	○
6. 가옥	어휘 6-1. 가옥 1 형태와 배치, 내부구조 1	강문홍	48:49	○
	어휘 6-2. 가옥 2 내부구조 2, 연장	강문홍	31:13	
7. 생업	어휘 7-1. 생업 1 농업 1 농사~노가리	강문홍	01:07:01	○
	어휘 7-2 생업 2 농업 2 보리~수수짱	강문홍	49:30	○
	어휘 7. 생업 3 어업, 기타	강문홍	21:49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강문홍	24:58	○
9. 민속	어휘 9. 민속	강문홍	38:43	○
10. 신앙	어휘 10. 신앙	강문홍	10: 19	○
11. 자연	어휘 11-1 자연 1 들, 바다, 시후 1	송옥금	54:44	○

	어휘 11-2. 자연 2 시후 2, 날씨, 방향	송옥금	06:23	○
12. 동물	어휘 12-1. 동물 1 가축, 벌레와 곤충, 들짐승, 날 짐승 1	강문홍	01:34:28	○
	어휘 12-2. 동물 2 날짐승 2	강문홍	09:14	○
	어휘 12-3. 동물 3 바다동물 1	송옥금 외	21:11	○
	어휘 12-4. 동물 4 바다동물 1	송옥금 외	19:12	○
13. 식물	어휘 13. 식물 1 풀, 꽃	송옥금	01:30:31	○
	어휘 13. 식물 2 나무, 열매, 바다식물	송옥금	01:03:14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순자, #1: 송옥금, #2: 강문홍)

1. 조사 마을

101001 @ 이거 녹음 헐 거난예, 이름부떠예, 삼촌 일름이 어떻 돼마씨?

101001 #2 강문홍.

101001 @ 강문홍. 멧년 생이우과?

101001 #2 삼팔년.

101001 @ 삼팔년예.

101001 #2 이월 십육일.

101001 @ 예, 그 주소는 어떻 돼마씨? 삼촌네 집 주소?

101001 #2 우리 주소가.

101001 @ 예.

101001 #2 성산읍 온평리.

101001 @ 예.

101001 #2 저, 지금 새주소는 상하로 71번지고 구주소는 944번지.

101001 @ 예, 삼촌네 그 가족 관계는 어떻 됩수과? 자제 분들이영 우리?

101001 #2 딸 하나 아덜 둘.

101001 @ 예, 알아수다.

101001 @ 삼촌, 이 온평리는 옛날에 뭐렌 불러난마씨?

101001 #2 열운이.

101001 @ 열운이.

101001 #2 열운이.

101002 @ 게믄 열운이 그 형성은 어떻 뵈덴 글읍니까?

101002 #2 열운이 형성 그거는 뭐 여기 열운이가 제일 처음은 강칩, 현칩, 이제 고칩, 송칩은 뭐 돼고, 요렇게 돼 가지고 잇엇고.

101002 @ 예.

101002 #2 여기 강칩이엔 현 게 한 군데만 잇는 게 아니라.

101002 @ 예.

101002 #2 저 어디 들개라는 그런 바다 옆에 거기 그 강칩 하르방이 혼 사름 왓고.

101002 @ 예.

101002 #2 나머지 또 요쪽 어디 자손들이 요쪽이 황루알에 정착을 헛고.

101002 @ 예.

101002 #2 여기 강씨도 파가 한 세 파가 ㄱ튼 하르방 즈손인데 형제간 따로따로 살안 이렇게 헛고. 현침의가 상하동으로 헤가지고 두 군데 친족 형성이 뻗고, 여기 그 보면은 이 저 밧이나 재산이 많은 디는.

101002 @ 예.

101002 #2 상동에는 현침이라고 헤가지고 그, ㄱ 현침의 형제간덜이 많이 있어.

101002 @ 아.

101002 #2 만허니까 옛날은 돌담을 강 다으면은 그게 우리 땅.

101002 @ 예, 예.

101002 #2 요런 식으로 뒤어난 모양이라. 우리는 듣지는 안 헛는데.

101002 @ 예.

101002 #2 고침이라는 곳은 저쪽 신산 쪽으로 가는 쪽에 가면 뒤헛고. 강침이는 요쪽 이 입구로 들어오는 그쪽에 가면은 도룻가 옆으로 해안가 있는데 그쪽에 이 농토가 많은 거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친족덜 형제간덜이 많은 데로 자기네 그 구역을 정허는 헛난 모양이라.

101002 @ 예, 예.

101002 #2 온평리, 제일 처음에 열운이라는 거는 저 어디 묵은열운이 거기가 처음 왔다는 거 같아베여우리 생각에는.

101002 @ 묵은열운이예?

101002 #2 묵은열운이. 거기서 가보면 거기는 옛날 그 석기시대부떠 그 뒤헤 가지고 살림헛난 조개껍질 같은 거 그런 것덜이 잇어가지고 여기가 처음 살림 살아난 거 아니냐. 요런 그런 우리 설에는, 설만 들엇지, 실지는 모르겄고.

101002 @ 예.

101002 #2 이 저 무슨 마을지 ㄱ튼 디 그 대개 이 부분 온평리, 열운이 요런 걸로만.

101003 @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이 열운이는 옛날부터 어떤 일들을 행 살아신고, 이 동네는예?

101003 #2 쥔 처음에는 보리.

101003 @ 예.

101003 #2 보리 허고 보리 같고 조 같고. 요것이 이제 주 그 곡식. 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요거를 헛고. 글후로 가가지고 유채가 나오기 시작헛어.

101003 @ 예.

101003 #2 유채가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기 시작헛는데.

101003 @ 예.

101003 #2 유채를 간 다음에 유챗그르에는 고구마를 심엇고.

101003 @ 예.

101003 #2 그때부터 돈맛을 알기 시작헌 거. 유채 갈기 시작헛 때부터 돈이라는

거.

101003 @ 예.

101003 #2 그 전에는 돈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집에 닭 길러 가지고 계란 한두 개 그걸 가져가지고 그것도 돈을 우리가 먹지를 안 했어.

101003 @ 예.

101003 #2 이 장이 어디냐 허면은 동남장허고 성산장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는 포장도 안 쉐 때 걷고 가서 이 옥수수.

101003 @ 예.

101003 #2 강냉이. 이거는 빨리 나와가지고 그게 심었는데 하나씩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우짖에 다 심어서.

101003 @ 예.

101003 #2 그거를 것도 다 아껴서 먹지를 아녀. 그거를 뜯어가지고 장에 가서 그 거 허민 돈, 돈이 정말 귀한 때라 놓니까.

101003 @ 예, 예.

101003 #2 그거를 벌어서 이제 뭐허면은 학비에도 보태는 것도 잇었고, 어디 돈 내라 허민 돈 내고. 여기는 옛날에 제서를 보러 갈 때도 직접 돈 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쌀이나 무슨 곡식 이 뭐헤가지고 맞바꿈허는 식으로 헐 우리 살 때는 살았고.

101003 @ 예에.

101003 #2 저 그 돈 나오기 시작헌 거는 우리가 이제 춤 초등학교 졸업헤가지고 중학교 시절부터는 그때는 돈이 뭐 기성회비니 육성회비니 이런 걸 헤가지고 학교도 돈이 있어야 가고. 나도 이년 동안은 돈이 부모들이 돈 없으니까.

101003 @ 음.

101003 #2 학교를 중학교를 늦게 이제 가가지고.

101003 @ 음.

101003 #2 여기서 헐 십오리 똤는 디 걸어다니고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고무신, 검은 고무신도 힘들었어.

101003 @ 예, 예.

101003 #2 힘들게 헤 가지고 검은 고무신도 힘들었어. 힘들게 헤가지고 검은 고무신도 아껴 썼고. 항상 걸어다녔고 살았는데 글후에 유채 고구마 나오기 시작허니까 그때부터는 절간을, 고구마는 절간 헤가지고 널면은 그 주정 공장에 팔고. 고구마 그때부터 이제 남으 땅도 쫓 살 수 잇었고.

101003 @ 예에.

101003 #2 유채, 고구마 시기가 똤어서, 허고. 헤녀덜 물질헌 사름덜은 육지 가가지고 물질헤 가가지고 벌고 오고. 여기서 농사 지은 사름은 농사 지어 가가지고 헐 거를 합헤가지고 돈 불려. 그때는 맛깁도 가질 안 했으니.

101003 @ 예.

101003 #2 농사 못 지는 밭은 그대로 가져가라. 저 밭덜이 많은 사람은 말만 잘 허민 그대로 헤 먹으라. 나도 반작을 남으 집 내버린 밭을 계속 가꾸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101003 @ 예.

101003 #2 글후에는 또 이제 그게 낫나니까 차츰 당근이 나오고 이게 다 모든 게 서귀포시로부터 차츰, 서귀포 농사짓는 게 어떻게 돼냐면 서귀포에서 문저 현 거를 여기는 나중에 물려받는 거라.

101003 @ 예, 예.

101003 #2 나중에 또 감귤이 표선까지 왔다는 거라. 표선까지 와가지고 표선서 낫는데 여기 멧 사람 일본 그 다니는 분들이, 묘목은 어디서 나왔느냐 허면 일본서 나온 거라. 게문 여기 잘 사는 사름덜 우리 감귤해서 살것다, 못 사는 사름은 엄무도 못 내고 감귤 심는 것도.

101003 @ 예, 예.

101003 #2 헛는데, 그 묘목을 영업은 업자들안티 저 일본서 온 것이라 해도. 돈이 많은 사름덜, 친축이나 뭐 현 사름덜 멧 본 쫘 우리도 갈라 달라 헤가지고 그런 심고. 친축 잇는 사름 심고. 멧 본 돈 줘서 가져가라 허면서 조성현 게 감귤이고.

101003 @ 예.

101003 #2 그 다음,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뭘 헛느냐면 농사 남으 집 살면서 뽕나무를 교육을 받았어.

101003 @ 아아.

101003 #2 뽕나무. 뽕나무를 밧데 천사백 팽짜리 밧을 어떻게 어떻게 둘이가 부부가 노력 헤가지고 웨상밧을 사가지고. 그때 밧 천사백 평 헛자 돈 팔만 원 구만 원 헛거든.

101003 @ 예, 예.

101003 #2 그 밧도 이제 일년에 못 무니까.

101003 @ 예.

101003 #2 이 년 삼 년 물러줄 걸로 헤가지고 길도 없는 밧.

101003 @ 예, 예.

101003 #2 길이 없는 저 명지.

101003 @ 예.

101003 #2 요새 말허는 명지 그걸 사가지고 뽕나무 교육을 어디서 허느냐 농촌진흥청에 가가지고 받으니까 거기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라 또.

101003 @ 아.

101003 #2 뽕나무 누에 키우고 허민 그 뭇혈 걸 키운다 허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린 못허것다. 뽕나무를 삼년 키워가지고 이거 안 돼것다, 나 파버려야지. 거기 집 지어야 지원해 주고 뭇헌다 허는데 거기 수도도 안 갖지 뭇 나무만 심으면 뭇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보니 요런, 요런 것 때문에 이젠 ‘아, 이거 정부에서 허는 거 이거 잘못 됐구나.’ 허연. 온평리도 혼 으넝 사름을 헛다가 다 이제 방화 붙었다고 거 산에 산불 나서 헛다고 해서 폐원해 버리고 거기 농사를 해연 고 구마 같고 유채 같고 거기서 좀 토지를 조금조금 이제.

101003 @ 음.

101003 #2 확보헛는데. 게난 여자 여기는 물질을 허민 집잇사름은 바다에, 저 육지 나가고 어린애 낳민 또 두고 또 말귀 알아들 정도 돼민 두고 육지 가가지고 삼개월 육지 어디 충청도나 그런 디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디 여기서 배로 헤가지고 보리 쌀이나 양식도 가지고 가.

101003 @ 예, 예, 예 예.

101003 #2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았고.

101003 @ 음, 그러면은 여기 아무래도 이제 해안 마을이니까 여기 바당 일들도 하영 해실 거 아니라예?

101003 #2 옛날 바당을 우리가 뽕비헛라면은 그 옛날에는 이 어촌계가 아니라 개금이라고 헤가지고 동네마다 여기는 뽕 곤데 바다, 여기 이제 청소도 허고 예들 들어 거기 사람이 바다에서 죽으면 그거 장사도 치와서 헤야돼고. 이렇게 헛는데, 그 여기 온평리는 고성 바당 잇고 저 난산 바당 잇어.

101003 @ 예.

101003 #2 산간 부락도 바다를 그 경계로 헤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줏는데.

101003 @ 아.

101003 #2 그 일제 때 그 막 여기 사람이 죽어 올르고 그런 거 뽕허니까 우리 청소 안 한다, 안 한다 헤가지고 온평리가 신양리허고 신산리 경곁 사이에 바다가 그렇게 넓어져 분 거지.

101003 @ 아아, 지금도 그 바다가 잇구나예?

101003 #2 바다가 온평리서 주장을. 경계에선 온평리 경계에서 신양리 경계서 이제 난산리도 이제는 관리 안 허고 저 고성도 관리 안 허고 경헤가지고 이제 그 바다는 온평리는 이제 학교가 뽕허게 뽕니까.

101003 @ 예.

101003 #2 학교를 처음은 저 뽕 독자가 뽕 헤가지고 여기 세완 쪼그마한 학교가 잇었는데, 거기 불 타버리고 그 학교를 지을라고 허니까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해녀들이 부락회의를 해서 바다를 양쪽으로 끊어서 이제 내놓자.

101003 @ 예에.

101003 #2 가서 여기서 수입금은 이제 저 학교에 뽕헤가지고 학교를 짓자 요렇게 헤가지고 청년회가 주장 헤가지고, 청년회는 감시반이라.

101003 @ 예.

101003 #2 다 모임서. 청년회장이 모임면은 요기 여기 뽕 시간 동에 물에 들어가세요. 들어갓단 나오세요. 오래 살아도 안 돼고 위험허니까.

101003 @ 예, 예.

101003 #2 계가지고 거기서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는 잔디밭이라. 해안가는 다 잔디밭이니까 이쪽이나 이쪽은 다 잔디밭이니까 거기서 말려가지고 이거를 저 판매하려면은 이걸 학교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101003 @ 으음.

101003 #2 나머지 바당은 이제 물질 금했다가 거기 가는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 자기 즈물아 지는 한 이제 자기 거가 되고. 상중하 그런 거는 뭐 저 양쪽 끝은 공동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지은 거.

101003 @ 예, 이거 온평리가 보면은 학교 바당이 유명하잖아예?

101003 #2 학교바당에. 학교 비석도 해녀 비석을 저기 학교에 세와실 거라.

101004 @ 예, 그 다음에 이 마을 주변에 오름도 잇수가?

101004 #2 이딴 온평리 오름이 없어부니까 멀경현 열운이엔. 경허기 때문에 이번 공항도 온평도 경계 가서 쪽 바다 보면은 어디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밀어차치민 공항뒤편에쯤 돼어 버리니까 온평리 지경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큰 거주.

101004 @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내천, 내창들은 잇어마씨?

101004 #2 내창은, 내창이 조금쪼끔벧긔 엇주. 계난 내창도 없는 디가 온평리.

101004 @ 아아.

101004 #2 골목길로 물길로 내가 돌아.

101004 @ 음, 큰내는 없고예?

101004 #2 큰내가 없고. 이 신산리나 어디 동남 같은 데는 내창이. 신산리도 그 양에굴이라는 온평리 경계로 내창이 두 개. 그 물덜도 온평리 물덜도 그레 가고 저 레 가고 다 밀으로만 온평린 내창이 없는다. 그래서 지금 다 내창도 만들고 그 저 저류지들을 만들어 부니까 지금. 그 전에는 이 온평리는 그 내 큰 뭐 내창이 엇어도 비 큰비가 와도 뭐 그 피해보지는 안 했었지.

101004 @ 내 터지는 일이 엇이난예?

101004 #2 엇이니까.

101004 @ 아아.

101004 #2 저 난산리 같은 데는 그 온평리 우로 이렇게 뚝 많으니까 저쪽 신산으로 물이 가게 되고 이쪽으론 신양리 쪽디레 빠져, 고성 디레 가게 돼어 버리니까. 지형이 돼어 버리니까.

101004 @ 예.

101004 #2 내 큰 내창이 엇인 거.

101004 @ 예, 물 부족은 헤신가마씨?

101004 #2 물은 부족해. 물은 많이 부족했지. 여기 혼인지물 옛날에는 물을.

101004 @ 예.

101004 #2 요기 통이 샘통이 하나 잇었는데, 그디가 저게 이제 온평리 부락민들이 뭐헌데, 그 온평리 강필환이라는 그 하르방이 강칩의 젤 해안가 지금 저기 사는

그디서 그 하르버지가 그 통을 이제 뭐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101004 @ 예.

101004 #2 그 물을 저게 멧 메다냐 허민 열두 발. 요렇게 열두 발 거기 물이 통을 판 거라.

101004 @ 예에.

101004 #2 통을 파서 그 물을 먹은 거지.

101004 @ 음.

101004 #2 그 물 먹고 나머지는 민물. 여기 온평리는 혼인지물 저 어디 바다 쪽으로 가민 도는물 저 밑으로 가면은 애기죽은날물, 거기는 소도 벵이고 요만큼 헤가지고 사람도 먹고 거 물이 많이 없었을 때 먹었고.

101004 @ 예.

101004 #2 요 혼인지는 또 크게 그 통을 따로 헛고. 소 먹는 물이 따로 잇고. 거기는 통이 두 개가 잇었어.

101004 @ 예.

101004 #2 두 개가 잇었는데 그거 두 물을 이제 먹고. 옛날엔 그 큰일은 나면은 물을 다 여기 허벅으로만 질었는데. 물마차가 나오면은.

101004 @ 예.

101004 #2 나온 후에는 이 드럼통이라는 걸 가져서.

101004 @ 예, 예, 예.

101004 #2 그 오늘은 누구네 잔치 헛다는가 무슨 뭐 집일 헛다든가 허민 그 물마차에 그 물 그디 강 떠 놔가지고 집에 왕 공급도 허고.

101004 @ 음.

101004 #2 그때는 수도가 엇을 때니까.

101004 @ 예. 예.

101004 #2 그렇게 하다가.

101004 @ 음, 혼인지 물 이름은 뭐우과? 여기서는 불리는?

101004 #2 여기 흰죽물통엔 허주. 이딴말로 흰죽물통.

101004 @ 흰죽물통예?

101004 #2 먹는 물통, 소 먹는 물통.

101004 @ 예, 그 흰죽이라는 무슨 말이우고?

101004 #2 혼인지를 말허는 거라. 지경 이름을 여기 사투리로 흰죽, 흰죽.

101004 @ 흰죽, 혼인지를 그렇게?

101004 #2 혼인지를 흰죽이라고 허고.

101004 @ 흰죽 물통.

101004 #2 흰죽 물통.

101004 #2 예, 혹시 여기는 바위 같은 것도 잇어마씨? 큰 바위 같은 거?

101004 #2 바위는 없고 동굴덜은 잇어.

101004 @ 아, 동굴들은 잇고예?

101004 #2 동굴은 서궁계굴 무슨 뭐 어디 온평리 경계 가면은 모낭계굴라는 거 잇고. 거기는 이저 모낭계굴이 커. 거기 가보면은 그게 바다 쪽으로 뚫버졌다는데 그 사삼사건 당시에 거기 사람이 숨어서 잇었고.

101004 @ 으음.

101004 #2 사람이 또 거기 뭐해 나기 때문이 방위허기가 곤란하니까 거기 지금 돌로 다 메짜버렸어, 돌로.

101004 @ 아아.

101004 #2 메짜버리고 그 베곶디로 쓰레기 갖다 놓고. 우리가 옛날에는 소를 가꾸는 목동이니까 한 열이틀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소를 집집마다 여기 소가 잇었으니까.

101004 @ 예.

101004 #2 소 잇을 때니까. 소를 길룰 때니까 당번제로 헤가지고 하루는 정심을 싸고 아침 다섯 시에 저녁 다섯 시까지 소를 몰고 맥이고 오면 그 모낭계엔 현 디도 거기도 물통이 잇고. 저기 수산에 가면 지꾸물 잇고, 혼인지허고 거기서 이제 소를 길루면 그 처음 모인 자리에서 소 물을 맥이고 저 수산 우의까지 가가지고 하룻 동안 소를 맥영 올 때는 또 혼인지물 맥이고 들어오는 거라.

101004 @ 예.

101004 #2 그렇게 허면서 이제 헤난 곳이고. 바위 굴덜 조그만헌 굴덜은 으라 곤데가 잇는데, 서 지금 서궁계굴도 봉해가지고 그디 표시만 헛지. 개발을 헛으면 다 쓸 건데.

101004 @ 예.

101004 #2 이 온평리 지경이 동굴이 많아.

101004 @ 아아, 그렇구나. 아까 무슨 굴마씨?

101004 #2 모낭계.

101004 @ 예.

101004 #2 서궁계.

101004 @ 서궁계?

101004 #2 허고 그 나머지덜은 무슨 뭐 굴 이름덜이 없고, 저쪽 수산으로 가면은 무슨 굴이라는 게 잇는데 굴 두 개는 확실하게시리 지금 온평리 그 지경에 잇는 모낭계허고 서궁계굴은 지금. 서궁계는 이건 바위로 이렇게 이진 그디 가면 우에는 다 바위로 웨어 잇는데 이 구멍이 뜯리고 이쪽을 뜯벗는데 이 길이 사람이 이렇게 서면은 ** 가지고 그 안네는 물이 막 바당물처럼 있어.

101004 @ 아아, 계문 옛날 삼춘네 어린 때 거기 들어강 놀고?

101004 #2 거기 들어가가지고. 밧데 가서 일허다가 물 떠오라 허면 거기 가서 떠오고, 건 먹기만 헛지 그 안에 강 놀지는 안 헛고.

101004 @ 아아.

101004 #2 나중에는 이 온평리 사람이 특작하는 사람이 요 저 서궁계굴에는 저장을 해본다고 해서 베투를 흔 차 실고 와가지고

101004 @ 으음.

101004 #2 놔뒀난 그런 역사도 있는데. 거기도 습기가 창 저장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가 돼버릴 정도가 돼여.

101005 @ 예예, 아무래도 습기가 많아서예. 그 다음에 혹시 이 마을에 기관은 어떤 기관들 있어마씨? 뭐.

101005 #2 온평리 기관은 없었어. 옛날부터 그건 우리가 들은 말인데, 그 모든 행정은 고칩의서 그.

101005 @ 으음.

101005 #2 이 온평리를 휘잡았지. 옛날도 고 참사라 해가지고 저 일본시대부터 저 우선 일본 앞잡이 뭐허고. 무슨 공출을 헌다든가 뭐할 때는 요디 동산 잇었어.

101005 @ 예.

101005 #2 거기 가민 고칩의 그 사람이 고 참사라고 그디 모여 가지고 이장이든 누구든 거기서 이제 오라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도 거기서 뭐 그런 식으로 헛는데. 거기서 말허기를 저 지방에, 부락에 행정기관이나 뭐 잇으면 복잡허다.

101005 @ 으음.

101005 #2 피해를 간다. 그래서 신산리.

101005 @ 음.

101005 #2 계난 신산리가 먼저 지서도 생겨불고 학교도 생겨불고 모두 신산리허고 난산리. 이 온평리는 길도 저 밑으로 해야 발전뻬을 건데.

101005 @ 음.

101005 #2 그쪽에 그 온평리 그 동산 서천못동산이라는 게 있어. 그 동산을 깨버리면 온평리가 망헌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길을 못 빼게 헛어. 계난 온평리 땅은 이렇게 돼여분 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01005 @ 으음. 서천못동산?

101005 #2 서천못동산.

101005 @ 서천못동산? 음.

101005 #2 기 잇는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101005 @ 예, 예. 그 다음에 삼춘예, 그, 그러면 여기 학교 잇고.

101005 #2 학교 허고 뭐 다른 것 없어.

101005 @ 마을회관 노인회 청년회 정도?

101005 #2 으, 그 정도지 뭐 지금까지 정도는.

101006 @ 그 다음에 예전에는 워 마을에 일허젠 허민 다 점들 들엉 헛잖우파양?

101006 #2 그 점 들엉.

101006 @ 어떤 점덜이 잇어났수가?

101006 #2 여기 제일 처음에는 므쉬점엔 헌 게 그게 점이난, 흔 동네에 두 개 잇

는 디가 잇고 세 개 잇는 디가 잇고 하나 잇는디가 잇고.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여
기서 허는 게 그, 저 상예집이라. 장사 나면은 동네별로.

101006 @ 예.

101006 #2 일골에 장사 나면 일골 사름은 어떤 일이 잇어도 가 장사에 참석 안
허민 욱 먹어.

101006 @ 으음.

101006 #2 이 동네. 누구 안 나왔다 나왔다 현 걸 벌써 알아서 그 집에 무슨 일
나면 가지 말라 요런 식으로 헛고. 또 그 전전에는 이 ㄱ레, ㄴ레, ㄷ레이.

101006 @ 예, 예, 예.

101006 #2 ㄷ레도 동네마다 잇어.

101006 @ 예.

101006 #2 그게 접이 하나라. 그, 그 ㄴ레 안에는 그 사름덜이 예 일년에 한번
집도 일고 청소도 허곡 또 이제 허는데, 딘 디 가가지고는 그 보리를 쫓지를 못해.

101006 @ 예, 예.

101006 #2 그 동네 접 안네만 가가지고 거기도 접에 다 순위가 뭐냐 허면은 오
늘 나가 보리를 글궂다 허면 속박에 보리 하나 가지고 가서 얹어놔야 돼. 그게 일
번.

101006 @ 예, 예.

101006 #2 그런 예가 잇엇고. 그 다음에 여기 접이라는 거는 개발되기 시작한 돈
좀 나오기 시작허니까 쓰레트집이라는 걸 헛어. 쓰테트집.

101006 @ 예.

101006 #2 게른 동네마다 이제 열 사름, 뭐 열다섯 사름 이렇게 모이민 울히 이
번 달에 돈 내서 쓰레뜨 허자. 우리는 쓰레트 지봉을 허겄다.

101006 @ 음.

101006 #2 신청을 허는 거라.

101006 @ 예, 예.

101006 #2 그런 접이 잇엇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건 뭐 별로지 뭐. 형제집이다
뭐다 친허민 뭐뭐 갑장훼니 뭐 그런 것덜이 츠츠츠 후에는 차츠 생기기 시작헛.

101006 @ 예.

101006 #2 어느 것도 다 한철 유행이라. 갑장훼 현 것도 한 철 유행. 글후에 나
서 이제는 이 근간에 와서는 동창훼니 학교 뭐니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이 돼어가
는 거고.

101006 @ 예, 맞습니다. 그 게른예, 아까 ㅁ쉬집 삼춘. 그건 어떻 식으로 운영허
는 거마씨?

101006 #2 ㅁ쉬집은 그 동네에 영 헤가지고 뭐 돈 내거나 영허진 안 허고 정허
연 허는데 이제 소를 오늘은 누구네 집, 집 순위별로 헤가지고.

101006 @ 예.

101006 #2 이제 오늘은 소를 누가 맥일 거고, 내일은 누가 맥일 거고 예를 들었어 요즘에는 명령을 했거든.

101006 @ 예, 예.

101006 #2 명령을 하면은 그 밧을, 명령밧을 내놓아가지고 그거,그 게 걸름허는 밧, 명령밧은 거름이 돼여.

101006 @ 예.

101006 #2 소 갖다 맥이고 와서 명령밧 주인안테 그거를 넘겨줘.

101006 @ 음.

101006 #2 소 이거 멧 개니까 마트시오. 널 누구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거 감시 잘허렌. 그 잘 명령밧도 담이 약헌 데는 그 밧임제는 직을 지켜가지고 걸름허기 위해서.

101006 @ 예, 예.

101006 #2 지켰다가 널 아침 거기 줌자고 뭐 하다가 아침에 오면 요건 소 멧 머리난 오늘 맥이레 가라 요런 식으로 했고. 그거를 허다가 칠월 백중 돼면은 그때는 다 제물헤가지고 가서 칠월 열나흘 날은 어디 좋은 데 가서 제사를, 백중 제사를 지내줘.

101006 @ 예에.

101006 #2 경허곡 십이월 달 돼면은 그 점 안네서.

101006 @ 음.

101006 #2 송아지가 예, 상강일이 넘으민 소를 집의 와서 메게 돼니까. 이 송아지 난 소들이 이제 사월 오월부떠 난 송아지가 십이월달 돼면은 막 크거든.

101006 @ 네.

101006 #2 그러면은 그 급피라고 헤가지고 곡식을 새 곡식 옛날 조.

101006 @ 예.

101006 #2 요거 수확허고 산디 요런 걸 수확헌 걸 가져가지고 제물을 헤가지고 가서.

101006 @ 예.

101006 #2 송아지 녀인을 줏어.

101006 @ 아.

101006 #2 이 요거는 누게네 송아지 이제 송아지다 이제는.

101006 @ 으.

101006 #2 망아지는, 망아지도 녀인을 줏고 망아지는 뉘를 헛느냐민 코를 요렇게 짜더라고.

101006 @ 아.

101006 #2 이 양쪽으로 이 숨을 잘 쉬어지게끔 하기 위해가지고 녀인 한번 주고 코를 짜어. 그것도 그 주인 그 예를 들어서 점 주인.

101006 @ 예.

101006 #2 거기서 제일 경험자가 그거를 뒤희가지고 그거를 다 우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집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그걸 해 줘가지고.

101006 @ 음, 게른 누구네 거다 해갖고 표시를 해주고예?

101006 #2 접마다 요거는 현칩의 송아지덜이다. 요거는 무슨 강칩의 소 집에 송아지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1006 @ 게른 그게 어느 적 시대우짜?

101006 #2 그게 한 스무 살로부터 나가 이제 팔십 다 돼 시난에.

101006 @ 예. 그러면 한 육십 년대?

101006 #2 육십 년대. 다 그게 유행이 그렇게 된 거라.

101006 @ 게른 그 당시에 므쉬점이 이 온평리에 몇 개 정도 있어신고예?

101006 #2 한 아홉이, ** 아홉 개나 열 개 정도 돼었어.

101006 @ 아아.

101006 #2 접이.

101006 @ 마을마다 자기들만씩 집을 지은 거로구나예?

101006 #2 므쉬점이 잇고 그 물집이 잇는데 물덜은 다 안 맺으니까 물덜은 혼집의 혼 일고으덥 머리씩 열 머리씩 서너 사람이 동아리가 돼어가지고 물허는 사람덜은 저 우에 가가지고 내버리면은 옛날에는 산에 올려 내버려.

101006 @ 예, 예.

101006 #2 내버리면은 뭐 겨울 나가야 찾고 일할 때 돼민 일허는 몰이나 강 잡아오고 이렇게 헛는데, 게난 물덜은 그렇게 내버려도 다 자기네끼리 형제끼리 모여 다니니까.

101006 @ 예.

101006 #2 소는 따로따로 가지마는 말은 경아녀고 일할 때 돼면 어디 쫓 돌아다니다가 그 일 잘허는 말은 잡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고.

101006 @ 음, 그러면 므쉬점은 쉼 허는 거를 므쉬점엔?

101006 #2 므쉬점엔 허고.

101006 @ 겨난 물만 따로헌 거는 물집.

101006 #2 물집.

101006 @ 예, 그 다음에 상예점은 어떤 식으로 헤여?

101006 #2 뭐?

101006 @1 상예점은?

101006 #2 상예점은 그 저 골마다 장사나면은 그날 가가지고 장사 지내주고.

101006 @ 예.

101006 #2 이제 옛날에 그 장난삼아 이제 조금 산다는 사람 술이 귀헛거든.

101006 @ 예.

101006 #2 장사 다 동네 장사 끝나면 오닐은 누구 모셔가서 술 혼잔 억어먹자. 쫓끔 무신 거 잘헌다 뒤희다 허면 옛날 저 나무를 그 드르에서 장사 꺾나민 나무를

끊었어.

101006 @ 예.

101006 #2 독계를 만들어.

101006 @ 예.

101006 #2 요런 열십 자 해가지고 사다리 만들었지. 그 우에 올려놔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은 보통은 그런 장난덜을 하고.

101006 @ 예, 건 골마다 해갖고 허는 거라예?

101006 #2 골마다덜 거.

101006 @ 아까 돌ㄴ레접.

101006 #2 으.

101006 @ 돌ㄴ레?

101006 #2 돌ㄴ레접은 그거는 ㄴ레 굴 때마다 여름 봄 봄허곡 겨울허고 그거 자꾸 사용허니까.

101006 @ 예.

101006 #2 계가지고 봄나면은 이제 ㄴ레왕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잘못웬 디는 이런 디 떨어진 디 흑 해가지고 옆으로 바르고. 계난 그 저 옛날도 농사를 많이 헌 사름은 돌ㄴ레에 거기 말을, 말이나 소를 메워가지고 사람 힘으로 다 밀질 못허니까.

101006 @ 예, 예.

101006 #2 그렇게도 허는 사름이 잇고. 그렇지 았으면 또 접 보리 굴 사름끼리 동아리 해서 서로 빌어서 그 보리를 갈아가지고.

101006 @ 으음. 계난 이제 혼자 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101006 #2 같이 접행 의논헤영. 느네 보리 굴차? 우리도 굴커메 ㄴ치 동아리행 허게. 소 잇는 사름은 소 메와가지고 앞뒤에 혼 네 사름은 가져야 웨니까.

101006 @ 음.

101006 #2 그치룩헨 보리를 갈아나고.

101006 @ 예.

101006 #2 경허당 기계가 나와부니까 그것도.

101006 @ 다 엇어지고예? 그 다음에, 삼촌 아까 쓰레트 접이렌 허명예?

101006 #2 쓰레트는 그 돈을 얼마씩 돈 수입이 웨기 시작허니까. 고구마허지 유채 팔지 허면은 짹짹이 예금이라는 게 그전엔 없엇거든.

101006 @ 예, 예.

101006 #2 예금이 없었으니까 돈 쪼금 헤지니까 그게 예금이라.

101006 @ 음.

101006 #2 아이고, 저 곤란헤도 나, 나도 들키여, 나도 들켜 해가민 그디 오야가.

101006 @ 음.

101006 #2 다 누구는 얼마, 얼마 해가지고 혼 사름인 얼마 낼 거를 결정을 헤버

리면.

101006 @ 예.

101006 #2 그 다음은 순번은 또 이제 미리 신청해가지고 누구네 할 거여 허민 서로 허켄 허민 제비 뽑아가지고.

101006 @ 음.

101006 #2 이번달 못허민 다음달 허라 이치룩 서로덜 양보허면서.

101006 @ 으으음. 그 돈을 모은 거를 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

101006 #2 받아가지고 이제 뭐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예금도 할 수 잇었으니까 저금헌 돈을 메칠날까지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 헛당.

101006 @ 예.

101006 #2 그걸 좇앙 메칠날. 이거 예금허민 메칠날 좇겠다 허는 예금을 딱 해야 돼니까.

101006 @ 예, 예, 예.

101006 #2 그날 아니민 좇지 못허니까.

101006 @ 예, 맞수다.

101006 #2 이자는 적엇지만 그치룩 그 전에는 그렇게 다 활용을 헛으니까. 보통은 십이월달에 그 예금 헛당은에.

101006 @ 예.

101006 #2 십이월달에 찾아다가 헤버리면 결산도 돼고.

101006 @ 음, 게문 그 순서대로 헤갓고 오늘은 이 사람네 집 쓰레트집.

101006 #2 게난 저게 십년이나 멧 년을 가는 거라. 일년에 막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01006 @ 예, 예. 그 순번 정해 갓고.

101006 #2 순번 정허민 십이번 돼는 사람도 잇고. 보통 열두어 사람 이렇게 쓰레트집덜은 잇엇고.

101006 @ 그렇게 이제 하고예. 나중에 뭐 형제접허는 건 뭐마씨?

101006 #2 아이 형제들은 친헌 사람들이 형제 헛저 뭐헛저 허는디 요새 허민 동창회나 뭐나 마찬가지.

101006 @ 으.

101006 #2 혼 ㄹ리 갑장회가 유행이 돼기 시작허여 가지고.

101006 @ 예.

101006 #2 그 갑장들끼리 우리도 그 저 한 결혼헌 후에야.

101006 @ 으.

101006 #2 결혼헌 후에 한 스물멧 돼야. “우리 갑장회 허자.” 헤가지고 가족덜 생긴 후에.

101006 @ 예.

101006 #2 그때야 갑장회 시작해가지고 육십오 세 돼자 우리 그만허자 헤가지고.

101006 @ 아이고.

101006 #2 구경도 다니고 지금도 갑장훼허는 사름 칠십까지 허는 사름이 있어.

101006 @ 계난 오랫동안 끊임없이 허는 거라예?

101006 #2 무신 일 나면 갑장훼는 그 집에 무슨 대소사에 부주도 해야 돼고, 갑장훼는 뭐 틀림없이 거 저장햇당 돈을 다 서로 풀고 서로 계난 서로 이익이라.

101006 @ 예, 예.

101006 #2 오늘은 결혼, 올히는 누구네 딸 결혼식 헐다 허민 그디 얼마씩 내영 가야 웬다 규정이 잇으니까.

101006 @ 예, 예.

101006 #2 돌아가신 데 얼마, 결혼식에 얼마. 이제 이런 게 잇어부니까 그것도 접이지똥.

101006 @ 예, 맞습니다.

101006 #2 갑장접.

101006 @ 아, 그런 식으로 옛날은 다 이런 공동체.

101006 #2 공동체를 운영헌 거.

101007 @ 이 마을에 그 풍습예, 특별한 풍습이렌 허민 뭐가 잇인고예?

101007 #2 옛날에는 여기 풍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본향당이라는 게 잇었고.

101007 @ 예, 예.

101007 #2 본향당.

101007 @ 예.

101007 #2 정월 보름 똥면은 이제 여기 다 일반 세배를. 옛날은 세배를 허지 아녜어이.

101007 @ 예, 예.

101007 #2 정월보름 똥면은 그때는 이 저 여기 본향당에 세배 간다고 헤가지고 거기 가고.

101007 @ 음.

101007 #2 그 전에는 어디 사람이 아프든 뭐허든 다 믿을 디가 없으니까 거기를 믿은 거라. 거길 믿고. 서궁께는 뭐냐 허면 묵은열운이라는 디가.

101007 @ 예.

101007 #2 거기는, 거기도 당을 하나 있어. 거기는 무슨 당이냐 허민 저 뱀당이라고 허는 식으로 이제 말을 헤가지고 무슨. 뱀이 이쪽으로 지나가당 어디 건드린 다든가 똥 발 잘못헿 똥 쉼을 지엇다고 빌러 거기를 가는 거라.

101007 @ 예예.

101007 #2 거기 갔다 오면은 편안허다 이렇게 다 믿었고. 요기 가면은 항상 저 정월, 건 여자들이 잘 알 건데.

101007 @ 예.

101007 #2 정월달에 혼번 세배 가고 칠월달에 또 이제 마플림헌다고 헤서 가고.

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보름이나 초일월애 보름은 어떻 거기 몸이 아픈다던가 군인을 간다든가 허면은 초일월나 보름날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 당지기가 있어.

101007 @ 예.

101007 #2 거기 가면 돈 자기가 성의대로 내놓고 정성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빌고 이렇게 허는 풍속이 있고. 또 뭐 다른 풍속은 또 이제 그 옛날은 여기 미신들을 많이 믿기 때문에 어디 강 물으면은 아 그디는 조상을 잘못 써서 조상 제사를 즐바로 안 했다 허면은 와가지고 굿을 삼일, 오일 이렇게 헤가지고 집에서. 그런 걸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의료나 모든 게 다 발전했 이걸.

101007 @ 예.

101007 #2 헛기 때문에 그전엔 신을 믿은 거고. 떠 자기만이 어디 정성드리는 그런 습관덜토 뗏 군데 있어.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만이 땀 사름 물레 가가지고 정성 드리는 그런 곳도 있었고.

101007 @ 음. 그 다음에 혼인지 축제는 언제부터 현 거라마씨? 이걸?

101007 #2 이거 한 십년벳기 안 돼고. 이디 혼인지가 그렇게 뭘 안 헤가지고 이 혼인지도 뭘 삼성에서 했다 저 삼성혈에서도 혼번. 고량부 삼성혈에서도 혼번 관리 헤봤다가 또 안 땀민 서귀포시에서도 관리했다 부락에서도. 계난 우리 부락에서는 이거 그자 협조허는 거벳기 안 땀 거라.

101007 @ 예, 예.

101007 #2 요렇게 허민 허고, 여기서 잘 해주겟다고 허민 그런가 헛더니 군에선 이제 여기 이제 군수가 땀니까 그때 많이 이거 개발이 땀서.

101007 @ 음.

101007 #2 여기 동네 사름이라놓니까 거기도 지원해 주고 문화재로 땀혜근에 허자 헤가지고 헛는데. 또 글후에는 땀허게시리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관광객덜토 오고 이거 관광지 땀로 헛 허니까 육지서덜토 많이 와가지고 차가 그 혼인지 주차장에 저쪽 우에 동산에만 주차헛는데.

101007 @ 음.

101007 #2 학생이 완, 요새 완은 완전히 땀땀허게 끊어져 분 거라.

101007 @ 아아.

101007 #2 이 혼인지에는 이미지가 없어졌는데. 막 발전은 시겨났는데.

101007 @ 계난 누가 저기 행정을 마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예?

101007 #2 다 달라지는 거.

101008 @ 예. 그 다음에 이 동네 특산물엔 허민 땀가 잇인고예?

101008 #2 지금 특산물엔 현 게 무벳기 엿주. 그 전에는 쥘 처음에는 나가 말헛지만 유채가 특산물. 그 다음은 저 고구마.

101008 @ 음.

101008 #2 고구마가 쥘 문절 거여. 고구마 다음 유채. 고구마 갈아난 다음 유채

를 같았으니까. 켈 처음엔 보리로부터 시작, 보리 서숙 다음에 유채 요거 나오기 시작해서.

101008 @ 음.

101008 #2 그 다음은 콩도 여기는 많이 안 같아.

101008 @ 예.

101008 #2 콩도 적당히 자기 수용할 수 있는 장이나 담을 수 있는 거 정도로 허고, 그 토지가 없는 사람은 콩 7톤 것도 같지 아녀고.

101008 @ 예.

101008 #2 그 다음에 나쁜 과수가 이제는 대량 또 했는데 과수가 이제 현 다음엔 또 하우스 멧 사람만 허고 잇고 현재. 지금은 나이가 들어버리니까 농사 젊은 사람덜만 허니까 밭덜을 다 세 쥐버리니까 지금 다 농사짓는 사람덜이 칠십 팔십 쉰 사람덜 농사를 못 지니까. 나 역시 못 지으니까 밭 잇는 것덜 저 삭 쥐가지고.

101008 @ 예.

101008 #2 무수 가는데 삭 주민 일년 동안 반양 십오만 원, 평당 십오만 원 받으면 그걸로 살림허는 거.

101008 @ 예에, 그런 식으로 아까 삼춘, 서숙이렌 쉰 게마는 서숙을 뭘 서숙이렌 허는 거우과?.

101008 #2 조, 조를, 조허고 그 콩 잡곡. 조를 서숙이렌 허주, 서숙.

101009 @ 아 보통은. 옛날은 서숙 갈양예, 예. 이 마을 자랑거리렌 허민 뭐가 이 시코예?

101009 #2 자랑거리엔 이 무신 거. 그 전에는 온평리 미역이 좋덴 헤낫어.

101009 @ 예에.

101009 #2 충청도 깰지도 막 온평리 미역엔 허민 많이 그 알아췌고.

101009 @ 음.

101009 #2 다른 거 특별허게 자랑거리 헐 뭐는 지금 무신 없는 걸로 봐.

101009 @ 음.

101009 #2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랑헐 만헌 게 하나도 나타날 게 었으니까.

101009 @ 거기 고향부 췌죽 거기도 자랑거리고.

101009 #2 그런 거는 뭐 다 뭐허는 거고.

101009 @ 예.

101009 #2 부락에서 특별허 뭐헐 자랑헐 수 잇다는 건 없는 거 같아. 우리 지원만 받았고 이런 췌관도 요번에 이 저 여기 이 췌관을 기증헤준 이두우 선생 저 아들이 왔더라고.

101009 @ 예.

101009 #2 뭐 이십 년인가 만인가, 그 사람은 평생 처음. 어린 때 학생인 때 와 나7렌 허면서 이디 왔는데, 이거를 요번에 와가지고 삼층이 그 이두우 선생 저.

101009 @ 예.

101009 #2 주택으로 해가지고 저까지 길을 해 준 거를 우리 사무실이나 이 노인 정 그튼 거 다 비가 새봐도 어떻 건드리지 못할 건디 요번 완 그 아들이 기증해주 는 걸로 헨 기증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고칠 수도 있고.

101009 @ 아.

101009 #2 우리 돈만 가지면은 또 뭐 헨 수도 있으니까. 요번에 기증서 받고 이 십 메칠날 와가지고.

101009 @ 으음.

101009 #2 지금 이 사무실도 그 분이 이걸 헨 삼십년 전의 지어쥬. 이거 췌고 온 평리서 이거 건물이 제주도에서 췌고 좋은 건물이랏는데.

101009 @ 삼십년 전이면예.

101009 #2 이거 일본 사름덜이 설계헨 거라고 허던데.

101009 @ 아아, 계문 그 분은 제일동포니까?

101009 #2 여기서.

101009 @ 으.

101009 #2 살다가 일본 가가지고.

101009 @ 으음.

101009 #2 이침인디. 이두우 선생인데, 많이 이 온평리 저 학교도 저 뭐 해췌고 포장도 다 뭐 해췌고 이 대지 사 놓고.

101009 @ 그럼 그 아드님은 어디?

101009 #2 일본서 태어난.

101009 @ 일본에서 오신 거예? 아아.

101009 #2 의학박사고 의사. 지금도 강의허레 다닌다고 한 오십 대가 안 췌 것 같던데.

101009 @ 아아. 아까 이두?

101009 #2 두후.

101009 @ 이두후?

101009 #2 선생.

101009 @ 이두후 선생예, 이제는 마을에 기증을 한 거네예?

101009 #2 예 기증 다 헷고. 겨고 그 두후 선생이 장학회를 해가지고 여기 그 두 후장학, 학교 온평리 졸업생은.

101009 @ 예.

101009 #2 졸업생은 그 두후 장학금을 받아서 중학교를 갖고 고등학교까지 그 저 지원을 받아가지고 췌비를 내주었으니까 장학췌주.

101009 @ 예, 예, 예. 그럼 그 장학췌는 지금도?

101009 #2 아이 그거 없어졌고. 할아버지 두우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니까 글후로 부편 그러저럭 허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살았을 때까지만 허다가 유명무실 췌분 거. 제자들토 헨 삼사십 명 췌 거라.

101009 @ 예.

101009 #2 대학교까지 졸업덜 했으니까.

101010 @ 그 다음에 이 마을과 관련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이런 말씀 있어마씨?

101010 #2 그거는 덧붙일 게 뭐?

101010 @ 그런 건 엇고예. 잠깐.

2. 제보자 일생

102001 @ 삼촌 그, 태어난 거예, 어릴 때.

102001 @ 음.

102001 #1 그 낳고 이제까지 그 과정예, 살아온 과정 간단히 좀 돌아봅서.

102001 #1 아이고, 간단히 돌아질 건가.

102001 @ 웃음.

102001 #1 하도 질주게.

102001 @ 예.

102001 #1 우리 고생. 처음 난 고생만 허멍 살아오난예, 아이고, 우리 아옴 슬웨난예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부난, 우리가 구 남맨디양.

102001 @ 음.

102001 #1 구 남맨디 교통사고로 돌아가부난 큰오빠 군대 가불고, 둘째오빠가 요디 그디 마트에 그디 주인이 둘째오빠주게. 그 오빠가 열여섯 설에라양, 열여섯 설에 밑에 동생이 여섯이라예. 어머니 두 분에.

102001 @ 음.

102001 #1 계난 그 오빠가 옛날이난 보상도 하나 엇고 그런 거 뭐가 엇지 아녀우과게. 엇언 허난예 그 회사에서가 우리 오빠를 데려당 공부시켜주덴. 고등학교 다시켜주켄 허멍 헤도에, 동생덜 따문 못 가쿠덴 헨 우리 오빠가 안 간 우리 키왔수다게. 경허난 어머니는게 어떻게 거우과? 물질도 제대로 못허곡 저 고성 어른이우다. 우리 웨가가.

102001 @ 으.

102001 #1 경헌 어른인디, 죽은할망 헨 저곳디 사름 헤연에 아버지 산 땐 고생만 고생만. 거 무사 남즈덜은 죽은각시 허민 큰각시 저들루고 옛날은 경 두드려 폐고. 웃음. 경허멍 살아신디 나도예, 졸업장을 못 받았수다.

102001 @ 음.

102001 #1 계난 우리 큰오빠가 저 군인 간 뭐허난 부산 살 때난 부산 각시 살멍날 오랜 허영 부산서 초등학교 헛주. 경헤연 오 학년7장헨에 이디 들어왔수다게.

102001 @ 음.

102001 #1 들어완에 이디 완에 들어가민 일년만 육학년 허민 졸업장 받을 건디.

102001 @ 음.

102001 #1 졸업장도 엇인 사름이우다. 완전 배우지 못헛수다. 웃음. 경헌 사름인디. 게난 우리 아옴 설에 아버지 돌아가서부난에, 열두 설 때 놈의 검질메레 가곡. 조팍디영 산디밧디영. 요만이헌 때부터양 진짜로 고생만 허멍 살앗수다.

102001 @ 음.

102001 #1 밧디 간 검질 멜 댐 줄어불민양, 우리 어머니 글개기 등따리 탁 두드려. 졸암텐. 경허민 막 울명양 조로운디 울명 검질메곡 경허멍 커왔수다. 게난 물질은게 열 설 열흔 설 뉘난에 바당에 바당 즈꺃트디난 느려 간 늦깨통에 강 휘는 거 뱀곡양, 으, 물 아래 들어가렌 허영 재미로 들어강 오래 춤으민 “아이고 느 막 숨 질다, 숨 질다 허멍, 야인, 물질 잘 허켜, 잘 허켜” 경허멍 고생 고생허멍 살안에 열다섯 넘어가난 기자 놈의 밧디 일허레 가곡 뉘허곡 허멍양 고생은 말도 못허게 살앗수다게.

102001 @ 음.

102001 #1 경허연 살안 다 컨에, 열으담 나난에 충청도 육지 물질허레 가게 뉘연 물질허레 가신디. 열, 저 충청도 가면은 안민돈디 즈숫베가 열으섯 척 잇어예. 열으섯 척 헤넛베가 이신디 그 중에서 나가 열여덱 술에 간에 팔 등을 힌 거라양.

102001 @ 음.

102001 #1 팔 등을 허난, 놈은 딴 사름덜은 전북 가고 이녁 잡는 거 이녁 엷어근 앵에 하나 엷어도 난 세 개 엷어야 뉘여. 흐루. 겐디 어린 때난 건지 그렇게 점복이고 뉘고 어디 가도 기자 일등만 헤집디게게. 게난 이젠 처음 갈 때는 전주가 열으덱 설에 뉘허레 감시닌 체크 거놓렌 해난 애기 들레 가는 걸로 헤여근에 그뉘 막 저 경비선 나와근에게 즈수덜 단독허여서양. 허가증 잇냐 없냐 그거. 게민 그 경비선 와가민 감빵 안네 옴막 들어가베예.

102001 @ 음.

102001 #1 곱아살 거난. 들어가불멍 헨 다 검사허영 가불민 나왕은에 물질허곡 허멍헨. 경허멍 헨디 충청도 칠년을 댕겅수다양. 쳇 헤에 간 경 허난 오지 말렌 헛단에 올 딴 뉘난 전주가 막 광목 혼 통씩 무신 것덜 막 헤영 주멍 내년부떠랑 해너 모집헨 댕기라, 댕기라 허멍 헨 해너 모집헨에 칠 년을 가와신디, 오년 차 간 때에, 육 년차 간 때에, 오년 차 간 때에 해너 이딧 아이 돌아가신디 아 물에 들엇단에 오꼳 사, 저 심장마비로 죽어분 거 아니우과?

102001 @ 으음.

102001 #1 게연 가일 죽어부난 이녁이 들양 가노난에 어떻헨 겨우과? 그걸 건져사 뉘 거난양, 아이고, 건지젠 허난에 물 아래 들어 강 슬피젠 헤도양 탁탁 숨 끊어 지멍 못헛디다게. 경헨 제우, 우리 씨누이가 족은씨누이가 나가 영 앳안 돌 우의 앳양 “그레나 보라. 아이고, 제게 나와사 살릴 걸” 허멍 허난. 가이가 영 들어갓단 “아이고, 이디 잇수덴.” 영영 허멍 나와가난. “놀래게 말라, 놀래게 말라.” 저 기관장이 사공이 이물사공이 우리 씨누이 서방이라신디.

102001 @ 음.

102001 #1 영 보결량양 물 우의 나와도 안 보여십디게.

102001 @2 음.

102001 #1 난 글로 왓다갓다해도. 그때는 속곳 입곡 흰수건 쓸 땐디, 수건이 이 정도로 물우의 나와십디게. 게난 그 죽은 아이가 심장마비니까 어쩔 수 없던 병원에 가난. 영 손 영헨에 영 앓아십디게. 게난 우리 씨누이 서방은 간 즌둥이 폭 안 으난 난 또 다리 양착 들런 올려난 거꾸로 병원에 갑서. 막 살아나카부덴 막 홀트명 간 거 아니? 경 홀트명 가도 병원에 올라간 허난에양, 심장마비난 못 고칩네덴. 못 살릅니다. 물론뵈디서 해도 심장마비 죽어뵈니덴 그치록 허명 막 얼떡언양.

102001 @ 음.

102001 #1 병원. 그디 허난양, 처녀 죽으건 몰르래 데껴볼주, 베에 시경 땡겸젠양 막 그치록 곳디 들어오지도 못허게, 베. 게난 바당에서만 수속 뵈나 뭐 헌다 막 지서여 어디여 뭐 안 땡긴디 잇수가? 조스 받으래. 경허명 허단보난에 닷 쉼 걸린 거라. 게 바당에서만 닷 쉼 살안에 일로 베 빌언 일로 시꺼 왓주. 온평리로. 올로 시꺼 오난 오늘 그치록 막 쉼엇수다. 새에 완 온평리 즌녀 어른덜 곳디 나간 헨에 들어오지 못헌덴 막 이치록 해연.

102001 #1 양 그거 헨 이제 시꺼 거. 아이고, 그것도 그 땐 베에서가 광목 옥양목 흥 통 헤다퀘 죽은 사름 옷 다 만들안. 베에서 호상 다 만들안. 이제 그거 다 베 임제덜이 다 매장허고 문딱 해연. 관을 와사 갈 건디 어떻 허린 나가 산천 꼭데기에 속곳 브랑에 물옷 브랑에. 경해연 올라간에 막 그디 허난양, 그디 사름도 즌음이 좋은 사름이 잇언에예, 자기네 문짜을 떼연 줍디다게.

102001 @ 음.

102001 #1 문짜을 떼연 주멍. 이걸로 저 관 짜근앵에 헨 가렌. 여기서는 오십이 낫던 칠십이 낫던 총각이든 처녀가 뵈면은 그냥 들이쳐분덴마썸게.

102001 @2 아 그냥.

102001 #1 뭐허래 시경 땡기명 고생헨시넨 허명 경헨 그거 허연 오란에 그 가이 친정은 폐선인디. 게 성산으로 이디 베 못 들어선 성산포로 가난에 글로 다 와선게. 경헨 물으래 그디갓장 가난에 그 사름 막 싱싱헌 집안이란게. 다 헤싼 뵈디다. 나가 영정 헛수덴. 땡지론 못허고 저 광목으로 영허연 허고. 나가 빼얌을 때린 거라양, 그 물 우의 건지명 가이를. 나가 그걸 마음에 걸려집디다게.

102001 @ 음.

102001 #1 죽은 사름 우의 매질헌다고 나가 무사 경헤져신고 해연 걸려전게양. 그 말 아녕은 안 쉼 거난 장지에 가난 그디 막 하르방이영 할망이영 짝허게 봉분 옆에 앓안에게 어떻 헨 걸 곱으렌 허난 이젠 곱아십주. 나가 쉼 진 거는 빼얌을 때렸수덴. 빼얌을 이거 온 디가 어디라렌 누굴 애뵈이젠 허명 이 따위 짓 허명 귀뵈뵈 베길 딱렸수덴 허난. 할머니 흥 분이 앓앗당 “아이고, 어떠난 어린 사름이 경 그런 생각을 나넨양.” 경 헤야 뵈덴 헛디다게.

102001 @2 예, 맞수다. 정 떨어져야 된다고 정 떨어지게.

102001 #1 난 그거 저것도 몰르고 어린 때난 무시거 알아게. 어땡허난 생각이 나닌. 아이고 건 욱허는 게 아니고 잘 헛저, 잘 헛저 허멍 켤당 할망덜이 헤 쥐. 경허멍 허멍 물어난에 경 유월 열흐루 날인디 원 잊어불지도 안 허주. 우리 가이 베 시경 탕길 땀 그냥 같이 닳수게.

102001 @ 으, 그래 경뵈지예?

102001 #1 베짱에 시끄난게 밥 먹을 땀 그디 영 그디 강 앓앙 밥 먹으멍, “야, 그만 장 밥 먹으라.” 경 곤곡. 기자 산 걸로 허렌 허영 양. “야, 밥 먹으라.” 그축헤 영 허고 그디 혼디 이디 영 가이 놔뵈 혼디 벵짱이 닳 새 동안 닳 헛어. 경허연 고생은양 말도 말도 못허고 헤신디 물질을 잘 헤여놓난양, 이 집의도 물질 잘 허난 씨집갓수다, 나.

102001 @ 음.

102001 #1 이디도 웬간헌 집안이우다게. 사름덜이 다 노랩니께. “느 그집의 강 못 산다. 못 산다.”

102001 @ 웃음.

102001 #1 경헤연, 경허멍 현 집안인디, 옛날엔 물질 잘 허민 물질 잘 현 사름만 헤여놔수게. 듬북, 고지기 즈물고 메역허고예.

102001 @2 메역허곡.

102001 #1 예. 경허난 그 맛으로. 막 좋은 디서 막 연애허는 중 몰르난 총각은 혼번에 증진을 오게 뵈난 다섯 사름이 완 앓으난 어땡 겨우과? 우리 삼방에 딱 완 앓으난, 우리 언니는 “야, 선생, 선생신디 가라.” 또 어느 사름은 “어디 가라.” 아이고, 이디 연애 헤놓난 이젠 만약에 그걸 알아놓민 보통 집안이 아니라노난 나는 완 전 매장시켜 요만이 현 거면은 이만이 헛젠 헐.

102001 @ 경허지예?

102001 #1 사람이라 놓난 그게 딱 생각난. ‘아, 이거 나 진짜 사름 안 뵈다.’ 난 땀 디 가벵은, 안 뵈다 헐에 이 집의 씨집을 온 겨우다. 웃음. 아이고, 경헐 씨집완 씨어멍네영게 일년, 딱 일년 살앗주. 나가 세 번차 막둥인디. 큰메누리 셋메누리 원 씨집가민 그자 뵈헤나신디. 군인 가부난에 딱 일년. 선들 초이틀날 씨집가신디 정월 스무나을날 제대행 읍디다게. 제대헐 읍** 씨집간 후제 물질 간에 씨집간 후제 물질 혼 해 간에 벌언 완에. 그때 돈 삼만 원 막 커양.

102001 @ 음.

102001 #1 삼만 원 앓안 완 씨아부지안티 드러집주. 드리난에 나 쓰단 보난 요거 뿐이우다 허연 드리난에 “아이고, 착허다 이거 하영 헐다 고생허멍.” 헐에. 초가집 하나가 그 우리 씨집의 바로 옆집이 집이 하나 나옵디다. 저 무시 겨냐 뵈하단에 이장질 허단에 폴아먹은 집. 담보 췌힌 집.

102001 @ 으음.

102001 #1 계난 그 아버지가 그거 이거 계약금 걸어근에 요 집을 사, 사근에 이

디 저 츠츠 벌명 우리도 보태곡 허영 물어지난에 경허연 허렌. 이제 제대행 올 때도 돼여가곡 딱로 살아살 거난 경 허렌 해연. 경허연 그 집을 산 거라양. 그 삼만 원 벌어온 걸로 계약금 걸언.

102001 @ 음.

102001 #1 경허연 그디 제대헨 오난에 또 원래 또 남즈가 막 저 족은아들이고 현디 마음이 약허여.

102001 @ 음.

102001 #1 즌셈으로 마음 막 약힙니다게. 지금 상황에는 나가 완전 대장이주. 웃음.

102001 @ 웃음.

102001 #1 젊은 뎨 말도 못 헤보고. 웃음. 경허명 헨 살아완에양 고생사, 아 게난 막 펜안히 살 때 돼니까 아방이 뵙 들기 시작한 거라예.

102001 @ 음.

102001 #1 으, 겐 위암으로부터 시작헤연에 잘못웨연 두 번 허는 통에 죽넨만 막 병원에서 서울서. 막 그디 환자덜 다 사름마다, “아이고, 저 사름은, 아이고 저 사름 죽헌 사름 안 돼갓어, 안 돼갓어.” 하르방덜토 다 경허고. 막 죽넨 헨에 얼마 안 산 덴 헨에, 이디서 올라오렌. 나만 우리 아덜덜 둘 잇어도 어리곡 허난에 뭐 못헌덴 올라오렌 연락허연. 표 비행기 표 행 낫단에 전화만 가민 다 허여낫수다.

102001 @ 음.

102001 #1 경헌 사름. 저 사름 경허명 창지 잘못 돼여부난 족은창지 큰 자로 혼자 끊어벧수게. 썩언.

102001 @ 음.

102001 #1 잘못 웨연.

102001 @ 게난 명은 다 잇인 거라. 경허난 이제까지 사는 거 아니예?

102001 #1 겐디 사름마다 곤주. 나보고, 느가 멩을 자꾸 잇어주난.

102001 @2 으음.

102001 #1 멩을 자꾸 잇어주난 살앗저게, 살앗저게. 막 경험디다.

102002 @ 알앗수다. 게문 삼춘네 그 부모님은 어떤 일 헤난 거라마씨? 여기서.

102002 #1 우리 어머니네?

102002 @ 음.

102002 #1 이디서 뭐 농사허여십주.

102002 @2 친정.

102002 #1 예, 농사주 무시 거 힙니까. 옛날이나 감저 허곡 보리 갈곡 헨 살앗주게 무시거 헤엿수가게? 돈 안 주난에. 감저도 농민 누게 돈 줏수가?

102002 @2 먹을 걸로.

102002 #1 예, 먹을 걸로.

102002 @ 음, 거난 농사 지으멍.

102002 #1 으, 농사 지으멍.

102002 @ 음.

102002 #1 그 옛날 보릿고개 그런 때 보리 다 썩어붙고 다 그뎨 먹을 것덜 엇이 난에 감저, 고구마. 거 거구텡이 팡은에 막 크게 놀엇당 그걸로 살앗수게게.

102002 @ 음.

102002 #1 감저 쨍 먹으멍.

102002 @ 예, 그건 이제 이땅 나중에 허고.

102002 @ 어.

102003 @ 어머니 고향은 어디라마씨?

102003 #1 고성, 고성.

102003 @ 고성?

102003 #1 으.

102003 @ 어머니는 고성서 여기 씨집은 거예?

102003 #1 음.

102004 @ 어릴 때 우리 놀레 하영 다녔잖아양. 삼춘은 일도 하영 헛주마는 어릴 때는 어떤 놀이허멍 놀아마씨? 어떤 놀이허멍?

102004 #1 아아.

102004 @ 노는 거?

102004 #1 그뎨 누게 땀감 허레 계속 땀감허레 드르 나가난에 낭허레양. 나가민 게 막 어릴 때난에 재미로 낭 혼 짐이민 멧 짐 행 올 건디 그디 강 버덕 좋은 디 강 막 가이생도 허고 고무줄도 허고 경 허멍 놀다근엥에 혼 짐 행 오편 허멍 살앗주.

102004 @ 고무줄이영 가이셴이영.

102004 #1 으으.

102004 @ 응, 그거 말고 노는 건 어떤 거?

102004 #1 멧 설 정도예?

102004 @ 그냥 혼 열 설 이럴 때?

102004 #1 계난 그때도 기자 그거주게. 노는 거엔 현 건 공기허곡이, 공기허곡 가이생허고 가이생허곡 고무줄허곡.

102004 @ 음.

102004 #1 숨바꼭질허고.

102004 @ 으, 숨바꼭질은 여기서 뤼렌 굴아났수가? 옛날.

102004 #1 곱을레기.

102004 @ 곱을레기?

102004 #1 으, 곱을네기허곡.

102004 @ 으. 그치룩허멍.

102004 #1 경허멍 컷주.

102005 @ 삼춘 여기 일제시대 때 공출혜난 것도 기억해점수가?

102005 #1 우리 어릴 때주, 그건.
102005 @ 음.
102005 #1 공출혜난 건.
102005 @ 어머니네라도 이렇게 공출 어떻허난 막 힘들엇저 허는 이런 말?
102005 #1 예, 공출게 곡석 그런 거 허민게 얼마 멧 할 갖당 바찌는 거.
102005 @ 음, 삼춘네는 안 헤보고?
102005 #1 무사게. 우리 어머니네사 헛주게.
102005 @ 으.
102005 #1 우리 부모덜사 헛주마는 우린 안 헛주게 우리 어리난에. 어린 때난에.
102005 @ 예, 공출 때문에 굶어보거나 이런 건.
102005 #1 공출 때문에 굶어보진 아녜주. 감저 농난에 고구마로들 먹으난.
102005 @ 음.
102005 #1 고구가 먹고게 무신 거 야채 그런 거 녹물 그런 건 아녀난. 옛날 징귀
만 행 먹지 아녜수가? 징귀.
102005 @ 예, 징귀.
102005 #1 고춧ㄹ르도 안 놓고 베추 쫄물에 등갓당 그거 헨 징귀.
102005 @ 응.
102005 #1 징귀엔 허주 그거게.
102005 @ 예, 예.
102005 #1 경허곡 드르 달래엔 허주. 요새는 옛날은 마늘 드룻마늘.
102005 @ 음.
102005 #1 마늘 캐여당근에 그거 지시 담으민 그거 새금새금 맛있주. 그 달래가.
102005 @ 예.
102005 #1 그거 반찬엔 현 거 그치룩 행 떡곡게. 툄 해다근엔 삶아근에 툄밥 행
떡곡.
102005 @ 으음.
102005 #1 감저밥 행 먹고 그거랏수게게.
102005 @ 삼춘네도 툄밥도 행 먹엇구나.
102005 #1 못 잇지예.
102005 @ 예.
102005 #1 못 알지예?
102005 @ 예.
102005 #1 그거 삶으민 그렇게 맛 좋아. 페 놔근에.
102005 @ 페 낳은에?
102005 #1 그거 허영 우리 옆집의 할망 그거 행은에 저 막 폴레 텡기곡.
102005 @ 아.
102005 #1 그거 경 맛 좋아. 보리, 보릿ㄹ르 막 영긴 거 등개ㄹ르 놔근에 그 국

물에 몰아근에 행 먹으면 아이고, 이젠 몰라 벨미로나 주민 먹으카?

102005 @ 웃음.

102005 @2 못 먹을 거우다.

102006 @ 사삼사건으로 뭐 피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엇어마씨?

102006 #1 우린 엇고, 우리 저 셋아버진 아덜넌 다 돌아가섯주. 그 사건 때.

102006 @ 음, 어떤 식으로행 돌아가섯덴 헛디가?

102006 #1 심어단.

102006 @ 음.

102006 #1 심어단에, 그때 이디 우리 이 온평리 부락에 세 사람.

102006 @ 음.

102006 #1 혼 사름은 저 우연에서 밧 갈암시난 쉼 허연양, 농사 허젠 밧 갈암시난에 “어명이 아이고 막 절로 잡으레 왓젠 헤라.”허난 쉼 뱃겨뿤, 멩에영 뱃겨뿤이라도 곱아시민 헐 건디 밧 갈단 내버뿤 몸뿤이만 굴묵에 간 곱으난, 옛날 굴묵 살를 때난. 굴묵에 문지락 데며놓은 디 구석에 강 곱으난에게.

102006 @ 으음.

102006 #1 쉼 멩에 썩운양 잇이난 멀리 안 간 절로 알안 심영 간에 죽여뱃주게. 건 다 저 터진목에서 죽엇주.

102006 @ 음, 터진목에서?

102006 @2 으.

102006 @ 계난 온평리에선 세 멩?

102006 #1 으, 우리 오빠도 우리 셋아버지 아들 저 큰아덜이라신디 그디 간 총쏘안 죽여부난 피 잘잘 나는 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겹절에 이끄장 업영 완.

102006 @ 으음.

102006 #1 업연완 보난에 막 온몸이 우리 어머니 옷이 다 절아벤 헨에 저디 완에 메에완 문연.

102006 @ 음.

102006 #1 우린 또 그 폭도 드는 해는.

102006 @ 음.

102006 #1 폭도. 폭도 드는 해는 입초 산에 이디 만리성 이제 다 헐어져부난 헌디 거기 상은에 아홉 시 전달, 열 시 전달허멍 연락허멍 헐 때는 “폭도 내려 왓썩” 허면은 우린 바당에 간 살앗수게. 밤이. 바당에 강 동산 엠에 엉덕 신디 그디 강은에게 곱앙.

102006 @ 게른 여기 그 성을 만리성이렌 헤낫수가? 여기.

102006 #1 음.

102006 @ 옛날부터?

102006 #1 으.

102006 @ 요즘 환해장성 허는 거예?

102006 #1 예.

102006 @ 아아.

102006 #1 그걸 쪽허게 바당에 쪽허게 잇엇주게. 신양리 ㄱ음ㄱ장 우리 신산리 ㄱ음으로. 겐디 거 이젠 다 허물어져벧수게.

102006 @ 으음. 걸 만리, 옛날은 만리성?

102006 #1 음, 겐디 그 저 전달행 입초 상 연락 받는 디는 연디므르엔 행양 계난 연뒷동산엔 허주. 그 동산은 잇어, 지금도.

102006 @ 음.

102006 #1 돌백으로 쌓은 거. 그 동산은 기자 잇수다. 읍에서 와근엔에 영 풀 비고 뭐 험실 거라.

102006 @ 저 우에?

102006 #1 아니 저쪽에?

102006 @ 으, 그 연뒷동산 이름이?

102006 #1 예, 연뒷동산, 연뒷동산.

102006 @2 우리 지난번에 갓던 덴가?

102006 @ 예, 예.

102006 #1 아, 가납디가?

102006 @ 예.

102006 #1 소남땃디.

102006 @ 예, 소남땃디.

102006 # 1 그 동산은 잇주. 그 시국에 해난 거.

102006 @ 계난 그 시국 때 삼춘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현 거라마씨 아까 아읍 시 전달허멍 헷는데.

102006 #1 게 아까 나 안 굴읍디가? 감저로만 먹언 살앗주기. 계난 그 고구마만 먹으니까 배가 막 아파양, 막 저 휘충도 생기고예. 아이고 경허영 고생헷주. 베 아팍 감저만 먹으니까. 휘충도 생기곡예. 경 막 대변 보민 게우리 막 나오곡.

102006 @ 으음.

102006 #1 지렁이가 준준헌 것도 아니 막 이만씩 훑은 거. 게우리.

102007 @ 게우리가. 소굽에서.

102007 @ 소굽에서. 삼춘은 아까 결혼은 연애 결혼?

102007 #1 으.

102007 @ 연애헷던 애기 쫘 헤뵈서?

102007 #1 웃음.

102007 @ 어떻헤연 만남은예. 결혼?

102007 #1 아니 계난 우리가 계난 졸업을 못허고 허니까 동네 선생님 빌언근엔에 밤에 야학을 헷주.

102007 @ 예.

102007 #1 야학소양. 판 부락에 헤신디 말아신디 몰르크다.

102007 @2 헛수다.

102007 #1 방에서덜. 야학 허는디게 그때 아옴 사람이 헛주. 처녀덜 아옴. 선생 님 혼 사름 빌어근에. 옛날 막 한문허고 무신 거 헛 노인네 빌어근에. 방에 책상 낳은에 뻥허게 영영 다 영 책상 아래 발 찢러야 여기 여라이 앓을 거 아니우과? 경혜영 발 찢러 앓이민. 이 양반이 놀렐 자꾸 가. 고등학교 웬 사람이. 겐디 판 남자덜은 가민 총각덜은 가민 좀 막 개구쟁이허고 막 저 공부허곡 허는 디 방해도 허는 디, 이 양반은 암전. 게 벨명이 암전과라수다게.

102007 @ 음.

102007 #1 총각인 때.

102007 @ 음.

102007 #1 암전허게 헤근앵에 몰르는 학생, 저 글 몰른 사름 시민 어뎡허는 거엔 가르켜주고 무시거 허곡 경허여. 갹 이젠 어떤 때 쉬험 내민, 이 사름이 쉬험질 내민 우리가 시험 뺑 갈 거 아니. 게민 잘 헛 사름안티 선물 책도 상 강 주곡 막 그 치룩허고. 경헛 허는디 어느 날 흐른, 흐루 츠낙은 화장실 가는디 아, 즘에 영 헛 나왔어. 나 간 영 나오난. 펜질 줍디다.

102007 @ 음.

102007 #1 나 뭐닌게? “거 무신 거 줍시?” 허명 허난. “이거 저 익어보렌.”

102007 @ 으.

102007 #1 “나 말덴.” 게민 이디 던져볼켄. 그 무똥에 마당에 던져내볼켄, 게민 판 사름덜 봉그민 소문날 거 아니? 던져똥 가부난 걸 안 가정 올 수가 잇수가? 안 가정?

102007 @2 웃음.

102007 #1 걸 가지민 소문날 거난에, 아 경허명 그걸 자꾸자꾸 선물도 헤왕. 옛날에 막 꽃 뵈로치.

102007 @ 으음.

102007 #1 뵈루치허곡 마후라 고운 거.

102007 @ 음.

102007 #1 그런 것도 상 왕은에 그런 거 그냥 주지 아녕 영 허민 양말 속에이 영허게 특허게.

102007 @ 끼어줘?

102007 #1 경 아녀민 꺾어줘.

102007 @ 으.

102007 #1 경 집의 강보민 그거라.

102007 @ 음.

102007 #1 게난 이젠 흘 수 엇이 이젠 오년을 계약헤서양.

102007 @ 음.

102007 #1 오년 후에는 결혼을 하자. 우리 딱 오년 허면은 저 스물셋, 스물넷 뵈 거니까 그때랑 하자 헛 거라.

102007 @ 음.

102007 #1 경헌 건디 그대로 아무도 몰르게, 방안에 앳은 친구들이 아무도 몰른 거라. 아무도 몰르곡 나도 막 장난으로 헤블주게. 그 아버지 이름이 현재친, 재육인 디.

102007 @ 으.

102007 #1 씨아버지 이름이. 게민 무신 거 헛 땀 이 ‘재육이 아덜아, 재육이 아덜아’ 허멍게 그치룩허멍 허연. 게난 아무도 눈치 못 챈 거라. 아 겐디 헛 해 두 해 삼년 넘언에 사년짜 뵈디양, 중진을 오기 시작허난예, 우리 큰언니 씨아버지도 왔지 옆에 이장님도 오지.

102007 @ 다섯?

102007 #1 예. 그치룩허고 오고양, 나가 그땀 득세기 사례, 개랄 사례 그 장스로, 개랄 장시 우리 친구 언니허고 둘리가 난산리로 어디로 개랄 사례 가민양 아이 막 총각덜이, 헛번은 난산리 간에 ‘득새기 잇수가’, ‘득새기 폽서’허난 ‘예, 잇수다, 잇수다’ 허멍 총각이 막 올레더레 따라완. “득새기 상 갑서. 상 갑서.” 아, 경행 보건 장난으로양 득새기 이녀 소나이난에 득새기.

102007 @2 음음음.(웃음)

102007 #1 아이, 그 사름이 이젠 나 봐지민 가끔 질레서 보민 나만 막 웃주.

102007 @ 으, 웃음.

102007 #1 아이고 춤. 웃음. 그치룩 헛 허멍 헤나곡. 아니, 솔직히 어디 나가민 막 스나이덜이. 경 웃음.

102007 @ 예쁘곡 허난 얼마나 헤실 거야.

102007 #1 경 헤여, 막. 경. 그치룩허멍 헛 헛디 중진애비가 다섯이 온 거 아니우과?

102007 @ 으.

102007 #1 흐루 챈번 온 땀 서이가 완 딱 앳이난 어멍헛 겨우과? 아, 쟁 이젠 그 다음은 말헛어.

102007 @ 음.

102007 #1 이만저만헛에 막 중진을 오난 부모덜이든 형제간이든 막 다 그디만 가렌 허곡 이걸 어멍하민 좋을 거넛 허난에 이젠. 속숨헤연에 기자 들언, 들음만 헤연 간 계양 아 뒷날은 보넛 거 아니우과?

102007 @ 음.

102007 #1 중진애배가 중진애빌 보내십디다게. 보내난 이젠 대답을 헤집니까게. 아이고, 경허연 이시난 또 땀 사름이 또 앳어. 아무 말도 못헛. 아, 경헤연 완 ‘아이 나 씨집 안 가쿠다. 안 가쿠다’ 경헤될에 그냥 가부난에 우리 저 오빠가, 세 번째 오빠가 허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네 ㄱ라영. 이디 막 털엇수다. 막 반대헛주. 우리 큰

오빠네난 셋오빠네나 막 반대했주. 우리 어머니도 막 반대했주. 우리 작은오빠가 어머니네안티, 계난 난 뒤에 간 문 에엄에 간 들어서양. 웃음.

102007 @ 웃음.

102007 #1 아이그 진짜. 겐 들으난에 우리 작은오빠가 허는 소리가 주컬라근앵에 인육일 쥐불주, 이제 만약에 안 주민 큰 첩피 보곡 크게 싸움덜 납니덴.

102007 @ 응.

102007 #1 경허는 거라. 셋째오빠가. 아 계난 이제 나가 흐뎡 이젠 웃음. 경혜신디 고등학교 선생 웬 사름은 아, 다 갑장이주.

102007 @ 음.

102007 #1 웬 사름은 딱 오란 나ㄴ라 쪼금 애기허겐 헨 벳갓디 나가난에 흐썩에 간 허는 소리가 이녁이 절대 이제 인육이영 싸왕은 자기가 이길 테니까 자기안티 이제.

102007 @ 와라.

102007 #1 으, 와라. 가민 가만히 선생 각시난 ㄴ만이 살 거고 육지, 육지 강 허주게. 경헨 거니까 저 아무개ㄴ라도 인육이보다는 호강스럽게 살게 헤줄 테니까 나만 승낙을 허라는 거라. 계건 나가 허는 말이 ‘이기지 못헨덴’, 그 집이 이길 사름이 누가 이시닌게. 절대 이기지 못헨덴 허난 이제 아 계도 이겨지켄. 이기지 못허난 포기허렌게. 난 연예헌 것도 아니고, 너영 연애헌 것도 아니고, 그냥 영 중진에비 보내여난 영 허는 거난에 포기헤산덴 안 웬덴 허난. 경허명 헨 그 스나이 멀렛단양, 우리 아주 멋지게 헛수다. 그 스나이는 부신랑으로 허고예, 우리 결혼헨 때.

102007 @2 으음.

102007 @ 웃음.

102007 #1 또 남자영 좋아헛단 여즌양, 남잔 좋안 아녀도 여잔 좋아헛단 여잔양 부신부로 헨에 우리 결혼헛수다.

102007 @ 으음.

102007 #1 사진 ㄴ찌 찍으난 ㄴ찌 웬 거 아니. 우리 진짜 멋지게 헛어. 그게 이젠 소문이 나분 거라. 인육이영 연애헛다. 연애허건디가 이거 사년 지나고 오년차헛다, 경. 아이고, 그뻐 우리 어머니네영 막 ‘세상에 으, 그 집의 강 너 살아질 중 아느냐, 살아질 중 아느냐?’ 허명 막 그치룩. ‘봄서게, 난 이경 삽니다. 그 집의 강. 놉덜 다 ㄴ수운 집인 난 삽니다, 난 삽니다’ 허명. 아, 솔직히 나도 흐번은 안 살젠도 헤낫수다마는양 진짜 나난 이견 살앗주게.

102007 @ 으.

102007 #1 나는 말을 딱딱 헤지고 이레저레 안혜정 그냥 끝이곧대로 난 나가주원. 아무광이라도. 진짜 곧장 나가는 때문에 흐뎡 그걸 죽이면은 귀염 받을 건디.

102007 @ 음.

102007 #1 딱딱 곶아부는 때문에 경허는 사름 누게 좋아헛니까게. 경허명 헨에 결혼헌 후젠양 씨어머니영 일년 살고 탄 메누리덜은 헤도, 막 호강 받았주. 씨집원

가난.

102007 @ 음.

102007 #1 씨집인 가난 경허난 막 굳는 걸 보난 동서덜이 막 안 좋아섭디다게.

102007 @ 음, 씨어머니랑.

102007 #1 작은메누리. 아니, 이녁에 돌리끼리.

102007 @ 아아.

102007 #1 큰동세 셋동세가. 죽은동세만 저치록 씨어멍네 씨아방 사랑만 받곡 우린 어디 저치록 흔 번 헤환시니 허멍예.

102007 @ 어어.

102007 #1 씨집간 후제도 아덜 굳인 가분 거난에양 밤의 놀레 갖다 오민 영 맞방에 살앗주. 어머니 이 방에 자곡 난 이 방에 자민, 슬째기 문 올양 들어와가민 “야, 저 죽은메누리 완다?”혜영, “예.” 허민, “그 책상 아래 감저 귀단 낫저. 그거 먹영 자라.” 우리 씨어머니가 감저 구는 건 췌고 기술자라.

102007 @ 으음.

102007 #1 카지도 아녀고 어멍도 안 허곡 췌고 기술자.

102007 @ 으.

102007 #1 손지덜 키울 때 무시거 헐 때 문딱 감저 귀당 맥연. 그치록허멍 막 호강혜연. 일년 살아도 밥 흔번 아녀판.

102007 @ 아아.

102007 #1 아예 밥을 아녀 판. 씨집의서. 아침이 자당 일어남 부억에 강 보민, 막 채주게.

102007 @ 응.

102007 #1 씨어머니가 워낙 재여놓난 밥 다 허곡 가가민 큰 옛날 췌솟디 물 데와근에 세수허렌 세멘기에 물 거려냥 “강 세수허라, 세수허라.” 세수행 들어강 보민 밥상 문 흘려냥. 난 설거지벳기 아녀. 일년 살아도.

102007 @ 으으.

102007 #1 진짜 씨집이 간에 진짜 일년동안은 호강허게 살앗수다. 경허연 살단 보난 이거 영 웬 거.

102008 @ 으으, 그때 사주는 봤지예?

102008 #1 보주게 사주사.

102008 @ 사주는 어떻 나옴디가?

102008 #1 사주는 막 좋앗주기.

102008 @ 어어.

102008 #1 젠디 저 아방 출세헌 것도 나 운으로 뵈젠 사주에는.

102008 @ 으음.

102008 #1 나 운으로 뵈젠. 아방은 뱀띠고 설들그뭉날이난에 영덕 소곱게 ㄱ만히 뱅뱅 사려정 잇일 때 아니우과게? 철로 봐도.

102008 #1 겐디 나는 말띠고 삼월 열으드레 날 태어나니까 새풀 막 돈을 때 나고 시간을 잘 택헨 나왔젠 허는 거라. 어디 혼디 가민 막 ‘당신 뭐 당신이 관록 먹을 뭐가 있어게. 마누라 잘헌 통에 마누라 덕분에 관록 먹엄주게.’ 웃음.

102009 @ 으으, 게민 그때 혼수품허고 결혼 예물 어떤 것들 헤난마씨?

102009 #1 그때 시절엔양, 막 잘 출려사 퀘 허나 허고 찬장 허나만 헨 가났수다. 이불은 기자세 개만 허고.

102009 @ 이불 세 개.

102009 #1 경허명 가나신디 나는 저 퀘 두 개허곡.

102009 @2 으.

102009 #1 찬장 하나 허고.

102009 @ 음.

102009 #1 이불이영 뭐영 놈보다는 더 출령 갓주. 왜냐 허면은 물질 잘헌덴 허는 집안에.

102009 @ 으.

102009 #1 경 벌명 다 무시거 허여시니 헐 거고 허난 밧도 허나 구백 평짜리 하나 산, 사고 처년 때.

102009 @ 음.

102009 #1 경허명 헨에 씨집가수다게.

102009 @ 그 밧도 가정 가고?

102009 #1 밧은 가정 간에 헛단 아방 조합장 날 때 폴아먹어벧주.

102009 @ 웃음.

102009 #1 그 옛날에양, 십스만 원에 샷는디 밧을.

102009 @ 음.

102009 #1 구백 평 짜리. 십스만 원에 샷는디 아방헐 때 폴젠 허난 천스백 주켤 헛디다게.

102009 @ 음.

102009 #1 게난은 아방은 말덴만 헤도 나가 아니 십스만 원짜리 천스백 주켤 허는 걸 이거 폴민 웹니다, 웹니다 막 나가 우건 그걸 폴앗수게게.

102009 @ 으음.

102009 #1 경헤연 헛단에 그 대충 또 사줍디다. 나 이름에.

102009 @ 경헤근에 그 조합장 당선 시키젠 밧 폴안?

102009 #1 으게. 그뻐 막 돈 쓸 때라부난양.

102009 @ 아.

102009 #1 아, 그뻐 무사 돈을 췌수가? 우리 상대가 저 인심으로 웨여났주.

102009 @ 음.

102009 #1 상대방이 돈 막 일본 고모가 돈 대여퀵 돈 막 한 사름이라. 한 사름인디 집의서 선거위원장덜 앗앙은앵에 내보내곡 무시거 헤신디 부락에서가 전체 청년

덜이 일어산 거라양. 이 사름은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청년덜이 싹 짜난에 허난 예, 이디 이시민양, 어느 김 서방 김씨 조름에서는 돈 가전에 지금 삼달리 갖다, 신산리 갖다, 쫓가라. 어디 갖다, 신천리 갖다 막 전화 막 오는 거 아니? 게른 청년덜이 이녁 차 가정은앵에 거 막 다올리레. 돈 주지 못허게 다올리레. 게난 흥번, 마지 막날은 널 저 선거면은 어제.

102009 @ 음.

102009 #1 오닐은 안 나뎡기주. 어제 이 저녁은 안 나 뎡겨도 어제 저녁. 차 전 부 다 나간 다올리단 보난에 저 어디냐? 성읍리 그 오름7장 쫓까간 다올리단 그 차가 막 도망가가난 조름만 쫓간 간 심언 보난 이녁쪽 사름을 경 쫓간 간.

102009 @2 웃음.

102009 #1 성읍리 간 심어보난 이녁쪽 사름을 심언. 그뎡양 멧 억, 멧 억씩 들이 멧 헛어.

102009 @ 음. 기구나.

102009 #1 돈 해당은에 진짜 돈 이렇게 해당 딱 이디 다 놔둬수로. 나 손으로 다 갈 뎡 주곡 허멍.

102009 @ 아아.

102009 #1 그뎡 집단으로 막 밤의 돈 봉투 돌릴 때 아니우과?

102009 @ 경혜연 조합장 멘들곡?

102009 #1 경헨 챗번헨 때.

102009 @2 그때가 옛날.

102009 #1 옛날만 기우과? 아이그.

102009 @ 멧 살에 조합장헨 거우과?

102009 #1 마흔 멧 슬에 헛주. 으. 어릴 때 헛주.

102009 @ 어릴 때.

102009 #1 그 전에는 협신상사, 한일소주 거기 총무과장으로 5년 근무헤연.

102009 @ 음,

102009 #1 그거 근무허기 전에 처음 성산읍 조합, 농협 생긴, 생긴, 것이 동부리 조합이엔 헨에 농협 생겼수다. 그 집을 짓으멍.

102009 @ 음.

102009 #1 짓으멍 ㄴ찌 들어간 ㄴ찌 짓언에 거기 지배인으로.

102009 @ 음.

102009 #1 농협에, 동부리조합에 지배인으로 혼 팔년 근무헤단. 그거 헨 이젠 잇 당 무시거 허게 뎡난 나완에 협신상사에서 들어오렌 하도 허난 거기 헨 혼 오년 근무헛단. 어릴 때부터 기자 직장만 뎡겨부만 살림을 안 살아봤수다.

102009 @ 아아, 밧일도 안 헤봤구나?

102009 #1 밧일도 나만 헛주. 아녀 봤수다게. 그치록허연 헤엔여 동성택시. 거 주 나오난에양, 주 나오난 이젠 부락에 헨의 담보 헨 사름이 이제 엇다. 으, 현인옥벳

끼 없다. 계란 그디 이젠 주도권을 잡현. 경혜연 들어간. 차 다섯 개 나와났수다.

102009 @ 음.

102009 #1 차 다섯 개 나오난에 거기 들어간에 거기서도 안 나올 건디 들어간에
에, 마흔일곱 대 만들안에 이 저 농협에 조합장 허젠, 그거 허기 전에 사고가 난 거
라.

102009 @ 음.

102009 #1 함덕 줌순디, 해년디 간오단에 우리 택시로 그 해녀를 사골 내와벙서.

102009 @ 으음.

102009 #1 사골 내와부난 마치 그 해녀가 또 마침 사망을 헤여벼서양. 이제는 엇
입디다. 양, 사장칩의 시체를 시경 오켄양 막 연락 온 거 아니우짱? 오늘 저녁 시경
오켄. 아니 무사 사장네 집의 시경 읍니까게. 암만 생각을 해봐도 기자 해결을 헤야
주. 아니 그 죽은 사람 시경 아정 돌아뎡긴텐, 요새민 시꺼 오켄 오난에양 진짜 겁
난에양 문 다 더꺼된예 저 우리 동세네 집의 간 난 곱아서.

102009 @ 음.

102009 #1 아방은 저 조합에서 안 들어오고.

102009 @ 음.

102009 #1 경허난 아닌게 아니고 오란양 시체사 시건사 와신디 기자 사름만 와
신디 완양 막 문 두드리명양 차 서너 개 오란 막 텅기단에 헨 가변에 엇이난에 헨
피해벙젠 허명 가변, 경헤난양 아이고, 이거 차 운, 아이고, 사장은 안 뉘켄. 경허연
그뎨 줄 풀앗주게. 풀아된예 저 조합장을 헛주게.

102010 @ 음, 그랫구나. 경허고 삼춘, 그 결혼식은 어디서 헨 거라마씨?

102010 #1 집에서, 집에서.

102010 @ 집의서? 음.

102010 #1 우리 결혼식 날이 여섯 사름이 헛어. 신랑 신부 헨 열두 사름이 헛주
우리 부락에만.

102010 @ 완전 날 좋은 날이에.

102010 #1 우리 부락에만 음력으로 선들 초이틀 날인딘 여섯 사름 헛는디 다 가
마 타고 간 헨 가도 우린 신식으로 헨다고. 저 돛궤 시끄는 설텍스 잇지 아녀우
과? 옛날.

102010 @2 예.

102010 #1 땀뿌찬가 무신 돛궤 시경 텅기는. 그 차 빌언에 멘사포 쓰고 헤연에
경헨에 신식으로 헛주.

102010 @ 멘사포.

102010 #1 멘사포 처음으로 난. 성산 미용사 그 강 이름이 강영란인디 그 사름이
미용산디 처음으로 그 멘사포궤장 출련에 나가 마수헛주. 그 면사포를.

102010 @ 으음.

102010 #1 경혜연 허고 또 반지도, 예물 반지도 아방이 군인서양, 그 월급 얼마

씩 준텐 합니다. 저 군대 가도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만 3르치당 제대했수게게.

102010 @2 음.

102010 #1 경허난에 그디서 그 주는 돈 모연에양 반지 다 헨 와십데게. 경헨에 나가 금반지 받으멍.

102010 @ 으음. 쟁 그 예물로 헨 금반지 받안?

102010 #1 으.

102010 @2 계난 선택은 잘 해신 거네마씨. 예, 선택을 잘 하신 거.

102010 #1 예게, 거는 잘헨 거주. 하도 집안이 막 와헌 집안이라부난 거주.

102010 @ 너무 와 해부니까 비교돼부니까 안 헨 거 아니?

102010 #1 나는 수줍고 뭐허게 살아나난 그 집의 강 쫄렁 못산덴.

102010 @ 음.

102010 #1 사름마다 쫄렁 “아이고, 그 집의 강 못 산다. 못 산다.” 또 놈덜이 뒤에서 막 곁을 때 나가 경헨주. ‘영헌 집의 강 나가 살아야 그게 제라헌 거다. 요 집의 사름덜토 사름 돼고.’

102010 @ 음.

102010 #1 그 생각을 듭니다.

102010 @ 우리 집도 사름돼고.

102010 #1 으. 요런 디 강 이경 살아야 이게 진실헨 거 닻다. 경 생각헨에양.

102010 @ 삼춘이 어렸을 때부터 막 으망젓구나.

102010 #1 으망진 덴 말은 그자 들어서. 배우지 못헤부난 거주.

102010 @ (웃음) 겐, 결혼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라 게른?

102010 #1 집의서. 마당에서.

102010 @2 팍 허는 거로예?

102010 #1 마당에서 영 거세기 행은에.

102010 @ 병풍 행은에.

102010 #1 으.

102010 @ 결혼사진은 잇어마씨?

102010 #1 결혼사진은 앨범에 다 잇인디 저기 무신거 혼인지 헨 때 그런에 부쩌난 거만 잇주.

102010 @ 으.

102010 #1 앨범 앓아내사.

102010 @ 나중에 앨범도 보게마씨?

102010 #1 이거 저 그 무시걸로 부쩌난 거. 혼인지 헨 때.

102010 @ 아아.

102010 #1 이거 결혼사진은 그거.

102010 @ 잘 쟁겨나신게. 알아수다.

102010 #1 장계갈 때 줄언에 막 곁어난.

102010 @ 그래도 완전.
102010 #1 사름덜은 잘 생겼주.
102010 @1 알앗수다. 나중에 앨범일랑 보고.
102010 @2 앨범 잇수가?
102010 #1 예.
102010 @2 언제 보여줍서예?
102010 #1 ㄱ만 서봐.
102010 @2 혼인지에서.
102010 @ 거기에서 뭐 헤난거. 축제힐 때 이거를 밑에 바탕화면으로 해서. ** 아
이고, 삼춘, 나중에 좇입서.
102010 #1 으, **
102010 @2 웃음.
102010 #1 앨범도 무신 흥나 두 개든 허주만은.
102011 @ 계난, 계영은에 그치룩행 이제 결혼허고. 아까 신혼살림은 어디서 헌
거? 잘 앓입서.
102011 #1 그 집. 그디. 그 초가집 산디서게.
102011 @ 신혼살림부떠?
102011 #1 일년 잇당 오난에게.
102011 @ 으. 일년.
102011 #1 제대 헨 오난. 처음 제대 딱 헨 오난에. 오기 날짜 아난에 나보고 그
디 어머니네가 가렌 허영. 거기 간 메칠 잣주, 나만.
102011 @ 음.
102011 #1 경혜신디 제대헨 딱 오난 어멍네 집의 들어간 거 아니. 아덜이.
102011 @ 음.
102011 #1 안 가켄, 이디 안 가켄. 누게가 따로 살렌 헨 그디 집 상 가시닌. 안
오켄 막. 아이고, 저 놈의 새끼? 아니 아니 안 가켄. 따로 안 살켄만 험시네?” 허멍.
“내뽀서, 나만 살주.” 경허멍 허난 아니 와져게 오주.(웃음)
102011 @ 계난 그 제대행 올 때 반지혜 준 거 아니면? 결혼힐 때.
102011 #1 아니 결혼힐 때.
102011 @ 아, 결혼힐 때 반지 혜 준 거?
102011 #1 군인 간 제대** 도새기 잡는 날 오후에야 와부난 새스방이 올 거냐
말 거냐 막 난리나났주.
102011 @ 으음. 계영 제대혜영 오멍은에 결혼헌 거구나?
102011 #1 아니주게 휴가.
102011 @ 아, 휴가로 결혼헌 거? 휴가 행 왕은에.
102011 #1 메칠 안 쥐부난 계난 결혼헨에 하루 살안 갓주.
102011 @ 으, 흐룻 만에 가분 거예? 씨어머니랑 산 거? 삼춘은.

102011 #1 으.

102012 @ 게른 아이들은 뱃마씨?

102012 #1 우리?

102012 @ 예.

102012 #1 삼 남매.

102012 @ 삼 남매.

102012 #1 아들 둘 딸 하나.

102013 @ 혹시 씨집살이도 험디가?

102013 #1 씨집살인 안 해 봤주게 막 게. 일 년을 씨어머니네영 혼 집의 살았는디 그렇게 사랑 받았주게. 밥 혼 땀 안 해 보고. 일년동안.

102013 @ 욱 들어보거나 이런 것도 아녀보고?

102013 #1 아니 그런 것도 엇주게.

102013 @2 밥 한 번도 안 해뵈디가? 설거지도 안 허고.

102013 #1 예, 일년 동안 밥 혼 번 안 해뵈.

102013 @ 결혼 현 다음에도 뭘 씨어머니영 뭘 고부갈등 인런 건 엇엇고?

102013 #1 씨어머니영 그런 것 엇엇고.

102013 @ 음.

102013 #1 씨어머니영 그런 거 엇엇는데 욱지 갈 때 작은씨누이 혼나 같이 들앙갓주.

102013 @ 음.

102013 #1 같이 들앙갓는데 그땐 충청도 등대섬이엔 현디 가민 저 미역덜을 다 가정 가났수다. 강 풀아도 미역값은 여기서 얼마 안 주난 가정간 풀아근에 쓰주게. 계난 우리 씨누이 신랑이 이물사공으로 가곡. 요 동네 또 우리 친척 어른이 베에 선장, 기관장으로 가고 영혜연 가정 가신디 딱 혼 사름이 덜도 더도 말앙 딱 스무 근씩 가져간 거라예. 해너가 그때 열두 사람이라났수다게. 그 바당 가운데 등대 섬에 간, 섬에, 등대지기 허는 아저씨가 군산을 잘 다니난.

102013 @ 으.

102013 #1 그 우리 저 이물사공 어른이 그 군산 텡기는 아저씨안티 미역을 팔아다 달렌 헛어.

102013 @ 응.

102013 #1 군산 가근에. 그 사름을 준 거라양. 주난 이 아저씨는 그걸 가정 간에 술집의 간 술 먹고 뭘허단 보난 돈을 오뿔 다 씨 분 거라.

102013 @ 음.

102013 #1 씨부난에 집의도 돌아오질 안 현 거라양. 우리는 멩질 때 뉘가난 우린 와야 뉘 거고. 제주 와야 뉘 거고 그 아저씨는 안 오고. 계난 그 할머니가, 거기 부인이 가시민 이제 오민 돈 해근엔에 부짚 거난 경허렌 현에 경혜연 들어온 거 아니 우과? 들어오난 무신 돈을 부짚줍니까? 뉘헛니까게. 계연 이젠 무주건 사공이 책임

전 현 거난 기자 우리 씨누이 서방이 책임전 현 거난 그디서 돈 와도 그 어른이 알
양 해결해 줄 테주 허연. 계영 느닷없이 흐루는 그 씨누이네 집의서 보리밭 허레
dot결름 놓레 간 오란 저녁 먹는다 우리 죽은씨누이가 막 아이가 지금 저 칠십 다
웨여가도 원 분실 몰릅니다게.

102013 @ 으음.

102013 #1 죽은딸로 난양 막 어멍이고 아방이고 오빠덜이고 막 기자 허는냥 내
병 키와난안 아무 것도 몰라. 지금도 제사 때 오민. 자기 먹고 싶은 거만 마음에 든
확확 먹어병은에 늬이랑 먹거니 말거니 원 그치록 분시 몰릅니다게. 경현 아이라.
경현 아이가, 들어완에 나보고 “언니, 메역깎 나 거 좇앙 췌덴 헨게 메역깎을 드렌’.
계연 나가 기가 맥힐 거 아니. 나 메역 깎도 있고 우리 아시 것덜토 있고 느 결, 느
만 또 메역깎을 주느니? 아니엔 허난에 ‘기엔 골안게’, ‘기엔 골안게’ 막 그치록 허
여게. 으 춤 이럴 리가 있나? 계난 우리 씨아버지가 저 그 죽은딸 떼리젠 몽뎡일
들러아전에 집 저곳디난 딸레 집. 들러아정 오는 거를 난 나, 에, 어리믄 어렸주.

102013 @ 웃음.

102013 #1 ‘이 놈의 새끼 어디 가시넨 허멍 딸안티 헤영 들어노는 거를 나 딱리
카부덴 정제 안튀 무똥디레 돌아나서양. 경현 보난 그 죽은딸 집의서 양양 허단 오
난에 나안티 왕 뉘엔 허카부덴 쫓까온 걸게. 경헤영 헤연 현 것이 다 헨 난에 집의
가당 보결랑은에 우리 씨어머니가 우리 큰씨아지방이영 막 저 흐 사람 뉘허민 펜백
허레 막 그런 거 있주게. 경허난 막 별때 집안이엔 허주게. “에에, 저 거세기 좇안
쓰난에 씨부난에’ 어머니허는 소리가.

102013 @ 으음.

102013 #1 큰아덜ㄴ라. ‘좇안 씨부난에 저 누게 골으난 저영 햄시네, 드렌 햄시
네.’ 딱 영허는 거라. 올레 탁 가난 경허는 거라. 난 넘어가야 웰 건디. 딱 들어갓주
기. 들어간에 말 잘 햄수다게. 난 씨어멍이고 뉘 씨아지방이고양 아년 거는양 막 원
원. 그치록헨. ‘아니, 무사 나 것도 있고 우리 아시덜 것도 있고 놈도 다 잇인디 무
사 가이 것만 메역깎을 또 줍니깁. 그건 또 어뎡헌 소리우젠. 이치룩은 허지 맘셴.’
‘영허니까.’ 나가 그뎡 골았어. 영허니까 느 그 집의 씨집강 못 산다 이 말을 내가
골아베서양. 사람마다 그 집의 강 못 산다 못 산다 헤도 나가 이 집이 왕 살아야
이 어른덜토 사람뉘로구나 현 맛음을 먹언 씨집을 와신디 바로 요겨우게.

102013 @ 음.

102013 #1 바로 요 식이우젠. 이젠 알앗수덴. 경허연 이젠 그게 이젠 그대로 그
씨누이광은 뉘 헨 거 아니? 그 씨누이가 처음 씨집간에 저치록 무시거 현 것만 허
난에 씨어멍도 곳어라 허꼭 뉘허꼭 허난 안 살아서양.

102013 @ 으.

102013 #1 알 살안 허난 이젠 두 번차 또 이젠 씨집을 보내게 뉘난 나ㄴ라 둘러
리 가렌 흐건 ‘나 둘러리 안 가쿠다. 두번 차 무사 갑니까? 처음 갈 때 가는 거주.
두 번찬 안 가쿠덴. 경허멍 이젠 안 갔어. 안 가난 “아이도, 경헤도가 느가 가살 처

레 아니가? ” 아니, 나 마우덴. 경허명 나가 들러리도 안 간 기대로 예식장에 가온 사름인다. 계난 그 하르방이 이제 봄나난양, 봄나난에 왓업디다게.

102013 @ 으음.

102013 @ 돈 가정?

102013 #1. 아니. 왓어 허난. 아이고, 우리 씨누이 서방이, 그 하씨주게. 그 아저씨가. 하씨 왓젠 허명 들앙 온 거. ‘아이고, 어딜로 나옵디가? 아니고, 나 살려주젠 왓수다, 고맙수다, 고맙수다.’

102013 @ 음.

102013 #1 ‘돈 없어요. 돈 안 가지고 별어서 몰라고 왓어요.’ ‘아이고, 기자 와도 좋우다.’

102013 @ 웃음.

102013 #1 기자 와도 좋우다. 해명만 해주민 뻬수다, 뻬수다 해연. 경허연 이젠 그 아저씨가 어디 집을 빌어주민 메역 허제 때 막 빵 허영 풀민 메역 흐 낭 아정강 주민 빵 하나씩 주멍 해근에 마춤허는 사름이영 즘너들이영 막 사먹주게. 경 해낫어. 그 아저씨가 저 집을 흐나 빌어주민 빵도 해영 풀곡 막걸리도 풀곡 경해근에 빌어근에 물어주켤.

102013 @ 으음.

102013 #1 경해연 씨누이 서방허고 돌리가 막 텡기명 저 밑에 강 빌려내엇어. 빌연 내난 메역허제 삼월에 허지 아넘니까게. 그 메역허제 헨에 다 꺾나난에 다 헤너덜 다 모이렌 허렌, 돈 주켤.

102013 @ 음.

102013 #1 이젠 성산 아이덜이영 고성 아이덜이여 다 전화해영 불런에 우리 씨누이네 집의 사공네 집의.

102013 @ 응.

102013 #1 그디 헨 다 모엇어. 이치룩 마리에 빙허게 다 앓안에 그 아저씨허고 사공 기관장 앓은디 영 앓인디 영허난 우리 죽은씨누이가 온 거라. 나가 돈을 내난 세여가건데 “저양, 나 흐 마디 허쿠다. 나 좇양, 받아 먹은 돈을 받아먹엇젠 헨에 저 우리 씨누이가 오만지랄 다 헨 돈인디 자이부터 먼저 줍서.

102013 @ 으.

102013 #1 자이 막 급허난에 좇아먹엇젠 날 닥달헛수게. 자이부터 줍센 허난. 또 (웃음) 지네 형부도 세영 가이부터 먼저 돈을 준 거 아니.

102013 @ 음.

102013 #1 아이 주난양, 나가 허는 말이, ‘야, 나안티 미안허우덴 허라. 미안허우덴 흐 마디만 허라. 으, 나 놈의 말 들언 몰란 경 굴앗수덴 허영흐 마디만 허라.’ 허난 잉 허명 그자 가불어. 간게 흐끔 시난 우리 씨어머니가 그 돈을 가전완예, 무똥에 완 대문 을양 마리더레 착 데끼명 웨 이제 거 나한테 허는 말이지. 이 사름 가운디서 자기네 죽은딸을 쉥피췄느냐?

102013 @ 으음.

102013 #1 구체 줏느냐. 경혜여. 아니 구체 아니우다게. 나 좃안 먹엇젠 현 돈이 라부만 자이 막 바쁘난 자이부터 먼저 줍서. 우리 다 돌아가젠 허민 열 시 열흔 시 텔 거난 먼저 줍젠 현 거주 차별헌 것이 아니우텐. 이치룩허멍 허난 이젠 씨어머니 확허게 돌아산 가분 거라. 웃음. 가부난 아이덜은 즘녀 아이덜, “아이고, 언니. 언니. 아이고 우리 씨집 안 가쿠다. 우리 씨집 안 가쿠다. 이치룩허는 거우과? 씨집가민. 우리 안 가쿠다, 안 가쿠나.’ 경. 경허연 그거 그 같등 잇엇주 원원. **** 물론 거. 게난 셋동세네영 큰동세영 경 곶아. 그 족은씨누이 때문에 그 씨어멍이영 그때 그치룩헛주, 잘도 호강받아서 나. **로. 게난 경 곶읍니다. 동세덜도. ’는 물질 잘 해부난, 물질 잘 해부난 호강 받았저.’ 겐 나가 이젠 아판에 물질을 못허난 나 다 이신디서 경 헛주. ‘나 이 집의 씨집오젠 그때 막 물질을 날세게 해저서양.’ 이 제주 서든 육지서든 경허난. 이디서도 가민 이만씩헌 전복은 다 잡고 고기 물똥 ㄹ튼 거. 아이고, 겁나게 경 해나신디 이 집의 씨집오젠 경혜낫수다. 허멍 곶양.

102013 @ 으.

102013 #1 우리 저 그때는 학교바당 메역바당은 풀멍 사고 헐 때우다. 게난 이디저 멘장 아지방은 저짜 신양리 ㄹ음에 사고 우리는 신산리 ㄹ음에 바당을 사서양. 게난 우리 큰씨아지방이 오란에 놉덜 보민 형제가 심백혜근앵에 바당 샷젠 웃지 안 허느넨. 막 경허멍 이젠 그걸 막, 웨멍 무신 걸 헛디다게. 경해도 이젠 기자 아니 심백허멍 사민 성제가 입찰을 부튼 거면은 심백헛젠 허주마는 경 아녀우과게.

102013 @ 으으.

102013 #1 성제가 입찰을 부튼 거민 심백헛젠 허주마는 귀역이 틀리니까.

102013 @ 으으.

102013 #1 아 귀역이 신산리 ㄹ음허고 신양리 ㄹ음인디 누가 그치룩 현 소릴 헛 니겐 건 아지방 입에서 곶는 말이우다. 이치룩 헛 해신디. 흥번에 막 그것에 웨우데 건 이젠 하도 부에난 나가 춤지 못헤연, 씨아지방네 집의 갓어. 우리 안팏거리 살앗 낫수다게. 나가 집 산 옆에 가부난 헛주. 씨어멍네 살 때 안팏거리 살안. 경헛 이제 딱 간보난에 그 우리 저 사공 헤난 씨누이 서방허고 저녁덜을 먹엄서. 겐 딱 갓어. “밥 먹으라.” “나, 밥 먹으레 오지 아녀수다.” “아주버니, 그뻐 곶앗주게. 나 성질은 양 몰띠난 건지예, 춤지도 못허곡양 놉 애덜카부다 뭇도 아녀지곡. 아년 건 팍팍 쏘 아져붙니께게. “아주버니양, 웃어른인, 저 나안티 우리 밑에사름안티 대우받을컬랑 양 웃어른 노릇 헛서.” 나가. “웃어른 노릇 헛서.” “큰아주버님에는 아버지 엇이면 은 씨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이치룩허민 세상 사름 다 웃고양, 어디 이럴 수가 잇는 거 우과? 양. 앞으로, 앞으로 우리안티 대우받을컬랑 아지방엔 헤영 대우받을컬랑 잘 생각허영 똑바로 행동헛서양.” 딱 그 말 곶앗어.

102013 @ 음.

102013 #1 경허난 이젠 우리 씨누이 서방이 “저 사름 잘못은 헛어게. 뭇 말을 그 치룩 허여게.” 이젠.

102013 @ 음.

102013 #1 씨누이서방이 경 곱아.

102013 @ 음.

102013 #1 경허난, “아니, 그치록 안 혜영 싸와집니까게.” 원 이상허여, 우리 씨 아지방. 소문난 사름.

102013 @ 음.

102013 #1 “경 안 행 싸와집니까게. 아녕 거 헛젠 혜사 싸움이 뵈주.” 케난, 경허 건 나가 “쌈젠 경협디가. 쌈젠 경해도 도리가 아니우다.” 경허멍 헨 오라난에 그루 후젠 원 씨아지방이고 뒤고 원 꼼짝.

102013 @ 으음.

102013 #1 씨누이 돌아댁기단 경 씨어멍이영 그뻐 헛주. 아무 것도 모른 거.

102013 @2 가끔 씨집살이 노래에 보다보면 씨누이는 즐락.

102013 #1 예, 예. 경헌디 원 가인 분실 모릅니다게. ㄴ자도게. 원.

102014 @ 그 자식들은 다 결혼 다 시킨 거예?

102014 #1 우리?

102014 @ 으.

102014 #1 다 시켰주게. 스물아웁에 서오누이라도 다 스물아웁에 갖주.

102014 @ 으.

102014 #1 스물아웁에 가난 죽은아덜이 마은여섯이고.

102014 @ 케난 그 자식들은 어떻 중매협디까? 연애허연. 어떤 식으로 결혼시킵 디가?

102014 #1 아이고, 연애헛주덜. 서울 간 대학혜부난.

102014 @ 어.

102014 #1 아들도 서울 간 혜불고 혜난에 저 메뉴릿 ㄴ슴 보레 오렌 허난. 나가 생각을 혜봐도 우리가, 우리가 말렌 허민 말아. 요새 사름덜. 이왕에 헨 바에는 기 자 좋게 허렌 혜영 혜불주. 경허난 이젠 만나레 오젠 허난 저 파란 거는 죽은 죽은 메뉴리고.

102014 @ 으.

102014 #1 요짜 티샤츠 입은 거는 큰메누린데 그거 큰아덜이고. 파란 거 입은 거 둘리 죽은아덜이고. 요 옆에 건 딸이고.

102014 @ 으.

102014 #1 사위고. 그건디 케난 혼 집의 둘씩 애기덜토 딱 둘씩만 나난 딱 여섯 손지가. 딱 여섯 뿐이고. 그거 어떻 말라 케난 꺾나난 경 곱대. 딱지 놓카부덴 막 겁난에 혜신디 허락혜 주ㄴ렌. 잘도 좋은 본인엔 허멍 곱안. 웃음. 게 지네 잘 살민 뵈는 거주 거 무신?

102014 @ 쟁 그 쯤 누게 쯤 만이가 아들이우과?

102014 #1 아니 딸.

102014 @ 딸. 누계. 딸이 먼저 결혼한 거?

102014 #1 으.

102014 @ 결혼할 땐 어떤 식으로 혜영 결혼시켜 줘수까?

102014 #1 그때 위미 씨집가신디양?

102014 @ 으.

102014 #1 아이고, 저 딸은 말리는 디 갓수다. 우리가 말리는디.

102014 @ 음.

102014 #1 저 스나이가 아픈 아이라양.

102014 @ 아아.

102014 #1 저 소아마비로. 이 걸음을.

102014 @ 으음.

102014 #1 다리가 흐쓸 절락절락 걷고. 저기 저 키는 무사 큼광, 대학을 허난에 우리 딸이 이 동생덜 시에서 고등학교 할 때 자인 대학허난에 흐 집이 살명 밥을 해줬주, 동생덜을.

102014 @ 으으.

102014 #1 삼년 동안씩 다. 게 육년을 해준 거지. 그치록헨 허난에 저 스나이가 게난 우리 아덜덜이 우리안티 안 곁아부난 거주게. 아, 신문 받는 거고 무시거 허는 거고 다 우리 딸레 집으로만 주조를 허명 받으명 신문 아지레 오고 책도 아지레 오 곡 경헤렌양.

102014 @ 으음.

102014 #1 게난 꿁꿁잇속은 잇언에 그치록을 현 거라.

102014 @ 으으.

102014 #1 아 경헨에 헤 흐번은 생각도 아년디 오랏어. 집일.

102014 @ 으으.

102014 #1 딸은 안 오고 자이만 온 거라. 오난 아방이 반에 당채 안 웬덴. 뭘 놈은 결혼 말이니 허명. 절대 안 웬덴 막 육헨 보낸 거라. 아, 보내난 난 또 이디 잇 당 나가근데 잘 가래 영 간보난 울언에 눈물 다깜십디다게 요디 산에. 아 또 그걸 보난에 무시거헨에 이젠. 울지 말양 기자 가렌. 가건에 잘 생각 헤보렌. 딸ㄴ라 경헨주게. 야, 느 어떻허난? 겐 막 사름마다 웨딸에기 헐허게 풀앗젠 우리안티 막 쁼 당덜토양. 아이고 영심이 어머니 아방이나 성질에 아이 헐허게 풀지 아널 건디.(웃음)

102014 @ 으.

102014 #1 헐허게 풀앗젠만 행. 경허영 딸ㄴ라 곁으난 죽어불켄 헤렌 이녁이 안 헤 주민.

102014 @ 으음.

102014 #1 게난 놈이 아덜 죽게 허민 나가 어떻허영 헐 겨우겐. 죽어불켄 허는디 놈의 아덜 죽어놓민 이것이 어떻 될 겨우겐. 게난 나 몸 흐나 희생헤근에 나 팔자

가 그건가 행 이젠 가쿠텐. 경허는 거라.

102014 @ 으음.

102014 #1 아니 경허난 스춘덜이구 쁘당덜이구, 아이고, 웨뜰에기에 헨다헌 집안에. 저 우리 딸도 막 국어국문과 나왕 선생 자격증까지 다 잇인 아이우다게.

102014 @ 으으.

102014 #1 그치룩헌 집안에 세상, 어떻허난 아픈 아이를 헤난 허락을 해 줘신고, 해 줘신고 허명. 게도 그거 저거 생각허난 뵤신이영, 겐디 우리 집 양반이 이 성질이양, 영 험니께. 투표할 때도. 거리지도 혼 표, 옛 장시도 혼 표, 사장도 혼 표.

102014 @ 음.

102014 #1 양, 대통령도 혼 표. 잘났다고 두 표 찍는 게 아니고 세 개 찍는 것이고 인간이민 딱 혼 표 뿐이다. 아무리 잘 나도. 그러니까 절대 나보고 사름 차별은 말렌만 험니다. 가르키는 것이.

102014 @ 으음.

102014 #1 절대 사름 인간 차별은 말아라. 경만 허는 양반이주. 원 성질이 너무 좋읍니다게. 존셈이.

102014 @ 으.

102014 #1 경허명 헌 사름이라 농난에게, 아이고 게메, 아픈 아이 말렌 아 이것도 굿고 경허당 약이라도 먹영 죽는체 허민 아이고, 아무 집의 딸 헛당 영헨젠 허고. 경헨에 허락헤쥬 내부난. 사원 막 착 헤여. 마음씨도 좋고 존셈이 좋양양. 워낙 착헌디 형제간이 아덜만 에 으슴에 딸 하나에 일곱 오누이 이신 집이랍디다. 그 위미 쪽엔 아덜덜만 잘 나는 산천덜이랍디다.

102014 @ 아아.

102014 #1 위미는. 원. 사돈덜 뵤 집의 우리가 스춘도 보내고 다 헤신디. 경헨는 디 자이가 다섯 번차 메누리라. 겐디 아무 것도 엇인 디라양, 다섯 번차 촌에게, 아방은 어린 때 죽어불고 허난 무시거가 잇일 겨우과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엇어. 씨집, 장계갈 때는 큰질 옆에 에 육백 평 짜리 남밭 하나 잇수텐. 경헨게마는 으작인 들으난 무신 남밭 말이우과? 거 성 거. 경헨 헤신디 코스모스 정수기 험니께.

102014 @ 아아.

102014 #1 옛날에부터 코스모스 정수기 저 대리점 헨에 그것뵤기 안 생겨났주. 경헨단 자이가 버치니까 뵤 친구덜을 막 벌립시킨 거라. 그거를. 정수기를. 게난 이름만 고찌명 뵤 군데 이젠 나와부난에 자네 관리허는 디가 이천 가위 그것만 관리 허명 더랑 허지 말라. 이제 그 더 행 무시거 험 거니 허명 살안. 경헨연 결혼시킨 거.

102014 @ 나 누겐지 알아지쿠다. 영심이.

102014 #1 영심이.

102014 @ 영심이, 현영심. 그 으망진 영심이.

102014 #1 가이도 너미 아방 닥양 뵤음이 너미 좋아.

102014 @ 으으.

102014 #1 영심이 알아집니까?

102014 @ 우리 국문과계.

102014 #1 으.

102014 @ 알아집니다. 우리보다 이 하나 밋테.

102014 #1 쉬은흐나.

102014 @ 예계, 그 저기 코스모스 정수기렌 허난 나가 알아지텐. 가이도 뭇띠예?

102014 #1 뭇띠, 백뭇띠.

102014 @ 예, 잘도 으망진.

102014 #1 가인이 백뭇.

102014 @1 딱 보난 어머니 국문과렌 허니까?

102014 #1 가이 스주 보레 가난에. 철학관에 가난 이치룩 지 스주허는 후제 이치
룩헌 사주는 처음 보노렌. 말띠에다가 말날에다가 말시에 나완에.

102014 @ 아아.

102014 #1 이런 아인 처음 뵈수텐. 이런 사람은.

102014 @ 아아.

102014 #1 띠 ㄱ뭇 시간에 난. 이 사름은 뵈민 막 잘 뵈고 안 뵈게 뵈민 막 안
뵈쿠텐.

102014 @ 음.

102014 #1 경 팔즈에 그치룩헝디다게.

102014 @ 경허난 정수기 잘 뵈지 안 헝수가게.

102014 #1 우리가 하영 도와줍쥬.

102014 @ 예, 하영 도와주멘?

102014 @2 알아지쿠다.

102014 @ 말허고 영 딱 국문과렌 허난 현씨고. 코스모스고 허니까 바로 나완신
계. 참 인연이우다양.

102014 #1 진짜. 게난 우리, 이제 허당 아프곡 허난 허민 어떻허리 손지들 으섯
이난에 대학교 가는 입학급 허렌 헝 천만 원씩 으섯씩 다 줘벳주. 이천만원씩 헝
집의.

102014 @ 으.

102014 #1 이거는 꼭 너네덜 대학 갈 때 어머니네 씨벼도 할아버지가 데여준 거
난에 그걸로 헝에 가렌 허명 다 줘볼곡. 죽어지카부텐 막 아프고 자꾸 헤가난.

102014 @ 음 미리.

102014 @2 아, 영심이.

102014 #1 집 살 때 집도 다 도와주고.

102015 @ 게난 메뉴리허고 사위덜은 어떻헤마씨?

102015 #1 우리.

102015 @ 예.

102015 #1 아이 먼 디 살아부난에 무신. 우리 메뉴리들은 아이고, 우리 큰메느리
덜은 태판이라노난 멧질 때 읍디다양.

102015 @ 육지우과?

102015 #1 서울.

102015 @ 으.

102015 #1 서울 한양 조썬디. 멧질 때에 오면은 이견 뭐 자, 하르방이고 아침이
일어나근엿에 어디 우리 서울 간 보난 손지덜이 경 착허여. 이것이 어린 것덜이 학
교도 안 부뎡 뎡 슬에 혼 네 설에 뭐 가민 아침이 딱 시간 뉘민 일어난, 어명도 안
일리곡 누게도 안 일렁 조용허게 왕 자당 깨냥 보민 장난감만 자파리헨양.

102015 @ 음.

102015 #1 “너네 잠 안 잤나?”허난. “갯어요. 깨난 시간에든 딱 깨나요.” 허뎡 그
치룩 허뎡. 야이는— 아방이 산책 강 오라근에 혜도 안 일어나. ‘예, 야네 밥은 어느
제 줍신고?’ 그치룩허뎡 허는디. 이디 와도.

102015 @ 으.

102015 #1 이거 씨집인가 혜영은에 뭐 허지 안 허여. 오민 자구정헌냥 자고 멧질
먹으레 우리 저 여섯 집이 멧질을 지넵니다게.

102015 @ 음.

102015 #1 두 집이썬 강 오민 가기 실프민 애기 핑계행 뉘 자. 경 잠시민 나
“야, 멧질 먹으레 와시난 저 하르방 멧질은 강 봐산다. 일어난은에 하르버지 멧질
큰집의 가라. ” “예, 그럴게요.” 허영 가고. 지 막음대로난에게.

102015 @ 으으.(웃음)

102015 @2 그건예, 어떻게 보면 이 집 사름 다 뉘 겁주.

102015 #1 아이 성질이 그거랍디다. 아시에 처음부떠.

102015 @2 아, 그러니까 이 집 사름 다 뉘 거니까 아 그런가보다.

102015 #1 죽은메누리는 학교 선생이주.

102015 @ 예.

102015 #1 학교 선생인디 무남독녀라.

102015 @ 으.

102015 #1 무남독녀를 막 말리단 보난 세 번차 만나도 무남독녀.

102015 @ 아.

102015 #1 계난 이제 세 번차 만나도 경 허판테 그 팔자가 그거여 허락을 헨에
헤신디. 무남독녀난 오히려 집의서도 막 호강할 거 다향주.

102015 @2 으.

102015 #1 그게 아니라양.

102015 @ 음.

102015 #1 야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 정월 초흐늘날 우리 집의서 멧질 아녀는 따

문에 문전을.

102015 @ 음.

102015 #1 우리 씨아버지가 정월초하를날 놈의 집의 강 첫 수꾸락 심지말렌.

102015 @ 음.

102015 #1 집의서 꼭 첫 수, 첫 수저는 땡 나가야 웬텐 경허영 헤나부난에 초하를날 나가 일어난 꼭 밥 해근에 아침에 여기서 아이덜 다 먹영 나가주게. 게영 일어나민양 꼭 따랑 일어난 나와. “아이고게, 강 자라, 자라. 느 안 와도 이거 헐 거 엇다 강 자라, 자라.” 허민, 아니엔, 아니엔 헝 세수 헝 나와. “야,” 처음 온 때 나가 들어십주. “야, 느대로 영 험샤? 사돈님이 이렇게 허렌 시겨줘냐?” 허난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가민 씨어머니 일어난 때는 꼭 일어난 같이 뭐 헤런 굴옵데텐. 게난 친정에서 잘 시키니까양 그대로.

102015 @ 음.

102015 #1 무남독녀엔 버릇 엇는 거 아니고.

102015 @ 으.

102015 #1 뭐 아니. 성질이. 경허난 그자 뭐 메누리덜 무신 우리 늣엇젠 무신 메누리덜안티 강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102015 @ 거니까.

102015 #1 이디 살당은에 요양원에나 갈 거주, 무신. 웃음.

102015 @ 웃음. 여기 이제 뭐 아들덜은 다 서울 가니까.

102015 #1 으. 겐디 오켄은 허여. 큰아덜광 큰메누린 직장 그만두민 오쿠덴만 허주.

102015 @2 으.

102015 #1 여기 지금도 직장 엇어부난 못 왓주, 직장만 이시민 오쿠덴 허는디 건말 피막*일테주.

102015 @2 아니우다. 큰아덜은 뭐 달른.

102015 #1 예, 오켄만 험니다. 예.

102016 @ 게난 이렇게 영 살아보멍, 살아보멍 뭐 잊어불지 못허켜 허는 이런 거 라든가?

102016 #1 우리 그런 건 아직은 엇어.

102016 @ 그런 건는 아녀고예. 알앗수다.

102016 #1 우리 그치룩 무신거 허명은 안 살아부난.

102016 @ 예.

102016 #1 그런 건 엇어.

102016 @ 예, 알앗수다. 흐뎡 쉬쿠다.

3. 밭일

103001 @ 계남 예전에 밭일은 어떤 밭일들 하영혜신고예? 이 동네서.

103001 #1 밭일계 농사짓는 밭일이고계. 무신 밭일사 그거 아니우과?

103001 @ 음.

103001 #1 농사짓는 밭일.

103001 @ 계남 농사는 어떤 농사덜 지엇마씨?

103001 #1 감저 놓고 보리 같고 유채 같곡. 유채는 옛날에는 안 갈아난 거 아니우과?

103001 @ 예.

103001 #1 건 멧 년 후에사 간 거곡. 콩 같곡 기자 그거. 먹을 것만 갈아났수게. 옛날은 돈 안 주니까.

103001 @ 음.

103001 #1 사가지 아녀난.

103001 @2 조도 허고예?

103001 #1 예. 조도 같고.

보리농사

103002 @ 계문 하나씩예, 보리 농사짓젠 허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마씨?

103002 #1 걸름.

103002 @ 으.

103002 #1 걸름.

103003 @ 걸름.

103003 #1 그, 그 옛날에는 고지기 즈물아다근에 그 통시에 놉근에 그 보리찍 혼 도리 농곡 그 고지기 혼 드리 농곡 허명 통시에 싹 쌓아냥. 도새기 기를 때난.

103003 @ 예.

103003#1 돼지 길룰 때난. 경 농민은게, 돼지가 걸어탱기곡 무시거 허곡 비오곡 뉘허곡 헤가민 듬복이 늘 거니까.

103003@ 음.

103003#1 바다에서 직접 건진 거난 그거 싹어가는냥 보리찍도 같이 싹주.

103003@ 음.

103003#1 으, 경허민 칠월 나민 그 걸름 헤놉근에양 동짓들 나민 보리 갈아사 웰 거 아니우과계?

103003 @ 예.

103003 #1 계문 그뎨 막 싹으민 산태로 문 퍼내영. 질레에나 마당에나 그걸 싹 산태차 비와 냇.

103003@ 음.

103003#1 쉼 이신 사름은 쉼로 영 골라냥 보리씨 빼여냥 쉼로 불립주게. 그 돛ㄹ레를. 돛ㄹ레엔 험니다.

103003 @ 돛ㄹ레.

103003 #1 으, 돛ㄹ레. 쉼로 불려근에 싹 불려지민 그걸 다 모디왕 드리 ㄹ치룩 쪽허게 해남두서로 멩텅이.

103003@ 음.

103003#1 돛ㄹ레착 멩텅이. 그것에 막 담으멍. 마차나 뭐 쉼나 시끌 거 옛인 사름은 그거 등얼로 가까운 밧디덜은 등에다 지영 흥나씩 지여당 날라다 냥.

103003@ 음.

103003#1 뒷날은 그 보리 갈아사 쉼 거 아니우과? 경허민 여자덜은 가근에 그 돛ㄹ렐 놓는 거주. 거 돛ㄹ레엔 허주.

103003@ 음.

103003#1 돛걸름 이. 돛ㄹ레 영영 영영 손으로 집으멍 영영 놔냥 그 옛날엔 그 돛ㄹ레 놔냥 산(?)으로 밥을 먹어마씨. 코싱코싱 게도 맛 좋아.

103003 @2 아 겐디 그거 허민예, 손이 너무 고투마씨. 문질문질허고.

103003 #1 그건 싹어 나사주.

103003@ 웃음.

103003#1 건 싹은 다음에고.

103003 @2 그건 막.

103003 #1 경허영 보리 가는 거 아니우파게. 보리 걸름은.

103004 @ 보리 걸름예, 보리는 언제 가는 거라마씨? 아까.

103004 #1 아 동짓들 나사 갈주게.

103004 @ 동짓들? 으.

103004 #1 으. 동지에도 옛날에 막 하영, 저 뭐 허는 사름은 동지 넘영도 갈아낫 수다. 보리.

103004 @ 으음. 보통 보리 갈 때는 누게가 갈아마씨?

103004 #1 잠대로. 쉼로. 쉼로 이녁 갈 사름 옛인 사름은 빌어당. 으 옆집 아저씨 빌어다근엔예 밧 갈곡. 걸름은 여자덜이 놓고게.

103004 @ 으음.

103004 #1 으, 거 다 놔뵙.

103005 @ 걸름은예, 게문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라마씨?

103005 #1 보리씨 그 돛ㄹ레 영 헤싸냥 돛ㄹ레에 뿌렁.

103004 @ 음.

103004 #1 경허영 쉼로 뵙으는 거.

103004 @ 아아.

103004 #1 씨를 흙치 뿌려냥.

103005 @ 흙치 뿌려 냥 그 걸름이 보리씨 빼는 거구나예?

103005 #1 예, 예, 예, 예.

103006 @ 아, 옛날 이 동네는 보리 종류는 어떤 것덜 잇어나신고양?

103006 #1 주냉이보리허고 슬보리.

103006 @ 으음.

103006 #1 슬보리허곡 주냉이보리허고 밀 갈곡 옛날에.

103006 @ 아, 밀도 같고. 으, 게든 주냉이보리허고 슬보리 그거 곶아줍서. 어떤 건지.

103006 #1 주냉이보리는 껍덕이 막 여라 불 끼와지고 쏠랑쏠랑 흐끔 소름, 소름 소름허고.

103006 #2***

103006 #1 슬보리는 동글동글허고 껍데기 얇으게만 끼와진 거난 개역허레 가도 보릿개역허레 가도 주냉이보리는 허민 기계에 겁떡을 뱉겨 내뿜 ㄹ을 곶고 쌀보리는 그대로 곶니다게. 보끄는 디 가민.

103006 @ 음.

103006 #1 그거 차이주게. 껍덕이.

103006 @ 껍덕이. 우리 밥헤영 먹는 거는?

103006 #1 주냉이보리가 맛은 잇주.

103006 @ 아아.

103006 #1 밥맛이.

103006 @ 으음.

103006 #1 밥 맛이 주냉이보리는양 좀 풀풀헌 기가 잇영 맛 이십니다. 겐디 슬보리는 흐끔 주냉이보리만이 맛은 덜 헤도 그 곶기도 쉽곡. 방에에, 옛날에은 방에에 찍영 먹엇수게게.

103006 @ 예예.

103006 #1 슬보리를.

103006 @ 으으.

103006 #1 주냉이보린 방에 못 찍어도 슬보리는 방에에 찍언 경허연 먹엇수게. 경허영 정ㄹ래에 거평은에.

103006 @ 예.

103006 #1 경헤연 먹엇수게.

103007 @ 음. 그 다음에 혹시 보리밭도 불르레 뎡겨받마씨?

103007 #1 그 막 보리만 보리만 가는 밧은 저 노릿노릿허영 죽넨 헤근에양.

103007 @ 예.

103007 #1 막 불릅네다.

103007 @ 아.

103007 #1 사름으로 가명 그냥.

103007 @2 아아 사름으로?

103007 #1 으, 사름으로.
103007 @ 물로도 안 허고마씨.
103007 #1 물로 저 불리는 건 물 이신. 옛날에 물 잇는 사름 멧 멩이나 잇수가?
것도 물테우리 빌어사허곡양. 경허난에 사름으로 헤 불리주.
103007 @ 음.
103007 #1 세 식구만 웨민은 흥번에 세 판이씩은 불라 갈 거난에.
103007 @ 음, 게영 삼춘네도 게민 보리 불르레 텡겨반?
103007 #1 우린 불르레 정돈 안 텡겨반.
103008 @ 아, 불르레는 안 텡겨보고예, 예? 그 다음엔 보리밥 검질 메젠허면?
103008 #1 보리밭디 검질은 잘 안 멧수다. 옛날도.
103008 @ 아아.
103008 #1 보리밭된 겨울곡석이고 허난에 검질 잘 안 멧수다. 저 뭐 대우리.
103008 @ 예.
103008 #1 대우리만 그 메레 텡기주. 여물 나민.
103008 @ 여물 나면 으.
103008 #1 대우리 피면은 흰허게 알아지난에 그거 메레. 대우리만 메주 검질은 안 메고.
103009 @ 아, 검질은 안 메고예? 게도 검질은 날 거 아니양?
103009 #1 아니 게도 무신 경. 보리 데각해불민 검질 배랑.
103009 @ 으, 게도 검질 그 종류들은 보리밭헐 때 검질은 어떤 거?
103009 #1 보리밭 헐 때 진풀 많이 나주.
103009 @ 으.
103009 #1 겨울검질이 진풀 많이 나주. 무신 여름에 그트민 제완지여 무시거여 막 나주마는 겨울 검질은 진풀 진풀. 주로 진풀.
103010 @ 진풀? 음, 알앗수다. 그 다음에 그 옛날, 요즘에야 다 기계로 허주만 옛날 보리 수확허젠 허민?
103010 #1 비엿수게게.
103010 @ 뭘로?
103010 #1 호미로. 호미로 그거 다 비영 장만허는 것도 훌테로 훌트고.
103010 @ 아, 게난 무끄젠 허면은 어떻게?
103010 #1 아 그걸로 무껏주. 보리로.
103010 @ 아, 보리로예?
103010 @2 제께로.
103010 #1 예, 보리로 영, 영 조정 영 갈랑은에.
103011 @ 으, 보리로 이제 행은에 하고. 그치록허영 보리 무끄면은 거 놀영 낫당 은에 훌타마씨? 아니면?
103011 #1 그날 못 헤오민게 밧디 놀엇당 마차나 무신 거 빌영 시꺼오곡게.

103011 @ 으.

103011 #1 으 시꺼당 또 마당에 늘어둬서로 창고 안네서. 날 곳인 땀 밧집 안네서 흘트주. 흘테로.

103011 @ 으음, 흘테로. 어디 안네서?

103011 #1 밧집 안네서.

103011 @ 밧집? 어어.

103011 #1 으. 요즘은 창고엔 허주마는 밧집이엔 허주기, 옛날엔.

103011 @ 밧집허고 밧거리허고는?

103011 #1 게난 밧거리. 완전 사투리는 밧집이주.

103011 @ 으.

103011 #1 그 다음 밧거리. 경 나온 거.

103011 @ 게난 그 밧집의도 사름이 살기도 해?

103011 #1 예게.

103011 #1 방에서랑 조용협서.

103011 #1 저것ㄴ라 밧집이엔 허주게. 저 집ㄴ라.

103011 @ 예에. 이렇게.

103011 #1 게난 요즘은 창고엔 해도 옛날엔 밧집.

103011 @ 여기는 뭐가 돼는 거?

103011 #1 안거리.

103011 @ 안거리. 안집엔도 곶아?

103011 #1 으, 안집이엔은 잘 안 곶고 옛날은 안거리.

103011 @ 안거리 밧집.

103011 #1 밧거리 안거리.

103011 @ 예, 알앗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 테작 할 때.

103011 #1 으.

103011 @ 뭐에다가 흘타?

103011 #1 도께로, 도께로. 흘테로 보리 흘타냥.

103011 @ 예.

103011 #1 도께로.

103011 @ 아, 도께로 또 보리를 또 두드려?

103011 #1 도께로 두드려사 그 고고리 내놓민 마당에 내놓 도께로 복삭 두드려사 여물이 나올 거 아니우과?

103011 @ 음.

103011 #1 경 험 거주.

103012 @ 그치록헌 다음엔 어떻게마씨?

103012 #1 경헌 다음엔 불령은에 가마니에 담앗당 날 좋으민 다 몰량.

103012 @ 음.

103012 #1 들랑은앵에 그때 시절엔 들 ㄴ래에 강 굴곡계.

103012 @ 음.

103012 #1 그 후제후제가 기계 낫주. 그 옛날엔 다 들 ㄴ래에 굴앗수게. 게고 쓸도 정 ㄴ래에 집의서 ㄴ래 앓정 영영 굴아근에.

103012 @ 으, 게난 그 삼촌예, 그 보리 이제 해서 도께로 현 다음에 불리젠 허면 어디서 불려?

103012 #1 아, 불리젠 허면게 영 이 마당에는 브름이 잘, 브름도 흔 줄로 짝 가사 불리기도 좋주게. 경허민 질 벳것디 내낭은에.

103012 @ 으, 불릴 때 허는 거를 뭐렌 허여?

103012 #1 술박[술빡]으로 영영 불려.

103012 @ 술박으로 허곡.

103012 #1 명석에 ㄴ근에 영 불려.

103012 @1 들릴 때는 어디서 들려?

103012 #1 마당에서.

103012 @ 마당에서.

103012 #1 마당에서 명석 깎앙.

103013 @ 명석 깎앙은에 이제 하고예. 그 다음에 보리썰로는 뭘 헤영 먹는 거라 마씨? 옛날에.

103013 #1 보리썰로게 밥도 행 떡곡. 그거 막 저 보리썰 거퍼나민양 거기서 ㄴ르가 나오주. 뿌서져나난. 웃음. 경허영 걸로 감저 농곡 허영 보리범벅 행 먹고. 웃음.

103013 @ 것이 등갓 ㄴ르우과?

103013 #1 으.

103013 @2 등갓 ㄴ르.

103013 #1 흐. 보리범벅 허영.

103013 @ 보리범벅도 이제 행 먹고. 보리 보깡은에 이제?

103013 #1 건 보릿개역. 으, 보릿개역.

103013 @ 보릿개역 멘들 때는 어떤 식으로 헛수가?

103013 #1 건 보깡. 솟디서 보깡. 굴앙.

103013 @ 음.

103013 #1 굴민 개역이 뿔 거.

103013 @ 으음. 보통 그 개역 할 때는 술보리로 허는 거 아니면은 줄보리로?

103013 #1 게난 주녕이보리가 맛있기 때문에 주녕이보리로 저 허곡. 쉽게 허젠 허민 술보리로 헤영 기자.

103013 @ 아.

103013 #1 꺾덕이 얇으니까 술보리는.

103013 @ 예예,

103013 #1 솔보리는양 그냥 짬앙도 먹읍네께.
103013 @ 음.
103013 #1 그냥 짬앙 먹읍네께. 살보리는. 굴지 아녀도 기자.
103013 @ 굴지 아녀도 먹고.
103013 #1 껌덕이 꺼치는 게 옛이난. 주녕이보리는 거칠어부난에.
103014 @ 그치록혜영은에 굴고 쫄 만들젠 허민 체도 나올 거 아니예?
103014 #1 으, 체.
103014 @ 보리체는?
103014 #1 대체로 거름체로 ㄴ는체로.
103014 @ 음.
103014 #1 세 가지 잇주.
103014 @ 으, 게민 보리도 이제 이렇게 다 치는 거.
103014 #1 거는 얼맹이로 치곡 보리는.
103014 @ 예, 보리 얼맹이로 치고.
103014 #1 굴양은에 허는 거는 대체로 걸르곡 대거름체로 허곡 ㄴ는체로 치곡.
103014 @ 그러면 이런 그 보리체 용도는 뭐우과?
103014 #1 보리체?
103014 @ 으. 보리체 나오면 거는 어떻허여?
103014 @2 도새기 줍니까?
103014 #1 아 도새기 체 주주.
103014 @ 으.
103014 #1 도새기.
103014 @ 도새기 주는 거?
103014 #1 도새기 주는 거.
103014 @ 보리쩍은?
103014 #1 보리쩍게. 동시에 담아냥 걸름 멩글곡게.
103014 @ 으.
103014 #1 또 무시거 혈 때 뿔감도 때곡게. 보리쩍 마에 째은 보리쩍 때영 보리
뻘 허젠허민 연기 팡팡 나고. 으으 웃음.
103014 @2 소리도 나곡 웃음.
103014 #1 아이고, 춤. 이, 이 나라 좋은 나라 나왔주. 그 옛날이사 삶이 삶이우
과?
103014 @ 삼춘네도 보리쩍으로 헤낫고.
103014 #1 우리도 보리쩍으로 숨아낫수다.
103014 @ 아.
103014 #1 우리 어릴 때부터 숨아난. 어머니네 허난에.
103014 @ 그 다음에 보리 헤나면 그 까끄라기양?

103014 #1 으, 마스크.
103014 @ 마스크.
103014 #1 보릿 마스크.
103014 @ 으, 그 보릿 마스크로 뭐해?
103014 #1 굴뚝 살르고.
103014 @ 굴뚝 살르고? 으음. 그 다음 보리를 용시를 해도 버리는 게 하나도 없네?
103014 #1 엇주게.
103014 @ 예.
103014 #1 남뎡이는 걸름허곡 불 때곡.
103014 @ 으.
103014 #1 마스크은 굴뚝 살르고.
103014 @ 예.
103014 #1 보리쌀 곶아아민 체는 도새기 질루곡 버리는 게 엇주.
103014 @ 게니까. 사름 먹고.
103014 #1 그것에 개역 나오는 거는 모르 나오는 거는.
103014 @2 범벅헝 떡곡.
103014 #1 범벅헤영 떡곡. 웃음.
103014 @ 범벅도 헝 떡곡. 보리로 뭐 떡도 헤영 먹어?
103014 #1 보리떡. 말이 잇수게. 보리떡도, 보리떡도 떡이엔 고령에 들어앗는다.
103014 @ 아.
103014 #1 고령에 들어간덴. 옛날엔게 밀 엇인 땀 보리떡, 보리만뒤헤근에양.
103014 @ 예.
103014 #1 감저 담고 허영 맞서, 건. 보리만뒤 맛싯어. 주녕이보릿 모르 헤영.
103014 @ 아아.
103014 #1 슬보리 아녕 주녕이보리.
103014 @ 주녕이보리. 아아.
103014 #1 주녕이보리로 허영.
103014 @ 아, 게영 보리만뒤도 헛구나? 여기는?
103014 #1 예, 보리만뒤.
103014 @ 계난 여기는 뭐 산디나 이런 것덜은 하영 안 갈앗구나예?
103014 #1 그루제 그루제사 갈앗주. 산디덜사. 다 세** 그 뒤 다 넘어서 산디를 갈안.
103014 @ 계난 삼춘네, 산디는 언제적 간 거 닥아마씨?
103014 #1 뭐?
103014 @ 산뒤는?
103014 #1 산뒤, 산뒤 우리도 이디 하영 감도 우리, 우리부떠 갈앗주.

103014 @ 음.

103014 #1 우리 우리 때부터 산뒤. 양석으로양. 산뒤는 우리부터 갈았수다. 겐디 요즘은 설리벳주마는.

103015 @ 삼춘, 보리 갈명 잊어불지 못허는 거는 그 걸름헌 거?

103015 #1 게 그거.

103015 @ 그 말?

103015 #1 그것사 잊어벨 질 겨우과? 돛그레. 그거허고 감저밥만 감저만 먹어난 거. 그런 것사 잊어벼집니까. 옛날. 아이그.

103015 @ 맞아.

103015 #1 감저밥만 감저밥만.

조 농사

103016 @ 이 동네도 조도 하영 갈안마씨?

103016 #1 예, 조 갈주게.

103016 @ 조.

103016 #1 피, 피도 갈곡.

103016 @ 아, 이 동네도 피 갈았구나. 알았수다. 게민 조 농사 허젠 허면은 그 준비부때 헤알 텔 거 아니우과앵? 뭘 준비허여? 조 농사허젠 허면?

103016 #1 조 농사 허젠 허민 불리젠 허민 뭉 잇인 집인 저 나무로 헤근앵에 그 뭉 다릴 만들양양. 것그라 목매. 이름이 목매.

103016 @2 아아. 목매? 아아.

103016 @ 목매?

103016 #1 목매. 발 여라 개 달려근앵에 그 나무 큰 거 슬진 거 헤근앵양.

103016 @ 예.

103016 @2 남테 하는 거?

103016 #1 으, 남테엔 험니까? 그딘. 우린 목매.

103016 @ 으, 여기는 목매.

103016 #1 으, 목매 허영 그거 그걸로 꺾엿은에게. 뭉, 그냥 뭉 잇인 사름덜은.

103016 @ 음.

103016 #1 뭉 잇인 사름은 뭉로 불리곡. 또 그치록 목매질도 못허면은 꺾세기로.

103016 @ 음.

103016 #1 꺾세기로 기자 실실 꺾어근에.

103016 @ 으음. 게난 사람. 뭉 잇인 사름은 목매허고 꺾세기로 허는 거고.

103016 #1 으으으.

103016 @ 뭉 이신 사름덜은 어떤 식으로?

103016 #1 뭉로.

103016 @ 뭉로 허영. 이 동네도 게민 뭉 잇인 사름들은?

103016 #1 잇어낫수다 예, 예, 예.
103016 @ 그런 사람은 뭐렌 굴읍네까?
103016 @2 몰테우리.
103016 #1 테우리, 테우리.
103016 @ 테우리.
103016 #1 테우리.
103016 @ 으, 테우리예?
103016 #1 그런 사람은 오민 막 반찬 출령 막 쓸 잇어도 곤살 해당 서경 밥 행 안네곡. 몰테우리.
103016 @ 몰테우리?
103016 #1 웃음. 테우리밥 혜영 강 그디 강 몰 돌아나게 말렌 내조 혜근에 혜똥 허는 거주. 동산에 강.
103016 @ 그걸 테우리밥이렌 혜?
103016 #1 어, 제숙도 물론, 곳인 제숙 구국, 술도 곳은 썩으로 아저강 문저 테우리 혜똥은에 허는 것덜.
103016 @ 게난 케우리는 거를 뭐렌 굴아마씨? 아까?
103016 #1 테우리, 테우리 몰테우리 혜똥.
103017 @ 알앗수다. 게문예, 조밭도 걸름혜?
103017 #1 조밭?
103017 @ 으.
103017 #1 조밭은 걸름 아녕양?
103017 @ 예.
103017 #1 보리 갈 때 듬북 물론 듬북 하영 현 사람은 듬북 곶아나근에 보리 갈 아나민 그 조도 경 좋읍네다.
103017 @ 으음.
103017 #1 그 듬북혜나민. 경허곡 돛ᄇ레 혜낭 현 밧디도 그대로 행 허곡. 조팏디 걸름이엔 현 게 어디 잇수가? 조팏디 무신 걸름. 걸름 아무 것도 안 험니다.
103018 @ 조는 언제 가는 거마씨?
103018 #1 조, 유월에 막 칠월에 검질메는 거난에게.
103018 ## 조는 유월절에.
103018 #1 유월절 유월절 전이 갈앙.
103018 @ 음.
103018 ## **
103018 #1 건 배달밧디 피 가는 거고.
103018 @ 으.
103018 @ 아까 싱피 진 밧이렌 허고 술 무신 밧?
103018 #1 슬뜬밧. 슬뜬밧은 조, 옛날 막 슬뜬밧은 흐린조팏이엔허영 흐린조만

같아.

103018 @ 음.

103018 #1 그 막 슬뜬밧은. 게난 그런 밧이 그런 밧 가진 사름이 멧 사름 안 돼 주. 흐린조팓 가진 사름이.

103018 @ 흐린조팓 가진 사름이예. 게문 삼춘예, 토흔 밧도 곱고 슬뜬밧도 잇고 싱피진 밧도 잇고 배달밧도 잇고 이런 무슨 밧 이름 어떤 밧 이름덜?

103018 #1 게난 싱피밧은 돌이 이신 거라. 빌레. 빌레 이신 밧은 우에 혹 잇어봐도 비 흐뵈만 오민 물이 돌 잇어부난 내려가지 못허는 때문에 삐작삐작헝은에 빠정 싱삐, 싱삐. 경허는 거고 빌레밧은게 야픈 밧. 밧이.

103018 @ 예.

103018 #1 밧이 땅더레 막 토허지 아녕 얹은 거.

103018 @ 음.

103018 #1 그런 밧은 빌레밧이주게.

103018 @ 빌레밧. 배달밧은?

103018 #1 게, 배달밧이 빌레밧이라.

103018 @ 배달밧이 빌레밧이고. 그 다음에 슬뜬밧은?

103018 #1 슬뜬밧은 막 토흔밧.

103018 @ 으.

103018 #1 흐린조팓 가는 밧이 슬뜬밧.

103018 @ 슬뜬밧. 토흔밧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슬뜬밧이구나.

103018 #1 토흔밧이 그게 그거주게.

103019 @ 이 게면 이제 그 줍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

103019 #1 뵈니께. 뵈여. 밧 다 갈아놓민 줍씨 뵈여. 줍, 나 잘 뵈다마는.

103019 @2 아, 그건 기술이 필요한데.

103019 #1 예.

103019 @ 게난 삼춘, 조 갈아뵈서. 밧 갈양?

103019 #1 이 줍씨도예, 잘 뵈여사 곱로로. 곱로로 가게 뵈주. 저기 저 전의 당근 갈 때도 뵈연 갈아낫수다, 이디. 곱로 안 갈 때는양.

103019 @ 예.

103019 #1 게민 나도 당근 갈 때 씨 뵈여드렌 헝 가곡 헝 뵈여 내곡 허는디, “왔다, 거 누게 씨 뵈여시니” 허주게.

103019 @ 음.

103019 #1 우리 그 줍씨나 산디씨나 그런 씨는 잘 뵈여져.

103019 @ 아아.

103019 #1 완전 그게 풀힘 내영양, 풀힘 내영 좌좌 뿌리면은 막 포가지 아녕 곱로로 가곡, 이 뵈는 거 서툰 사름은 이 풀을 영허영 허지 아녀고 영허여뵈서로 영영영 헤불면은 가는딘 하영 가곡 안 가는 딴 덜 가곡 두릿두릿두릿 우리 씨 뵈는

거는 죽신 잇주.

103020 @ 계난예, 이제 조 갈아봅서. 혼번. 순서대로. 불러봐?

103020 #1 조, 조 가는 것이게 밧갈아 놓민 밧 갈아놓민 씨 빼여근에 ㄱ세기질 허는 거.

103020 @ 계문 콧?

103020 #1 으, 나무로 ㄱ세기 멩글양은예.

103020 @ 응.

103020 #1 ㄱ세기 행 씨만 빼여지민.

103020 @ 밧 불리는 건 어떤 식으로?

103020 #1 밧 불리는 건 아까 식으로 몰도 이신 사람은 조도 갈양 죽는 밧은 불 립니다. 탕탕해야 염넨.

103020 @ 음.

103020 #1 여물이 염넨. 밧이 탕탕허게 다려져사 염넨 험니께, 고고리가. 경허영 허곡게, 엇잇 사름은 ㄱ세기질 헤근에 내부는 거주게.

103020 @ 삼춘네는 물테우리허영 안 헤판?

103020 #1 아닌 물테우리.

103020 @ 아녀 보고.

103020 #1 ㄱ세기. ㄱ세기 멘들양 ㄱ세기질.

103020 @2 예를 들영 비가 왕, 비가 왕은에 벗어불면?

103020 #1 벗지 아넘니다게.

103020 @2 아.

103020 #1 우린 결혼헨에 조 멧 년 안 갈아났수다.

103020 @ 음.

103020 #1 우리 멧년 안 산디 멧 년 갈아났주.

103020 @ 음.

103020 #1 우리 멧 년 안 갈안 산디 갈아났주.

103020 @2 혹시 마같이는 어떤 조우과? 마같이.

103020 #1 마같이?

103020 @ 마같이조 허는 거?

103020 #1 마같이조. 계난 조도 갈면 마 행, 마 오기 전에 마치기 전에 유월 장 마 들기 전에 허지 아넘니까? 무사. 그 조 갈양은에 그 마가 안 정은에 햇빰이 짝 나면.

103020 # 1 으.

103020 @ 걸 마같이조 이런 말 안 헤 이 동네?

103020 #1 아니.

103020 @ 그런 말은 안 허고예?

103020 @2 아.

103020 #1 마견이, 마견이조. 웃음.

103021 @ 으, 마견이조 이런 말 안 해. 그런 건 안 하고예, 알았수다. 조팻 검질은 어떻 메여마씨?

103021 #1 조팻, 조팻 검질은 어떻 맵니까? 조 시 스끄곡 뭐 허젠 허민 초불 메곡 두불 메곡 세불 메곡 허주.

103021 @ 세불까지?

103021 #1 으.

103021 @ 게른 초불은 어떻 식으로 허는 거마씨?

103021 #1 초불은 씨 스끄곡.

103021 @ 예.

103021 #1 씨 스끄곡 벌레기엔 해근에 묵은풀 덤삭덤삭 이신 벌레기풀.

103021 @ 음.

103021 #1 처음 그거 헤영 메엿당 사름 엇인 사름은 그거 벌레기부터 우선 메엿당.

103021 @ 으.

103021 #1 씨 흥쓸 크면은 그뎨 또 씨 스끄명 제라이 초불로 들어가양?

103021 @ 음.

103021 #1 경헤영 멧당 또 두불은?

103021 @ 예.

103021 #1 그 경 스끄는렌 헤도 새에 준준헌 거 잇어양. 씨가.

103021 @ 예.

103021 #1 그거 메야 웹니까. 두불은 그거 메는 거, 그거 메는 거.

103021 @ 식불은?

103021 #1 세불은 경헤도 피도 들어가고 그 조팻디. 그런 거 저런 거 들어간 세불은 막 쉬웁니다게. 쉬어. 잇인 거만 허는 거난예.

103021 @ 게난 벌레기풀 허는 거는 묵은풀을 벌레기엔 허는 거우과?

103021 #1 으, 으. 밧 갈 때 요즘은 제초제 이시난에 싹 쳐뎡 험주마는 옛날은 그걸 메여뎡은에 밧을 갑니께게. 경허당 보민 묵은풀이 하나씩 떨어져.

103021 @ 음.

103021 #1 그것이 ㄴ찌 조 불러불면은 그 풀이 죽지 아녕 그대로 살앙 크주게.

103021 @ 음.

103021 #1 게난 그거부터 먼저 메여뎡사 벌레기 둘러벼사.

103021 @ 벌레기 둘러뎡 허는 거?

103021 #1 벌레기 둘러사.

103021 @ 겨고 삼춘, 그 이렇게 초불하잖아예.

103021 #1 으.

103021 @ 그러면 초불하게 뎡면은 이 씨를, 그 조를 이렇게 세우멍 허는 거를

여긴 뭐 방 벌린다 이런 말은 안 해?

103021 #1 아니, 방씨 벌영 조.

103021 @ 으.

103021 #1 것도 잘 스끄는 사람 잇고 못 스끄는 사람 잇주.

103021 @ 건 방씨 벌린덴 해?

103021 #1 조 방씨 벌영 즐바로 스끄라.

103021 @ 방씨 벌린다예, 예.

103021 #1 예, 거 딱 귀역을 맞춘다는 말로 방씨 벌인다 허는 거.

103021 @ 뭐 탄내.

103021 #1 옥수수 앓졌져. 웃음.

103021 @2 웃음.

103021 #1 벌씨 타나. 어, 맞아. 기침.

103021 @2 아이고, 방씨엔 헨다이. 방씨.

103021 @ 음, 토흔땃, 스펀땃, 배달땃.

103022 @ 이제 그추룩허영은에 아까 검질 멧지 앗우파예? 검질은 그 게도 조땃
되도 검질 잇일 거 아니? 어떤 검질들 잇어마씨?

103022 #1 제완지, 몰레제완지, 그냥 북덕, 북덕제완지. 헤바레기풀.

103022 @ 으.

103022 #1 그런 거.

103022 @ 요즘도 그런 검질들 보입니까?

103022 #1 예, 요즘도 그런 거 잇어.

103022 @ 음, 아까 몰레제완지는 뭐?

103022 #1 으, 몰레제완지는 저 굽땃이 빨강헌 것이 몰레제완지고.

103022 @ 으.

103022 #1 또 북덕제완지는 막 커근에 막 번어가는 것이 북덕제완지고.

103022 @ 으.

103022 #1 북덕제완지는 이 메기가 쉬워.

103022 @ 예.

103022 #1 저 즐 막 번어부난 쉽곡. 그 몰레제완지는양.

103022 @ 예.

103022 #1 찢깁니다게, 빨리가.

103022 @ 음.

103022 #1 막 번진 아녀는디 꼬짜꼬짜 나는 디 질겨.

103022 @ 음.

103022 #1 건 몰레제완지.

103022 @ 거난 북덕제완지가 저기 좋은 거?

103022 #1 메기는 막 쉽주.

103023 @ 음. 그 다음에 조 수확허젠 허믄 어떻 해야돼?

103023 #1 조 비여당 툫주게. 고고리 툫양.

103023 @ 음, 그걸 굴아줍서. 어떤 식으로 툫고 어떻 허여신지?

103023 #1 조 비여당은에 집의 헤여놓믄게, 혼 단씩 꺼냉영게 이치룩헨게 고고리 툫, 심으멍 행은에 호미로 짝 그창 영 농곡 영영 심영 고고리 툫는 거.

103023 @ 음.

103023 #1 게영 툫아놔근에 마당에 비왕 도께로 메당질 헤근에 터는 거주.

103023 @ 으음, 그때 조 무끌 때는 뭘로 무껏수가?

103023 #1 조 무끌 때도 그자 그걸로 무껏수다. 조도 조로.

103023 @ 아, 조남뎡이로 무끌 수 잇어마씨?

103023 #1 예. 조남뎡이로 무꿍니다. 조가 막 길지 아녀우파양? 게믄 이것이 고고리 아녀우파? 고고리 다음에 이렇게 모가지가 잇지 아녀우과?

103023 @ 예.

103023 #1 진 것이예? 게믄 그 우로 요렇게 행 틀영 영 딱 꼬부렁 영 놔근에 걸로 무꿍니다.

103023 @ 예. 아 조도.

103023 #1 게 딱로 안 헤봤수다.

103023 @ 아, 께를 딱로 안 헤예예?

103023 #1 워낙 짧으민 께가 안 나올 정도로 짧으면은 따로 헤도 안 헤봤수다.

103024 @ 아, 지 것으로. 게면 그 이삭을 허는 거는 이삭 툫암덴 헤? 고고리 툫암덴?

103024 #1 으, 아니, 아 저 조코고리 툫는 거?

103024 @ 으.

103024 #1 건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이삭은 빨리 먹젠.

103024 @ 예.

103024 #1 곧 익어가민 강 툫아당 그 쫄이 떨어져가난.

103024 @ 음.

103024 #1 익음스럽게 먹을 거 엇이난 이삭 줍는 건 그거.

103024 @ 음.

103024 #1 경행 툫아당 이석으로 행 먹는 거.

103024 @ 아, 보리 말고 조도 그런 식으로 익기 전에 헤당 먹엇수가?

103024 #1 예.

103024 @ 으음.

103024 #1 게 쫄이 엇어가난게.

103024 @ 음, 그 다음에 게믄 건 툫양은에, 툫으면 그 다음엔 뭘로 것도 도리게 질?

103024 #1 아니 이삭 줍는 거는 얼만 아녀난에 발로 북북 보밧니다게.

103024 @ 예.

103024 #1 발로 뱀.

103024 @ 음,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는?

103024 #1 수확할 때게 발로 뱀근엔에 그거 몰르민게 쓸 멩글 때.

103024 @ 음.

103024 #1 방에로 쟁주.

103024 @ 방에로예, 흐꼬만 현 건.

103024 #1 으.

103024 @ 한 거는 도께질허고.

103024 #1 으, 방에로 영영 찍어근에 쓸 멩글앗주. 도귀방에로.

103024 @ 무슨 방에?

103024 #1 도귀방에게.

103024 @ 도귀방에렌 헤?

103024 @2 도고방에.

103025 @ 음, 그 다음에 좁쌀 멘들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헛수가?

103025 #1 계난 그거 찍으민 쓸이 나오주.

(잡음)

103025 @ 예, 알앗수다. 쟁은에 이제 그 좁쌀 장만허는 순서예?

103025 #1 으.

103025 #1 조 비여 올 때부떠 조 좁쌀 만들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말해봐줍서?

103025 #1 조 하영 헤영오민 그 멩석에 벳 잘 나민 이틀만 몰르민 압게 널민 쓸 곶아지곡.

103025 @ 음.

103025 #1 벳 잘 안 나민 사흘 널어사 강 곶곡.

103025 @ 음, 그 곶을 때는 뭐에 강 곶아?

103025 #1 아, 우리 옛날에게 몰ㄴ레.

103025 @ 음.

103025 #1 몰ㄴ레로 조를 다 곶아신디.

103025 @ 음.

103025 #1 그 후에는 기계가 나왔수게.

103025 @ 으.

103025 #1 쓸 ㄴ는 기계.

103025 @ 쓸 ㄴ는 기계?

103025 #1 하룽방, 하르방.

103025 @ 하룽방? 하룽방?

103025 #1 것ㄴ라 하룽방엔 헛수다.

103025 @ 으.

103025 #1 야, 하룻방 험시냐?

103025 @ 하룻방 험시냐? 어어.

103025 #1 야, 오늘 하룻방 험시냐? 우리 조 곶아살 걸.

103025 @ 계난 정미소를 하룻방이렌 현 거라예?

103025 #1 정미소를 하룻방.

103025 @ 아아, 하룻방 험시냐?

103025 #1 하룻방.

103025 @ 경 혜영 하룻방에 강 행 왕 것도 몰려. 아니면?

103025 #1 아니, 아니, 아니. 쓸로 나오난 기자, 기자, 기자 하룻방에 강 곶앙 오
민 그대로 먹는 거.

103025 @ 그냥 먹는 거.

103025 #1 체 분리 혜영 나옵니께 기계에서.

103026 @ 불리거나 이러진 안 허는구나예? 그러면 좁쌀로는 주로 뭘헝은에 먹언
마씨?

103026 #1 아이고, 좁쌀로사 무신 걸 행 먹읍네까? 밥 행 떡곡 죽 썰 떡곡게.

103026 @ 음.

103026 #1 경허주게.

103026 @ 조로?

103026 #1 떡도 허고. 오메기떡도 행 떡곡, 조오메기.

103026 @ 예, 조오메기, 음. 술 같은 거는 안 헤봤수가?

103026 #1 아, 건 막걸리.

103026 @ 으, 감주나 이런 거?

103026 #1 으. 조로 합니다. 조오메기.

103026 @ 삼춘도 그걸로 헤싼?

103026 #1 조오메기 헤근에 거 합니다.

103026 @ 거 곶아줍서. 어떤 식으로 허는 거 곶아줍서?

103026 #1 누룩 놔근에 조오메기 죽 썰, 죽 썰 막 뜨거운 저 더운 기 빠지민 그
것에 누룩 서꺼끈에 따듯허게, 안방에 저 뜻뜻헌 방에 이불이나 뭘 특 더깁 놔두면
흐룻밤 자민 부글부글부글 막 퀘주.

103026 @ 음.

103026 #1 그것이 막 잘 췌 거. 이틀씩 행 퀘민 그거는 잘 안 췌 거고.

103026 @ 음.

103026 #1 하이튼 푹 더깁 흐룻밤 장 허는 건 막 잘 췌 거. 게, 그것에 저 막걸
리로 먹주게, 옛날.

103026 @ 으음, 그런 식으로 헤갓고 겨난 조는 죽 썰은에 허는 거?

103026 #1 어, 죽 썰 헤사주.

103026 @ 아아.
 103026 #1 아무 것도 죽 썩 해야주.
 103026 @ 아아.
 103026 #1 지금은. 제청 허는 디도 천제허는 디도 거 죽 썩근에 멩그는 거.
 103026 @ 으으, 그게 감주예?
 103026 #1 으.
 103027 @ 으으, 그 다음에 조 그 조남뎡이, 그거는 뭘로 써마씨?
 103027 #1 건 쉼나 돌이나 출.
 103027 @ 음.
 103027 #1 쉼 뎡 양석.
 103028 @ 양석으로, 조남뎡이는. 그 다음에 혹시 삼춘 조 농사 허멍 잊어불지 못
 허켜 허는 이런 추억거리도 잇수가?
 103028 #1 조, 조 용스는 하영 안 헤봐부난에.
 103028 @ 음.
 103028 #1 추억거리가 없어.

콩 농사

103029 @ 콩 같은 거는 허젠 허면 어떤 준비가 필요헤마씨? 콩도 갈아실 거고.
 103029 #1 콩도 가는 거.
 103029 @ 예.
 103029 #1 거 콩도게 기자 밧디 가근에 씨 빼영 내불민 밧갈에치 강 밧만 갈민
 텔 거난.
 103029 @ 음.
 103029 #1 씨 빼여 논 후제 밧 가는 거난.
 103029 @ 예.
 103029 #1 갈양만 내불민 콩 날 거난.
 103029 @ 음, 게난 밧갈에치들은 밧 잘 가는 사름을 경 곶아?
 103029 #1 음. 밧갈에치엔 현 게.
 103029 @ 으.
 103029 #1 그 쉼로 갈아도 지프게 찢렁 잘 갈아주는 사름 잇고, 우로만 빌빌빌
 가는 사름 잇주게.
 103029 @ 예.
 103029 #1 게난 그런 사름도 저 좀 한글힐 뎡 곶렁 빌영 허주. 곶렁.
 103029 @ 음.
 103029 #1 잘 허는 사름으로.
 103030 @ 잘허는 사름으로 헤갓고. 으. 콩은 언제 갈아마씨?
 103030 #1 거 다 유월절 전후 삼일허영 다 가는 거.

103030 @ 조나 콩이나.
103030 #1 예, 예, 예.
103030 @ 유월절 전후 삼일.
103030 #1 전후 삼일.
103031 @ 예, 콩밭도 거름은 안 허겟다, 그럼예?
103031 #1 안 험니다게.
103031 @ 아아, 왜냐하면 보리헤난 다음에 가는 거난예.
103031 #1 예.
103032 @ 콩씨는 어떤 식으로 빼여마씨?
103032 #1 빼는 거?
103032 @ 음.
103032 #1 것도 기자 빼영 가는 거.
103032 @ 손으로.
103032 #1 으.
103032 @1 그냥 손으로 이렇게 심거나 이러진 안 허고?
103032 #1 아니, 아니. 기자 빼영.
103033 @ 콩밭디도 검질 땡니까?
103033 #1 어, 메여사주.
103033 @ 아.
103033 #1 콩밭디 검질 나민 메여사주.
103034 @ 건 어떤 검질들?
103034 #1 그것도 마찬가지로. 헤바레기허고양.
103034 @ 예.
103034 #1 헤바레기나 그 저 무신 거 제완지나 그런 거. 콩밭디도 마찬가지로.
103034 @ 헤바레기는 어떤 겨우과? 이 동쪽 할 때 헤바레기가 나완게.
103034 #1 아, 헤바레기 풀 모르는구나.
103034 @ 으.
103034 #1 헤바레기가 이디 잇일 건디. 어디 잇일 건디.
103034 @ 이땅 한번 훑아보게.
103034 @2 웃음.
103034 @ 왜냐하면 헤바레기풀은 허는데, 나는 저기 서쪽이난 그 말 안 들어봤
거든 헤바레기풀.
103034 #1 기이?
103034 @ 예.
103034 #1 헤바레기풀이 쥬 잘 나주워. 남밭디도 질 나고.
103034 @ 남밭디도 하영 나는 게 헤바레기풀?
103034 #1 막 하영 납니다. 헤바레기.

103034 @ 으으, 여름 검질이구나예?

103034 #1 으.

103035 @ 알았수다. 이땅 강 좇아보고? 그 다음에 콩 수확은 게른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3035 #1 콩 수확게 콩 꺼꺼근에. 호미로 꺼경 툽툽 무꺼당은에 콩은 깨 탄 거 행 무끔니다.

103035 @ 예.

103035 #1 콩 무끈 거는.

103035 @ 거는 어떤 깨로 험니까?

103035 #1 밧디 강 허는 거는 새 비여근에 새로 깨허곡.

103035 @ 음.

103035 #1 새.

103035 @ 새로?

103035 #1 새로 깨허여당 콩 무끔니다.

103035 @ 음.

103035 #1 깨 허영 콩 태작도 옛날에는 태작 엇이난 도께로 헛주게.

103035 @ 음.

103035 #1 도께로 해근엿에 태작해영 건 불려근엿에 그 얼멩이로 처근에.

103035 @ 으.

103035 #1 얼멩이로 청 준 거 다 빠벼뵤은에 우의 것만 먹어낫수게. 옛날은 콩 안 받아가난게.

103035 @ 아, 아.

103035 #1 콩이여 무시거 받건딘 멧 십년 안 뵤수다게. 돈 주건디 전원.

103035 @ 으으. 콩은

103035 #1 먹을 거만 갈아낫수게.

103035 @ 어떤 콩덜 잇인 거? 그 콩 이름은?

103035 #1 장콩.

103035 @ 장콩이렌 헤? 콩 요즘 어떤 콩덜 잇수가?

103035 #1 요즘사 무사 콩늬물 콩도 잇곡, 장콩이라도 파랑 것도 잇곡 하얀 것도 잇곡 노랑 것도 잇곡 콩씨가 여라 가지.

103035 @ 음. 그 옛날 씨는?

103035 #1 옛날엔 흐나 뿐이주게.

103035 @ 장콩인디 어떤 거 같안?

103035 #1 그 하얀 거.

103035 @ 하얀 거?

103035 #1 으. 노립쯔름행 하얀 거. 것만 갈았주.

103035 @ 걸 여기서 득세기콩이렌은 안 곶아?

103035 #1 아니 독새기콩은 따로 잇주.

103035 @ 아아. 건 딱 른 거우과?

103035 #1 독새기콩은 똥끌똥끌똥끌헤영 딱로 잇수다.

103035 @ 장콩은 훙은 그거고?

103035 #1 예, 장콩은 쪼끔 훙고 훙쌀 납작지듯도 허곡 허는다.

103035 @ 음.

103035 #1 독새기콩은 완전 똥글똥글똥글똥글헤여.

103035 @ 으음.

103035 #1 막 훙지도 안 허고.

103035 @ 막 훙지도 안 허곡.

103035 #1 예.

103035 @ 게난 장콩허고 독새기콩은 틀린 거구나예?

103035 #1 예, 틀려.

103036 @ 예, 알앗수다. 게믄 콩으로는 주로 어떤 음식들을 헤영 먹언마씨?

103036 #1 콩으로는 콩 곺아다근에 국도 끌여 먹고. 콩국. 국도 끌영 떡곡 저 무신 거냐 두부도 헤영 떡곡. 그거주 콩으로사.

103036 @ 음.

103036 #1 장허곡.

103036 @ 장허곡.

103036 @2 콩죽도 맛싯는데.

103036 #1 예, 콩죽.

103036 @ 음, 콩죽도 허고.

103036 #1 콩죽도.

103036 @ 게난 콩죽 헤영 먹거나 콩 저 국허영 먹는 건 곺아당 허는 거?

103036 #1 곺아당.

103036 @ 곺아당예, 삼춘이 직점 두부도 헤판?

103036 #1 예, 예.

103036 @2 둤비.

103036 @ 여기도 둤비렌 험니까?

103036 #1 아니, 두부.

103036 @ 그냥 두부? 으, 건 어떻 식으로 두부 허는 거?

103036 #1 바닷물 헤다근에.

103036 @ 음.

103036 #1 바다물 헤다근에 이디서 민물에 헤영 소금 낡도 허주마는 거 근 잘 못 맞추카부덴.

103036 @ 음.

103036 #1 바닷물 헤강계 물에 솟디 낡 끌여근영에 그거 허영 콩꺾루 낡은에 허

민 북작허게 우티레 터오주기, 익으민.

103036 @ 음.

103036 #1 게믄 언물 차 쳐근에 허믄.

103036 @ 음.

103036 #1 건데기만 딱 건정 무시거나 잘리나 전경 싹 잘리나 판테기에 낱 그레 퍼짜근에 늘리민 두부가 나오주게.

103036 @ 으음. 여기는 간수를 뭐 맞출 이유가, 필요가 없네.

103036 #1 예, 쫄물, 바당물 해당 허민.

103036 @ 아아.

103036 #1 민물, 바다 엇이 디는 민물해근에 간을 소금해영 쫄물처럼 맞춰야 돼여.

103036 @ 으음.

103036 #1 경험니다게.

103036 @ 건디 여기는 그냥 저기에 걸로?

103036 #1 으으.

103036 @2 아 게난 둠비렌 말은 안 허고?

103036 #1 둠비엔은 안 헉니다. 두부. (웃음)

103037 @ 그 콩, 콩남뎡이 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

103037 #1 것도 쉼 먹어.

103037 @ 음.

103037 #1 쉼출로.

103037 @ 쉼출로?

103037 #1 으, 쉼출로.

103037 @ 콩은 하영 안 가난 해도 콩 농사 허멍 얽힌 추억거리 같은 거 있어마썬?

103038 #1 예고 콩농사 해여근엔에 허민 약 제 혼에 못허민 버랭이 일어불민 그 것이 생전. 아이고, 옛날에 버랭이 일은 콩 문딱 착콩 뉘병은에.

103038 @ 으.

103038 #1 그런 거나 생각나주.

103038 @ 웨냐허민 착콩 뉘여 불면은 썬 먹을 게 엇잖아예?

103038 #1 엇주게.

103038 @ 음.

103038 #2 그 좀 착콩도 흐썬 덜 쉼 거는 글아근에 그치록 국도 끓이고 죽도 썬 먹주마는 너무 하영 먹어분 거는 먹을 생각, 먹을 정도가 안 뉘지.

103038 @ 음. 맛도 엇고예?

103038 #1 버랭이 먹어부난게.

밭벼 농사

- 103039 @ 산된 삼춘 하영 갈앗덴 헨게마는?
- 103039 #1 산된 살럼 산 후제 갈앗주. 결혼헌 후제.
- 103039 @ 산뒤허젠 허민 뒤가, 뒤를 준비힙니까?
- 103039 #1 산뒤도 조나 마찬가지로양.
- 103039 @ 음.
- 103039 #1 산뒤도 그냥 씨 삐영은에 밧 가는 거난.
- 103039 @ 으.
- 103039 #1 산뒤나 조나 마찬가지로우다게. 씨 삐영 그대로 밧가는 거난 뒤 불리구 정 헌 사름은 불리고.
- 103039 @ 으.
- 103039 #1 밧이 막 메말랑근엥에 팍삭팍삭헿은에 썰 단단히 안 부뻘직허민 불립 니다.
- 103039 @ 음.
- 103039 #1 경허민 탕탕허렌.
- 103039 @ 예.
- 103039 #1 불리고 탕탕허민 여물도 염넌허주.
- 103039 @ 음.
- 103039 #1 불리민 경허주마는 대부분은 ㄱ세기 허영 내불주 불리는 사름 멧 엇 어.
- 103040 @ 아까, 삼춘예? 조는 밧 갈앙은에 줍씨 빼는 거?
- 103040 #1 산뒤도 갈앙 빼는 거.
- 103040 @ 갈안 다음에 빼는 거예?
- 103040 #1 초불 갈아냥 빼여근엥에. ㄱ세기질 허는 거.
- 103040 @ ㄱ세기질 허는 거? 예, 알앗수다. 게믄 산뒤는 언제 갈아?
- 103040 #1 아 산뒤도 스월 오월 오월에 갈지.
- 103040 @ 으, 것도 다 유월절 그때.
- 103040 #1 예.
- 103040 @ 으음.
- 103040 #1 게믄 산뒤는 추석 쪼끔 지나민 밍니께.
- 103040 @ 건 빨리 돼는구나예?
- 103040 #1 으.
- 103041 @ 음, 그 산뒤 거름도 헤마씨? 산뒤밧도.
- 103041 #1 아니 옛날에사 걸름 엇이난 안 헿주마는 요즘사 걸름허주게.
- 103041 @ 요즘은 허고예?
- 103041 #1 요즘 비료 빼주게.
- 103043 @ 그 산뒤왓디 검질은 멧 번썸 메여?

103043 #1 산뒤왓디 검질은 검질 잘 나민 아무튼 세 번 이상 못 맵니다. 산뒤가
 높아비영. 경허곡 산뒤는 흐쓸 으 양반이라서.
 103043 @ 예.
 103043 #1 원래 양반이렌 혜근에 몸 비린 사름도 검질메레 못 가곡.
 103043 @ 아아.
 103043 #1 산뒤밧데. 마지막 검질멜 땀 몸 비린 사름도 안 갑니다. 여자덜토 달
 거리헌 사름도 안 가고.
 103043 @ 음음. 아, 이 말은 처음 들었수다.
 103043 #1 이디선 경험니다.
 103043 @ 아아.
 103043 #1 영장밧디 강 왕 그날은 안 갑니다. 장밧디 가온 사름.
 103043 @ 다른 것덜은 상관 없는데?
 103043 #1 예, 산뒤밧디는 게서 양반이라고 경 갑니다. 옛날 어른덜이. 산뒤는,
 산뒤쓸은 양반이라부난 양반으로 칭. 그 제사 때 허곡 무시거 허는 거난 양반이렌
 허는 생입디다. 경혜부난 비린 것 곁려.
 103043 @2 검질메는 것조차도?
 103043 #1 예, 예, 예, 예. 검질메는 것도예, 저 이 여자덜 달거리허는 사름도양
 그땀 산뒤밧디 못가예. 안 메여.
 103043 @ 게문 뒤 수확혈 때도 그런 식으로 허고?
 103043 #1 아 수확혈 땀 그거 엇고.
 103043 @ 상관 없고.
 103043 #1 수확혈 땀 그거 엇고.
 103043 @ 그냥 검질만?
 103043 #1 삭아분 땀 허주. 산뒤가 죽어병.
 103043 @ 아아.
 103043 #1 부정허민 죽어분땀힙니다게.
 103043 @ 산뒤가예?
 103043 #1 으, 혜영케 기자 말라불언.
 103043 @ 아, 웨냐허면 산뒤나 나록이나 보면 혜영케 뉘어분 거 보이잖아예.
 103043 #1 예, 예. 말라분땀 힙니다게.
 103043 @ 게문 그 검질은 몇 번 메는 거?
 103043 #1 산뒤밧디 게메, 세불7장 메는디 높아 불민 세불엔 기자 살살살살 굽
 영도 몇닥 앓앙도 몇닥 허멍 허는 거.
 103043 @ 그렇게 이제 하고. 산뒤도 종류가 으라 개 잇입니까?
 103043 #1 아니, 흐린 거 찻쌀 산뒤 잇고.
 103043 @ 으.
 103043 #1 으, 모인 거 잇고.

103043 @ 으, 모힌산뒤엔도 곱아?
103043 #1 으.
103043 @ 여기서?
103043 #1 으.
103043 @ 으으.
103043 #1 모힌거 잇고 흐린 거 चुष을 흐린산뒤 잇고.
103043 @ 모힌산뒤는 주로 뭐허는 거?
103043 #1 모힌산뒤데 기자 밥 행 떡곡 떡 행 떡곡게. 찹쌀은게 옛날은 막 필요
헌 때만 씩니께게.
103043 @ 음.
103043 #1 제사 때도 기름떡 ㄹ튼 건 헐 땀 찹살로 허곡게.
103043 @ 음.
103043 #1 제사 때도.
103045 @ 으음. 그런 식으로 행 계문 그 산뒤 수확은 어떤 식으로 헐 거?
103045 #1 그거 그 산뒤도 허민 홀테로 홀탕.
103045 @ 음.
103045 #1 저 주녕이보리나 마찬가지로.
103045 @ 음.
103045 #1 주녕이보리나 마찬가지로 산뒤 홀트는 홀테가 따로 이십니다.
103045 @ 예.
103045 #1 산뒤가 고고리가 주녕이보리보단 더 얹지 안 하우팡양?
103045 @ 예.
103045 #1 계난 홀테가 따로 잇어. 산뒤 홀트는 홀테가 따로 잇어.
103045 @ 여기서는 홀테렌 허는구나.
103045 #1 홀테.
103045 @ 으. 영영 웬 거예.
103045 #1 으.
103045 @ 그런 식으로 산뒤를 홀트 다음에 이것도 도리께질 헤?
103045 #1 도께로 헤사 ㄹ스락 털어지주게.
103045 @ 아아. 홀튼 다음에/
103045 #1 ㄹ스락이 막 하는 때문에 도께질헤사 ㄹ시락 다 털어사주게.
103045 @ 이것도 ㄹ스락은 뭐 어떻 써?
103045 #1 이 ㄹ스락은 무시거 벨로 하지도 안 헉니다. 이건.
103045 @ 이건 안 하예?
103045 #1 벨로 혼 마당 헤봐야 ㄹ스락 혼 곱체 정도.
103046 @ 계문 산뒤쓸 헤갓고 그 쓸로는 주로 뭐 헌 거?
103046 #1 계메 쓸. 아, 옛날에는 거 제사애나 쓰곡.

103046 @ 음.

103046 #1 어디서 막 뒤편 소님이나 오민 보리쌀에 서경 밥혜영 대접허곡.

103046 @ 음.

103046 #1 기자 보통 사름은 산뒤쌀 먹어젓수가? 제사 때나 먹주.

103046 @ 으음, 평소에는 못 먹곡?

103046 #1 예, 조팍벧기. 조팍 보리밥벧기.

103046 @2 곤밥인데.

103046 #1 곤밥.

103046 @ 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3046 #1 이 부락에는 더군다나 이쪽에는양,

103046 @ 예.

103046 #1 옛날 제사 때도 보리쌀 서경 밥허곡. 그 저 멧밥은 산뒤쌀 우로 보리밥 허는 디 흐뎡 놔근엿에 메만 거렁.

103046 @ 음.

103046 #1 메만 걸려 올려뎡. 하나씩 보리밥에 서꺼지게 젓어근에 제사 때.

103046 @ 아아. 게난 이 지역이 땅이 좀 안 좋은 편이지예?

103046 #1 이 부락이 쥬 안 좋주.

103046 @ 아아.

103046 #1 이 부락이 저 이 성산읍에서도 쥬 땅이 나쁜 부락.

103046 @ 으음.

103046 #1 땅은 쥬 나쁘곡 바다는 쥬 좋고.

103046 @ 아, 바다는 쥬 좋고.

103046 #1 쥬난 바다 하나 민엿 살앗덴 허주. 옛날엔 바다에가 돈이 많이 나난.

103046 @ 으.

103046 #1 바다 하나 민엿 살앗젠.

103046 @ 거난 이 동네는 쥬쌀밥 허더레도 다 모힌쥬쌀밥이렌예?

103046 #1 으으.

103046 @ 예. 흐린조팍이 아니고.

103046 #1 흐린조팍이 잘 엿어부난. 밧이. 흐린조팍이 잘 엿어부난.

103046 @ 예.

103046 @ 흐린조 가는 밧을 흐린조팍이렌 험니까?

103046 #1 으, 으, 으.

103046 @2 슬지폰밧?

103046 #1 슬지폰밧 토흔밧.

103046 @ 토흔밧.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거난 그 산뒤 허게 뉘민 떡도 헤야 뉘 거 아니? 그걸로 떡도 헤?

103046 #1 산뒤떡은 맛십니다.

103046 @ 에.

103046 #1 모힌 거.

103046 @ 모인 거? 응.

103046 #1 건 떡허민 맞서.

103046 @ 건 무신 떡을 해?

103046 #1 친떡을 해도, 시리떡을 폭삭폭삭 맛있고.

103046 @ 음.

103046 #1 그냥 이 저 솔변 절변을 해도 산뒤떡은 맞서.

103046 @ 아아.

103046 #1 딱 것광 틀령. 요즘 이 나록쫄로 떡허민 끈닥끈닥허주게. 솔펜 절벤도 예. 찌닥찌닥허는디 그 산뒤떡은 경 안 허주. 조금 폭삭폭삭허는 듯 혜근에 맞서.

103047 @ 아아, 거는 맛있어예? 예. 알앗수다. 그 다음에 나록쫄 아니고 이거는 산뒤쫄.

103047 #1 산뒤쫄도 췌 몰 췌.

103048 @ 아아, 산뒤쫄도 췌 몰 주는 거? 어어. 그렇게 하고. 삼춘네는 산뒤 하 영 갈앗텐 허니까 따른 사람보다는.

103048 @ 으.

103048 #1 그거에 얽힌 추억도?

103048 #1 으.(웃음)

103048 @ 웨냐면 산뒤 혜영 오민 그날은 곤밥을 행은에 먹엇다든가 이런 것도 잇일 거 아니?

103048 #1 아니주기 무신.

103048 @ 잘 사는 집의는?

103048 #1 아이고, 잘 살긴 무시거 잘살아게. 웃음.

103048 @2 키만 크고 (웃음).

103048 #1 아, 요즘이야 잘 살주게.

103048 @ 음.

103048 #1 무신 잘 살곡 대곡.

103048 @ 옛날, 잘 안 살암십디가?

103048 #1 허긴 막 웅색허게 안 사난 잘 살긴 현 겹주. 놉한티 돈 꾸레 안 텡기 곡 쌀 풀레 안 텡기곡 허난 옛날에 경 현 것이 잘 산 거주게. 돈 꾸레 막 이 집 저 집 텡기지 아년난게.

103048 @2 맞수다.

103048 #1 그런 건 몰르게 살앗주.

교구마 농사

103049 @ 삼춘, 감저 하영 싱건 여기도?

103049 #1 올히?

103049 @ 아니 옛날에.

103049 #1 옛날에 감저 농사만 헛구게. 경허단에 그치룩허단에 나 결혼허연 후에 계난 결혼이 지금 예, 오십사년 텔 처레냐? 칠십일곱이난예. 오십사년, 그 시절에는 고구마덜 많이 노니까 공장이 생긴 거라. 전분공장.

103049 @ 음.

103049 #1 전분공장을 생기난 이 온평리도 전분공장 잇어나고 요 신산리도 잇어나고.

103049 @ 음.

103049 #1 또 하천리도 잇어나고 헤신디 온평리 거 잇어져불고 신산리 잇어져불고 허난 남원이만 큰 공장이 생겨서.

103049 @ 음.

103049 #1 계난 나도 멧 년동안 남원리 그 고구마 장스헛수다.

103049 @ 아아, 험말 하컨게 게문. 저기 감저 싱그젠 허민 준비험 게 뭐 잇수가?

103049 #1 감저 싱그젠 허민게 비료허곡게.

103049 @ 으.

103049 #1 감저밭디 비료 사름 여라이 빌어사 감저 싱글 거 아니우과?

103049 @ 음.

103049 #1 밧 가는냥.

103050 @ 그건 언제 싱그는 거?

103050 #1 감저?

103050 @ 예.

103050 #1 감저도 저 무시거 전에이 옛날에 그 시절에는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에, 아이고 유월절 넘어 농민은 쇠귀가 많이 들곡, 감저가.

103050 @ 예.

103050 #1 겐디 줌 잘아.

103050 @ 예.

103050 #1 계난 유월절 전의 농면은 식구는 하영 안 돌아져도 굶어.

103050 @ 음.

103050 #1 경허니까 그런 밑에서 빨리 출려진 사름은 유월절 전에 허곡.

103050 @ 음.

103050 #1 눙으로만 빌영 험 사름은 유월절 넘어 허곡.

103050 @ 으.

103050 #1 경헤영.

103050 @ 크게 허젠 허면은 유월절 전이 싱근 거라예? 게문 감저는 이제 싱그젠 허면 미리 준비를 해야 험 거 아니우과?

103050 #1 으, 감저 모종 낫당 키와살 거주게.

103050 @ 그 모종은 언제 놓는 거?
103050 #1 모종은 음력으로 이월달에.
103050 @ 예.
103050 #1 음력 이월달에.
103050 @ 음력 이월에.
103050 #1 어, 이월에 모종 걸름허여근에 우연에. 감저모종 싹 낳. 요즘은 비니루 더꺼도 옛날은 비니루 엇인 때난 그대로 흑만 더경은에.
103050 @ 예.
103050 #1 그거게 흑만 더경 그 모종 나근에 크젠 허민 오죽 여라 들 걸릴 거우 과거.
103050 @ 예.
103050 #1 경허민 그거 유월절 전후 삼일 뉘가민 감저 낱살 거난에 그때깝장 키와근에.
103050 @ 감젓메렌 곶아?
103050 #1 으?
103050 @ 감젓메?
103050 #1 감젓메?
103050 @ 예.
103050 #1 감젓메가 뭐라?
103050 @ 여기는 감저 모종이렌 험니까?
103050 #1 으 감저 모종.
103050 @ 으, 감전, 줄 현 거를 감젓메 낱젠 이런 말은 안 허는구나?
103050 #1 감저꿀엔 허주.
103050 @ 감저꿀엔 헤? 감저꿀, 감저꿀을 비여당 이제 현 거?
103050 #1 으, 감저꿀.
103051 @ 감저꿀예? 게믄 그 감저꿀은 비여당 싱그젠 허면 밧디도 거름을 헤?
103051 #1 저 감저 놓을 때?
103051 @ 예.
103051 #1 우리 시절엔 걸름헛주. 비료.
103051 @ 비료 뿌런예? 아아.
103051 #1 비료 빼연.
103051 @ 게영 어느 정도 크기힐 때 감저꿀은 잘릅니까?
103051 #1 감저꿀양 것도 모종을 좋은 디 놓면은 그기간깝장도 잘 크는 밧이 잇어예? 잘 크민 이 정도로 잘 크주. 옛날에는 몰르니까 그 긴 거를 그대로 한꺼번에 놓은 거라.
103051 @ 음.
103051 #1 걸 찻랑 놔야 감저 수확이 날 건데. 그것이 이만이 크면은 세 개 네

개로 찢랑 놓면은 감저는 이 꾀쟁이만 드는 거난 많이 나는 건데. 그걸 질, 긴냥 그 대로 일은 빨라도 감저 수확은 얼마 안 나지.

103051 @ 아아.

103051 #1 꾀데만 드는 거기 때문에.

103051 @ 예.

103051 #1 게난 차츰차츰 헤가명 그 다음부떠는 찢르명.

103051 @ 음.

103051 #1 찢르명 헤영 놓니다. 좃게. 게야 수확이 많이 나주.

103053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감저밭디도 검질메알 거 아니예?

103053 #1 메여사주게.

103053 @ 그때는 어떤 검질?

103053 #1 감저꿀 영 더퍼지난 아,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름 검질이난.

103053 @ 여름 검질이난.

103053 #1 으, 제완지허고 헤바레기 ㄱ쁜 거 그런 거.

103053 @ 여기는 감저꿀엔 허고.

103053 #1 감저꿀.

103055 @ 게문 감저 그 수확은 어느 철에 허는 거?

103055 #1 수확은 시월, 시월들 나민 수확 허기 시작허는 거.

103055 @ 예, 수확허젠 허민 그 순서대로 곶아줍서. 어떤 식으로 감저 파고 헤신디?

103055 #1 꿀 걷영.

103055 @ 예.

103055 #1 꿀 걷젠 허민 힘들영 그것도 흥뽀 펜안히 살아져가난 설러벳수게게.

103055 @ 예, 예.

103055 #1 꿀 걷엇당은에 꿀 영영 치우명 담더레영 어디레영 다 치와근에 파는 거주, 앳앙.

103055 @ 감저 꿀 걷젠 허민 어떤 식으로 걷는 거?

103055 #1 아이고, 꿀 걷젠 허민 호미로, 호미로. 호미로 헤근에 파니 네 개 잡아근에.

103055 @ 으.

103055 #1 네 개 잡앙 흥 판이 꿀을 저 이레 자치명 끊어가.

103055 @ 예, 예.

103055 #1 경헤영 끊어가근에 또 이쪽으로 흥 파니 딱 잡앙 끊어오민 여기 가운디 두 파니 남을 거 아니?

103055 @ 예.

103055 #1 게문 그거는 기자 한꺼번에 이 도막도막 찢랑예?

103055 @ 예.

103055 #1 흥번 뒤편 만큼씩. 계영 짤라근에 여기 탄 끊엉 착 자쳐똥 이디 강 또
영 짤랑은에 경행 끈주.

103055 @ 다 사람 손으로?

103055 #1 손으로.

103055 @ 으. 뭐 소를 허거나 안 허고예?

103055 #1 아니. 이 근래는 저 뭐냐? 기계로 걸었주.

103055 @ 아, 기계로도 걸어나고.

103055 #1 기계로 착착착착 저 찢엉, 찢엉.

103055 @ 예.

103055 #1 기계론 허민, 그 감저꼴을 찢엉.

103055 @ 예. 그런 식으로 헤갓고 허고 파는 거는 어떤 식으로?

103055 #1 파는 건 놉빌엉 글게기로 파사주.

103055 @ 아, 글게기로 파마씨? 여기는.

103055 #1 글게기로 파사주.

103055 #1 아니, 아니, 글게기로.

103055 @ 아아, 우리는 손으로 파는 거 안 보고 다 잠대 메왕은에 쉼로 파신디.

103055 @2 우리는 손으로 헛어.

103055 #1 손으로, 손으로.

103055 @ 예.

103055 @2 건 웨냐허면 많이 하는 데는 그랫을 지도 몰라?

103055 #1 잠대 메왕 헛 거는 그르제우다. 예, 그루후젠 기계로도 헛니께, 헛수
계.

103055 @ 예예.

103055 @2 계난 그때는 기억하기로는 그 골벧 잇잖아. 골벧.

103055 @ 예.

103055 @2 골벧으로 헛어. 웨냐허면 그냥 쉼벧으로 하면 감저가 다 탁탁 짤라지
잖아. 나무로 뉘 잇는 골벧.

103055 #1 골베기 뉘우과?

103055 @ 골 가는 벧. 벧 메운 **

103055 #1 벧으로만 끼왕 고렝이 가는 거. 골 가는 거.

103056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씨감저 허젠 허면 보관은 어떤
식으로 헛? 삼춘.

103056 #1 우연에 구텡이 팡. 구텡이 팡 에염에 쪽허게 보리찝 세왕.

103056 @ 예.

103056 #1 보리찝. 보리찝 짝 이 구텡이 이렇게 파면은 뱅허게 돌아가멍 보리찝
세왕 밑에 보리찝 흥 드리 글양 그레 감저 막 갓다 낱. 그 우터렌 또 어웁. 억새.

103056 @ 예.

103056 #1 그거 해당 우트레 주둥이짜엔 억새로 빙허게 놔놔. 감저 이 혈 만이 구덩이가 요 정도면은 요만큼 올라오게시리 감절 놔놔 계영 그 억새를 노곳으로 영영 쫓류는 거라.

103056 @ 음.

103056 #1 싹 쫓류 다음에 흑을 다 덮어. 거기 요만이만 냉겨똥. 꼭데기에. 것만 냉겨똥 흑 싹 더푼 다음에 주쟁이 멩글앙 .

103056 @ 으.

103056 #1 주쟁이 멩글앙 주쟁이만 푼 더경 내부는 거주.

103056 @ 경허여근에.

103056 #1 잘 맞아. 그 온도가. 잘 맞아.

103056 @2 우리는 조침으로 헛수다.

103056 #1 조침도 헛주게.

103056 @ 으.

103056 #1 조침도 헛주.

103056 @ 조침도 하고. 경허영은에 감저 허면 그거는 씨감저.

103056 #1 씨감저.

103056 @ 게문 감저는 주로 어떤 식으로 풀아서마씨?

103056 #1 풀아서?

103056 @ 으.

103057 @2 뺏테기 멘들앙?

103057 #1 아아, 풀아서어? 그 감저 놔사 팡은에.

103057 @ 예.

103057 #1 그때는 처음에는 공장 안 생긴 때난 뺏테기 헛수게.

103057 @ 예.

103057 #1 뺏테기 주로 허난에. 그땐 나무를 이 저 전부다 불로 숨을 때난 이 길가에고 무시거 현 밧디고 전부다 나무 빨감으로 다 비어부니까 버덕이 막 하, 하낫주. 지금은 버덕이 하나도 엇인디.

103057 @ 음.

103057 #1 남 나부난.

103057 @ 음.

103057 #1 버덕이 허난에 이녁 밧디서 파면은 그 버덕 츠지해근에 막 감저 쫓끔씩 갖다놔당 츠지 해놔근에 거기서 기계가 잇엇주.

103057 @ 음.

103057 #1 감저 기계.

103057 @ 음.

103057 #1 계영 그디 널영은에 말렸주.

103057 @ 으음, 계영 다 버덕에. 밧디에 넌 게 아니라 버덕에.

103057 #1 밧되 흑밧되 안 돼주게? 버덕에 나왕.
103057 @ 우리 저 서쪽은 다 밧되 널엇수다.
103057 #1 흑밧되.
103057 @ 예.
103057 #1 무신 거 꿀앙?
103057 @ 아니.
103057 @2 기냥.
103057 @ 그냥.
103057 #1 땅 우에.
103057 @ 예, 게영 거 다 좃영 오고.
103057 #1 버물지 아녕.
103057 @ 안 버불어. 믱름.
103057 #1 비올 땀 어떻 허렌?
103057 @2 비오민 큰일리나주.
103057 @ 그때는 이제 난리나는 거주. 구름, 비오젠 허면.
103057 #1 이딘 다 꺃어내영양?
103057 @ 예.
103057 #1 테역밧되.
103057 @ 테역밧되에?
103057 @2 우리는 기냥 밧되 행. 정말 비 오젠 허면 가빠 더꺼간다 막 난리납 주. 썩어불고.
103057 #1 맛수다게. 흑밧되라부난.
103057 @2 거 젓으면 돈도 안 주고 하니까.
103057 #1 예게. 그.
103057 @2 썩어불고.
103057 #1 게고 흑 무쳐지민 시커멍허곡.
103057 @ 곱팡이나곡예.
103057 #1 이딘 다 꺃어내영. 잔디밧되. 전부 다.
103058 @ 음, 게름 그 감저꿀로는 뭐허여?
103058 #1 거 꿀 물 췌출.
103058 @ 감저꿀은 췌출.
103058 #1 췌영 물이영 겨울에 양석이주.
103059 @ 삼춘, 감저 싱그멍 잊어불지 못허키여.
103059 #1 감저 놓을 때 뭐 모종 놓을 때?
103059 @ 모종 놀 때든 뭐 아무 때라도. 잊어불지 못허는 거?
103059 #1 잊어불지 못허는 거는? 경 무시거 현 거는 엇인디 저 뺏테기허젠 허 민 밧되 거 지여 내는 거.

103059 @ 예.

103059 #1 마차나 뭐 엇이난양, 그 등짐으로 다 그 장소에 지어내야 될 거 아니
우과? 저 멧탱이에 담으멍.

103059 @ 음.

103059 @2 등짐으로.

103059 #1 예, 등짐으로. 그거게 그치룩허멍 다 영 빼덜이 다 다리 아프다 늙어
가난 나이 들어가난 이젠 다 허리뱅이여 다리여 곤는 거주게.

103059 @ 그때 하도 짐도 하영 지고?

103059 #1 하영만 저수가게.

103059 @ 예.

103059 #1 그 여남은 설 뉘난 짐 지기 시작한 걸 그땐 무산 짐이우파 허민 뉘감
따문에.

103059 @ 으, 뉘감허레 다니고 ?

103059 #1 뉘감 때문에 맨날 강 뉘감을 헤 와야 뉘난.

103059 @ 그 뉘감을 여기서는 지들커 이런 말은 안 헤?

103059 #1 지들커.

103059 @ 어, 지들커렌예?

103059 #1 지들컬 헤 와야 뉘난.

103059 @ 게난 물은 안 집디가?

103059 #1 무사 물 안 집니까? 물도예, 이딘 거리가 하도 멀어양. 우린 저 밑에
랏수다. 사는 디가. 춤 우리 친정네 사는 디가. 이 동네서 쉼 밑엔디 지금 양어장덜
잇인 그 동넨디. 그 동네서 세미엔 현 거는 요디 흐나 뿐이라양.

103059 @ 예.

103059 #1 요디 하나 뿐이고. 글로 저 밑에 민물통 잇수다. 민물통.

103059 @ 음.

103059 #1 이쪽은 소 먹곡 이쪽은 사름 먹는 통이 잇는데. 아이고, 밤이 그디 물
질레 허벅 정 물질레 가젠 허민 무습고.

103059 @ 음.

103059 #1 무스와. 지금도 그 꿈을 꾸민 그 꿈을 봐져. 이상허게 그 꿈을.

103059 @ 어렸을 때 이제 으?

103059 #1 으으. 그치룩허영 허곡. 이딘 오민 또 혼 부락에 통 하나니까 사름이
워낙 하노난에 이 두롱박질.

103059 @2 예.

103059 #1 그거 이녁 거 엇어도 오민 멧 시간 질어냥 빌영 허젠 허민 걸리곡. 이
녁 건 가정 오민 거리가 멀어놓난 지영, 허벅 정 가져 그거 들르젠 허민 버치민 이
디 낡 내불민 여떡을 불고.

103059 @ 음.

103059 #1 또 무식헌 사름은 허당 친 그차지민 그디 들이쳐불민 좃지 못허영 못
허고. 아이고, 그 물 질멍 먹은 것이 진짜로 이제도 꿈을 보민 그 꿈을 봐잡니다게.

기타 농사

103060 @ 삼춘, 수박도 갈아봅디가?

103060 #1 우린 수박은 안 갈고양, 저 이 이 아방이 총각인 때 그 학교 텅기는
시절에는 옛날 차비허고 용돈허젠양.

103060 @ 음.

103060 #1 경허젠 암퇘 한 마리씩 삼 형제니까 이녀 거 다 표적헤근에.

103060 @ 예.

103060 #1 경 헤섭디다게. 암퇘 한 마리씩 질량 그 새끼 낳민 알 낳민 그걸로 풀
아근에 차비허곡 또 반찬허곡. 도시락 반찬. 경허영 허곡 웨.

103060 @ 예.

103060 #1 물웨.

103060 @ 예.

103060 @2 아, 물웨.

103060 #1 예, 물웨 요디 밧 칠백 평 짜리 빌언에 그건 나 결혼헌 후에.

103060 @ 음.

103060 #1 빌언에 웰 놓은 거라양.

103060 @ 음.

103060 #1 웰 낵에 저기 저 열아가난에. 이 지금도 그건디, 이 우리가 악허질 못
헤놓니까. 놉이 뭐 가져가베도 아방은 원래 경 허여. 이제는 안 여먹는다, 전에는양
돈이고 뭐고 이 보겏도에 놉두민 다 가져가부령 이 학생덜 커울 때양.

103060 @ 음.

103060 #1 그축허영허민 나 무시거 허영 부에나가민 아방은 경 험니까. 우리보다
옛인 사름이 아저간 거난 욱허지 말아사 그 아저간 사름이 췌.

103060 @ 췌가 안 췌텐.(웃음)

103060 #1 절대. 이왕에 여먹은 거 나보단 옛인 사름 아저갓구나 헤여근앵에 욱
을 허지 말렌 허영 일절 뭐엔 못 근게 헤여양.

103060 @ 음.

103060 #1 경헤농난 밧디 농살 헤도 마음대로라. 지네.

103060 @ 어어.

103060 #1 먹구정허민 마음대로 타가붙어. 그치룩허영 헌디 그뻬양 보리 혼 관궤
아저가민 웨, 물웨 멧 개씩 허멍.

103060 @ 예, 예.

103060 #1 풀 때우다게.

103060 @ 예.

103060 #1 경허영 뒷날 아척 강보민 막 그디 불일 봐놔뵤 가곡양, 웨 타 낱 무시
거 허곡 헌디 혼번은 사진을 봉근 거라.

103060 @ 으.

103060 #1 그 웨 타레 왓당 문드려변게.

103060 @2 음.

103060 #1 경헨 아이고, 웃음. 아이고, 누게 와낫구나게. 사진 이디 털어젯수게.
누게 와낫구나게. 허멍 허난. ㄱ만히 내불라. 왕 아는 책 허민 미안허곡 허난 내불
렌. 사진만 저레 낱 내불민 넘어가당 아저갈 티사 내불렌. 경허멍 행 기자.

103060 @ 성질이, 성질이.

103060 #1 원양, 성질이 먼제 깨길 충을 몰라. 어떻헌 사름산디. 그축행 허고. 혼
번은 툄바당을 막 풀아낫수다.

103060 @ 예.

103060 #1 툄을. 경헤영 바당을 헛는데, 개금이 사름이 사십오명 부떠나서양.

103060 @ 음.

103060 #1 사십 멧 명 부튼디 툄은 그때가 오십 멧 칭 헌 거라. 오십 멧칭 허난
에 이젠 그 툄 장스헌 아이가 그맨 저 육지 덕남호로.

103060 @2 예, 덕남호예.

103060 #1 덕남호로 시켰수다. 게난 그 툄장시 허는 아이가 처음 아정간에 잘 풀
ㄱ렌 허멍 돈을 가정완에, 나 저 삼춘 나 이거 혼번만 더 혼 행 분만 더 헤놔근에
돈 그때랑 흠치 물커매 봐줍서 허난 이젠 경허렌 허영 오꼳 봐줘분 거 아니?

103060 @ 음.

103060 #1 봐줘부난 그때는 툄 가정간에 그놈의 제집아이가 그 덕남호 선장허고
좋아헨에, 좋아헨에 오지도 아녀고 툄갑도 안 준 건 아니우과?

103060 @ 음.

103060 #1 안 주난 툄 부튼 인부들은 우리보고 받안 썼다.

103060 @ 음.

103060 #1 웨 툄갑을 안 줄 리가 잇느냐 받안 썼다 경헨 거라. 아 게난 이건 우
리가 다 설아야 뵤 거 아니. 게 이젠 할 수 잇이 여기 육백 췁짜리 베출 같아서양.
베출 싱건에 그 사름덜보고 김치헛 때.

103060 @ 음.

103060 #1 배추로 가져갑서. 김장 헛서. 앓당. 언젠가는 살아 잇으면은 그 사름
봐질 거난 그때랑근에 뵤허곡 가져갑셴 헤연 이제.

103060 @ 음.

103060 #1 배추로 다 췁어양.

103060 @ 음.

103060 #1 준디 혼 열 멧 사름은 안 가져갓어. 배추도 안 가져간. 게 우리ㄱ라
먹엇덴만 허멍 안 가져간 거라. 아 게난 한 십년 더 웬디 나가 바당에 물질허레 갓

다 오단 보니까 저 밑엿 동네 아니 가이가.

103060 @ 보연?

103060 #1 졸락허게. 으. 그디 영 질레 나온 거라.

103060 @ 음.

103060 #1 나 저곳디 딱 완 ‘야, 느 누게 아니냐?’ 허난예, 기노렌. “야, 느, 야, 느 어떻허난 여기 얼굴 들렁 와져니? 돈 주라, 돈 행 와실 테주. 얼굴 들르난예. 양, 경헨 보난예, 우리 큰고모똥 메누리로 와벼십디게게.

103060 @ 아아. 웃음.

103060 #1 아이고 난, 계난 이젠 경 말 곧는 거 보난 계난 우리 사촌언니가 나온 거라. 아이고야, 이만저만헨에 저 수찬이, 신랑이 이름이 수찬이우다. 수찬이 장게 가켄 허멍 저 들앙 와서네 허건.

103060 @ 아.

103060 #1 아이고, 이 성님아. 자이 우리 툄 마흔일곱 칭 들러먹어부난 우리 배 추 갈안 다 물고 허단도 지금 우리 2라만 먹엇젠 헨 못 받은 아이 아니우과? 아니 어떻허난 원순, 웨나무 다리에서 만납수가게 허멍. 계난 가이가 허는 소리가 벌영 물쿠덴.

103060 @ 으.

103060 #1 수찬이가 빵집을 헛수다게. 빵집 헨난예 벌영 물쿠덴 헨 거라. 아이고, 어이가 엇언예. 아무큰 빨리 벌멍 주라. 경허멍 헨연예 헨 건디양 우리 이 집 짓젠 허난예 빵집허고 뉘허난예양 어디 간 쉼, 소 추렘 허는 디 간에 소 머리 두 번 사 다줍디다게. 목시덜 쉼식허렌.

103060 @ 음.

103060 #1 게 소 머리 두 개로 툄 팔십, 사십일곱 칭 맥여 내분 사름이우다.

103060 @ 웃음.

103060 #1 일절 말을 원 악허질 못허영이.

103060 @ 음.

103060 #1 경허민 난 아이고 진짜 사름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허넨 허주. 어떤 뎌. 웨 저렇게 미련허냐고.

103060 @ 으으.

103060 #1 딱딱 헨 말은 허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지. 난 경 헨집니다.

103060 @ 계난.

103060 @2 그 때문에 조합장 헨 거 아니우과?

103060 #1 그 덕택에 뉘헨 헛수다. 계난 성산읍이든 어디는 저 조합장 몰른 사름은 간첩이엔 헨낫주. 어른이 아이든 늙신네든 헨 것 없이 다 좋아.

103060 @ 으으.

103060 #1 우리, 나2라 사름 차별허지 말렌 허멍 허는 성질이라노난양, 아이들 신디 가른 아이덜 맞추구 중쩍엔 가민 중간에 맞추고 노인들은 노인들 맞추고 이제

도 어디 가민양 웨방 사름덜 보민양 이번도 어제도 늬신네들이 어제도 병원에 간 오는디 구십난 하르방이양, 아이고 조합장님은 건강허우과 어떻허우과 허관, 나가 아이그, 참.

103060 @ 웃음.

103060 #1 (웃음) 게른 혼 덴 현 말이 된 중 앓이우과? 나가 이치록 다 베풀영은 에 순허게 행 놔두면 우리 자식덜이 받는 거다. 경만 글읍니께.

103061 @ 웃음. 맞수다. 게난 춤웨도 갈아뵤마씨?

103061 #1 춤에는 안 갈아나고 물웨.

103062 @ 물웨예, 게른 그 고치?

103062 #1 고추도 저 이녀 먹을 것만 싱것주 안 싱거뵤수다.

103062 @ 그거는 안 하고예, 건 고추 싱글 땀 어떤 식으로 싱거?

103062 #1 고추 싱글 때 밧디 걸름 빼영 싱경 저 비니루 더편에, 비니루 더편에 고추 모종 사단에 기자 고망 딸르멍 그레만 똑똑 싱그난 경 잘 뵤니다게.

103062 @ 예. 거는 모종 사당 헛구나예?

103062 #1 모종.

103063 @ 아까 베추 하영 김장늬물 헛덴 허멍 건 어떤 식으로 현 거?

103063 #1 베추게. 그때 모종이 안 헛 때 뵤주. 옛날에는. 건 씨로 빼여근영에 갈 때난. 씨로게 영 구텅이 허멍 접아뵤단에 나민 그 속아병 하나씩만 앓전에 현 거주.

103063 @ 그게 김장늬물?

103063 #1 예.

103063 @ 음, 그 베춘 하영 싱거난마씨?

103063 #1 아게, 육백 평 짜리 싱건에 툄 현 사름 다 주단 혼 열다섯인가 열넷인가 현 사름은 안 가져가고 나머진 다 그걸로 다 가져간 헤연에 툄깁은 가이 백영 내불고.

103063 @ 으.

103063 #1 게난 우리 조카안티 결혼헨에 빵집허멍 살단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엇 수다. 가이.

103063 @ 아아.

103063 #1 신량은 지금 기자 살고.

103063 @ 살고.

103063 #1 게연 난 그땀, 항상 난 춤지 못허지.

103063 @ 으.

103063 #1 웨 덕남호 선장안티 사는 사름이 어떻 헨에 수찬이안티 결혼을 허젠 헤시니? 느, 그 말을 안 헛 건디, 그 신양리우다. 가이가.

103063 @ 예, 예.

103063 #1 신양린디 하도 그때 복통나난 그 신양리 우리 좃앙 가와서. 아방이영 우리영. 야이가 육지서 들어왔난 안 왓단 들어왔나 보렌 간 보난에 그 할무니만 잇

습디다게. 할망 허는 소리가 에미나 홀어명이라 저 젊은 때 혼자 뉘연에. 그 친정어 명어. 계난 어명이나 딸이나 할망말은 막 경허대. 에미나 딸이나 으, 몸뎡이 장스만 허명 재산 다 풀아먹고 문딱 헨 이 모양 이 꼴 멘글아똥 에뜰년이 어디사 나간 어 디서사 간 박안 살암신디 허명 할망이 막 욱을 허여.

103063 @ 으음.

103063 #1 경허명 허난 그때에 이젠 아방이 영 보니까 저 구두, 여자 구두가 세 베나 이신 거라.

103063 @ 으.

103063 #1 계난 비오고 허난에 큰 지세항이 그 지숫물 받는 항이 잇습디다. 큰 항. 거 잇이난 이제 아방이 이디서 그 사름안티 들러먹엇젠 욱들으난 부애가 안 날 겨우과?

103063 @ 으으.

103063 #1 나 가고 허니까 그 항을 바락허게 벌러붙어서. 물 받아놓은 거. 벌러 붙고 그 신발을 이젠 던져분 거라.

103063 @ 음.

103063 #1 나 돈은 안 주고 이치록 베딱, 그뎡 빼딱구두엔 헛주.

103063 @ 빼딱구두.

103063 #1 베딱구두만 멧 베씩 사다놓명 으, 웨 나 돈은 안 주느냐고 헨에 그거 벌러붙명 해도 그뎡 덕남호 그 선장이영 누게영 미청 살 때라부난 경깡장 해도 못 받습디다다.

103063 @ 음.

103063 #1 계난 결국은 조케메누리로 와부난에게.

103063 @ 계난.

103063 #1 도새기 데가리, 저 쉼 데가리 두 개로 받았수게.

103063 @ 음.

103063 #1 웃음.

103063 @ 경하고, 삼춘, 늣뻘는 어명 헨?

103063 #1 잊어불지 못헤..

103064 @ 늣뻘도 갈안?

103064 #1 아, 늣뻘 기자 처음에는 그대로 이녁대로 갈안 풀단에.

103064 @ 예, 이 동네 늣뻘 완전 유명허던데?

103064 #1 이젠 밧으로 쥐부난.

103064 @ 아. 건 어떤 식으로 갈아?

103064 #1 세로.

103064 @ 늣뻘는?

103064 #1 무수 갈 때?

103064 @ 예.

103064 #1 아 무수 갈 때 비료영 걸름 다 빼여낱 밧 갈면은 건 손으로 썰 들이
 쳐수다. 우리 헐 땀.
 103064 @ 음.
 103064 #1 손으로?
 103064 @ 손으로?
 103064 #1 으, 손으려 영혜영 방씨 벌영 접으멍 들이쳐주.
 103064 @ 음. 경허영은에 이제 방씨 벌영 허는데, 그건 어느 철에 갈아마씨?
 103064 # 무수 이제 갈 때 돌아와수게.
 103064 @ 아아.
 103064 #1 이제 구월 초부터 팔월 이십 메칠부터 허는 건디 하도 ㄹ물아부난 아
 직 밧덜만 갈안 잇주.
 103064 @ 아아, 구월에 보통 허는구나.
 103064 #1 으.
 103065 @ 음, 여기는 지슬도 싱금니까?
 103065#1 지슬감자 허는 사름 특작허는 사름 멧 사름 험니다.
 103065 @ 아, 지슬감저도 헤예?
 103065 #1 으.
 103065 @1 케난 이 동네 표선이나 이쪽에 오니까 지슬을 그냥 지슬감저렌 험디
 다예?
 103065 #1 으. 지슬감저.
 103065 @ 지슬감저. 지슬엔 안 허영 지슬감저?
 103065 #1 으.
 103065 @ 음. 삼춘네도 지슬감저 갈아뵈?
 103065 #1 아니, 우린 아니, 먹을 거벧기.
 103065 @ 음, 거는 어느 철에 가는 거우과?
 103065 #1 지금 싱그는 건디 나 경 안 허여시민 오늘 벳도 안 나곡 막 좋을 건
 디. 저 우연에.
 103065 @ 어어.
 103065 #1 어제 간 다 검질메 놓고 헐에 싱글 건디 오늘게 **
 103065 @2 우리 와부난.
 103065 @ 우리 가불면은 강 싱급서.
 103065 #1 가불민 강.
 103065 @2 저녁 부쳐근에.
 103065 # 1 예.
 103066 @ 아까 삼춘 피도 갈앗덴 허멍?
 103066 #1 피 옛날에게 조 갈 때.
 103066 @ 어, 그 피 갈 땀 건 어떤 식으로 헤여?

103066 #1 피, 피썰 알아집네까? 헤영헙니께,
103066 @ 예, 예.
103066 #1 따끄면.
103066 @2 예, 예.
103066 #1 피썰, 피밥은 막 맞셔.
103066 @ 아,
103067 @2 웨냐허면 건 피방에 질러고 하면 힘들지 안흡니까?
103066 #1 예, 막 힘들어.
103067 @2 피방에는?
103067 #1 예, 거는 막 저 조, 쌀 가는 것도 조보당 틀령은에 혼 불 두 불 더 놔야 돼고.
103067 2 음.
103067 #1 ㄴ는 디도.
103067 @ ㄴ는 디도?
103067 #1 으, 켜디 헤영허주게. 쏘이. 좁쌀은 좁쌀방울인디 헤영허여.
103066 @ 예, 헤영허여?
103066 #1 으. 경허영 그거 혼번 갈아낫주.
103066 @ 계난 그 피 가는 것도 좁쌀허는 거처럼 허는 거?
103066 #1 마찬가지로, 씨 빼영 허는 거.
103067 @ 아, 것도 다 빼영 허는 거예?
103067 #1 옛날. 씨 빼영. 여름 건 마찬가지로.
103067 @ 마찬가지로. 여기 삼춘 ㄴ멸은 안 헙니까?
103067 #1 ㄴ물.
103067 @ 메멸?
103067 @2 메물.
103067 #1 ㄴ물, ㄴ물.
103067 @ ㄴ물.
103067 #1 옛날은 ㄴ물 멧 사름덜 막 갈아나신디 요즘은 안 갈아양.
103067 @ ㄴ물은 언제 허는 거?
103067 #1 ㄴ물 이 저 무시거 험 때. 이제 ㄴ물 얼마 엇영 칠월 음력 칠월에 가는 거주.
103067 @ 예.
103067 #1 음력 칠월에.
103067 @ 음력 칠월에 갈아불면 수확은 언제 허는 거?
103067 #1 수확은 이 저 미깡 탈 때 허는 건디. 철이.
103067 @ 예.
103067 #1 시월 말 돼영 십일 경헤영 허는 건디 이젠 이 동넨 ㄴ멸은 안 갈아.

103068 @ 이 동네는 므말은 거의 안 헵니까?
103068 #1 굴덜 많이 헤부난 므말은 안 갈아.
103068 @ 옛날 그 므말 헐 때는 뭐 제 헤갓고 ㄹ치 서경 갈아놨수카?
103068 #1 아니, 그것이 걸름이주게.
103068 @ 아아.
103068 @2 예, 맞수다.
103068 @ 그 므말 갈 때 거 어떻허는 거 그거 곶아줍서. 혼번.
103068 #1 그 불치, 불치. 불치 모덜씨 서경 것도 접아놨수다게.
103068 @ 음. 밧 갈양은에.
103068 #1 옛날은 접아 놨수다.
103068 @2 맞수다.
103068 #1 접아놨서. 영영영영 출구덕에 담양 영 뚜리메둠스루 영영 접아놨어.
방씨 벌영.
103067 @ 무슨 구덕에?
103067 #1 출구덕에.
103068 @ 출구덕에, 어어.
103068 @2 출구덕.
103068 #1 으, 접아놨헌 거라.
103068 @ 접아놨은에 헌 거예? 이렇게 뺨 게 아니고예.
103068 #1 뺨 게 아니고 영 접아놨수다. 방쉬 벌영.
103067 @ 으, 그 접아놓은 거를 뭐 다른 말로 곤는 것도 잇수카?
103067 #1 다른 말 엇수다. 접아논 거주.
103068 @ 그냥 접아논텐 곶아예?
103068 #1 으.
103068 @ 경허영 같고. 이 동네 담배 가는 사름도 봐봣디카?
103068 #1 게메 옛날에 갈아놨주게.
103068 @ 삼춘은?
103068 #1 옛날은 담배 싱거놨주덜.
103068 @ 삼춘네도 헤난?
103068 #1 흥끔씩.
103068 #1 우린 아녀나고.
103068 @ 으.
103068 #1 우리 씨아부지네 그저 많이 장스로 헌 게 아니고 이녁 테울 것덜게.
103068 @ 예.
103068 #1 옛날이사게.
103068 @ 으, 집의서?
103068 #1 종이헤영 몰양 테우는 거.

103068 @ 봉초?

103068 #1 그, 그치록 현 거주계.

103068 @ 씨아버네 같안, 어떤 식으로 갑읍디가? 담배는. 수확하고 어떤 식으로 허여?

103068 #1 담배 씨들이는 거는 안 봤는데 커가민은 노란 썬부떠 맵니다게.

103068 @ 음.

103068 #1 썬이 노랑현 거부떠 따.

103068 @ 으음.

103068 #1 경혜근에 영 여피근엥에 돌아맷디다. 플르렌.

103068 @ 아, 여평 돌아메여?

103068 #1 으.

103068 @ 아.

103068 #1 느람지 여피는 식으로 여편에 돌아맷게.

103068 @ 그 여평은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피우는 거?

103068 #1 경혜영 돌아맷당은에 그걸 무신 굴아근엥에 태우나 뭐허질 안 허고 바싹 므르니까 삭삭 부벼근엥에 무신 종이에 기자 영 몰아근에 담배 기냥 태웁니다.

103068 @ 예.

103068 @2 작두로 하지 않고예?

103068 #1 으.

103068 @ 손으로 이렇게 헤갓고?

103068 #1 바싹 므르민 영영 허민 과싹 부서지주게. 경허난 경혜영덜 태웁니다.

103068 @2 으, 흑씨 술도 안 뿌리고마썬?

103068 #2 술?

103068 @1 예.

103068 @ 물 뿌리는 거.

103068 #1 안 풀고.

103068 @2 술 여기 물엿당 담배 푸허지 아녀마씨?

103068 #1 아니.

103068 @ 그런 건 안 헤보고. 접 짓엥은에 영 멧 개씩, 열 개씩 이렇게 무경 놔두는 건 안 보고?

103068 #1 아, 그거 으, 그건 즈근즈근 영 심엥 무경 이디 ㅋ칭허게 헤근에.

103068 @ 음.

103068 #1 담배 예피는 거엔 허주. 짓ㄴ라.

103068 @ 예, 예.

103068 #1 담배 예피는 거. 이디 ㅋ짱허게 행은에 영영 이디 갑아근엥에 즈근즈근 낱 딱 헤영 썬은 느람지처럼 이치록 탁 기창. 퐁퐁 놀렁 데명 놔두는 거.

103068 @ 그걸 접이렌 해?
 103068 #1 으.
 103068 @ 옛 개씩 무꿍디다?
 103068 #1 열 개씩.
 103068 @ 열 개씩? 열 개 무꾼 것이 혼 접이구나예?
 103068 #1 백 개가 혼 접이주.
 103068 @ 백 개가 혼 접.
 103068 #1 열 개가 열 개 험사 혼 접이주. 경험사 혼 접이주.
 103068 @ 예, 알앗수다. 여기까지 허면 농사헌 거는 거의 헌 거 님아예?
 103068 @ 예.
 103068 #1 오늘랑 요까지만 허쿠다.
 103068 #1 예.
 103068 @2 저예.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2 소는 여기 웨 소를 길르냐 허면은 그때는 농사를 지을 때라.
 104001 @ 예.
 104001 #2 농사를 계속 질 남으 집의 강 빌, 하루가 강 빌어오면은 빌어온다든가 그 사람이 와서 밧을 갈면 그 집의 가사 이틀이나 사흘 가서 그 집의 강 일을 해야 웨여.
 104001 @ 음.
 104001 #2 게문 또 농사 짓는 사람 소가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천오백 평 이천 평만 가진 사람은 다 밧을 옛날은 보리 갈아나도 이제 초불 갈고 두불 갈아야 웨고.
 104001 @ 음.
 104001 #2 뭐 블릴 밧도 초불 두불 세불 갈아야 웨고. 서숙 험라면은 밧을 더 잘 갈아야 웨.
 104001 @ 으음.
 104001 #2 그러는 때문에 이 소를 보통 암소든 수소든 하나나 두 개를 길뤄야 이제 농사짓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길르는 거고.
 104001 @ 음, 집집마다예?
 104001 #2 집집마다 길렀고.
 104001 @ 예.
 104001 #2 게서 뭐 소접도 허고 밧도 허멍.

104001 @ 음.

104001 # 그거를 소 질탕 뭐 소 무주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사철 돼면은 남자는 아침 새벽 두 시나 세 시 돼면은 집에 멧던 소를 출밭디 가지고 가서.

104001 @ 예.

104001 #2 소를 맥여야 돼여.

104001 @ 으음.

104001 #2 아침 다섯 시까지.

104001 @ 예.

104001 #2 이제 농지가 먼 곳은 잠대 다 지고 가서 밭에 놔두고 이제 소를 다 맥여가지고 소 아침까지 세 시간 두 시간을 맥이면서 밭에 가서 잠을 자는 거라.

104001 @ 으음.

104001 #1 잠 자면 소가 잘 먹어. 소가 드러누면 일러 가지고 먹어라 먹어라 잘 맥여야 돼.

104001 @ 예.

104001 #2 오늘 못한다 헤 맥여가지고 아침 돼면은 침 그때는 보통 소 먹으레 가가지고 가까운 디는 집에 와서 밥 먹지만은 먼 사름은 아침 헤만 뜨민 밭 같았어. 아침밥 갖다준다든가 즈식들 잇으면 즈식이 그때 밥 먹고. 하루 열두 시나 한 시만 제외하고는 밭을 갈았으니까.

104001 @ 예, 예.

104001 #2 음.

104001 @ 알아수다. 게문예, 쉼 질루는 건예, 쉼은 어떤 식으로 질환마씨?

104001 #2 쉼을 게니까 겨울에는 집에서 출을 팔월 추석 돼면은 출을 소 맥일 거를 헐 거히고, 빨감히고 해야 돼.

104001 @ 예.

104001 #2 부지런히. 크게 한 놀을 소로 시꺼가지고 다 놓고. 그땐 마차들이 없었으니까.

104001 @ 음.

104001 #2 소에 질메 허면은 소 출 시끄는 것도 잘 실르는 사름은 열, 서른 단을 시꺼, 서른 단.

104001 @ 예.

104001 #2 서른 단이 흔 바리.

104001 @ 음.

104001 #2 이쪽으로 멧 단 이쪽으로 멧 단 하면서 세 곤데 메가지고 소에 실러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쌓고. 쌓아놔다가 십이월 달로부터 이월 이 저, 입춘 지날 때 까지.

104001 @ 예.

104001 #2 집에서만 걸 맥이는 거라. 집에서 물은 가서 그때는 물이 귀하니까.

104001 @ 음.

104001 #2 집에 기르는 소를 겨울에는 이끄고 가서 얼음 얼었을 때는 바닷물가 바닷물 때 쌀 때 그디 가서 맥이고.

104001 @ 바닷물도 맥여예?

104001 #2 바닷물이 따뜻하게 나오는, 이 온평리는 물 나오는 디가 부계늬 그런 물 나오는 디가 잇으니까 그런 췌물엔 허주.

104001 @ 췌물예?

104001 #2 췌물에 가가지고 물 때 맞좌가지고 맥여.

104001 @ 음.

104001 #2 계문 소덜이 출, 므른 출 먹으니까 물도 잘 먹어. 혼 바가쓰 정도 이상 먹으니까. 경허영 오곡. 집의서 한 삼 개월을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출을 줘야 돼고.

104001 @ 예.

104001 #2 경허면서 길르면 송아지 나면 송아지가 이제 송아지 나가지고 소 시세가 좋을 때는 송아지 헉나 나면은 백만 원 구십만 원 이렇게 헷으니까.

104001 @ 음, 음.

104001 #1 학비에 보태고 그러는 때문에 수소를 안 길황 암소 좋은 소 길좌가지고 그 소로 밧 산 사름도 잇어. 소 여라 개 길르면.

104001 @ 예.

104001 #1 송아지를 세 머리 네 머리 낱면은 그거 잘 키우면은 소 팔아서 밧 샅다고 이디 그런 여러 사름 잇어.

104002 @ 예, 그 췌 종류는 어떻?

104002 #2 여기는 다 토종이라났는데 근간에 가까이 소가 없어져 무렵 췌 때는 미국서나 캐나다에서 온 브라마라는 소를 놔가지고 여기도 브라마 길좌던 사람 우리 전 췌장혜난 사름 현재현이엔 그 사름. 그 사름은 소를 혼 일고으담 머리 혜놔가지고 돈을 부자칩이니까.

104002 @ 예, 예.

104002 #2 부자칩은 아무래도 돈 벌기가 쉬웠고.

104002 @ 예.

104002 #2 소가 그러니까 여기 토종보다 두 배 깡을 주니까.

104002 @ 예예. 토종허게 돼면 암수에 따랑도 이름 불르는 거 트낫수가?

104002 #2 토종은 암커 수놈허고. 그 뭐 소가 이제 예를들어 식췌나 이제 그런 거는 습췌는 고양이 비슷허게 헉 게 습췌거.

104002 @ 습췌.

104002 #2 그 전의 또 검은 흑소가 많이 잇어.

104002 @ 예.

104002 #2 나도 그 흑소 암소를 길좌났는데 그거 잇고 노랑헌 거.

104002 @ 예.

104002 # 이 저 검은소는 여름에 더위를 좀 많이 타.

104002 @ 아, 꺼멍허니까 예.

104002 #2 하연, 그 소가 영 집에 길봐보니까 일 시기는 데도 쪼끔허민 혀를 빨리 내냥 땀이 많이 나는 모양이라.

104002 @ 예, 예.

104002 #2 이 저 노란 소나 뭐 빨간 소덜은.

104002 @ 음.

104002 # 더위를 쪼끔 덜 타는 모양 같더군.

104002 @ 경허고 뭐 빨 모양에 따랑도 불르는 이름이 뜨납니까?

104002 #2 아, 그거는 뭐 별로 빨 모양으로 뭐는 여기서 거 뭐를 안 허니까.

104002 @ 예, 빨 이름 천상각이여 이런 말들은 안 헤마씨?

104002 #2 그런 말은 안 허고.

104002 @ 그런 말은 안 허고예? 털 색깔에 따랑은 아까 노랑췌?

104002 #2 노랑췌 검은췌 식췌 세 가지로 보통은 불러.

104003 @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소예? 소는 주로 뭐에 이용헌 거라마씨? 아까?

104003 # 농사짓는 데 허고 새끼 낳서 파는 거.

104003 @ 농사짓는데예?

104003 #2 우선은 농사짓는데 거느렸고, 두 번째는 돈 잇는 사름은 소 키와서 돈을 벌겄다 허는 사름들. 우리 없는 사름은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그 또 많이 키우는 사름은.

104003 @ 예.

104003 # 초지가 만해야 돼고.

104003 @ 음, 그러면?

104003 #2 초지 없는 사름은 남으 초지를 싹 내여야 돼. 돈 내여가지고.

104003 @ 아아.

104003 #2 출 이거 우리 얼마 줄 테니까 밧 나 빌리라 헤영 출을 비여와야.

104003 2 으음.

104003 #2 출 사는 거주 거는.

104003 @ 예, 예, 예.

104003 #2 인건비 자기가 출 비어놓은 건 비싸니까.

104003 @ 으음.

104003 #2 자기가 이제 허면은 그 인건비는 돌아오니 이거를 헤가지고.

104003 @ 음, 케든 이제 그 농사할 때는 밧갈고 뭐 짐 시끄고?

104003 #2 으. 심 시끄고. 이 곡식이나 뭐 그 거들 때도 소에 시껴와 가지고 집에 왕 푸고.

104003 @ 음, 그 다음에 그 췌 밧갈젠 허면?

104003 #1 어.

104004 @ 길들, 질드린텐 험니까?

104004 #2 길들이는 거. 소 마리친텐 거.

104004 @ 마리치는?

104004 # 금승 사름 나름. 세 설 뒤면은 소를 가르쳐야 듌는데.

104004 @ 예.

104004 #1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듌허니까 그 소를 하나 이끄고 그 듌가 ㄱ레 착 같은 거 듌슨 듌 쫘 게부은 걸 헤가지고 돌을 끄어가지고 여기 멩에톡을 나게끔

104004 @ 예.

104004 # 끌고 다니고 떼리고 허면서 다녀야 헤.

104004 @ 음.

104004 # 흔 일주일이나 듌허곡. 이 저 탄 부락 같은 데는 시흥리나 저 모래판 잇는데는 모래판에서 가르치는데 온평리는 소 마리치는 건 이 길레 돌아다녔어. 한 사람은 이끄고 한 사람은 떼리고 헤가지고.

104004 @ 예.

104004 # 요만은 돌멩이나 듌슨 다이야짜도 다이야짜도 옛날 없언 그렇게 이런 돌을 만들어가지고.

104004 @ 예.

104004 #2 가다가 멩에톡이라고 모가지에 이 질들이기 위헌 거지.

104004 @ 예.

104004 # 그걸 한 일주일 동안 헤가면 즈연히 헐 걸로 소가 알아보는 모양이라 이.

104004 @ 멩에를 영 헤영 허는 거라예?

104004 #2 멩에에 그걸 만들어서.

104004 @ 예.

104004 # 밑에 쪽 허게 끄인 다음에 그 다음부떠는 어느 정도 듌 것 같으면은 밧, 쫘 좋은 밧데 가가지고 잠대 메우고 슬슬 왓다갓다고 허고 밧 기프게도 허면서 혼련을 많이 시겨야 듌는 거 그거.

104004 @ 예.

104004 #1 듌는 거.

104004 @ 음.

104004 #2 듌는 건데 자연히 듌고. 녹대 이끄다가 또 그거를 녹대를 감아가지고 혼련이 듌어가면 녹대를 감아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이끈 것처럼 갓다왓다는 소 헤 야듌.

104004 @ 예.

104004 #2 한 사람 뒤에서 밧을 갈고.

104004 @ 음.

104004 # 게서 양쪽에서 조정하고 사람이 가니까 나 끌고 가고 잇구나 현 거를 소는 인정을 허지.

104004 @ 예, 예. 게난 녹대는 머리에 이렇게 해놓고.

104004 #2 가 놓고 사람은 거기 가서 샷다가 이렇게 뒤에 밧 가는 사름이 이라 허면은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오고 이렇게 허면서 저거 한 잘 그 혼련텐 소는 혼 달만 허면은 자연히 밧을 갈고. 췌 잇는 소는 아무리 해도 매만 많이 맞지.

104004 @ 아 아, 맞아예.

104004 #2 일 안 현 건 말 안 듣는 거 매를 많이 맞지. 일로 때리고 일로 때리면 은 거 사람 앞에 잇으니까 이 자기가 끌려가는 것이다면서만 생각허는 소는 완전히 침.

104004 @ 게문 그 마르치는 거예? 마르치지 아년 췌는 또 뭐렌 불릅니까? 뭐 새 췌 뭐 이런 말 험니까?

104004 #2 그런 말은 안 허매.

104005 @ 아까 삼춘, 소 나이 센 게마는 멧 살 한번 세여 봅서.

104005 #2 금승 다간 사름 나릅.

104005 @ 그 다음?

104005 #2 경 헤가민 다섯 술 여섯 술 헤갈 거주게.

104005 @ 아아.

104005 #2 금승허고 다간 허곡 게문 두 술 아니?

104005 @ 예.

104005 #2 사름 나릅허민 네 설. 게문 다섯 설부떠는 그대로 완전 그자 여섯 일 곱 멧 살 먹엇저.

104005 @ 다습은 안 헤마씨?

104005 #2 다습이난 사름 나릅 해도 웨고 다섯해도 웨고.

104005 @ 예, 예.

104005 #2 다습허민 허민 웨 췌게.

104006 @ 다습까지예? 그 삼춘 밧 하영 갈앗으니까 췌기 한번예.

104006 #2 어.

104006 @ 이렇게 되잖아예. 여기 영 웨야 웰 거구나. 잘

104006 #2 경 췌 거.

104006 @ 이렇게 췌니까? 이렇게 췌 건가?

104006 #2 나도 그려지커라. 요것이 엇어. 요것이 이쪽 영 양손머리. 손 영 두 개 허는 거.

104006 @ 예.

104006 #2 요렇게 잇고. 요렇게 꾸부러진 거 잇지 아녀. 꾸부러진 거.

104006 @ 예.

104006 #2 여기는 요것을 요렇게 보섯인데.

104006 @ 예.

104006 #2 여기 판데기가 있고.

104006 @ 예.

104006 #2 경허민 여기는 또 이렇게 그 저 줄 메는 디가 있어. 요 끝에는.

104006 @ 예, 예, 예.

104006 #2 게난 요거는 뭐냐하면은 영 양손 허니까.

104006 @ 예.

104006 #2 양손을 잡으니까.

104006 @ 예.

104006 #2 요거는 양손머리.

104006 @ 양주머리?

104006 #2 양손머리나 양주머리엔도 허고 양주머리.

104006 @ 예.

104006 #1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꼬부러진 거는 몽클.

104006 @ 여기는 양주머리. 여기는 몽클.

104006 #2 몽클. 이 대는 성에.

104006 @ 이거는 성에.

104006 #2 긴 거는 성에.

104006 @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바투는 것도 잊지예?

104006 #2 이거는 무슨 틀엔 허는데 요거는?

104006 @ 영 가운데 헤갓고예? 영 그 잊어예?

104006 #2 이거 이것이 벳틀인가 뭐일 거라.

104006 @ 벳틀.

104006 #2 게는 여기는 벳이 벳틀일 거고. 요, 요디 췌로 나온 건 보섯이고.

104006 @ 예. 보섭, 여기는 벳.

104006 #2 요 이렇게 흑 영 올려주는 게 벳.

104006 @ 벳예? 그 다음에 벳 허면 벳 끈 영 무끄는 것이 잊지예? 고망 잊영.

104006 #2 게메 그거는 뭐엔. 저 그런 거갓진 우리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104006 @ 예.

104006 #2 그자 벳허고.

104006 @ 보섭.

104006 #2 보섯허고 양손머리허고.

104006 @ 성에.

104006 #2 성에 조그만헤가지고.

104006 @ 그 다음에 몽클.

104006 #3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104007 @ 그 다음에 질메?

104007 #2 질메는 소질메.

104007 @ 예, 소질메도 있고 들질메도 트납니까?

104007 #2 들질메 아니.이 짐 시끄는 질메는 꼭 곱아. 들질메나 소질메나 꼭 ㄴ 트고.

104007 @ 예.

104007 #2 마차혈 때는 다 그거는 저 마차혈 때는 들마차혈 때는 이 접퀘라고해서 있고.

104007 @ 예.

104007 # 이 소 밧 갈 때도 이 저 멩에에서 온 거를 접퀘라고 해.

104007 @ 접퀘?

104007 #2 접퀘이. 들도 마찬가지로.

104007 @ 접게?

104007 # 모가지 안네 현 건 접퀘고. 우에 이렇게 현 거는 몽클이고.

104007 @ 음.

104007 # 저 멩에, 멩에. 췌멍에.

104007 @ 췌멍에고예? 삼춘, 질메하면 이것도 뭐 부분 명칭들이 잇이카마씨?

104007 #2 그 명칭. 질메는 그런 부분 명칭은 안 들어봤는데.

104007 @ 질멧가지여 뭐여 이런 거?

104007 #2 가지.?

104007 @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104007 #2 질멧가지엔 현 건 이거를 말허는 거주게.

104007 @ 예, 예.

104007 #2 전체를.

104007 @ 질멧가지예.

104007 #2 계난.

104007 @ 안 들어보고.

104007 #2 췌질메 들질메, 들 뭐 들안장 가져오라 요런 거벧기는.

104007 @ 예.

104007 # 뭐 구격이 그 뭐.

104007 @ 음.

104007 #1 이 잠대는 몽클 성에 요거 가민 이거 몽클 사오라. 몽클 사례 어디 감쨌. 이거 산에 나강 끊어 와야 되는 거고.

104007 @ 예. 예.

104007 #2 근간에 가까운데 오니까 산촌에 사는 사람들 뭐 이거허곡 성에허고는 풀레 와.

104007 @ 아아.

104007 #2 산간에 사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

104007 @ 예.

104007 #2 전문으로 허는 사람들이 이거 아무 거나 해서 뒤는 것도 아니고.

104007 @ 예.

104007 # 그 나무가 잇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막 사고. 요것도 서끄는 기술자도 혼 부락에 혼 사름벳기 엇어. 우리도 저 난산이나 어디 가가지고 사가지고 실고 가서 만들어오고 이렇게 헛고.

104007 @ 그 잠대 서끄텐 허잖아예?

104007 #2 잠대 서끄는 거.

104007 @ 아.

104007 #1 계난 그 사름덜이 뭐 한디 가면 알지만은 그런 거 잠대 서끄레 가민 “요거 서꺼줍서.” 허영 돈만 쥔 와부는 거니까 모를 거지.

104007 @ 예, 예. 잠대 서끄레 허민 낭도 무슨 안 들어봅디가? 주로 어떤 낭을 쫓텐 헛디가?

104007 #2 저것이 알아지커라. 잇어부난. 저 나무 **

104007 @ 예.

104007 #2 ** 히노기. 히노기나무. 히노기나무엔 현 거를 어떤 나문지 몰라. 히노기나무를 한라산에 가면은 몽클은 저.

104008 @ 나중에 혼번 튼내 봅서. 그런 식으로 하고. 멩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4008 #2 멩에는 머귀나무 멩에.

104008 @ 머귀낭무예? 어어.

104008 #2 머귀나무 허고 여기는 보통 속 구린 거 이렇게. 온평리선 머귀남벳기 구상나무 멩에엔 헛주마는 그런 멩에를 봐보질 안 헛으니까.

104008 @ 예, 예. 여기는 이제 거의 머귀나무예?

104008 #2 머귀나무. 머귀나무 그 이렇게 뒤 속 구린 그 나무를 생긴 모양으로 헤다가 끊어다뵈당 머귀남으로. 게뵈고.

104008 @ 아까 무슨 모양으로마씨?

104008 #2 으?

104008 @ 무신 모양으로 생긴, 생긴 모양으로?

104008 #2 아 멩에가 이렇게.

104008 @ 아 멩에 모양 생긴 것대로.

104008 # 생긴 생긴 그 나무를 잘르곡 그 형태로.

104008 @ 예.

104008 # 그 형태로 형태로 해서 만들어야 허니까.

104008 @ 게든 멩에 이렇게 하면 중간에 나무도 잇지 아녀우과? 이 줄들은 왜 잠대 메우젠 **

104008 #2 게메 그게 무신 줄이엔 허나? 허허.

104008 @ 나중에 놀당은에 한번 명예영 저기 모양이영예 부분 명칭 한번 돌아줍서.

104008 #2 옆으로 허는 게 저 뭐헌 사름은 드렛줄 해당 허고 여기서는 보통 신사라나 무시거 해가지고 다 만들언 주.

104008 @ 옆에 그 .

104008 #1 부림패줄인가 무신 줄일 거라.

104008 @ 부림패?

104008 #2 부림패 줄인가 무신 부림팬가?

104008 @ 예.

104008 #2 그 줄일 건데.

104009 @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동네도 목장이 잇수가?

104009 #2 이딘 목장은 엇어.뒹 엇이면은 도롯가. 저 우에 가민 그대로 놔둔 임야지덜이 돌동산덜이 막 잇으니까.

104009 @ 음.

104009 #2 그런 덜 가가지고.

104009 @ 그런디 강은에 맥이고예?

104009 #2 그렇게 하다가 접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소들이 잇는 사름덜은 저 여름 나면은.

104009 #2 여름 나면은, 여름 나면은 그 저 산에 올리는 거라.

104009 @ 예.

104009 # 농사 다 지어 불면. 다 지어 가지고 그 목장안티 메껴서 요거를 멧 개 월 봐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

104009 @ 음.

104009 #2 돈을 주면은 그 사름덜이 이제 보고. 여기 그때는 소덜이 부구리 진두기가 많이 일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우리가 가가지고 소를 메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기 부구리약을 허자 해서 가서 해주고. 상강일 뒹면은 저기서 이제 수고했다고 해가지로 또 상강일 뒹면은 내려와야 뒹고.

104009 @ 예.

104009 #2 그 산은 추우니까.

104009 @ 음. 게문 그 목장은 어디 누구네 거?

104009 #2 보통 저 수산 우에 난산 우에 저쪽 가면은 지금 저 그게 지경으로는 보통 성읍리 우에 목장덜이 많이 잇으니까.

104009 @ 음 그 동네 사름안티 이제?

104009 #2 그 사름안테 일임을 해. 수산 사름이나 성읍리 사름이나 난산리 사름이나 그 산을 가진 사람들이 잇으니까.

104009 @ 예, 예.

104009 #1 그 어느 산은 지네 목장이다 허는 때문에.

104009 @ 게문 그때 삭을 어느 정도 삭을 어느 정도 쥐마씨?
104009 #2 흔 그때 한 십만 원 육 개월, 아 오 개월 이상 보니까게. 십만 원 뒤
구만 원 요런 정도로 해근에 허고 우리 백중 때는 그날 같이 여기서 헐 때는 헛는
데 거기를 가야 돼. 십사일 날 저녁 돼면은.
104009 @ 음.
104009 # 성읍리까지 가가지고 백중제 지내고 이렇게 헤가지고 와.
104009 @ 예. 그 다음에 그 삼춘 이제 쉼 댁이레 가잖아예?
104009 #2 으.
104009 @ 그 다음 쉼을 무슨 쉼입니까? 뭐 번췌니 뭐 이런 말도 험니까? 여기
서.
104009 #2 아니 그런 말은 아녀.»
104009 @ 아.
104009 #2 쉼 댁이레 이녁 쉼 댁이레 감주. 무신 쉼 무신 쉼 안 허여.
104009 @ 아 그건 안 허고예? 당번 잊지 아녀우과?
104009 #2 아니, 므쉬 ㄹ꾸레.
104009 @ 쉬 ㄹ꾸레 갈 때?
104009 #2 므쉬 ㄹ꾸레 갈 때는 그때는 무슨 뭐 소만 멧 개 그자 확인해서 그날
소만 잘 댁영 오민 돼난애.
104009 @ 아, 그런 거를 뭐?
104009 #2 놈의 밧디 곡식 같은 거 댁이지 안 허고. 그 곡식은 댁엇다 허민.
104009 @ 큰일나?
104009 # 큰일도 나고 막 싸움도 벌어지곡 뵤상도 헤야 돼고. 그 소덜이 ㄹ꾸레
강 그 말 안 듣는 췌가 잇어 또.
104009 @ 예, 예, 예.
104009 #1 곡식밧만 좇앙 다니곡.
104009 @ 음.
104009 #2 그 소는 항상 메나 맞고 뭐 헤연 그 소는 베를 골고 다녀. 좋은 거만
먹을라고 좇아 뎡기고.
104010 @ 그치룩 췌 ㄹ꾸레 뎡기당은애 잇어불지 못허는 뭐 잇수가? 아이고, 추
억들이 하실 거 님아. 옛날 소 ㄹ꾸레 갈 때?
104010 #2 그디 가면은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저 쪽에 소 놆두고 앗앙 잠이 들어
버려. 소가 막 잇어버려근애 흔웃이 가부는 소, 소 멧 개가 가벌릴 때가 잇어. 그럴
때는 흔번 그 애 먹을 때도 잇주게.
104010 @ 예.
104010 #2 그렇다고 소는 멀리 가지 아녕 소는 그 므쉬점은 그 스키에 멧 메타
떨어젧당도 소 이제 집더레 돌아올 때 돼민 똑같이 와, 소가 와.
104010 @ 음.

104010 #2 멀리 갖당도.

104010 @ 예.

104010 #2 이 녀만 떨어지지 아녕 아, 이거 집에 갈 시간 똥다 허면 높은 동산에 강 상 이레도 보고 저레도 보고 잇으면은 소 아무리 해도 소 없다 없다 고민 허는데 보면은 소가 그 저 이 어떨 때는 그 새끼를 나아가지고 새끼를 안 뵈 교미를 찾는 소덜이 잇을 때는 그때는 소덜이 막 숫소는 막 따라다니면은 어디.

104010 @ 음.

104010 #2 암소 찾아 가지고 혼없이 가버려.

104010 @ 음.

104010 #2 그럴 때 애먹는 거주.

104010 @ 으음.

104010 #1 경 안 허면은 소 한 군데로 가는 길로 가고 오는 길로 오고 그렇게 허니까.

104010 @ 그럴 때는 쉼 댁이레 갈 때는 혼자 가마씨?

104010 #2 소가 많으면은 많이 헤가지고 농사도 많이 짓고 이 댁일 때가 없을 때는 아이라도 데리고 가고.

104010 @ 으.

104010 #2 그렇지 않으면은 대강은 혼자 가주.

104010 @ 으음.

104010 #2 말덜을 잘, 훈련. 처음 목장 댁이레 갈 정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4010 @ 예.

104010 #2 둘이가 가야 돼여.

104010 @ 예, 예.

104010 #2 게야 이제 한 열흘 이상 훈련 댁면은 그 소덜이 훈련이 댁분 거라.

104010 @ 음.

104010 # 허 허영 물면은 이제 나갈 것이다. 모여젓당도 소리 내면 이제 어디레 갈 것이다. 헤가지고 황 허민 어디로 갈 것이다

104010 @ 음.

104010 #2 대강은 훈련이 댁어 버려.

104010 @ 게문 삼춘, 허허면은 무슨 뜻이라마씨?

104010 #2 아이, 소 모는 소리주게.

104010 @ 아아. 허.

104010 # 가렌을 허던가 황허면은 좀 잇으라.

104010 @ 황은 잇어라. 헤.

104010 #2 허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104010 @ 예, 그때도 뵈 갈 때도 막 그런 소리 허잖아예?

104010 #2 뵈 갈 때는 막 여러 소리 허여. 어디레 허곡.

104010 @ 음.

104010 #2 이거 땡기면서 뭐 이쪽으로 갈 거를 소가 이쪽으로 허면은 어디래?

104010 @ 오른쪽으로 이렇게 땡길 때는 어드레?

104010 #2 겨꼭 웬쪽이든 오른쪽으로 땡길 때는 허 허여가지고 허면은 소가 가는 가라

104010 @ 예.

104010 #1 황, 황 허민 천천히 가.

104010 @ 음.

104010 #2 황: 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황 해가지고 밧 가는 사름마다 다 틀리니까. 돌아오라 허는 식으로.

104010 @ 황하고.

104010 #1 황 허, 황 어디래. 생각대로 다. 부에나민 또 이놈의 새끼허멍 때리고.

말 기르기

104011 @ 이놈으 새끼 맞수다. 삼촌, 들은 어떻 질랐수가?

104011 #2 들은 나는 저 마차를 시작허니까 마차 해가지고.

104011 @ 으음.

104011 #2 소에 실르는 거는 딱 삼십 단이민 삼십 단이지만 마차에는 백 단 이백 단 삼백 단 이렇게 실를 수가 잇으니까.

104011 @ 으음.

104011 #2 마차는.

104011 @ 음.

104011 #2 소 열 개 실르는 거 실러도 들은 끄르니까.

104011 @ 예.

104011 #2 옛날은 포장도 아녕 산비탈 허니까 마차허고 말 해가지고 남 허는 거 나가 사가지고 혼 멧 년 농사짓는 데 사용헸고. 사용하다가 이제는 안 뉘겏다고 해가지고 기계화 뉘니까 경운기로 밧도 같고. 그때 뉘어가니까 밧도 하나도 없엇다가 칠팔천 평 확보가 뉘어가니까 노력허니까 뉘던데. 그걸로 허니까 보리 이제 경운기를 허기 시작허니까 탈곡기도 해야 뉘고.

104011 @ 음.

104011 #2 이 사람이 발전허여가니까 불어나고 재산도 불어나고.

104011 @ 예.

104011 #2 남으집 살다가 자기 집조 빗을 해도 살고. 그렇게 허면서 탈곡기를 이제 경운기에 맞추와가지고 시에 다서 맞추와다가 그렇게 뭐 혼번에 뉘는 게 아니라 시에 저 무슨 공업사, 거기 가서 맞추왕. 것도 걸로 이제 탈곡도 허고.

104011 @ 음.

104011 #1 보리철 뉘민 보리 태작해가지고 뭐 열 가마 때리면 혼 가마는 내가

수입을 받았으니까.

104011 @ 예, 예.

104011 #2 내가 인부 두어 사름 데리고 그치록 헤가지고 탈곡 시기는 탈곡하고
고구마 시기 뉘민 경운기에 고구마 실러서 전분공장에 가가지고 고구마 시킨 뉘민
그때는 이 노동이 막 힘든 일이라.

104011 @ 예. 그렇주마씨.

104011 #1 고구마 뭐 사십 키로 오십 키로 뉘 거 뉘 그 마대를 경운기에 다 둘
이서 동아리헤가지고 공장에 가서 다 푸고 저울질허고 이렇게 허면서 그렇게도 헤
보고.

104011 @ 맞습니다. 그 다시 돌아강예, 계난 물 질룰 때 쉼 질룬 거 허고 ㄹ타마
씨? 어떻힙니까?

104011 #2 물은 질루는 거 간단허여.

104011 @ 음.

104011 #2 버덕에 가근에 물 일 안 헐 때는 아침의 강 말뚝을 박아놔가지고 이
평지에 강 놓면은.

104011 @ 예.

104011 #2 물은 많이 먹질 안 허니까.

104011 @ 아아.

104011 #2 잔디를 뜯었다 뜯었다 허여도 베가 붙어 물은.

104011 @ 으음.

104011 #2 경 허민 하루 흥번 물이나 맥이곡. 경허곡 겨울에는 또 집에 매가지고
출 흥단 한 단 저 가을에 팔월추석 이후에 해 놓은 거를 주고 한 단 주고 물이나
주면은 뉘는데.

104011 @ 으음.

104011 #2 많이 허는 사름덜은 아예 목장에 낵 출 줄 생각도 안 허고 그자 낵
물 잇는 디 낵 내버리면은.

104011 @ 음.

104011 #2 허는디 하나 그 거 물마차 잇는 건 꼭 길러야 뉘여.

104011 @ 예.

104011 #2 맛있는 것도 헤주고.

104011 @ 음. 계문 삼춘, 아까 버덕이렌 험게예?

104011 #2 버덕은 이 널른 병뒤디이.

104011 @ 예, 예.

104011 #2 그거 버덕이엔 허는 거주게.

104011 @ 아아, 여기는 병디를 버덕이렌 헤수가?

104011 #2 너른 버덕. 널른 버덕에.

104011 @ 예.

104011 #2 물 줄싸레 간. 평지. 켜켄헌 버덕을, 저.
104011 @ 예.
104011 #2 평지를 버덕이엔 헤.
104011 @ 삼촌 아까 물 줄 싸레 간다고마씨?
104011 #1 으 물을 강 줄레.
104011 @ 으.
104011 #2 서 발 다섯, 서 발 너 발 이 너 발 지러기면은 충분 하루 물 먹당도 남아.
104011 @ 예.
104011 #2 먹고 물은 계속 먹는데 해도 쉴 때도 있고 허니까.
104011 @ 음.
104011 #2 출 잇는 디 강 허면은 오늘 여기 허면은 혼 일주일 후에는 여기 왕 또 메여도거기 새풀이 또 나니까 먹고. 저쪽에 강 허여도, 한 다섯 곤데만 잇으면은 물 흐는 아무 데나 나이 봄나민 새풀을 좋아허지. 물도 그 이만이 큰 풀은 안 먹어.
104011 @ 아아.
104011 #2 북북 뜯는 맛이 잇는 모양이라.
104011 @ 음 계문 그 버덕에 강은에 그 물특혜영 박는 거를?
104011 #2 물줄레허고 말특하고.
104011 @ 예.
104011 #2 말특. 그 말특엔 현 거는 요렇게 헤가지고 이 나무로 옛날은 헛는데 우리가 헛 때는 요만은 썬을 가지고 만들어. 철공소에 강 만들어가지고 기쁘게 박 으면은 그 금방 돌에 박으면은 빠지지 안 허니까.
104011 @ 예, 예. 게 그거 현 거를 물줄 싸레 감덴 허여예?
104011 #2 물줄 싸레 강. 물 보레 감짜.
104012 @ 예, 물 보레 감짜예. 그 물도 종류가 잇인가마씨? 무신 물, 무신 물.
104012 #2 무신 물. 가마물이며 무신 물이여 종류 잇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데.
104012 @ 가마물은 어떤 겨우과?
104012 #2 꺼무룽허연에 뭐허곡 현 물일 거라.
104012 @ 색깔에 따라도 다 트난게예.
104012 #2 색깔라 뭐 무신 물 무신 물 이렇게 허는다.
104012 @ 여기 이마엔 나도 뭐엔 허고. 그런 말은 모르고예?
104012 #2 그런 것도 몰르고.
104013 @ 물은 주로 어떻 이용했수가?
104013 #2 아, 물은 그 저 마차. 짐 봄이나 가을이나 수확 때 출ᄇ든 운반할 때는 짐 운반할 때는 물 그 거름도 운반허여야 돼고 옛날은 돛걸름이라고 해서 보리 째 다 썬고. 말도 물도 헛 일이 만허여. 농사철 전에 준비헛 거. 거름 준비, 또 농사 허민 거름 시꺼다가 밧디 뿌릴 거. 마차허면 막 편헛주. 그때는 마차헌 사름은 돈을

좀 벌었어.

104013 @ 아, 남의 것도 해주고예?

104013 #2 남의 거 해주면은 와서 일도 해주고.

104013 @ 음, 케든 삼춘, 그 마차를 이 동네서는 옛날에 뭐렌 불러놨수가?

104013 #2 이디서 마차, 말 구루마, 구루마.

104013 @ 구루마? 바레기라는 말은 안 들어봣디가?

104013 #2 바레기 아니. 구루마. 구루마엔도 허고, 바레기엔도 허는 사름도 잇어 낫어. 바레기.

104013 @ 몰바레기 뭐?

104013 #2 몰바레기엔 허는 것도 아썩 들어진거 님은 게.

104013 @ 삼춘은 마차?

104013 #2 몰마차.

104013 @ 몰마차헌 거라예?

104013 #2 마차도 췌마차가 잇고 글후에 다이야로 만든.

104013 @ 음.

104013 #2 아주 자동차로 페차덜 돼가니까 그 자동차 그 바쿠를 헤가지고.

104013 @ 예.

104013 #2 만들기 시작헤연 허난 그것을 이젠 다이야로 만든, 다이야로 쓰니까 다이야 마차.

104013 @ 음.

104013 #2 췌마차 이렇게 헤가지고. 췌 바쿠는 이렇게 큰데.

104013 @ 예.

104013 #2 다이야마차는 조그마허고 수월허고 편헌 거니까 다이야 마차 이렇게.

104013 @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삼춘도 보리 서숙. 조 같 때 물로 헤갓고 불러 보기도 험마썩?

104013 #2 물로 불러보질 안 허고 우리가 어린 때는 아버지허고 목마라고. 물은 불러라면은 쌀밥하고

104013 @ 예.

104013 #2 몰 주인안티 가서 메칠 전부터 가서.

104013 @ 음.

104013 #2 수눌어줘야, 우리 메칠 날 밧 불러지쿠가 헤근에 허면은 누게네 누게네 못허켄 허민 흘 수 없는 거고. @ 예.

104013 #2 헤주켄 허든 같이 따라다녀야 돼여. 또. 그거를.

104013 @ 음.

104013 #2 물이 많으니까 놈으 밧도 강 같이 불러줘야 돼.

104013 @ 으.

104013 #2 물은 혼 사름 두 사름만 불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름이 헤영 막아도

주고 이레도 돌리고 허는 때문에. 그디 강 불러주고 일당은 못 받고 거기서 밥 헤 온 거나 같이 먹고 오는 게.

104013 @ 음.

104013 #2 그게 뭐고. 우리 아버지 때는 농사를 많지 안 허니까.

104013 @ 예.

104013 #2 목마를 만들어서.

104013 @ 목마?

104013 #2 밭 이렇게 해서 서숙 그 조 갈 곡 헐 때는 항상 밧을 두 번 갈고 세 번 갈고 헤갓고 밧을 부드럽게 갈아 놓은 다음에.

104013 @ 음.

104013 #2 씨 빼어가지고. 씨를 좁씨를 뺀 다음에 이제 그 저 목마를 가지고 밧을 밟아.

104013 @ 음.

104013 #2 거 쪼개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물밭자국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주. 목마는 밧이 여라 개 아니?

104013 @ 예.

104013 #2 흔 삼사십 개가 넘을 건데.

104013 @ 음.

104013 #2 그걸로 이렇게 궁글리면서 왔다갔다 헤가지고 가로 가고 세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씨를 다 물어질 정도로 불린 다음에 그걸로 우리는 농사를 많이 헛고.

104013 @ 음.

104013 #2 그 밧 불리는 말 빌어가지고 헛 거는 두어번 정도벳기 우리는 헤보지 못헛어.

104013 @ 아, 그러면 삼춘, 목마는 무사 목마라마씨?

104013 #2 나무로 만들엇기 때문에 목매, 목매.

104013 @ 목매?

104013 #2 목마.

104013 @ 목마. 계난 나무로 말치록 멘들앗텐 헛 거구나예?

104013 #2 물밭자국치록 만들언에.

104013 @ 예.

104013 #2 목매 그거를 쪼개도 가고 그것도 밧 가까운디 지고도 가고 그렇게 헛어.

104013 @ 쪼개도 가고 지고, 정도 가고예?

104013 #2 길 좋은 데는 쪼개 가고 쪼개가기 힘든데는 그거를 힘들게 쳐서 가서 밧데 강 놓곡.

104013 @ 건 하나로?

104013 #2 하나로만 그 밧을 오전 밧으면 다 밧으니까.
104013 @ 예.
104013 #2 남으 빌려도 주고.
104013 @ 빌령도 쓰기도 허고예?
104013 #2 빌령도 쓰고.
104014 @ 몰도 나이 세는 거 잇인가마씨?
104014 #2 몰도 나이가 잇일 거라.
104014 @ 음.
104014 #2 그디는 이수 삼수 뭐 처음 새끼를 뭐라고 허는 건 모르코.
104014 @ 금승.
104014 #2 금승은 거 소가 금승이고.
104014 @ 아.
104014 #2 일수 일수 삼수 이렇게 험실 거라.
104014 @ 일수 이수 삼수예?
104014 #2 이수는 삼수 스수 오수 저 몰은.
104014 @ 금승매 이런 말은 안 들어봄디가?
104014 #2 으?
104014 @ 금승매?
104014 #2 금승매 그런 말은 없어.
104014 @ 아, 없어예?
104014 #2 일수 이수 삼수. 경허난 금, 그거 몰은 일수 이수 삼수 그제 맞을 거고.
104014 @ 일수 이수 삼수예. 저기 췌는 금승?
104014 #2 소는 금승 다간 뭐 사름 나름 이렇게 허고.
104014 @ 예.
104014 #2 몰은 일수 이수 삼수 이렇게 해가지 오수까지. 육수돼가민 몰은 고기도 찢기다 뭐도 허다.
104014 @ 옛날들도 몰 잡앙 먹어나수가?
104014 #2 옛날도 몰 잡앙 먹엇주. 옛날은 몰이 눈이 약 웬덴 허고. 몰빠도 똥방지를 헨다 해가지고.
104014 @ 예.
104014 #2 몰을 이 간이나 뭐가 눈이 나쁜 사름은 몰 그거를 고기를 먹어.
104014 @ 눈 나쁜 거나 이러면예?
104014 #2 이 황달 같은 거 걸린 사름은.
104014 @ 예.
104014 #2 말고기를 그, 말 눈을 빠서 먹엇다고 헛엇나?
104014 @ 몰눈이 약 되는 거라예?

104014 #2 약 돼는 거.

104015 @ 아, 혹시 삼춘 그 물줄 싸레 탕기멍 잊어불지 멋진 추억 잇수가?

104015 #2 그런 건 오래 안 허난에 한 삼스 년 몰다가 그 허다가 경 끊어지니까 모르고.

104015 @ 으으. 그 다음에?

104015 #2 건디 추억엔 헨 거는 거 그 물 나가 어떻게 헛냐면은 아이 우리 아덜 이 저 오십일곱인데.

104015 @ 예.

104015 #2 남으 집 살면서 물마차를 해놓고 점심 실르고 그 아덜 그디 앞에 앓이라 헤고 태웠는데 바로 올레 베겏디 나오니까 녹대를 내버린 거라.

104015 @ 음.

104015 #2 저 우에 살았는데 이까지 물마차가 뛰언.

104015 @ 음.

104015 #2 아덜 실르고 점심 그릇 실르고 헨 게 뛰언 요디까지 뛰어온 거라.

104015 @ 아.

104015 #2 ‘아이고, 새끼는 죽엇구나.’ ㄱ만이 집에 사서 “야, 꼭 잡으라, 꼭 잡으라”. 점심 그릇은 도롯가에 말이 뛰니까 다 떨어진 그때 나 혼번 혼나가지고 아 이거 헨데, 그 마차가 어디 왔냐면 요 저 지금 저 우에서 그까지 와서 탁 구렁치에 담아지니까 물이 어디 가지, 꺾질 못허거든.

104015 @ 예, 예.

104015 #2 아이는 ㄱ만이 앓아 잇엇고. 점심 그릇은 손상뵈어버리고 그때 혼번 그런 예가. 아, 이거 절대 이제는 글후에 나 마차 치와버렸지.

104015 @ 으으.

104015 #2 ** 안 뵈겏다.

104015 @ 아니는 딱 잡안예?

104015 #2 잡안 잇어가지고 지금 잇엇기 때문에 아이고, 살앗구다. 그뎨 뵈 집엿 사름이 잇엇으면 허지만 집에 사름은 육지 가버리고.

104015 @ 아아.

104015 #2 돈 벌러 가가지고 충청돈가 어디 산 그때 한번 혼 난 역사가 잇어.

떡이

104016 @ 그 다음에 삼춘, 그 물이나 췌 먹는 것들은 어떤 거 주로 먹어마씨?

104016 #2 물은 다 이 다 먹어. 곡식ㄱ쁜 거는 막 주민 더 좋아허지.

104016 @ 으음, 그냥 풀이영?

104016 #2 풀, 풀을 보통 멕이는데 겨울은 나면은.

104016 @ 예.

104016 #2 뵈 콩쩍 같은 것도 다 그 풀 말른 거 딱딱헌 건데 콩 말린 거 콩쩍

말론 거 쪼가리덜 그런 거 더 잘 먹고.

104016 @ 음.

104016 #2 소도 마찬가지로.

104016 @ 예.

104016 #2 냉기질 안 허여 앞에 놔두면 하나도 없이 다 주워먹고. 고구마줄도 말려서 저 물 양식 소 양식도 이 십이월달 일월달까지 이 소허는 사름덜은 걸 다 준비해당 집에 쌓아놔.

104016 @ 예,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출예?

104016 #2 음.

104017 @ 출은 어떤 식으로 마련허는 거마씨?

104017 #2 출은 계난 그 전의 말했주마는 자기 농사 짓단 거 찌푸러기 같은 거 다 저장허고. 또 죽을 거 같으면 거 남으 맛도 허고. 다니면서 그 공한지에 내버린 풀도 다.

104017 @ 음.

104017 #2 옛날은 항상 방화를 부떠거든.

104017 @ 예, 예.

104017 #2 그 풀을 아무 디 강 비여 와도 다 소출이 돼여.

104017 @ 음.

104017 #2 들출도 돼고.

104017 @ 음.

104017 #2 경허다가 이제 글후에는 막 기계화도 돼고 뭐허니까 출 비는 것도 기계로 다 허니까 그때부턴 출을 사기 시작했는데 다 자기가 힘들어 노력해서 다 버는 거주, 그전에는.

104017 @ 삼춘네는 뭐 출왓 이런 거는 엇어났수가?

104017 #2 출왓은 엇어나서.

104017 @ 아.

104017 #2 출왓 엇이난 놈의 출 강 비어주민 남는 걸랑 우리 드렌 해근에 그것도 강 비곡.

104017 @ 음.

104017 #2 경허다가 나도 소 허기 시작허난 나도 하나 사가지고 출왓이 그렇게 비싸지 안 허니까 그때는.

104017 @ 예, 예.

104017 #2 임야지 삼원 오원혈 때니까.

104017 @ 으음. 그때 하영 상 놔뒀시민 완전 부자돼실 건디.

104017 #2 아 거 샷단 즈식들 공부시켜가난에 거 풀아버리니까 후훤된 거라.

104017 @ 아아.

104017 #2 돈이. 나중에는 나도 그 즈식들이 대학더레 가게 돼게돼고 돈 빚진 게

못 무니까 소 하나 잇인 거에 와가지고 옛날에 돈 못 물면 차압을 부쳤어.
 104017 @ 예, 예.
 104017 #2 소뿔에 왕 차압을 부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104017 @ 아아.
 104017 #2 집엿 사람은 아 육지 가가지고 돈 언제허멘 보낸다는데 그 기한에 아, 이거 큰일났다. 그거 물고 나중엔 밧도 또 그 사 났던 것도 이거 팔고 그렇게 했는 데.
 104017 @ 음.
 104017 #2 팔고 그렇게 헐. 거 가만이 놔뒀으면 임야지 그거 한 육천 평 칠천 평 헐 거 돈은 얼마 안 뒀어. 그때 이백오십 만원에 팔아시니까게.
 104017 @ 육칠천 평 헐 거를예? 음.
 104017 #2 거기 2만이 놔뒀으면 이제 막 부자.
 104017 @ 웃음.
 104017 #2 공항도 안 들어가고.
 104018 @ 주인 따로 잇어예.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예전에예 하늬브름 터지면 출 비레 간덴 이런 말도 잇어어예?
 104018 #2 팔월추석을 전후해서 허는 거지. 팔월 추석 명절 지나면은 그때 가면은 출 비면은 사을만 돼면은.
 104019 @ 예.
 104019 #2 낮으로 빈 출은 삼일이면 무끄지 않으면 팔아.
 104018 @ 아.
 104018 #2 경허곡 또 출 비어와가지고 그 낮으로 빈 출을 비 맞으면 거 춤 힘들지.
 104018 @ 예, 예, 예.
 104018 #2 물 들어놓민 뒤집어야 돼고 뭐허곡 허니까 것도 힘든 일이라.
 104018 @ 여기에서는 출 빌 때 낮으로 비여마씨?
 104018 #2 다 낮. 이 낮, 흔 밧 헐 그 낮으로 비엿주.
 104018 @ 예.
 104018 #2 잘 비는 사름은 하루 멧 바리어 멧 바리 이추록 헤근에.
 104018 @ 여기는 이렇게 줌호미 헤갓고 작은 거?
 104018 #2 줌호미는 안 헐어. 줌호미는 그거 땀 사름이나 줌호미로 비엿지.
 104018 @ 다 낮으로예?
 104018 #2 낮으로 헐 그 저 홀로 사는 어멍덜토 거 멧 사름 빌어가지고 우리 출 메칠 날 비어줍서. 헤가지고 맞추어 그 사름덜 일당 쥐근에 허곡. 출 비는 사름들은 옛날 삼시가 아니고 스시 먹은다고 스시.
 104019 @ 음.
 104019 #2 간식, 아침 먹고 간식 먹곡 점심 먹고 점심 후에 또 간식 먹고 거 힘

든 일이니까.

104018 @ 예, 예, 예. 아, 출 빌 때는.

104018 #2 놈의 흠어멍 집의라도 잘 맥이민 누게 출 잘 비여줘렌 허는디 아 그 사름은 먹음만 허멍 출 멧 단 안 비어줘라.

104018 @ 아아.

104018 #2 옛날은 다 그런 뭐가 잇었어.

104019 @ 예, 예, 경허영은에 이제 출하고예. 그 저기 출 운반허고 저장, 어떤 식?

104019 #2 계난 운반허는 거는 잘 물리와근에 집에 소 잇인 자기 집에 보통 와가지고 운반허는 거는 한글헌 시기에 운반해다가 한글헌 시기에 농사도 안 질 사이. 계난 십이월 사이에 다 집에 가져다 낫는데.

104019 @ 예.

104019 #2 계난 이 출 빌 때 돼면은 이 산으로 온평리 우의로 가보면은 이렇게 출 놓어 있어.

104019 @ 음.

104019 #2 놓어 잇는데 그 출덜이 이제 언젠가는 십이월말 쯤 돼가지고 겨울 전에 싹 내려와.

104019 @ 음. 그러면?

104019 #2 안 내려오면 그 전에는 방화가 꼭 십이월달 넘어가민 일월달 돼민은 방화가 잇기 때문에 거기 낫다가는.

104019 @ 다 타불 거예?

104019 #2 타불거니까. 어떤 일이 잇어도 집에 와가지고 집에왕 다 저장. 그 산에서 눈 것처럼 집에 와서 놓어가지고 매일 빠도 다 소모가 돼니까.

104019 @ 예, 그 놓엔 험니까?

104019 #2 으, 놓 누는 거.

104019 @ 놓 누는 건 어떤 식으로 놓니까? 여기서는?

104019 #2 아 놓은 여라 가지 자기 방식대로 누는 거주게. 막 싸아냥 크면은 출이 이거 백 바리리민 어느 정도 행 놓어야겟다 허영 뺑 돌아가면서 놓어가지고. 우에는 요렇게끔 물 안 듣게끔 놓어.

104020 @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물예.

104020 #2 으?

104020 @ 그 밧이나 갈젠 허면?

104020 #2 여물은 여물엔 헌 거는.

104020 @ 예.

104020 #2 예를 들영 콩이나 서숙 이런 거. 예를 들어 서숙 그 찌꺼리이?

104020 @ 예.

104020 #2 찌꺼리 중에도 그 저 체보다 좀 뭐헌 게 있어.

104020 @ 예.

104020 #2 그런 거를 쌓놔가지고 삶을 게 잇고 그대로 줄 게 잇고.

104020 @ 음.

104020 #2 경허영 그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주고. 또 그 소가 잘 안 먹을 때는 그 보통은 그 저 보릿가루 같은 거 이런 출에 이렇게 허터가지고 먹게끔 허고. 유도도 허고.

104020 @ 예.

104020 #2 여러 가지 방법이 잇고. 보리 같은 것도 삶아가지고 쪄줌 주고 일할 때는.

104020 @ 죽도 썰 줘마씨?

104020 #2 죽은 아니. 여기서 죽 쑤 사람 멧 사람 잇고.

104020 @ 그냥 여물 헤갓고.

104020 #2 우리 사람은 먹지 못해도 짐승에게 좋은 거. 콩졸레 요런 거 같은 것들.

104020 @ 음.

104020 #2 이런 것들 대강 짓고.

104020 @ 예, 콩졸레같은 거예?

104020 #2 보리도 졸레기 같은 거 헤가지고 그런 거는 많이 주질 또 안 허곡.

104020 @ 예.

104020 #2 쪄줌 주면 출을 주로 맥였으니까, 여기는.

104020 @ 음.

104020 #2 고구마줄도 같은 거 다 말린 거 주고. 이 고구마줄도 늘 거는 소 많이 안 주주.

104020 @ 음, 건 무사마씨?

104020 #2 이거 많이 먹으면 소도 설사나니까.

104020 @ 아아.

104020 #2 또 많이 소덜도 먹지도 안 허고.

104021 @ 음, 고구마줄 감저꿀예?

104020 #2 으.

104021 @ 삼춘, 그 출 비레 땡기명예, 잊어불지 못힐 추억? 삼춘네는 출왓 엇어도 놉의밭딘 비레 땡겨실 거 아니라예?

104021 #2 그치룩헌 거 잊어불 거 그런 건 없주.

104021 @ 으.

104021 #2 낫을 잘 곱고 못 곱아근에 그런 거나 허곡.

104021 @ 예, 낫 ㄱ는 거는 필로 행은에 ㄱ는 거라마씨?

104021 # 솟돌 헤가지고 이것도 낫을 잘 곱아야 출 그. 흥번 나가면은 흥 바리든 두 바리든 빌 수가 잇어야지.

104021 @ 예.

104021 #2 낮 잘 못 글면은 이거 아무리 후려도 깨끗하게 비어지질 안 허니까.

104021 @ 으.

104021 #2 그것이 기술이라.

104021 @ 삼춘은 흐루 뱃 바리나 비어봅디가?

104021 #2 아, 우리 흐민은 흐 열댓 바리 이상 비엿주.

104021 @ 게니까 그게.

104021 #2 서른 단이 흐 바리라.

104021 @ 서른 단이 흐 바리에. 게문 그 영 무끄는 거는 어떤 걸로 무꺼마씨?
그거는.

104021 #2 무끄는 그 비어놓은 자리에서 께를 뽑아서 자기대로 이렇게 그게 기
술이주.

104021 @ 음.

104021 #2 여기 여자들은 다 잘 허메.

104021 @ 아, 무끄는 거는 보통 여자들이 험니까?

104021 #2 여자들이 잘 허고 남자들은 날라다 놓고 놀 놓고 이렇게 허는 거.

104021 @ 음.

104021 #2 여자들이 빨라. 요거 무꺼서 던져놓고 저거 떨어지기 전에 하나 무끄
는데.

104021 @ 아.

104021 #2 이 기술이 좋은디. 그렇게 기술덜이 농촌에는 게문 누게 출 잘 무끄덴
허민 그 사름덜 빌어가.

104021 @ 예, 예, 예.

104021 #2 많은 사름은 아, 누게 집의 메뉴리 출 잘 무끄다, 그디 사름 빌라. 그
사름 빌라.

104021 @ 음.

104021 #2 흐 대으섯 사름 낱 큰밭디 흐 멧 천 평 텬디 강 무끄면은.

104021 @ 예, 예.

104021 #2 것도 아침 이슬집에 안 무끄면은 출이 과랑 낮 뉘민 고사리허고 서꺼
지니까 이거 께 내는 기술이 힘들어.

104021 @ 음.

104021 #2 요만씩 요만이 허는 출을 비어놋으니까.

104021 @ 예, 예.

104021 #2 이렇게 큰 출이 아니라.

104021 @ 예, 예.

104021 #2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싹 뒤집어서 싹 뿡 이렇게 허면 요만은
께 나오민 싹 무꺼가지고.

104021 @ 예, 예, 예. 옛날 어른들 참 힘들 게 살았는데.
104021 #2 웃음.

멜감

104022 @ 그 다음은 삼춘, 예전에는 우리 지들커예?

104022 #2 으.

104022 @ 그런 것도 이제 꼭 해야 돼지 아녘니까?

104022 #2 지들커 그거 외로 지들커 했주.

104022 @ 예.

104022 #2 겨울 나가면은.

104022 @ 으.

104022 #2 이 잡나무 가수록나무 같은 거 이 소나무는 막 저 좇은 디 거는 솔입도 걷영 허는 사름도 있고 소나무도 짤랑 소끔질 현다는가 길가에.

104022 @ 음.

104022 #2 옛날은 나무가 귀했어.

104022 @ 예.

104022 #2 나무가.

104022 @ 너도나도 다 허니까.

104022 #2 으, 허니깐 그것도 빗임제안티 물어보지 안 허민 걸리믄 고소당허고.

104022 @ 음.

104022 #2 거 사는 것도, 마음대로 남으밧디 강 끊지 못했어.

104022 @ 예.

104022 #2 여기는, 이 온평리 같은 데는 자기, 자기 것도 허지만은 웨리 사름덜도 많이 왔어. 저 우도서덜은 멜감 뒤면은 여기 왕 남으 밧디 강 솔입도 걷어야 웨고. 길레 잇는 어욱도 비고 그때는 풍선 가정 자기네 멜감 준비허느라고 여기 왕 집 빌영 여기서 온평리 같은 데 저 종달리 같은 데.

104022 @ 예.

104022 #2 가까운 데 강. 그렇게 멜감을 했는데. 우도가 쥔 문저 연탄도 들어가고.

104022 @ 으. 멜감이 엇으니까 거기는예.

104022 #2 우도는 서숙 조 같은 갈아난 거 그 그르를 다 털어가지고 말렸다가 우도는.

104022 @ 음, 음.

104022 #2 옛날에 멜감으로 사용헤낫주.

104022 @ 여기 그 온평에서는 어떤 거를 멜감으로 찻수가?

104022 #2 여기는 여러 가지. 보리. 소 안 기르는 사람 보릿대도 때고 뒤 서숙대도 때고. 그 허는데 그 저 즙호미라도 비어낱 다 쌓아놔으니까.

104022 @ 음.

104022 #2 노인덜토 다 자기 헐 거는 허고 나무도 쫘 잘라다 놓고.

104023 @ 으음.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 쉼뚱이나 뭇뚱같은 경우도.

104023 #2 뭇뚱 쉼뚱 다 사용했지. 뭇뚱 좇으레 우리도 저기도 갖는데. 이거는 뭇 허느냐 허맨 겨울나면은 온돌 때기 위해서는 다 해당 저장도 해놓고 뭇뚱 주워당 뭇 뭇 자리에 강 뭇저 좇어온 게 임자.

104023 @ 음.

104023 #2 좇어당 그디 젓은 거를 그 근방에 넣어 놔다가.

104023 @ 예.

104023 #2 넣어놔다가 또 완저히 므른 다음엔 집에 와가지고 저장허는디 놔다가 방 때고고. 이 저 온돌 때는 때 뭇뚱 쉼뚱이 필요했고. 거 부족허면은 술입 같은 거 같이 혼합해가지고.

104024 @ 술입 걷으러도 땡기고예?

104024 #2 술입 걷으레 여기 사름들은 그렇게 다니지 안 허여. 땡땡 사름 다니지. 다 땡감을 다 준비해버리니까.

104024 @ 아.

104024 #2 줍호미 검질이라도 다 비여가지고, 길레 거라도 비여서 준비를 헛기 때문에.

104024 @ 겨울에는 정말 땡감 준비허는 것도 큰일이여예.

104024 #2 이 땡감도 팔월달 추석 지나면 다 준비해 버려가지고 일기가 준비헐 시기에 준비 안 허민 헐 수도 없고.

104024 @ 예.

104024 #2 겨울에는 부족헤여 갈 거 같으면 겨울에 눈오는 디 나가가지고 비어. 나무 같은 거라도 쪼갱 놔두면 삼사일이면 마르니까.

104024 @ 예.

104024 #2 그런 걸로 보충허고.

104025 @ 음, 그 다음에 이 삼춘도 그냥 땡감해영은에 나무허레도 땡견마씨?

104025 #2 나무 허레도 다니고. 나무 빨리도 우리 뭇할 때는.

104025 @ 음.

104025 #2 그 나이 한창 젊은 살림살이 아버지네 슬하 헐 때 나무 허레 다녔주. 나무 빨리.

104025 @ 으음.

104025 #2 잘라난 빨리를 도끼 가져와서 쪼개서 가져 와서 집의서 쪼개민 땡감이 막 오래가.

104025 @ 아아.

104025 #2 겨울에는 추위도 좋고 막 이 저 거기서 다 뭇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104025 @ 낭뿔리로 허여서예?

104025 #2 뿔리까지도 다 소나무 짤라난 뿔리덜. 그거 헤가지고 이제 쓰레기ㄴ튼
잡, 저 마당에 잇는 쓰레기 같은 걸 같이 혼합헤가지고 온돌에 집어 넣엇다 허면.

104025 @ 음.

104025 #2 아침에 저녁에 집어넣으면 아침까지 방이 온돌이 따뜻허니까.

104025 @ 예, 예.

104025 #2 낭뿔리 하나 이런 거.

104025 @ 예, 낭뿔리는 밥 행 먹을 때 아니라 굴묵.

104025 #2 방 때는데 ㄴ튼 데 사용헿주. 서터가지고.

104026 @ 혹시 이 동네도 솫 굽는 일도 헤나신가마씨?

104026 #2 우리 역은 후제는

104026 @ 안 하고.

104026 #1 안 허고.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솫 구웠고. 우리 아버지 때에덜은
다 솫을 구웠고.

104026 @ 예.

104026 #2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솫을 구워가지고 그 사고를 나 분
겨.

104026 @ 아아.

104026 #2 초등학교 태와불언 솫.

104026 @ 예, 예.

104026 #2 옛날 초등학교에는 교장허고 그 학교 선생 둘이나 서이벳기 없엇거든.

104026 @ 예, 예.

104026 #2 계난 급사보고 이제 솫 이거 뭐 허렌 허니까 급스가 솫을 문엇는데
불 다 꺼진 사무실러레 갖다놔뿔더니 그게 꺼진 게 아니라 그게 발화뿔불고, 그때
도 그 가을 새 비레 가고 뿔허레 가고 그 저 집, 뿔디덜 가분 때 불이 일어나부니
까.

104026 @ 음.

104026 #2 사고가 난 거라.

104026 @ 계난 솫 구당은에 헿 거라마씨?

104026 #2 솫 구원에 완전히 뿔감으로 난로 옆의 앳다 놓을 거 아저당 놔뿔더니
그게 불이 일어나분 거지.

104026 @ 예예. 계난 이젠 삼춘네 아버지네는 솫 굽는 거를.

104026 #2 솫을 구웠어. 나무 헤다가 그 집에 가정에 사용헿라고 헤도 쯤그마한
솫가마를 만들어서 삼일쫼 뿔면은 그 불태와가지고 덮어놔당 삼일쫼 뿔면 솫이 뿔
면 그때까지 불이 잇어.

104026 @ 아 솫가마허는 거를 보기도 헿마씨?

104026 #2 보기는 헿는데.

104026 @ 그 솟가마는 어디서 만든 거라마씨?

104026 #2 자기 밧테 우연 같은 데서 요렇게 땅파가지고.

104026 @ 예.

104026 #2 이렇게 둥그렇게 나무 썩아놔가지고 돌담 이렇게 헨다든가 흑으로 다 묻어가지고 불 부치면은.

104026 @ 으음.

104026 #2 불이 다 탄 거 닳으면 양쪽 구멍을 다 막아불어.

104026 @ 예에.

104026 #2 불 탈 때는 저쪽 이쪽 불 잘 타게 해놓고 불 어느 정도 타게 돼면 어느 정도 다 타면 구멍을 막아가지고 허면은 그제.

104026 @ 꺼지는 거.

104026 #2 멧 시간 돼민 요것이 다 부뜰 것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구멍 막혀 버린 다음에는 하루나 이틀 잇다가 그.

104026 @ 으음.

104026 #2 불이 어떤 땐 잇고 잇일 때는 불 잇는 건 물 주면서도 허고, 이 저 솟혜영 밖에도 놔뒀다가. 그거를 그 솟을 가지고 제사허젠 허면은 고기도 굽곡. 그것도 정성스레.

104026 @ 예에.

104026 #2 솟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정성스레 해 낫다가 잘 썩아뒀다가.

104026 @ 으음.

104026 #2 약 같은 거 딸릴 때도 그 가마 저 솟해가지고 약탕관에 놔가지고 약도 딸렸고.

104026 @ 음.

104026 #2 제사 땐 돼면은 요만한 화로에 똑 그 불 피와놔가지고. 그 다 정성 드려서 옛날덜은 그거를 고기도 굽고 그렇게 헨 거지.

104026 @ 으음, 미리 솟 구워 놓는 게 그 제사 할 때 쓸려고?

104026 #2 그런데 사용헐려고. 무슨 약 같은 거 중요헌 거 딸리고 옛날 탕관이라고 집집마다 그 무슨 소엽 같은, 소엽이라는 약초 이름인데.

104026 @ 예, 예. 소엽.

104026 #2 소엽 그 집에덜도 그런 거는 감기 때문에 집에 재배덜을 헐어.

104026 @ 예.

104026 #2 박하 소엽 박하는 설사.

104026 @ 음.

104026 #2 이 저 음식 잘못 먹었다던가 급체를 걸렸을 때는 박하물을 먹으면은 토해 불고 뒤희면은 한글허다 해가지고 박하가 집집마다 그것도 다 없어져불었어.

104026 @ 예, 게든 소엽이렌 헨 거는?

104026 #2 저 소엽이엔 헨 게 그 이디 저 무슨.

104026 @ 깻입?

104026 #2 깻잎 비슷한 건데 잔잔헌 빨그스름헌 건데 집집 이 저 올레 그런디 담구멍에도 이렇게 씨뿌려 가지고 싱거가지고 이 가을 뉘면은 그 다 엮어가지고 다 저 집에 돌아메영 놔두고.

104026 @ 예에.

104026 #2 약제로. 두레기 요런 거 같은 것도 말리어서 약제로.

104026 @ 으음.

104026 #2 보통은 감기 걸릴 때는 그런 걸 해서 먹었고.

104026 @ 으음.

104026 #2 박하 같은 거는 그거 박하가 우리 건조허는 거 안 봤고. 그거는 빨리라도 헤가지고 물을 헤가지고 박하 심어난 자리라도 가서 박하 빨리는 겨울에도 파면은 잇으니까.

104026 @ 예.

104026 #2 그 물 여름에는 박하가 이파리 막 왕성허니까 그 물을 뉘 험젠 허면은 우선 그거 맥이라, 박하물 헤영 맥이라.

104026 @ 아아, 게민 소엽은 씨로 허는 거라마씨? 아니면?

104026 #2 것도 씨. 씨로, 씨를 헤 놔두면 이파리.

104026 @ 음.

104026 #2 이파리를 건조헤가지고 깻잎 닮은 거 들르면 이렇게 메달려 놔뵈다가 그 물을 팔려가지고 먹으면은 감기에도 좋고 뉘에도 좋고 뉘.

104026 @ 음.

104026 #2 소엽에 무슨 옛날에 한약 뉘에는 새빨리도 놓고 뉘도 놓고.

104026 @ 예, 예.

104026 #2 가시새엔 현 거는.

104026 @ 예.

104026 #2 그 것도 소엽 비슷한 건데 건 들판에 강 많이 잇는데.

104026 @ 음.

104026 #2 그거는 온몸 가려울 때 나 피부에 물 질질힐 때는 그거를 가시새엔 현 것도 말리엇다가.

104026 @ 음.

104026 #2 건 불에 쫄아가지고 새카망헌 거주.

104026 @ 예, 예.

104026 #2 그거 발르면은 피부병 좋는다 헤가지고 그런 것도 허고 옛날은 조벤약으로.

104026 @ 예, 다 조벤약으로예, 맞아예. 게난 다 자기대로 다 만들명들.

104026 #2 예.

104026 @ 아까 그 두레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4026 #2 두레기는 그거 저 말리면 씨영 뭐영 말랑 허면 그것도 무슨 감기나 무신 천식 같은 거 혈 때는 딸려서 그 물을 마신다고 했는데.

104026 @ 음 이렇게 동글랑 헌 걸.

104026 #2 말려 잇으면은 가을땀면 따가지고 자연히 그대로 말라가지고.

104027 @ 음, 그렇게 이제 하고예. 아까 그 쉼출이나 이런 거 비명 잇어볼지 못헌 경험도 잇어마씨?

104027 #2 그런 거는 없고.

104026 @ 아.

104026 #2 벌이나 쉼민 그 그런 거 혼번 뉘. 이 낫질허면서 벌은 잘 쏘아.

104027 @ 음.

104027 #2 이 벌이라는 게 움직거리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게 뭐허고. 꼭 얼굴에 왕 잘 쏘와. 낫질할 때.

104027 @ 예, 예. 옛날은 벌도 하나신디 이제는.

104027 #2 지금도 만허여. 풀밭디 가면 벌이 많아.

104027 @ 슷 굽거나 빨감 준비할 때 놈의 밧디 강은에 허당 욱든거나 이런 것도 엇수가?

104027 #2 그런 것덜은 엇고.

사냥

104028 @ 그런 건 없고예? 삼춘 혹시 사농허레도 뎅겨뵈디가?

104028 #2 아, 우리 사농허레 다른 사름덜은 다녓자 그건 안 헤보고.

104029 @ 음. 꿩사농. 꿩 잡으레도.

104029 #2 꿩 잡으레도 안 허고.

104030 @ 여기 노루 사냥이여 이런 말은 들어뵈디가? 꿩 사농은 어떤 헌덴 허는 겨우과? 거는.

104030 #2 꿩은 꿩사농허는 거 우리 구경만 헛주. 개를 데리고 가서.

104030 @ 예.

104030 #2 요소 요소에 사람이 사.

104030 @ 음.

104030 #2 이쪽에도 개 잇고 저쪽에도 개를 놓아서 여기서 날르면서 저기 가는 꿩은이 막 혼 이백 메다 삼백 메다 내려가민 잡을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망보는 사름이 어드레 감져. 허민 거기서 개테리로 그레 강 앓양 꿩을 지칠 때 개가 강 물리, 잡는 건데 그레 꿩 사농이라.

104030 @ 음, 게난 게른 꿩사농 가젠 허면은 그 개를 꼭?

104030 #2 개를 교육 잘 시킨 개들이 잇어야 뉘고.

104030 @ 음.

104030 #2 이디는 많지는 아녀. 저 수산 난산더렌 웃드르 사름덜이 많이 허지 여

기 해변 사름덜은.
 104030 @ 아아.
 104030 #2 잘 허지 안 허여.
 104030 @ 예, 예. 아무래도.
 104030 #2 여기는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낚는 거 취미허지 꿩 사농은 혼두 사름 그저.
 104030 @ 맞아예, 예.
 104030 #2 옷드르 사름들은 접이나 마찬가지로 강 다 모다들영허민 그거 잡으면 은 뭐 나누곡 뭐허곡 그치록헤가지고 그걸 허고. 여기는 틸 나면은 바다 물 때 웨민 고기 나끄레 가곡 뭐허레 가곡 보말 잡으레 가고. 그거 아녀도 흘 일이 많으니까.
 104031 @ 예, 맞아예. 여기는 바당 동네니까. 혹시 지달이엔 허영 들어봣디가? 오로? 지달이?
 104031 #2 아 지달이엔 현 거는 뭐 잇지. 여기 뭇하느냐 허면 시카만, 이 고양이 비슷한 건데.
 104031 @ 예.
 104031 #2 이 우리 과수원 ㄴ뜬디 피해를 많이 줏지.
 104031 @ 지금도 잇어마썸?
 104031 #2 지금도 이 미깡나무도 사람이 따 먹은 거라.
 104031 @ 으으.
 104031 #2 이렇게 나무 잇으면은 껌질 다 뱃겨가지고 먹영 깨끗허게 깔아놔. 지달이.
 104031 @ 지달이가?
 104031 #2 어어 지달이가.
 104031 @ 으.
 104031 #2 나도 우리 요 과수원에 아 이거 웨 저 웨딤 한쪽 구석에만. 거기는 막.
 104031 @ 으음.
 104031 #2 싱쁠이여 숲, 굴이 많은 디라이.
 104031 @ 예, 예.
 104031 #2 지달이 살 수 잇는. 아이덜이 이까지 와서 이 미깡을 여기서 따 먹엇는가 허연.
 104031 @ 음.
 104031 #2 이상허다, 이상허다, 이상허다. 그게 미깡 열기 전에 보면에 내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릿대를 갖다 그 과수원 밑에 놓꼬 막 깔아나고 허니까 거기 이 지렁이가 많이 생겼어.
 104031 @ 아, 예, 예.

104031 #2 빛이 좋아져가니까.

104031 @ 예예예.

104031 #2 켈 처음은 그디 듬복제를 들엇다가 그거 나쁘다고 허니까 그거 제초
해 된 보릿대를 다 소 안 길루고 허니까 다 과수원에 갖당 이만큼 깔아놓니까.

104031 @ 예.

104031 #2 그 깔아난 밑에는 지렁이가 많이 생겨.

104031 @ 음.

104031 #2 우글우글헛어. 게니까 지달이는 지렁이를 좋아허는 모양이라.

104031 @ 아아.

104031 #2 이 과수원 이 나뭇대 이 밑에 것도 땅을 다 파. 이렇게 고생을 허연
저 **이랴로 약을 타고 혼번은 시장 닭발을 다 해당 약을 물어도 안 먹었는데 어떻
게 헛는지 한 머리가 죽엇어. 이만헌 거.

104031 @ 음.

104031 #2 죽언 죽은 지가 오랜.

104031 @ 예, 예.

104031 #2 그때 완전히 썩은 다음에.

104031 @ 예, 예. 발견. 나무 밑에서 발견헛는데, 그게 여기서도 지달이 잡는 사
람 잇고, 지달이 잡는 개가 잇는데

104031 @ 음.

104031 #2 요거는 구멍을 한 군데만 놓는 게 잇는게 아니라 들어가는 구멍허고
나갈 구멍이 이거.

104031 @ 영리허구나.

104031 #2 이 짐승은 영리헌 모양이라.

104031 @ 음.

104031 #2 연기로 가면 탄 딜로 가서 나와버리지 글로 나오질 않은 생이라.

104031 @ 예.

104031 #2 지달이 나 보고. 죽은 걸 한번 보고.

104031 @ 음.

104031 #2 피해를 많이 입어. 나무 멧 개는 완전히 한 밧디만 아니라 다른 밧데
도 이 울창헌 숲 잇는 곳에는 지달이 많이 잇어.

104031 @ 음. 게문 옛날도 이 동네 지달이 잡으레 다니는 사름이 잇어난?

104031 #2 난산리 사름이 개를 좋은 개라야 돼여. 지달이 잡는 개는. 지달이 저
거 비싼 거주게.

104031 @ 아아.

104031 #2 보신똥는 거라부니까.

104031 @ 예예.

104031 # 그거를 허면은 소소헌 사름은 사 먹지도 못 헤여.

104031 @ 으음. 경허영. 지달이피도 저기 현 덴 험니까? 지달이 털.
104031 #2 이레 읍서.
104031 #2 이제 올 거우다.
104031 @ 지달이털?
104031 @ 옛날에 뭐.
104031 (잡음)
104031 #2 와 같 거우다, 이제.
104032 @ 족제비?
104032 #2 족제비덜은 여기 뭐 잇이난에.
104032 @ 족제비 덧 놓레도 땡겨낫지예.
104032 #1 아니.
104032 @ 안 다녀판?
104032 #2 그런 거는 안 다녀보고.
104032 @ 족제비 잡는 사름도 잇지
104032 #2 아침에 비오난.
104032 @ 아아.
104032 #2 족제비 돌아댕기민 오늘 나중에 비오켜.
104033 @ 아아, 그런 식으로 허고. 삼춘은 사농해난 경험은 없으니까예.
104033 #2 사농은 경험은 없고.
104033 @ 예.
104033 #2 옛날 어털 때 그 새 잡는 거는.
104033 @ 아, 예, 예.
104033 #2 생이테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4033 @ 예.
104033 #2 어떻게 허느냐 하면 겨울 눈 많이 온 때.
104033 @ 예.
104033 #2 눈 많이 올 때는 가가지고 그디 이렇게 눈을 치와두고 그 테기를 툽 놓면은.
104033 @ 음.
104033 #2 추운디 저쪽에 강 앓앙 잇으면 그때는 새가 많이 잇어.
104033 @ 음.
104033 #2 뭐 총테기여 속새여 이런 새덜이 잇는데 그거를 그 이렇게 치와 놓민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그디 왕 앓아서 그 곡식 이 서숙 조.
104033 @ 예.
104033 #2 조를 이렇게 매달려 논 거를 왕 특허게 건드리면 새가 잡히는 거라.
104033 @ 음.
104033 #2 그렇게 새 잡아가지고 그거 뭐 장만해영 꾸워도 먹고 집에 와가지고

반찬도 그렇게 하고. 하고 또 옛날엔 물총이라는 거 있지 아녀이.

104033 @ 예, 예, 예.

104033 #2 그 총 헤가지고 요렇게 코를 다 만들어.

104033 @ 음.

104033 #2 만들어가지고 마당이나 집 마당 앞에 이렇게 저 곤테곤테 그 정지혜 놔두면 그 새털이 거기 왕 뒹 있으면 왕 찌꺼리 있으면 막 먹다가.

104033 @ 음.

104033 #2 후허게 뒹허면 거기 걸려 가지고 있어.

104033 @ 음.

104033 #2 겨민 그축해서도 새를 잡고.

104033 @ 아 물총으로 헤갓고예?

104033 #2 물총 헤 가지고 이렇게 고리 만들엉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104033 @ 여러 군데 놔뒹.

104033 #2 여러 군데 놔뒹. 대막쟁이나 뭘 헤가지고 그 무꺼놔두면은 새라 해도 날아가지 못헤 걸리면은 파닥거리게끔 그디.

104033 @ 음.

104033 #2 조정헤가지고 그디 서숙 찌꺼리 같은 거 던져 내불민 새털이 막 모여 들어.

104033 @ 예.

104033 #2 그렇게 해서 이제 새도 잡는 게 잇고 드르에 놔서 저 음지 같은데 눈 막 올 때는 그렇게 험 거는 우리 혼 뗏 년 헤봤주.

104033 @ 예, 그 삼춘, 그거 험 때 아까 이 곤테곤테 영 놓는 이 기구예.

104033 #2 생이테기.

104033 @ 생이?

104033 #2 테기, 테기.

104033 @ 생이테기렌 헤마씨?

104033 #2 으.

104033 @ 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과?

104033 #2 그물 이렇게 헤가지고 그거는 활같이

104033 @ 그물을 요렇게? 예.

104033 #2 요거는 나무고 요 안네는 그물이고.

104033 @ 이거는 나무히거 이거는 그물.

104033 #2 그물 썬와서.

104033 @ 이렇게 그물 썬왕예?

104033 #2 썬우고 여기는 활대라고 헤가지고 이거를.

104033 @ 활대.

104033 #2 활같이 이렇게 헤가지고 노곳 두 겹으로 해서 이걸 막 데와가지고 놓

면은.

104033 @ 예.

104033 #2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헛당 덮어지게 끈이 되는 거라이.

104033 @ 예, 예.

104033 #2 경허면은 여기 새가 잽히는 거. 계민 한 마리밖에 안 잡혀 새는.

104033 @ 그러면 나무로 헤갓고 이거를 영 해근에 고정행 놔두는 거구나예?

104033 #2 하나는 활대, 대는 나무고.

104033 @ 이렇게 현 거 나무?

104033 #2 요기는 노끈이라. 노끈이 두 줄로 허는 거라.

104033 @ 이렇게 헤가지고마씨.

104033 #2 이걸로 여기 끼우는 거라. 여기 끼워서 감으면은.

104033 @ 예.

104033 #2 자연히 스프링식으로 덮어지게 뒀어.

104033 @ 으음.

104033 #2 요기는?

104033 @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우과?

104033 #2 아니 여기가 이제 요거 활대 이렇게 뒀으니까.

104033 @ 예.

104033 #2 여기, 활대 요기는 이 조나 뭐를 요만큼 달아매고 요.

104033 @ 예.

104033 #2 요기서 줄을 이렇게 요 조코고리에 달린 걸 이제 땡겨져서 닫으니까
요 줄이 여기 와서 새가 톡 건드리면.

104033 @ 음.

104033 #2 요기 이레 떨어져붙고 요거는 새가 덮어지면서 이디 덮어지게 뒀 거
지.

104033 @ 예, 예.

104033 #2 계민 요거 현 머리 잡는 거.

104033 @ 예, 예.

104033 #2 계민 이 사이를 돌맹이 두 개를 톡허게 놔가지고.

104033 @ 예.

104033 #2 움직거리지 못허게끔.

(전화 잡음)

104033 @ 여기는 이제 노곳으로 두 줄 이렇게 놓는 거라예?

104033 #2 음.

104033 @ 계민.

104033 #2 이꺼지 노곳으로 현 거라.

104033 @ 올라 앓앙 잇는 거 아니라예?

104033 #2 계난 이거 감아 잇으니까 노꼇을 데왓당 덮어지게끔 웬 거라. 이 노꼇 두 줄을 허는 게 요 사이 무꾼 게 이계 덮어젓당.

104033 @ 그물을 영 말앙은에.

104033 #2 그물 마는 게 아니고. 이 구물을 이 나무에 노꼇으로 이렇게 여끼는 거라.

104033 @ 예.

104033 #2 엮어서 요 가운데 그물에 그 곡식.

104033 @ 곡석?

104033 #2 하나 조를 하나 달고 여기 요 대에 이 나뭇대에 줄을 이렇게.

104033 @ 음.

104033 #2 허면은 그.

104033 @ 줄 영 허영 줄 잡다뎡겨볼문?

104033 #2 줄이 이렇게 허민 꼭 바로 섯다가 곡식에 이렇게 끼와지민 바로 섯다가 그거 뎡기면은 이제 덮어지게.

104033 @ 이렇게 뎡게.

104033 #2 반대로.

104033 @ 반대로 이렇게 행 덮어지게.

104033 #2 이렇게 웬 거라. 덮어지게.

104033 @ 만들기를?

104033 #2 그렇게 만들기를.

104033 @ 그걸 생이테기렌 허는 거예? 알아수다. 오늘날 이까지 허쿠다예.

104033 #2 아아.

5. 바다일

105001 @ 예, 알아수다예. 다 제주돛말로만 곶아주는 거라예? 그러면 삼촌안테 물어보쿠다양. 바당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잇어신고양?

105001 #1 바당에서 뭐 물질허는 거?

105001 @ 예게.

105001 #1 메역도 캐곡게 전복도 잡곡 소라도 잡곡 그냥 오분작도 잡곡 성게도 허곡 다 헛주. 바당에 거 다 헛주게.

105001 @ 예. 그 이 바당에는 옛날에 듬북이영 감태영도 나마씨?

105001 #1 듬북, 감태, 노랑쟁이, 실쟁이 다 나나십주. 고지기.

105002 @ 예, 계문 그 듬북이영 감태영 조사할 때는, 그 캐야 뎡 거 아니우파양.

105002 #1 음.

105002 @ 그 강 즈물양 올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즈물양 온 거우과?

105002 #1 걸망엔 헤근에 망사런디, 막 고망 막 흑게 만들양양, 경행 그것에 담양 오주게. 그것덜에.

105002 @ 예, 그거는 공동작업해낫수가? 개인으로 허는 거우과?

105002 #1 개인으로게.

105002 @ 개인으로? 음.

105002 #1 그때 막 걸름이 그거난에. 농사짓는 걸름이 듬북이난.

105002 @ 예. 그 말 한번 알아봅서. 그 옛날 듬북헤근에.

105002 #1 듬북 헤영 밧디 강 낄양 걸름이 그거라십주.

105002 @ 예.

105002 #1 옛날에는. 요즘은 비료로 허주마는. 경헤영 또 고지기는 통시에 도새기 질루는 돏통에.

105002 @ 예.

105002 #1 돏통에 놔근에 보리찍 담아낱 거 썩영 도새기가 막 사난 썩여근에 그 걸로 걸름허영 보리 갈곡.

105002 @ 음.

105002 #1 그거 걸름.

105002 @ 게문 그 듬북 헐 때는 어느 철에 허는 거우짱?

105002 #1 듬북헐 때 여름에.

105002 @ 예, 여름에.

105002 #1 으, 여름에 헤사 혼 유월들에 그때 헤사 통시더레 문 시꺼다 놔야 그 고지기. 보리찍도 나곡 헤야. 보리 장만허영.

105002 @ 거난 요즘 먹을 때는 일찍허지 아념니까양. 몹 같은 거는양?

105002 #1 믱음.

105002 @ 예.

105002 #1 믱음은 정이월에.

105002 @ 음, 건 정이월 허는데 듬북은 여름에 허는 거.

105002 #1 음.

105002 @ 감태도 헤난마씨?

105002 #1 감텐 막 성산 감태 공장 잇어낫주.

105002 @ 예.

105002 #1 게난 감태공장에 받아가는 따문에 감태 즈물아나수다. 그때.

105002 @ 그때는 감텐 어느 때 즈무는 거우과?

105002 #1 감태도 그 오뉴월에, 여름에.

105002 @ 아아.

105002 #1 칠월꺄장 팔월꺄장.

105002 @ 아, 그 듬북허고 감태허고 허는 거는 언제적꺼지 현 거 님아마씨?

105002 #1 감태는 팔월추석전에 꺄장은 허렌 딱 그 규정이 잇는디양.

105002 @ 예.

105002 #1 경혜신디 말 안 듣는 할망덜은 막 팔월그믐ㄱ장도 즈물곡.

105002 @ 음.

105002 #1 경헛수다게.

105002 @ 예.

105002 #1 계난 그 감태공장에서는 그걸로 공장에 시찰간 보니까, 화약도 만들곡.

105002 @ 예.

105002 #1 걸로 이 모든 냉면에 뭐 라면에 뒷에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엇읍디다. 감태ㄱ르로.

105002 @ 감태ㄱ르로.

105002 #1 감태가 ㄱ르가 헤영허영. 밀ㄱ르처럼.

105002 @ 음.

105002 #1 막 가공행 나오난.

105002 @ 그거 멧 년도까지 헤신고예?

105002 #1 거 끊어진 건 디가 한 삼십년 더 뵈주.

105002 @ 음. 듄북 걸름헤난 거는?

105002 #1 걸름헤난 것도 경 뵈고.

105002 @ 경 뵈고예?

105002 #1 예.

105003 @ 여기는 아까 이제 소라렌 꼴안게마는.

105003 #1 구쟁기.

105003 @ 예.

105003 #1 구쟁기계.

105003 @ 그거는 어떤 식으로 즈무는 거라마씨?

105003 #1 구쟁기는.

105003 @ 음.

105003 #1 유월달 나민 산란기라부난 저 금지헛당, 예 시월 일일부떠 저기 잡주.

105003 @ 예.

105003 #1 소라를.

105003 @ 예.

105003 #1 경허민 그냥 쪽허게 또 오월 유월ㄱ장 계속.

105003 @ 금지기는 언제, 금지기 뵈 거라마씨?

105003 #1 유월 칠월에 그 막 알 싸는 기간이난.

105003 @ 음.

105003 #1 그때만 금지허주.

105003 @ 여기도 그 보뵈? 여기도 보뵈엔 헛니까?

105003 #1 보말.
105003 @ 보말엔 험니까?
105003 #1 보말.
105003 @ 보말은 어떻 잡는 거우과?
105003 #1 보말은 요즘은 옛날엔 사지 아녀난 풀지 못허난애.
105003 @ 예.
105003 #1 그냥 잡아당 먹음만 헤신디. 요즘은 그걸 다 받아가기 때문에.
105003 @ 예.
105003 #1 키로에 삶아근에 열앙.
105003 @ 예.
105003 #1 키로에, 예, 처음은 만 원 만이천 원 허단에 지금은 삼만사천 원.
105003 @ 음, 아, 보말?
105003 #1 막 비싸.
105004 @ 비싸구나예. 그 보말 종류도 으라 개렌 허명양?
105004 #1 수두리도 잇고 보말 잇고 춤ㄴ메기 잇고 문다께 잇고.
105004 @ 문다께?
105004 #1 문다께엔 현 거는 딱지가.
105004 @ 예.
105004 #1 딱딱현 거.
105004 @ 예.
105004 #1 딱딱현 것가 문다께엔 현 거.
105004 @ 문다께고.
105004 #1 수두리는 이 코쟁이가 꾸썩허고 영 꾸썩헤근에 큰 거.
105004 @ 예.
105004 #1 보말은 영 똥글똥글헤근엔애 춤ㄴ메기도 보말식으로 똥글똥글헤영 존
존현 거고.
105004 @ 존존현 거고. 게난 문다께는 그?
105004 #1 예, 문다께는 그냥 반찬으로 먹곡.
105004 @ 예.
105004 #1 그거 간 나쁜 사람은 그 문다께 삶을 때 막 썩자 물에 밀영 씻어똥
그 물 삶앙 그 물을 먹읍네께.
105004 @ 음.
105004 #1 이 저기 황달 잇인 사름도 좋곡 당뇨 이신 사름도 좋고. 걸 막 역불
로, 작년이는 막 역불로 문다께 잡으레 웨방 사름덜 와나서.
105004 @ 아아, 이 동네 문다께가 하영 나마씨?
105004 #1 맞셔.
105004 @ 아아, 맞셔?

105004 #1 이 동네 맞셔.
105004 @ 쓰지 아녜니까?
105004 #1 쓰지 아녜 맛있는 동네 이디는.
105004 @ 아아, 기구나. 게문 그거는 어느 철에 먹는 거우과? 어느 철에 잡아?
105004 #1 아 건 지금도 잡고 거는.
105004 @ 흔 엇어, 예.
105004 #1 으. 겨울에도 잡고.
105005 @ 여기는 쟁이?
105005 #1 쟁이.
105005 @ 쟁이도 종류도 으라 가지라예.
105005 #1 찰쟁이도 있고 돌쟁이도 있고 기름쟁이도 있고 순스쟁이도 잇곡.
105005 @ 순스쟁이?
105005 #1 똥쟁이도 잇곡.
105005 @ 순스쟁이는?
105005 #1 순스쟁이엔 현 거는 저 등따리가 빨강허주게.
105005 @ 예.
105005 #1 빨강혜근에 현 거고 찰쟁이는 푸루롱허영 얼룩달룩허여양.
105005 @ 예.
105005 #1 경허곡 똥쟁이는 또 희뜩멀룩 희똥멀룩 현 거 쉼 우에 잇는 거. 맛은 똥쟁이가 쉼로 맛 좋주.
105005 @ 아, 아까 돌쟁이는?
105005 #1 또 돌쟁이는 딱딱혜근에 빨리 도망도 못가고.
105005 @ 음.
105005 #1 잡을 때. 돌 영 일르민 제기 도망안 강 움적움적 듣는 건 돌킹이고.
105005 @ 음.
105005 #1 기름쟁이는 껍데기 노랑행 밤색갈로.
105005 @ 밤색갈로.
105005 #1 노랑혜근에 막 우에, 막 우의 이십니다게.
105005 @ 예, 게문 기름, 다 먹는 거라마씨?
105005 #1 아니 거 빼정은 죽도 끌영 떡곡게 보깡도 떡곡게.
105005 @ 그 아까 쟁이들 다 먹는 거?
105005 #1 다 먹는 거.
105005 @ 요즘도 하영 먹읍네까?
105005 #1 예, 요즘도 막. 요즘은 슬질 때주 뉘.
105005 @ 아아.
105005 #1 알 소곱에 알 찰 때.
105003 @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잡아마씨?

105003 #1 돌 일렁.
105003 @ 것도 돌 일렁.
105003 #1 으 돌 일렁. 돌 일렁 잡곡. 통발.
105003 @ 예.
105003 #1 통발 저기 저 흐끔 영 치와근앵에 니쩍 낱 통발 낱 놔두민 그디는 춤
쟁이벳기 안 보이주게. 통발에.
105003 @ 아아, 통발에는.
105003 #1 으.
105005 @1 게른 이 쟁이 잡을 때 니쩍은 어떤 거로 써마씨?
105005 #1 고도리.
105005 @ 고도리. 으.
105005 #1 고동어새끼.
105005 @ 예, 예. 여긴 그냥 고도리엔 험구나양?
105005 #1 으.
105006 @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여기 휘.
105006 #1 으.
105006 @ 췌불? 휘 뭐렌 험니까?
105006 #1 으음. 새 비여당.
105006 @ 예. 웃음.
105006 #1 새 비여당 저 영 무경.
105006 @ 예.
105006 #1 무꺼근앵에게 밤에 췌ㄴ메기 잡으레.
105006 @ 예.
105006 #1 아이고, 우리 밤에 췌ㄴ메기 잡으레 잘 땡겨주. 그 췌불에 영 부짱은
앵에 영 들러둬서로 밤에는 ㄴ메기가 그렇게 잘 나주게. 그렇게 막 벳 뜨겁게 나난
날 즈낙은 가민 막 완전히 거멍케 나. 경허멍 잡으레 땡겨나서.
105006 @ 그걸 췌ㄴ메게 주문, 잡으러 땡긴덴 헤예?
105006 #1 췌ㄴ메기 잡으레.
105006 @ 췌혈 때는 췌ㄴ메기도 잡주마는 다른 것들도 잡아실 거 아니우과?
105006 #1 문어도 나오민 잡곡게. 밤에는 휘 불 들르민예 그걸 막 나와.
105006 @ 음.
105006 #1 문어 같은 건 영 막. 잡으레 안 땡겨난 사름은 몰르고.
105006 @ 맞수다게.
105006 #1 으, 몰라. 우린 계속 성장 밑에 살아부난에 계속 잡으레 땡겨나수다.
105006 @ 으음, 게른예, 아까 새 비여당은예, 새 비여당 헌덴 허지 아녀수과양?
게른 그 새 휘 멘드는 방법을 흐끔 알아줘봅서?
105006 #1 방법은게 휘 저 새 비여다근앵에 이 몽텅이만이 지력시 새가 땡주게.

경허민 그거 영영영영 무꺼근에.
105006 @ 예.
105006 #1 도막도막 무꺼.
105006 @ 으.
105006 #1 경허영 휘 멩글양 지영 가. 지영 가 등어리에 저 바구니 차곡.
105006 @ 예.
105006 #1 경허영 휘 들렁 잡으멍 등얼러레 놓멍 허멍 놔지민 집이 오주기.
105006 @ 계민예,
105006 #1 그때는 돌 일렁 잡질 아년에.
105006 @ 다 올라와.
105006 #1 휘ㄷ메기만 잡으레 하영 땡겼주.
105006 @ 아, 계민 아까예 삼촌, 이 등어리에 바구니?
105006 #1 구덕.
105006 @ 그건 무신 구덕이렌 곶아?
105006 #1 출구덕.
105006 @ 출구덕.
105006 #1 으, 대남으로 만든 거 출구덕.
105006 @ 출구덕허영 허고. 그 휘에는 기름 부쳐근에 뭐 새 허거나?
105006 #1 아니, 아니. 기름 부쳐불민 왈왈 부터불영 안 돼주개.
105006 @ 암.
105006 #1 아니, 아니. 그대로.
105006 @ 그대로 오래가양.
105006 #1 무꺼부니까.
105006 @ 음.
105006 #1 도막도막 무꺼부난에 오래 가주.
105007 @ 예, 알아수다. 아까 삼촌, 이제 문어엔 곶아신디 이 동네?
105007 #1 뭇게.
105007 @ 뭇게.
105007 으.
105007 @ 뭇게. 옛날 이 동네도 뭐 원담이렌 험니까? 갯담.
105007 #1 으, 원담 저 성담이엔 헛주. 원담엔 아녕 성담.
105007 @ 여기는 성담?
105007 #1. 으.
105007 #1 그 성담에 대헿 곶아줘줍서. 여기는 성담. 그 성담에 대헿 곶아줍서
헌번.
105007 #1 성담 성창 예염으로 가곡게. 시국에,
105007 @ 예.

105007 #1 경허민게 근무행 경허민게 입초사근에 폭도덜 내려올 때 입초상 시간 웨민 아흠 시 전달 허민 저기서 아흠 시 전달, 저레 바라가곡 경헨 헌디 그 성담이 헐어져벳지.

105007 @ 헐어져부런예. 그건 성담이고. 혹시 이 바당에도 무사 바당에, 바당에 동골랑허게 멜.

105007 #1 불턱이주. 즘녀덜 불츰는 거.

105007 #2 고기 잡는 디가.

105007 @ 고기 잡는, 승어도 들고 허는 거.

105007 #1 건 승어 잡는 사름덜 그물 아정강 그물 치는 거.

105007 @ 아아.

105007 #1 그물 치는 거온.

105007 @ 이 동네는?

105007 #1 그런 걸 심허게 안 해.

105007 @ 바당이 다른 지역보다 트난 거 닥아예? 돌들이 하서.

105007 #1 문딱 돌팓. 여기는 몰레판이 엇어부난 ㄹ메기도 경 맛 잇는 거.

105007 @ 아, 몰레판이 엇수가? 여기는?

105007 #1 몰레판이 엇기 때문에 돌팓이라부난 ㄹ메기도 쥔 맛있고 미역도 채고 곡 모든 성기 조개 뭐 고동헐 것 없이.

105007 @ 예.

105007 #1 게난 상인이.

105007 @ 예.

105007 #1 온평리 것만 사가젠 입찰허젠 허주.

105007 @ 아아, 여기는 그 오분작일 조게렌 헉니까?

105007 #1 조게.

105007 @ 아까 조게렌 굴안게예.

105007 #1 으.

105007 @ 옛날말로예. 요즘이야 오분작이주.

105007 #1 으으.

105007 @ 게문 그거는 조게렌 허고.

105007 #1 으.

105009 @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에 이 동네는 멜 안 거려?

105009 #1 멜 들 땐 거리주만 베로 강은 안 거리메.

105009 @ 베로는 안 거리고 멜 든 거는 어디레 든 거.

105009 #1 ㄹ디 ㄹ디 ㄹ께통에.

105009 @ 아, 그걸 무신 통엔마씨?

105009 #1 ㄹ께통엔 허주.

105009 @ 예.

105009 #1 영 갓바위에 통 이신 디가 늦게통엔 허주게. 게문 그 통에 들어오면은 사들 아정 가근앵에 거리주.

105009 @ 그 사들로. 게문 그 사들은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

105009 #1 사들이 건 또 무신 거고, 족바디엔 허주. 족바디.

105009 @ 족바디?

105009 #1 어, 옛날 말론 족바디엔 허주게.

105009 @ 예.

105009 #1 사들은 큰 거고.

105009 @ 예.

105009 #1 경허영 그거 아정 가근에 물통에 거 막 다올리멍 거렁와났주.

105009 @ 게난 그 물통을 늦게통이렌 헤예?

105009 #1 늦게통.

105009 @ 늦게라는 말은 무신 말이우과?

105009 #1 게난 늦게라 현 말은 우리 생각에는 그 폭레도 나고 늦도 들고 막 경 현 통이난에 막 늦게통이엔 허는 거.

105009 @ 맞수다. 늦게통에 헤근에 거기에 이제 멜이, 멜이 들어오는 거라예?

105009 #1 으.

105009 @ 예예, 알아수다. 게문 그치록 헝은에 허면은 늦게통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

105009 #1 자연적으로 바당에 잇인 거.

105009 @ 이 동네서 벨도로 돌로 헤영 영.

105009 #1 아니, 아니.

105009 @ 안 하고예?

105009 #1 늦게통.

105009 @ 게난 제주도도 널러마씨? 이렇게 지역마다 트나.

105009 #1 다 틀리주.

105009 @ 예, 맞아마씨? 그 다음에 으, 아까 이제 멜 거리는 그물헤갓고 거리는 건 엇어예? 이 동넨.

105009 #1 으으, 큰구물허영 거리는 건 엇고. 족바디 멩글양 늦게통에 든 거난게.

105009 @ 예.

105009 #1 족바디 무신 베로 허영 판 디ㄴ치록 그물 헤영 거려오는 건 엇꼭게.

105009 @ 게문 그, 늦게통에 멜 들면 옛날은 혼자만 강 그 멜 거리지 안 헤영은 에 멜 들엇저 허영.

105009 #1 아이고, 막 웨주.

105009 @ 어떻 웻수가?

105009 #1 멜 들엇젠. 저 앞바당 멜 들어서라. 멜 거리레 가게, 가게, 웨멍 가불 민 막 따라가주덜 알아들은 사름덜.

105009 @ 예.
105009 #1 경행 강 거러와.
105009 @ 예.
105009 #1 경혜영 강 거러와.
105009 @ 계영 그런 늦게통이 이 동네 하서마씨? 으라 개?
105009 #1 예게. 그냥게 굿디 바당마다 늦게통이 다 잇주게.
105009 @ 계난 늦게통도 보면 일름들이 잇일 거 아니우과?
105009 #1 신동산늦게통, 여맞은디느계통 도에늦게통, 몰레알늦게통 다 잇주게.
105009 @ 예.
105009 #1 황탈이여 어디여 전부다. 바당마다 다 늦게통이 있어.
105009 @ 그게 흔 멧 개썸 켈 거 닙아마씨?
105009 #1 우리 바당이 온평리 바당이 열 군데우광?
105009 @ 음.
105009 #1 열 멧 군데우과? 다 있어.
105010 @ 다 잇어예. 동네 그 담당마다 강은예.
105010 #1 으으.
105010 그 동네 강 거리는 거라예? 알아수다. 여기는 켜기 옛날에 나끄레 탕겨잠
아양. 어떤 식으로 나끄레 탕겨수가?
105010 #1 베로.
105010 @ 아, 베.
105010 #1 슬레기 나끄레 탕기고.
105010 @ 음.
105010 #1 음, 우리 또 그자 이디 굿디 사름은 어렝이 나끄레 탕기고 우럭 나끄
레 탕기고 경.
105010 @ 음, 계문예, 굿디서.
105010 #1 으.
105011 @ 굿디서 이제 나끌 때 뭐 들렁 강 나끄는 거?
105011 #1 침대.
105011 @ 침대?
105011 #1 으.
105011 @ 예, 건 무신 낭?
105011 #1 침대엔 현 거는 왕대 나무로 영 침대 멘들양 그걸로 굿디 강 나끄고.
105011 @ 건 굿디 나끄고.
105011 #1 예.
105011 @1 여기 베로 헐 때는 어떤 베로 행근에 나끄는 거?
105011 #1 그 낙싯베엔 허영 저여 존존현 배가 잇주.
105011 @ 예.

105011 #1 저런 큰배가 아니고 준준헌 배.
105013 @ 그 준준헌 배를 부르는 이름도 있어났수까?
105013 #1 아 배 이름은 잊주께.
105013 @ 예.
105013 #1 배 이름은 있어. 풍선은 네 젓는 베고 저 요즘은 준 배라도 다 거세기.
105013 @ 이름들이 그냥 하고 다 허고예?
105013 #1 이름 다 잇수다. 진성호니 해성호니 무슨 호니 경허영 다.
105013 @ 예. 그 다음, 여기 베가 동네 베가 멧 개 정도 잇엇수까? 예전에.
105013 #1 옛날에는 저 풍선 해근앵에 옛날 어른덜 고기 나끄레 무시거니 솔래기 나끄레 텅기곡.
105013 @ 음.
105013 #1 그런 디 강 에여리 나끄곡 그치록만 해나고. 요즘은 베가 핫주.
105013 @ 음. 요즘 하고예?
105013 #2 베가 열 서너 척 뤼고, 터베라고 헤가지고 자리 거리는 베가 잇어나고.
105013 #1 터베 잇고게.
105013 #2 이디도 온평리도 상동 하동 저 들개라고 포구가 잇어가지고 거기서는 터베가 세 개, 이쪽에엔 다섯 개, 또 풍선이라는 건 배 작은밴데 그게 한 열 개쯤 잇어가지고.
105013 #1 베 열 개 잇어났수까?
105013 #2 남자들이 옛날은 난바르라고 헤가지고 풍선을 끌고 삼일 오일 그 가지고 바다에서 자고 고기를 낚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생활덜 헛고.
105013 @ 예, 게문 삼춘예, 아까 난바르렌 곧지 아녜수과예?
105013 #2 난바르라는 거는 배를 타고 나가서 가족덜 버리고 삼일 먹을 거 싸고 그디 가가지고 자기대로 밥해먹으면서 갈치나 이 저 솔래기를 나까가지고 왔어.
105013 @ 아, 그뎌 다 나쁜 거라예?
105013 #2 예.
105013 @ 게문 난바르가 먼바당에 강근에.
105013 #2 가가지고 살고 오는 거 난바르 갖다 왔다.
105013 @ 예, 게문 솔래기 ㄱ튼 거는 이 근해에 나는 게 아니라 먼바당에 잇인 거 아니우과양?
105013 #2 깊은 바다에.
105013 @ 깊은 바당에. 펄 바당에.
105013 #2 으.
105013 @ 거기 펄 잇는 바당을 뭐 곤는 말도 잇습니까? 펄바당 뭐?
105013 #2 펄바당엔 난바르엔 헨 먼바다에 갖다왔다.

105013 @ 그냥 난바로?

105013 #1 그것까지는 우리.

105013 @ 예.

105013 #2 어부들이 말허는 거고.

105013 @ 음, 계난 이 온평리 앞바당도 솔래기가 하영 낫구나예?

105013 #2 아 여기 앞에 나가민 많이 잇고.

105013 @ 예에.

105013 #1 요새는 그 주낫이라고 헤가지고 난바로 가기 전에 중간에 낙시를 놔가지고 요즘 시대는 배가 잇어서 솔래기를 잡고 이렇게 허는데.

105013 #4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성산포 생선 잇지 아님니까?

105013 @ 예, 예.

105013 #4 그제 온평 앞바다 중심이 됩니다.

105013 @ 아, 여기가 솔래기가 잘 나는 디구나?

105013 #4 우도나 성산포나 서귀포나 다 이 전부 온평 앞바다 겁니다.

105013 @ 예, 알아수다 예. 그 다음에 보면예, 왜냐허면 여기는 좀너힘니까? 좀수했수가?

105013 #1 좀수주게.

105012 @ 좀수예. 그 좀수들도 그 물질 갓당은에 꿰기도 쏘앗자녀우과예?

105012 #1 소살로.

105012 @ 어떤 것들 잇수가?

105012 #1 소살로.

105012 @ 음, 소살로?

105012 #1 요즘은 짝살엔 허주마는 소살.

105011 @ 예. 예전에는 왜 낙시대도 아까 침대 만들젠 허면.

105011 #1 음.

105011 @ 낙시대도 멘들아야 되고.

105011 #1 왕대나무로. 줄도 헤야 되고 낚시도 헤야 되고. 줄도 헤야되고. 낙시도 헤야 되고 뽕들도 헤야 되고.

105011 #1 줄은 정수.

105011 @ 정수. 그건 어디에서 구해당 헤여마씨?

105011 #1 풀주게 그거 다.

105011 @ 아, 왕대도 풀아?

105011 #1 왕대는게 이 동네 왕대.

105011 #4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허쥬. 낙시대는 수리대 왕대 두 가지 잇습니다.

105011 @ 예.

105011 #4 또 침대술, 거는 노끈.

105011 @ 노끈?

105011 #4 노끈허고 낙시 매는 거만 정술.

105011 @ 예.

105011 #4 걸로 씩니다. 낙시 매는 정술과 이 노끈 사이에 뽕돌이라는 게 있죠.

105011 @ 예.

105011 #4 물에 등그는 거.

105011 #1 내려가게 허는 거.

105011 #4 그게 잇습니다.

105011 @ 게른예? 아까 이제 정술? 정술은 그 나이롱줄 님은 거.

105011 #2 나이롱.

105011 @ 아까 노는 뭘로 헛수가?

105011 #2 노곶이라. 일본서덜 처음 나온 건데.

105011 #4 것도 여기서 가정에서 멘들질 아니고.

105011 #2 상점에 그냥 다 가게. 옛날은 점방.

105011 @ 예, 점방.

105011 #2 점방 허곡. 에 또 그 전에는 도비상귀라고 헤가지고 그 모든 물건을 지어가지고 다닐 때 그런 사름덜이 바늘도 팔곡 썰도 팔곡 다 허니까 그런 건 준비 헛고.

105011 @ 음.

105011 #2 침대는 집집마다 수리대 왕대를 여긴 다 가정 잇었으니까 이제 침대를 자기가 깊은 데 헛라면 왕대를 긴 거 허고. 갓테서 나쁠 때 침대 수리대를 헤가지고 노끈 사고 철사 요만이 사서 굿디에서는 나끄는 거는 우럭 요런 작은 고기.

105011 @ 예.

105011 #2 좀 저 왕대를 가지고 허민 조금 먼 디 대가지고 밤에는 가가지고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구릿이라는 고기나 돔이지. 돌돔 이만씩 현 거를 옛날에 그 나쫓고. 그거고. 그런 대중 다 그런 농촌에 취미. 이 온평리에는 그런 거를 유행웨 었고. 이곶은 뭇을 헛느냐허면은 밤게라는게 잇어요.

105011 @ 밤게.

105011 #1 밤게면은 그 저 요새.

105011 @ 바퀴벌레 님은 거.

105011 #2 바퀴벌레 님은 그거 냄새가 대개 고탕합니다.

105011 @ 아아.

105011 #1 그거 허고 물주넝이 허고.

105011 #2 그거를 휘를 무껴서 싹 허민 잡기가 빨른 거니까 거기가 발이 뭇허민 거기 떨어지른 그거를 이곶으로 헤가지고 다 그 저 고기를 나쫓주.

105011 @ 물주넝이 허곡, 예.

105011 #2 물주넝이는 조그만한 고기를 나끄는 거고.

105011 #1 주로 물주넝이 헛주. 코생이 나끄는 거.

105011 @ 코생이 나끄는 건예?
105011 #2 어랭이 코생이 나끄는 거.
105011 @ 그 침대행 긴 줄이 노끗행 허는 거잖아예, 그 다음에 작은 줄은 철사로 헉니까?
105011 #2 철사 요만이 허영 낚시허곡 허영.
105011 #1 철사 허는 거는 굵디서 브들락 나끄곡 무신거 허는 게 철사허는 거곡. 마당에 영허영 나끄는 거는 철사 웃어.
105011 #2 철사.
105011 #4 정술허는 거.
105011 #1 정술허는 거.
105011 @ 음.
105011 #2 옛날은 다 노끗.
105011 #1 철사는 이 굵디서.
105011 #2 뭐를 헷느냐 허면 노끗을 사다가.
105011 @ 예.
105011 #2 어부들도.
105011 @ 예.
105011 #2 어부들도 돼지피를 무쳐가지고 발러가지고 끊어지지 아녀케끔. 혼 발쭈 그 저 술을 헷다가 어부덜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105011 @ 예.
105011 #4 쉼줄로 낚싯대를 멘드는 거는 묶는 거는 브들락 나끄는 거, 우럭 나끄는 거.
105011 @ 예.
105011 #1 예게.
105011 #4 우럭 나끄는 거.
105011 @ 예.
105011 #1 늦게통에서 돌러레 찢르는 거.
105011 @ 예, 예. 아아 돌러레 영 찢르는 거 예예.
105011 #1 그거는 쉼로.
105012 @ 예, 알아수다. 그것도 나중에 또 물어보곡예, 그 다음에 삼춘 아까 소살로.
105012 #1 으.
105012 @ 레기 쏘앗덴 허지 아녀수가양? 그건 어떤 식으로 쏘으는 거마씨?
105012 #1 고기가 물에 물질허당 보민 영덕에 들어강 이시민 올라왕 소살 가정 강 고무이, 이것이 소살이면은.
105012 @ 예.
105012 #1 여기 고무줄을 들주게.

105012 @ 예.

105012 #1 게문 그걸 짝 늘리왕 들어강은에.

105012 #2 고기 줌자는 거

105012 @ 예.

105012 #1 고기 잘 찢러났주. 옛날엔 물뚝 북바리 다금바리 순 그런 거라나신디 요즘은.

105012 @ 보지도 못해예?

105012 #1 요즘은 북바리허고 다금바리는 잊어져부렀어.

105012 #3 다금바린 잇는디 북바린 씨져불언.

105012 @ 그 다음에 그 작살도 그 소살도 보든 삼춘, 영 그 소살이 하나 짜리도 잇고.

105012 #1 하나짜리난. 영 곧짜헌 거 여기 늘 아니?

105012 @ 예.

105012 #1 게문 여기 비닐 돌지주게. 덧니난 거치록.

105012 @ 예예,

105012 #1 비닐 돌진 거.

105012 @ 게문 그런 거는 하나 짜리로만 써, 여기서는 어떤 데 보면.

105012 #1 아니, 비닐은 두 개주게.

105012 @ 비닐은 두 개고?

105012 #1 요만쪽에 하나 잇고 요만쪽에 하나 잇꼭 비닐은 두 개주게.

105012 @ 예, 예. 맞수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그.

105012 #1 비닐이주.

105013 @ 여기는 꿩깃베.

105013 #1 으.

105013 @ 꿩깃베들이 아까 솔라니베도 잇엇고 우럭베 이런 식으로 뭐 갈치배 영 딱로딱로 안 험니까?

105013 #2 아니 또론 안 허고.

105013 #1 아니 다.

105013 @ 딱로는 안 하고.

105013 #2 그 베가 그 어부들이 갈치 시절에는 갈치 나끄레 나고 솔래기 시절은 솔래기 나끄레 가고.

105013 @ 예.

105013 #2 그 자리철 뉘민 자리 거리레 가고 그렇게 베 험 사람들이 어부들이.

105013 #4 다목적으로.

105013 @ 예, 다목적으로예. 그, 삼춘예? 예전에 베가 터배도 베 종류를 한번 골 아취 봅서.

105013 #1 테베는 저 무신 거니 솔래기 나끄레 못 가고.

105013 #2 터베라는 거는 옛날 거름허기 위해서 듬북 노랑쟁이 요런 거를 자물 앓고. 자리를 거렸고. 올로 요거벳기 사요응르 안 헛고. 그대로 배는 고기 나끄레 가가지고 이제.

105013 #1 거는 풍선.

105013 #2 퀘기 나끄고 나중에는 막바로 이제 발전헛 때는 거기 저 해녀덜토 타 가지고 가. 메역이 많은 데 잇으면은 깊은 바다에 멧 사름 허다가 그걸로 쫓나버렸 주.

105013 @ 예 옛날에 여기 그 풍선예?

105013 #1 응.

105013 @ 그 풍선 허게 뉘면 그 풍선을 돌아알 거 아니우과?

105013 #1 돛 들 거, 돛 들 거.

105013 @ 예, 돛.

105013 #2 돛 달양.

105013 @ 돛을 이 동네에서는 뉘렌 곱아나수가?

105013 #1 벳돛엔 헛주. 벳돛.

105013 #2 돛 달 정도 현 베가 그거 작은 베덜. 하나 정도 돌아가지고.

105013 #1 노를 젓영 가고.

105013 #2 노를 젓고 저 오고 가고 그런 식벳기.

105013 #2 벳돛이엔 허주.

105013 @ 뉘 삼대선 이런 것도 엇엇고.

105013 @ 삼대선 이런 거 없엇고예, 벳돛이엔 허주마는 초석이렌 안 곱아봅디 가? 베초석.

105013 #1 이디선

105013 #2 베초석이렌은 안 허고.

105013 #1 벳돛이엔 안 헛니다. 이디선.

105013 #1 벳초석. 이디선 안 헛니다.

105013 @ 삼춘, 초석이렌 들어봅디가?

105013 #1 아니우다게.

105013 #5 아주 옛날에는 베초석 잇어났주.

105013 #5 베초석 잇어났주.

105013 @ 아주 옛날에는 초석이엔 헛니다. 어디 가난.

105013 #1 초석 처근에 헛주.

105013 #2 저 뉘가.

105013 #3 초석이엔 헛주.

105013 @ 다른 동네에선 초석이엔 헛디다.

105013 #2 여기서 초석이엔 현 거는 나가 말 현 게 메역이 즈무 초석 처가지고 현 거벳기는. 벳초석 잇어났주.

105013 #4 이 교수님 얘기한 거는 터위에 그 초석으로 해근에 그 여기는.
105013 #2 터위렌 허는 거는.
105013 #4 말씀하는게. 여기선 초석으론 안 썰습니다.
105013 @ 아, 초석으로 안 썰예?
105013 #2 돛이엔 현 거벳기.
105013 #1 예, 돛이엔 허주. 벳돛이렌.
105013 @ 벳돛이렌예. 알아수다.
105013 #4 여기서 천으로 돛을 만들지 초석으로 멘들진 아녀수다. 초석으로 안 멘들앗으니까.
105013 @ 예,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다 광목.
105013 #2 광목.
105013 @ 광목이나 미녕 이런 걸로 현 거 아니라예?
105013 #4 감물 들여서.
105013 @ 감들 들영. 아, 돛혈 때도 감물 들영은에 험니까?
105013 #1 흰 것도 허고.
105014 @ 흰걸로도 허고예.
105014 #1 흰 것도 허고.
105014 @ 예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우리 즘수들예, 바당에서 즘무는 해산물, 어떤 거 잇입니까? 쪽 종류들 글아봅서.
105014 #1 잡는 거?
105014 @ 예, 바당에 강은에 즘는 거예.
105014 #2 물에 들영 허는 거.
105014 #1 아니게, 즘는 것이 구쟁기, 생복. 생복이엔 허주.
105014 @ 맞수다.
105014 #1 전복엔 안 허영.
105014 @ 예, 맞수다.
105014 #1 생복, 성계 예?
105014 @ 이 동네 말로.
105014 #1 성계주게. 이 동네 말로 성계.
105014 @ 귀렌은 안 헤봄디가?
105014 #1 아니 귀엔 안 허주.
105014 #3 귀엔 허지 아녀서?
105014 #1 귀주, 귀. 귀. 귀가 아니고 귀. 또 솜, 솜.
105014 @ 솜.
105014 #1 으, 그거 보말.
105014 @ 음.
105014 #1 수두리 그거 잡는 거주게.

105014 @ 여기는 저기 미는?
105014 #3 메역.
105014 #1 메역은 허고.
105014 @ 미, 미?
105014 #1 해습.
105014 #4 미주.
105014 #1 아아, 해삼. 해삼이사.
105014 #4 이제 뉘난 해습허주 미엔 헛주.
105014 @ 여기도 미 헤낫수가?
105014 #1 여기도 미.
105014 @ 대죽미?
105014 #4 으, 아니 제주미 아니고? 미.
105014 #5 옛날은 미.
105014 @ 게난 그 미를 벌경허난 대죽미렌은 안 곶아마씨? 이 동넨?
105014 #5 대축미.
105014 #1 아아, 대축미엔 현 거 그 미 중에.
105014 @ 예.
105014 #1 완전 빨강헌 거 가끔 흥나씩 납니다.
105014 @ 예.
105014 #1 게민 그거는 대축미엔 허주.
105014 @ 대축미예? 맞아 여기도 헤서예.
105014 #2 흥삼.
105014 @ 흥삼예.
105014 #1 흥삼은 기자 그냥 보통 나는 거고 그 빨강헌 거 대축미.
105014 #2 게난 군수 굴멩이.
105014 @ 예.
105014 #1 또 잇수다. 빨강헌 거 잇수다. 색깔이 빨강헉니다. 대축미엔 헉니다 거.
105014 @ 예. 예.
105014 #5 그것이 잘 엇주게.
105014 @ 그 다음에 삼춘, 굴멩이도 곶아수다.
105014 #2 굴멩이. 여기선 굴멩이엔 옛날 헤낫는디 요새 말로는 군수라고 허는디 온평리 말론 굴멩이.
105015 @ 예, 굴멩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질허젠 허믈양 준비헤 갈 도구?
105015 #2 으.
105015 #1 옛날에사게 물적삼 입곡 속곳 입곡 도구엔 현 건. 테왁은 족테왁허고.

105015 @ 예.

105015 #1 꼭테와허고 비창허곡 그 도구는 뭐 글게기나 호미 그 마찬가지 지금도.

105015 @ 지금도 글게기에 그냥 가져가곡양?

105015 #1 글게기 미역힐 땀 호미.

105015 @ 예.

105015 #3 물수건 허고.

105015 @ 예.

105015 #1 비창 마찬가지.

105015 @ 예, 물수건도 쓰곡.

105015 #1 흰수건, 광목수건.

105015 @ 그 다음 여기는?

105015 #1 죽은눈.

105015 @ 죽은눈, 옛날은 죽은눈예.

105015 #1 으, 죽은눈.

105015 @ 요즘은 이제.

105015 #1 으, 안경엔 허주. 큰 물안경.

105015 @ 이젠 물안경 허주마는 큰눈이렌은 안 헤뵈디가?

105015 #1 큰눈 무사게 지금은 다 큰눈 쓰주.

105015 @ 이젠 큰눈 쓰고예.

105015 #1 으.

105015 @ 게른 여기에서 그 눈들은 어디 강 구행와마씨? 이 동네도 만드는 하르방 잇어마씨?

105015 #1 아니, 아니.

105015 @ 어디 거?

105015 #1 한동.

105015 #1 한동 어디 함덕인가 한동인가.

105015 @ 한동 하르방이 잘 헤낫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망시리 예, 옛날 꼭테와 헛주마는.

105015 #5 망사리?

105015 @ 망사리?

105015 #1 으.

105015 @ 망사리도 옛날허고 요즘은?

105015 #1 망사린, 망사리는 옛날에 우리 클 때는.

105015 @ 예.

105015 #1 미, 미우쟁이,

105015 @ 음.

105015 #1 이? 미우쟁이 빠당은에 그거 두드렁근에도 허고, 신사라. 신사라 옛인 사름은 미우쟁이 빠다근에 허곡 신사라 이신 사름은 신사라망사리 허곡.

105015 @ 음, 신사라가 더 질겨마씨?

105015 #1 신사라. 아니 더 질기나 마나 질기는 건 마찬가지로, 허기가 좋주게. 신사라.

105015 #2 신사라는 근간에 나온 거고. 옛날은 다 미.

105015 #1 미로만.

105015 #2 미를 빠가지고 그 저 봄 나면 이제 스월 오월 유월들 지금 조금 지나 버렸네.

105015 @ 예.

105015 #2 그거를 빠다가 장만을 해가지고.

105015 #1 지금 지나지 아녀수다. 칠월 나사 칠팔월 나사 미우쟁이 빠는 거주.

105015 @ 으.

105015 #2 그거 빠다가 장만했다가 걸 꼬아가지고 망사리를 다 만들고.

105015 @ 게문 그런 망사리는 무신 망사리엔 곱아마씨?

105015 #1 미망사리. 신사라망사리 미망사리 경헛주게.

105015 @ 아.

105015 #2 경허다 나이롱나오기 시작허니까.

105015 @ 그것도 삼춘, 메역 즈물 때 허고 그냥 일반 그 헛물에 헛 때 허고는 특나지양?

105015 #1 아니 미역망사리허고 헛물에망사리는 같이 이만씩 고망 지왕 허곡. 듬복허는 것만 틀리주게.

105015 @ 아, 듬복허는 거는? 건 어떻 식으로 허여?

105015 #1 걸망이엔 허영은에 고망을 막 이만씩 훑게 만들야. 영 못이는 것이.

105015 @ 예.

105015 #1 막 훑게 허는 거 걸망.

105015 @ 걸망.

105015 #1 으.

105015 @ 그 다음에 쫓꼴락헌 것도 요즘은 가정 텅기지예?

105015 #5 조락.

105015 #1 조락.

105015 @ 조락. 으, 옛날도 게문 그런 조락도 앗앙 텅것수가?

105015 #1 건 조락.

105015 @ 건 조락예? 아까 해산물허고 우리 그 바당에서 이제 메역헛은에 이런 식물예?

105015 #1 으.

105015 @ 그런 거 즈무는 건 어떤 거 잇어?

105015 #1 메역 허제 허민 삼스월에, 이 삼스월에 허제. 삼월. 스월은 나민 늦인 메역이고. 이삼월에 헤여근엥에 영등곳 곧 넘으민 메역허젤 험니다.

105015 @ 음.

105015 #1 게난 그걸 딱 금헛당 헤낫주, 옛날에. 게른 그거 물려근엥에 폴아낫주 게.

105015 @ 으음.

105015 #1 건 이녁만씩.

105015 @ 음.

105015 #1 개인 바당 이녁만씩.

105015 @ 아, 이녁만씩?

105015 #1 이녁만씩.

105015 @ 게난 그 허제허영 메역헛 때는 다 공동으로 허지 아녀마씨?

105015 #1 아니 이녁만씩.

105015 @ 아아.

105015 #5 학교 바당만 공동헛주. 학교바당만.

105015 #1 예, 이녁만씩.

105015 @ 학교 바당만 공동으로 헛 거라예? 이녁만씩.

105015 #1 건 학교 살리젠 허난 공동으로 양쪽 바당 끊언에 거 경 헛 거곡. 경 아년 건 다 이녁만씩.

105015 @ 게른 이제 잘허는 사름들은 엄청허고.

105015 #1 어, 열 칭허는 사름 일곱 칭허는 사름 다섯 칭허는 사름 세 칭 허는 사름 경허주게.

105015 @ 메역 철엔예?

105015 #1 메역 철에.

105015 @ 아, 게른 이 동네는 메역은 어떤 메역덜 나마씨?

105015 #1 어떤 메역이 어떤 종류?

105015 @ 메역 종류가 헛 종류?

105015 #1 헛 종류주.

105015 #2 옛날 헛 종류.

105015 @ 이젠 헛 종류.

105015 @ 우도 가면 녁메역 잇고.

105015 #1 아 녁메역ㄱ튼 건 이디 엇어.

105015 @ 엇어예?

105015 #3 저쪽에 표선리허고 온평리 메역 췌고.

105015 #1 녁미역은 엇어.

105015 @ 메역이 췌고.

105015 #1 나 안 킬읍디가게. 이딘 돌팿이라부난 모든 해산물이 탄 부락보단 특

별이 맛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렇게 센다고.

105018 @ 음, 그 다음엔예, 아까 삼춘, 여기에서는 메역 잇고 그 우리 즈물아당 먹는예, 바당 풀 어떤 것덜 잇어마씨?

105018 #1 아, 툄허고.

105018 @ 툄허고.

105018 #1 으, 툄허고 옛날엔 저 믱음 많이 나나신디 이젠 믱음은 엇고.

105018 @ 음.

105018 #6 메역세.

105018 #1 메역세도 옛날이주. 이제 먹읍니까게. 옛날에. 믱음은 없고. 메역세도.

105018 @ 옛날에 해난 것덜?

105018 #1 옛날은 메역세 메역은 돈 벌젠 허고.

105018 @ 예.

105018 #1 메역세는 메여당 잔치 때, 잔치 때나 뉘헐 때 국거리허젠

105018 @ 예.

105018 #1 경허영 막 메역세 메레 막 스뉘 들으고.

105018 @ 아, 메역세로 잔치 헛구나.

105018 #1 국 끓이젠.

105018 @ 예, 그 다음 믱음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 믱음 종류?

105018 #1 아 저기 무신 거 쥐뉘 잇고 기자 뉘망 잇고.

105018 @ 으.

105018 #1 쥐뉘, 쥐뉘.

105018 @ 게믄 이 동네도 믱음이엔도 허고 뉘망엔도 헛니까?

105018 #1 옛날은 뉘망이고 요샌 믱음이엔 허고.

105018 @ 아아. 게믄 예전에는 이 동네 뉘망?

105018 #2 뉘망, 뉘망.

105018 @ 뉘망예, 으, 그 뉘망 종류가.

105018 #1 조용협서.

105018 @ 뉘망도 쥐뉘망헤 게믄 무신?

105018 #1 쥐뉘. 쥐뉘망.

105018 @ 으, 쥐뉘망허고. 춤뉘망?

105018 #1 막 즘질주. 쥐뉘망은.

105018 @ 춤뉘망이렌 말은 안 해?

105018 #5 뉘이 춤뉘망이주가.

105017 @ 예, 춤뉘망예. 예, 알아수다. 그 옛날예, 그냥 속궂 입엿은에 속궂이렌 허여 여긴 소궂이. 속궂?

105017 #1 으.

105017 @ 속궂 입엿은에 헐 때 허고 나중예 그 고무웃 입궂 헐 때허고 그 차이

굴아줍서. 어떻습디가?

105017 #1 차이사게.

105017 #5 천지차이주게.

105017 #1 차이가게. 저 속곳 입을 땐.

105017 #5 땀 시간씩 살아. 그냥은 흔 시간 이상 못 살아.

105017 @ 삼춘은?

105017 #1 흔 시간도 저.

105017 #1 겐디 그때는 물건이 해주게.

105017 @ 예, 예.

105017 #1 겐디 바당에 오래 못 사니까.

105017 @ 흔 사름씩예?

105017 #1 물건이 하근에, 물건이 하근에 막 전복, 전복이고 뭐 구쟁이고 뭐 물
에 드는 시간이 짧으니까.

105017 @ 예, 예.

105017 #1 겐디 지금은 옷 입어부난에 전복도 잘 엇고.

105017 @ 으.

105017 #1 다섯 시간 으섯 시간 살기 때문에 옷 입곡.

105017 @ 음, 게른예, 삼춘. 예전에 이제 적삼 입은 것도 후제 아니라예?

105017 @ 으.

105017 #1 적삼 전에는 그자 속곳만 입영 험난?

105017 #1 아무 것도 안 입엇주. 적삼 전에는.

105017 @ 적삼 전에.

105017 #1 속곳만 입영.

105017 @ 삼춘 어렸을 때 입엇던 물옷 굴아봅서. 어떤 옷 입영 물질헤났저.

105017 #1 우리 험 때는 기자 속곳허고 물적삼 입언 헤왔주. 경헤다근에.

105017 @ 삼춘네는?

105017 #1 고무옷 나수다.

105017 @ 삼춘네는?

105017 #1 으.

105017 @ 삼춘도 물수건도 써보고.

105017 #1 으게.

105017 @ 게른 삼춘네 어머니 시절에는 적삼을 안 입은 거?

105017 #1 안 입엇지.

105017 #5 적삼 허영 저 험 돈이 어디 셔게. 속곳만 입영. 광목 저 무신 거 배급
주곡 허난에 광목으로 문딱.

105017 @ 그런 식으로. 모자도 써 톱디가?

105017 #1 아니, 고무 모자벳기 물에 드는 딴 수건.

105017 #3 까부리 맨들앗주게.
105017 @ 까부리?
105017 #3 만들앙. 중간에사 헛주.
105017 #5 게메.
105017 @ 예. 알안.
105017 #3 개명 똤난.
105018 @ 삼춘 이 동네도 톨도 하영 나마씨?
105018 #1 막 하영 나낫수다. 옛날에. 이 오염똤부난에 톨이 엇어져분 건디 혼 개금이 허면은 우리 여맞은개 ㄱ똤 딘양 팔십칭 ㄱ장 나나수다게.
105018 @ 아아.
105018 #1 경혜근에 기자 저 헤나신디. 이젠 톨이 엇어.
105018 @ 아.
105018 #1 그냥 먹을 거벳기.
105018 @ 그 톨 헤난 이야기 헛줍서. 옛날에 톨 하영.
105018 #1 개금이 부똤 우리가 여맞은개 입찰을 헤서 바당을 사니까. 사람똤이 다 부뜨는 거라. 그 바당에. 부뜨민 그것이 혼 바당에 혼 조가 똤 거 아니?
105018 @ 예.
105018 #1 경혜영 헤낫수다.
105018 @ 개금이엔 혼 거 똤우과?
105018 #1 예를 들영 말허면은.
105018 @ 예.
105018 #1 요건 생동산, 용머리, 요거는 여맞은개,
105018 @ 예.
105018 #1 요게 도에 바당 이름이.
105018 @ 예.
105018 #1 바당 이름이 요 용머리 혼 개금이, 이거게 도에 혼 개금이.
105018 #2 구 용머리 혼 개금이 도에 혼 개금이.
105018 #1 저 알바르허민 알바르 혼 개금이.
105018 #5 개금이엔 헤부난 몰라똤주게.
105018 #1 그 바당에. 혼 부뜨는 사름이라.
105018 @ 예.
105018 #1 글암수게게. 개금이.
105018 #5 게메 개금이.
105018 #1 그것이 개금이주게.
105018 @ 예, 알아수다. 이제 그 톨 헛 때 구역마다 개금이를 정허는 거라예?
105018 #1 으.
105018 @ 게른 삼춘네는 어느?

105018 #1 여맛은개 부픈 사름은 여맛은개만 왕 허고 알바르만 허는 사름은 알바르만허고.

105018 @ 거기에 흘 조가 개금이. 사십 명이든 오십 명이든 그때 경 불리낫수다.

105018 #1 으.

105018 @ 어디는 이 구역에 헐 그치록 느네는 저 그걸 개금이렌 정허는 거라예. 게문 그것도 개은으로 허고 공동으로 해?

105018 #1 건 공동. 툄은 공동.

105019 @ 툄은 공동허는데 메역은 공동을 안 헤서예.

105019 #2 으.

105019 @ 아, 여기에 게문 우미도 하영 нама씨? 이 바당예.

105019 #1 우미 하영 안 납니다.

105019 @ 아 이 바당은 우미가?

105019 #1 이 바당은 엇어. 늦계통에만 여맛은개 우미 흐끔 나곡 요디 양식장엔 헤근에 개 옆의 개 옆의 그디 우미 흐끔 나곡 허주 우미 바당 엇어.

105019 @ 아아, 여기는 하영 안 나는구나예? 암만해도. 그 잠깐만예?

105018 @ 삼춘 툄도 종류가 잇어마씨?

105018 #1 아니, 아니.

105018 #1 납작톨 잇곡 동글락헌 툄 잇주. 납작톨엔 허영 종류가 툄 이름은 7튼 디 종류가 납작톨 나는 디 툄이 이파리가 납작허게 나난 납작톨엔 허고 맛이 흐끔 툄려양.

105018 @ 아, 어린 툄은 이름 뭐렌 안 곱읍니까?

105018 #1 아니.

105018 @ 어린톨 봉당톨이여 이런 말 안

105018 #1 보말톨은 보말톨이 그거 납작톨 돼주. 이루후제. 에에 보말톨을 안 곱 아. 존존헐 때 툄아당 먹는 툄은 **.

105018 @ 존존헌 곱 그냥 보말톨엔 곱아예? 보말톨.

105018 #1 존존헌 거.

105018 #1 난 때, 난때. 처음 날 때.

105020 @ 이 동네서가 그런 말은 곱긴 허는 거 아니라예?

105020 #1 예.

105020 @ 그 다음에 아까 생복?

105020 #1 으.

105020 @ 생복은 어떤 식으로 저기 즈무는 거. 건 개인이 허는 거 아니면 공동 이 허는 거.

105020 #1 개인이 허는 거주. 생복 잡는 거는.

105020 @ 예.

105020 #1 물에 들영 물에 들영 헐 땀 이녀 잡으민 이녀 거주.

105020 @ 이 녀 녀 거고. 그 게믄 생복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양?
105020 #1 아 수침복 잇고 암침복.
105020 @ 수침복허고 암침복. 긴 어떻 트납니까?
105020 #1 납작허고 영 움막허고 경혜영은에 이긴 수침복이다 요건 암침복이다.
105020 @ 납작헌 거는?
105020 #1 요치록허영은에 막 슬도 지프주. 그러는 수침복이렌.
105020 @ 어린 거는 뭐렌 곴아?
105020 #1 어린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암침복 새끼. 수침복 새끼.
105020 @ 수침복새끼허고양?
105020 #1 양어장이 아니난.
105020 @ 모양으로 험니까?
105020 #1 모양으로.
105020 @ 개웃 뵘은에.
105020 #1 개웃은게 파란 것이 암커고.
105020 @ 예.
105020 #1 흰 것이 수커고.
105021 @ 개웃으로 행근에 암커 수커 허는구나예?
105021 #1 으.
105021 @ 여기 그 생복 새끼를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잇어마씨?
105021 #5 꺼끄떡.
105021 #2 맞아 꺼끄떡.
105021 @ 꺼끄떡?
105021 #1 곴, 그거는 먹을 수 잇는 거.
105021 @ 예, 예. 먹을 수 잇지마는 죽은 거는?
105021 #1 으, 먹을 수 잇게 큰 거.
105021 @ 게믄 그거는 꺼끄막.
105021 #1 꺼끄막.
105021 @ 삼춘, 곴아뵘서. 꺼끄막예? 꺼끄막도 잇는데. 마드레 이런 말은 안 험
니까?
105021 #1 마드레
105021 @ 마드레는?
105021 #1 무사게 마드레엔 현 거는 마드레는양 전복썩덕이 두들두들허여. 마드
레. 눈도 별롱별롱허고.
105021 @ 그거는 맛 좋아.
105021 #1 맛사 다 ㄱ뜨주 다
105021 @ 맛은 다 ㄱ따마씨? 상품험 때는 마드레를 상품으로 칩니까? 수침복 암
침복을.

105021 #1 수침복 암천복을 큰 거.
105021 @ 게 막 예전에는 여기 전복 허면 전복 껍덕. 전복 껍덕을 이 동네서 불르는 말은 뭐라냇수가?
105021 #1 그냥 전복껍덩이지.
105021 @ 전복 껍덩이렌 해?
105021 #껍덩. 그냥 전복
105021 @ 껍덩 이런 말은?
105021 #1 껍덩 껍덩. 껍덕 큰 것은 거기서 자리도 그디서 지저먹고.
105021 #5 밥도 퍼 먹곡.
105021 #1 껍덩으로 밥자 노릇해근에 솟디 췌솟디 밥허민 그걸로 박박 그걸로 누랭이 잘 굽으고.
105021 @ 껍덩.
105021 #2 껍덩에 출레 지전에 먹엇주.
105021 #1 껍덩 껍덩.
105021 @ 예, 그 껍덩에 출레 지정 먹젠 허면 고망은 어떻헛수가?
105021 #1 고망 막앙.
105021 #5 소게로 막앙.
105021 @ 소게로 막앙예?
105021 #1 맛있엇어. 맛있엇주게.
105021 @ 지지젠 허면 밑에는 뭘로?
105021 #1 돌멩이 덕 냥.
105021 @ 덕 냥 불 숨은 거?
105021 #1 세발수도 그루후제사 나고. 영 냥근에.
105021 @ 경행 자리 지정 먹언마씨?
105021 #1 자리.
105021 #5 출레.
105021 #1 출레엔 헛주, 옛날이사.
105021 #2 자리 지저도 출레.
105021 #1 출레엔 해주. 옛날에사.
105020 @ 맞수다. 그 다음에 아까 구쟁기 구쟁이?
105020 #1 구쟁기.
105020 @ 구쟁기는 어떤 식으로 즈무는 거우과?
105020 #1 물에들영. 그거는 글게기 안 들이곡 손으로 잡는 거.
105020 #5 구쟁이 간스메허젠.
105020 @ 여기도 간스메공장 잇엇구나예?
105020 #1 성산 잇엇수다.
105020 @ 아아.

105020 #5 신산이영.
105021 @ 구쟁기도 일름 불르는 거.
105021 #1 양살기 잇고 민둥구쟁기 잇고.
105021 @ 양살기?
105021 #1 양살기는 흐뎡 어린 거 쌀 곱닥헌 민둥이는 꺾덕도 두덱고 이 돈도 이 막 묵은 거.
105021 @ 어어?
105021 #1 그거 민둥구쟁기.
105021 @ 건 민둥구쟁기. 아까 양살기.
105021 #1 양살기는 막 그거는 여물도 알랑알랑 허영 맛있고.
105021 @ 예.
105021 #1 게연 사는 사름이 먹젠 사례 가민 양살기 잇영 그거 사지민 막 좋고. 민둥구쟁이 서끄민 이에그 민둥구쟁이 근만 처나가주게.
105021 @ 아, 민둥구쟁기는?
105021 # 근만 처 나가. 막 꺾덕이 이만큼 두꺾기 때문에.
105021 @ 아아, 으물은 경.
105021 #1 으물 질기고.
105021 @ 질기고. 게른 우리가 살 때는 양살기로 사야 되는 거예?
105021 #1 양살귀로 사사.
105021 @ 어린 거는 뭐렌 굴읍니까?
105021 #3 생꺽이.
105021 #1 생꺽이, 생꺽이.
105021 @ 구쟁기도 세 종류로 곤는구나예?
105021 #1 생꺽이 양살기 민둥이. 민둥구쟁기.
105021 @ 예.
105021 #5 큰 건 생꺽이.
105021 @ 요즘은 구쟁기렌 말 안 헤영 고동이렌 굴아불업수가?
105021 #1 여기도 고동이렌 곤주.
105021 @ 웃음.
105021 #2 소라.
105021 @ 옛날은 고동은 안 굴
105021 #1 어른덜은 고동엔 헤도 이제도 젊은 사름은 고동이 잇주. 대개 소라.
105021 @ 요즘은 소라.
105021 #1 대개 소라. 소라 일본말 아니?
105021 @ 옛날은 이 동네는 고동은 아니라낫지양? 그냥 구쟁기.
105021 #1 막 옛날 어른덜은 구쟁기.
105022 @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터베 굴아신디 터베 한 번 더 굴아줍서. 삼춘

이 아까 터베?

105022 #2 음. 터베는 자리 거리고 듬북 즈물꼭 그거벳긔 탄 거는.

105022 #3 그거주.

105022 #2 메역 같은 거 즈물 때는.

105022 @ 예.

105022 #1 이녁 각시만 시경 텅기는 거.

105022 #3 메역힐 때.

105022 #2 메역.

105022 #1 건 이녁 각시만 시경 이녁 각시만

105022 #2 그때 초석을 쳐가지고 기본적인 해왔다는 거.

105022 @ 예. 계난 이 동네는 터베가 멧 개 정도 있어난마씨?

105022 #2 터베 그 전에는 상동에 한 네 갠가 잇엇고 하동에도 혼 서너 개 잇어고. 대강 그럭저럭 열 척 더 잇어실 거라.

105022 @ 예, 그 다음에 터베는 일년 내내 그냥 놔두지 못허지 아녜니까양?

105022 #2 예.

105022 @ 그거 들렁내영 해체행?

105022 #2 봄에 나 자리까지 거러냥 겨울에는 저을에는 메여두민 뉘허니까 분해 해서 높은 디 놔가지고 물을 다 빼기 걸로 조립해가지고 시기가 됴민 조립해서 완전히 백중이나 물을 많이 드는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 위에 놔뉘다가 이렇게 밀어내민 그게 꾸며가지고 한 두 사람 세 사람만 가지면은 테베는 운영헛으니까.

105022 @ 예. 그 터베는 어떤 식으로 행 만든 거라마씨? 여기서는?

105022 #2 수기나무를 베다가.

105022 @ 예.

105022 #1 통나무 해다가.

105022 #2 여덟 개, 여덟 갠가 놔가지고.

105022 #1 쪽쪽 놔가지고.

105022 #1 그거를 말린 다음. 터 베는 만드는 거난.

105022 @ 음.

105022 #1 터베를 만드는 거난 어렵지는 안 허는데.

105022 @ 터베 만들어난 사람 잇수가?

105022 #2 그거 옛날은 그 목수라고 해가지고 동네에.

105022 @ 예.

105022 #2 우리 노인정에서도 우리 그 터베를 만들어난디 요점에.

105022 #2 삼년동안 바다에 띄우고 것도 뉘허단 것도 다 파궤뉘연. 터베도 우리 대로로 만들 수가 잇어. 우리 댓 사름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청년회에 회사해가지고.

105022 @ 음.

105022 #2 혼번 뉘 해보라 해가지고 노인회서 만들어났주.

105022 @ 아까 스기낭이렌 해신디 이 동네는 뭐렌 헛수가? 그 낭을.
105022 #1 숙대낭.
105022 @ 숙대낭예?
105022 #2 숙대낭. 숙대담.
105022 @ 숙대낭예? 예.
105022 #1 그게 옛날에는 숙대낭도 한라산 근처에서 캐온 것을.
105022 @ 음.
105022 #1 사다가. 구상나무. 구낭나무렌 헛수다.
105022 @ 옛날에 구상낭.
105022 #2 구상나무 터배라야 물에 오래 잘 뜨꼭.
105022 @ 예.
105022 #1 이 스기나무는 우리가 해보니까 멧 사름 타지도 못하고 힘이 약해.
105022 @ 예에, 예전에는 구상낭.
105022 #2 구상나무 영 팔뚝만이 현 거 직접 가보면은 뭐 같아도 거기는 이제 어부가 나가가지고 자리도 뭐 한 혼 백 키로 이상.
105022 @ 예.
105022 #2 이제 구덕 멧 개 실러도 가라앉질 안 허는데 물이 잘 맞춰져.
105022 @ 그 자리 거리는 그 자리 놓는 구덕예?
105022 #2 으.
105022 @ 옛날 큰 구덕 아니우과예? 그 구덕도 불르는 이름 잇수가?
105022 #1 질구덕.
105022 #2 대질구덕.
105022 @ 질구덕예.
105022 #4 참고로 얘기허면은. 이 숙대낭 무슨 나무 해변가에까지 쪽 늘어졌주만 옛날에는 해변가에는 이런 나무가 없엇어요.
105022 @ 예.
105022 #4 한라산에 가야. 이 숙대나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박정희가 식목 장려허면서.
105022 @ 예, 예.
105022 #4 다 심어진 그, 제주도에는 밀감나무 심으면서 방풍림으로 싱그게 워니까 이제까지 쪽 심어진 거.
105023 @ 예.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여기에 그 풍선.
105023 #1 으.
105023 @ 돛베예. 그런 거는 몇, 그 돛은 하나만 돌아마씨?
105023 #1 아 두 개.
105023 @ 두 개 돌아?
105023 #1 가운데는 큰 거.

105023 @ 예.

105023 #1 앞에는 조금 작은 거.

105023 @ 그러면예 가운데 든 돛은 무신 돛 허여.

105023 #1 큰돛 댜주게.

105023 @ 큰돛허고.

105023 #1 큰 돛 ㄷ난 작은돛.

105023 @ 큰돛 작은돛.

105023 #5 야윗돛. 앞의 거 작은 거ㄴ란 야윗돛.

105023 @ 야윗돛?

105023 #5 두 개 세운 때 브름 좋은 때 야윗돛.

105023 @ 브름 좋을 때는 두 개.

105023 #5 야윗돛 하나만 들양 감짜.

105023 @ 큰돛을 댜렌 글아?

105023 #3 삼대선벙긔 이대선벙긔 엇어어.

105023 @ 아아, 다른 데도 야웃돛이렌 헤마씨.

105023 #1 아아.

105023 @ 계난 나가 물어본 거. 그 다음엔 예 돛대 해근에 베 해갓고 물질, 육지 물질도 가뵈디가?

105023 #1 아니고, 나 육지물질 열여덟 솔 때부떠 다년.

105023 @ 육지 물질헐 때도 노젓엉예.

105023 #1

105023 @ 노 젓엉?

105023 #1 처음 간 댜 노젓고 뉘해부턴 기켓배.

105023 @ 어느 쪽에서 젓는 거우과? 노도 댜 개 잇어?

105023 #1 노 세 개씩.

105023 @ 아, 세 개씩. 양쪽으로. 그러면?

105023 #1노 젓을 때 기분 좋지.

105023 @ 좋읍니까?

105023 #5 하네.

105023 @ 어, 하네는?

105023 #5두에서.

105023 #1 건 알기 쉽게 말허민 치.

105023 @ 베 치 해근에 하네가 잇고.

105023 #1 옆에.

105023 @ 옆에서는 허는 노는?

105023 #1 하네 젓고 옆에 젓는 건 옆에 젓는 건?

105023 #5 젓거리, 젓거리.

105023 #1 젓거리.

105023 @ 우리 일반 젓거리를 젓은 거구나예? 사름덜은 젓인 거구나예?

105023 #1 우리도 하네 젓어난.

105023 #4 우리도 하네 젓어난.

105023 @ 하네가 방향을 허는 거 아니?

105023 #1 뱃머리 돌리고 허는 거.

105024 @ 예, 하네로예. 게문 이제 저기 배가 그 풍선 잇일 거 아니우과예? 게문 배 앞부분은 뭐엔 곴아?

105024 #1 이물코지주.

105024 @ 이물코지. 이물코지 잇고 또.

105024 #1 두에는 곴물.

105024 @ 두에는 곴물. 가운데는?

105024 #1 가운데는 한장이냐 뭐냐 복판에.

105024 #5 한장.

105024 @ 게문 배가 앞에는 이물.

105024 #1 두에는 곴물.

105024 @ 가운데는 한장. 게문 가운데 세우는 이런 그 멩에는 뭐우과? 배에도 멩에 잇덴 허멍 헨게마는.

105024 #1 즘녀덜 탈 때.

105024 @ 예.

105024 #1 즘녀덜 탈 때 멩에 잇어사주. 옷도 널고 허는 때문에. 멩에에 나무 걸 청은에 그레 옷 놓고. 멩에엔 현 게 그 작데기지.

105024 @ 작데기?

105024 #1 뭐 바투는 거.

105024 @ 음.

105024 @ 그런 식으로.

105024 #1 이런 식 바투는 거. 우로 영 진 나무 걸쳐 옷 널영 물리는 거. 속곶덜.

105024 @ 속곶덜 허영 알아수다. 바당 일은 요만큼만 일단은 허쿠다예?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 만들젠 허민 옷감덜은 주로 어떤 것덜이 잇엇수과?

106001 #1 옛날에는 감옷을 주로 입엇수게게.

106001 @ 예.

106001 #1 뭐가 벨 거 엇인난에.

106001 @ 예.

106001 #1 그 미녕 사다근에.

106001 @ 으.

106001 #1 요즘은 시랑목 행 감옷 햐주만은 옛날은 미녕 사다근에 감 들어근에.

106001 @ 으.

106001 #1 그거 옷을 기자 그걸로 감옷 햐 입엇주.

106001 @ 미녕허고.

106001 #1 으.

106001 @ 그 다음에 멩지 같은 거.

106001 #1 멩지는 감 안 허주게.

106001 @ 예, 건 안 허고예.

106001 #1 예, 멩지는 감 안 들입니다.

106001 @ 겐 옷감 종류가 미녕 잇고?

106001 #1 광목허고 주로 그거랏수다.

106002 @ 예, 그거예. 그럼 하나씩. 혹시 멩지실 여기는 멘드는 과정은 모르켜 예?

106002 #1 몰릅주게.

106002 @ 겐 멩지실은 봐 보긴 헛수과?

106002 #1 우리 실 아니, 텔레비만 봐낫주 안 받.

106003 @ 멩지도 호상 허젠 허민 다 멩지덜 허니까 멩지 종류는 알아져마씨?

106003 #1 멩지 종류는 저기 저 좋은 거 잇고 나쁜 거 잇고 현디.

106003 @ 으.

106003 #1 멩지 종류는 잘 몰르고 베는 알주, 베는. 삼베.

106017 @ 예.

106017 #1 그거는 안동포엔 현 거는 안동에서 만들앙 나온 건디 막 즈질주.

106017 @ 으.

106017 #1 즈진디 그건 스물넉 자에, 예 우리도 아방 옷 허젠 허난에 삼십오만 원씩 쥘 산. 그런 옷은 두루메기 허는 건디 그런 옷은 또 아무나 허지 못 허고 돈 비싸덴.

106017 @ 예.

106017 #1 겐 우리도 처음에 노인 어른덜 들리허고 나허고 산에. 안동포엔 허고 그 미녕베가 잇어양.

106017 @ 예.

106017 #1 미녕베 짱 나왕 그건 막 툄툄허여 미녕베는 그건 막 두꺼와.

106017 @ 으.

106017 #1 툄툄헤영 허민 그거는 미녕베는 처음 바지락헤도 빨아가민 멜러랑 헤 불주.

106017 @ 아.

106017 #1 실이 바작헌 실 아니라부난. 그축 해근에 그거 입곡 요즘은 또 중국 베. 중국베는 빨아도 바사글락 그대로 바사글락 행. 겐디 엉겨부난 그거주 또 색깔도 검영헤 불고.

106017 @ 아.

106017 #1 검영허게 나옵니다 그건.

106017 @ 예.

106017 #1 검으룽허게. 경허민 나도 산에 멧 빌 사나신디 뭐나 옥시크린허고 수 퍼타이 혼 삼일만 등기면은 헤영헤져양.

106017 @ 아.

106017 #1 그 검은 물이 다 빠져벼.

106017 @ 아.

106017 #1 겐 베 종류는 그거 그축 행.

106004 @ 여기에서 흑시 멩지로 옷 허는 건 어떤 옷덜이 잇수과?

106004 #1 호상 옷허고 옛날 시집갈 때.

106004 @ 으.

106004 #1 결혼헐 때 멩지옷도 아무나 못 헐 사름은 멩지옷 행 입영 가고. 경 안 헐 사름은 옥광목으로, 옥양목으로 그걸로 걸옷도 행 입영 가고.

106004 @ 삼춘은 어떤 걸로 행.

106004 #1 나는 저기 저 옥양목으로 헛주. 시집갈 때, 치마 저고리.

106004 @ 옥양목으로 치마 저고리 헛고 게문?

106004 #1 적삼허고.

106004 @ 하얀 색깔?

106004 #1 하얀 거.

106005 @ 그 다음에 여기 미녕실 멘들어 보지 안 허니까 실 멘드는 것도 모르고?

106005 #1 그런 것도 모르고.

106006 @ 누에도 모르고?

106006 #1 모르고.

106007 @ 미녕 종류는 어떤 것 잇수과?

106007 #1 미녕 종륄 우린 기자 하나베끼 몰라.

106007 @ 으.

106007 #1 미녕이엔 해근에.

106008 @ 미녕이엔 해근에. 옛날 그 미녕으론 어떤 옷덜 멘든 거.

106008 #1 미녕으로 기자 몸빼 감 들어근에 그걸로. 미녕으로 대개 감 들어근에 광목허고. 광목 옷은 감 들이민 좀 뺏세고.

106008 @ 예.

106008 #1 미녕옷은 광목옷처럼 뺏세지 안혜영 입기가 좋고.
106008 @ 으.
106008 #1 경혜영 옛날에사 일헐 때 순 광목베끼 안 입엇수께.
106008 @ 음. 우알 다 감물 들영예?
106008 #1 으.
106008 @ 그러면은?
106008 #1 저, 즘수덜 속곳 행 입곡.
106010 @ 속곳행 입곡. 여기에 광목으로는 게민 어떤 옷 허는 거?
106010 #1 광목으로?
106010 @ 예.
106010 #1 광목으로 옛날에는 계속 그자, 남저덜 결혼헐 때도 중의 적삼도, 바지 저고리도 두루막도 광목으로 헐 입곡.
106010 @ 아, 광목으로. 게니까 남자덜 광목으로 행?
106010 #1 예, 광목으로.
106010 @ 그때도 허영헌 걸로 그대로.
106010 #1 예, 흰 걸로.
106011 @ 그 다음에 우리 결혼헐 때 보면 홍세 미녕이렌 허지 안 헐수과?
106011 #1 홍세미녕?
106011 @ 예, 홍세.
106011 #1 홍세 미녕이 아니고 홍세 놓는 거.
106011 @ 으. 홍세 놓는 거. 거 곶아 줍서. 어떤 식으로 허는 건지. 시집가젠 허민?
106011 #1 시집 가젠 허민 여저가 허는 게 아니고 그건 신랑칩이서 헐 오주.
106011 @ 으.
106011 #1 홍세함 그거 스무자 해근에 요만인 홍세함이엔 함이 잇주.
106011 @ 예.
106011 #1 게민 그것에 곱닥허게 개영 맞게 놓곡 저기 저 스주 본 책 놓고.
106011 @ 음.
106011 #1 경헐 신부칩이 신랑 올 때 것도 날짜.
106011 @ 예.
106011 #1 오늘 멧 시에 신랑이 도착헌덴 허곡 멧 시에 나간다 헐 거 그거 적은 것에 그거 다 놓민 신랑은 올레 세우고 수우시가.
106011 @ 누구마씨?
106011 #1 수우시.
106011 @ 수우시?
106011 #1 으.
106011 @ 우시 중에 수우시렌 헐다예?

106011 #1 으, 수우시. 그 신랑쪽에 형이든 뭐 죽은아방이든 신랑쪽 사람. 수우시가 가정 딱 들어왕 대문 앞에 영 사민 이제 여기서 집안에 신랑 대반 앓을 사람이 그 하꼬를 받아야.

106011 @ 으.

106011 #1 받으민 여기 친척 어른덜 노인 하르방덜 빙허게 앓앙.

106011 @ 으.

106011 #1 여기 상 우이 그걸 딱 낡 폐와근에.

106011 @ 으.

106011 #1 걸 이제 검토허주. 검토 허게 돼민 잘 맞게 써 오면은 그대로 신랑을 들여 놓고 글자 하나라도 틀릴 거 아니.

106011 @ 으.

106011 #1 경허민은 틀렛텐 혜근에 그 대신에 거리가 머니까 거 고찌레 갈 순 엇고.

106011 @ 으.

106011 #1 신랑을 한 삼십 분이든 한 시간이든 올레에 벌을 세우주게.

106011 @ 으.

106011 #1 경혜근에 벌 선 다음에사 들여 놔.

106011 @ 아, 그 벌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거?

106011 #1 아 그 올레에 그냥.

106011 @ 안, 안 들여.

106011 #1 들여 놓지 안 허영 그냥 올레에 사게 허영.

106011 @ 으. 켜 그런 것도 삼춘네도 많이 봐나고예?

106011 #1 예,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다 봤주.

106012 @ 여기 혹시 멘네도 갈아판마씨?

106012 #1 옛날에는 멘네 갈앙 숨 허는 거.

106012 @ 삼춘네도 갈아난?

106012 #1 아니, 아니.

106012 @ 그 멘네 가는 거에 얽힌 추억 같은 거 잇어마씨?

106012 #1 아니, 우린 그 멘네 갈아근에 봉긔봉긔 여물 들민 그거 타 먹으레 텅 겨나도 만들고 무시거 허는 거는. 멘네씨 막 피면은 혜다근에 그 씨는 빼주.

106012 @ 예, 예.

106012 #1 씨 빼는 거 깃장은 알아도 그 씨 빼사 기계에 가근에 숨 만들엉 왕 이불허는 거난.

106012 @ 으, 이불예?

106012 #1 으.

106012 @ 게민 그 멘네 이렇게 열잖아예?

106012 #1 예.

106012 @ 건 뭐렌 곶아?
106012 #1 멘네, 야 그 멘네꽃 타 먹으레 가게, 타 먹으레 가게. 거 막 맞셔.
106012 @ 으.
106012 #1 막 피지 안 현 때.
106012 @ 예, 예.
106012 #1 그거 타 먹으레 막 텅겨났어.
106014 @ 예. 혹시 여기 모시로 옷 허는 것은 봐 봅디가?
106014 #1 모시 옷은 저 대개 허주게. 남자덜 옷이영 여자덜 한복이영 험니다게.
젠디 거 사근에 허주게 이딘 안 만들앙.
106014 @ 예. 여름에 주로.
106014 #1 예, 모시 상.
106015 @ 여기 무슨 모시 재배행 허는 사람은 안 보고예?
106015 #1 예.
106017 @ 삼, 베옷. 베는 어떤 옷?
106017 #1 삼베옷은 그 베옷ㄹ라 삼베옷이엔 험니다게.
106017 @ 예.
106017 #1 이름이.
106017 @ 이름이.
106017 #1 거 삼, 거 삼베옷이엔 현 건 우리가 영 생각을 헤 봐도 그 저 뭐가 천
이 만드는 그것이 아메도 삼인 생이라.
106017 @ 예, 예.
106017 #1 으, 으. 게니까 삼베옷이라 허는 겹디다.
106017 @ 예.
106017 #1 여기서 그거는, 그 물건은 안 헤 보고.
106017 @ 예.
106017 #1 그자 말만 삼베옷. 요거는 삼베다.
106017 @ 으.
106017 #1 요거는 무슨 베다 그추록.
106017 @ 겐 그 삼베로는 주로 어떤 것덜을 현 거라, 옛날에?
106017 #1 삼베로는 옛날에 잇인 사름덜은 기자 행 입영 멩질 때나 제서 때나 주
로 입어나고. 그 후 다음덜은 뭐 허게 살기가 좋아 가난에 그 삼베옷 현 거는 수의.
106017 @ 예.
106017 #1 저승 갈 때 입영 가는 거.
106017 @ 으.
106017 #1 수의로만 대개. 대개 만들고 그자 영 옷으로 만들앙 입는 사름은 별로
드물고게.
106017 @ 으.

106017 #1 계난 삼베가 좋은 걸로 생각행?
106017 @ 예, 예.
106017 #1 계난 수의는 멍지히고 삼베히고 행.
106017 @ 으, 으.
106017 #1 옷은.
106017 @ 그 예전에 옷은 돌아가시면 상제덜 입는 옷은 뭘로 해?
106017 #1 옛날에사 그 상제덜 입는 것도 기자 그 광목으로, 다 광목으로 헛주. 삼베가 어디 셔.
106017 @ 아.
106017 #1 그 후에, 후에 시대가 무시거나, 전쟁 우리나라 끝나고 현 다음에 해 방뵈고 현 다음에사 상제옷 베로 헛주.
106017 @ 아, 이쪽에는?
106017 #1 예.
106017 @ 광목으로 하영 헛구나예?
106017 #1 광목으로.
106017 @ 아.
106017 #1 해영허게시리.
106017 @ 아.
106017 #1 두건도 광목으로 허고.
106017 @ 두건도 광목으로 하고. 게니까 다른 쪽에는 가면 거의 삼베로 헛던 허 거든예. 광목으로 두건 헛덴 현 말 처음 들엇수다.
106017 #1 옛날엔.
106017 @ 예.
106017 #1 옛날엔 두건도 다 광목으로.
106017 @ 광목으로예, 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레 해근에 씨 영.
106017 #1 으.
106020 @ 불러는 거 봐 판마씨?
106020 #1 물레?
106020 @ 예, 무르에 해갓고 그 숨예?
106020 #1 으, 으.
106020 @ 그 숨 씨 빼는 거?
106020 #1 아, 여기선 안 봐 판.
106020 @ 아, 여기선 안 판.
106020 #1 이 부락엔 그런 거 엇어.
106022 @ 예, 알앗수다. 삼춘 바농질은 헤실 거 아니예?
106022 #1 예게.

106022 @ 바농질은 허젠 허면 뭐가 필요헤마씨? 도구들이?
106022 #1 그뎨양, 저 미싱도 어려울 때난 우리 시집갈 때만 헤도.
106022 @ 으.
106022 #1 손으로 행 입엇수다.
106022 @ 아, 옷을?
106022 #1 예, 치마영 저고리영. 나도 그때 시절이라도 나 어린 때부터 어른덜
우리 어머니네가 할머니네가 곤는 디 그자 혼 아홉 설, 열 설 돼가난 어른덜 바농
질허는 걸 자꾸 나가 이제 같이 따라 헤렌.
106022 @ 으.
106022 #1 경헌디양 난 결혼할 때도 다 나대로 치마 저고리 만들영 가고.
106022 @ 으.
106022 #1 결혼 딱 허난에 시어머니네가 신랑 후루멘 멘들렌 헨에 하얀 것 거
광목 후루메.
106022 @ 으.
106022 #1 후루메가 그자 잇수과 나 어디 쳐 박아 낱 잇주.
106022 @ 아.
106022 #1 하하 그걸 보민 잘도 우스와. 하하하.
106022 @ 거 꺼낸 놔둬서. 사진 찍영 놔두면 기록으로 다 남는 거.
106022 #1 거 어디 데껴베신가 어디 잇인가. 하여튼. 경허영 만들멍 입져낫수다.
106022 @ 게민 그때 바농질허젠 허면 필요헌 게 뭐과?
106022 #1 필요헌 거 뭐가 잇수과?
106022 @ 바농.
106022 #1 바농허고 그세허고 실만 잇이민 뵈주.
106022 @ 자?
106022 #1 으, 잔 자.
106022 @ 그 자를 무슨 자렌 헤?
106022 #1 거 옷 재는 자 대나무로 만든 자 아니? 거 자.
106022 @ 으. 그것만 잇이민 뵈예?
106022 #1 으. 것만 잇이민 뵈주.
106022 @ 골미 이런 거는 안 헤?
106022 #1 그런 거 엇엇수다 손톱에 무시거 끼왕 허는 거 엇어.
106022 @ 예. 게민 딱 네 개만 잇이민 뵈는 거라.
106022 #1 하하.
106022 @ 게도 바농질허젠 허면 옷 만들 때 바농질허는 거고 이불헨 때 바농허
고.
106022 #1 크주게. 옷 만들 때 허는 거는 죽은바농으로 헤야 그 실밥이.
106022 @ 예.

106022 #1 두두두두 안 하고.
106022 @ 예.
106022 #1 이불 끼우는 거는 큰 바농으로 헤사.
106023 @ 경허고 삼춘예, 바농질 허게 되면 영 촌촌허게 허는 것도 있고.
106023 #1 어.
106023 @ 그냥 영 돌리멍 허는 것도 있고 거 무신 바농질이엔 험니까?
106023 #1 뒷바농질이엔도 허고 앞바농질이엔도 허는디 뒷바농질은 무시거엔 허냐민.
106023 @ 으.
106023 #1 기자 영영 허는 거는 호읍 바농질이고.
106023 @ 호우는 거.
106023 #1 어. 영 영 영 영 바농 꿰와근에 허는 건 호읍 바농이고 하나 하나 혼 번 혼 번 허는 건 뒷바농질이엔 헤근에.
106023 @ 예.
106023 #1 요즘은 미상으로 허면은 데깅허게 박아정 나오지 안 험니까?
106023 @ 게난 옛날에는 손으로 허기 때문에.
106023 #1 그 실밥을 족게 나오게 허젠양 바농으로 요추룩 꿰나민 그 다음은 쪼금 더 그 바농 뒤으로.
106023 @ 으.
106023 #1 나와난 디로 찢러근에 영 행 허곡 행 그 뒷바농질이엔 헤근에 그 박는 거. 땡침허는 거.
106023 @ 땡침허는 게예?
106023 #1 어, 땡침허는 거. 경헨 헛수다.
106023 @ 땡침, 옷 만들젠 허민 보통 땡침험니까?
106023 #1 그 기지에 따라.
106023 @ 예.
106023 #1 거 땡침허는 것도 있고 그대로 영 호왕 허는 것도 있고.
106023 @ 음. 게민 호왕 허는 거, 땡침허는 거.
106023 #1 으.
106023 @ 또 이렇게 단 같은 거 헐 때는 무슨 바늘이엔 헤?
106023 #1 그것도 그추룩 짜그만헌 바늘로예.
106023 @ 예.
106023 #1 베껏더레 실밥 나오민 뵈기가 싫으니까 게난 저 소꿍으로 영 영 행양.
106023 @ 예.
106023 #1 베껏디로 실 안 나오게. 경헨 숨은 바농질이엔 헤근에.
106023 @ 숨은바농질.
106023 #1 예.

106023 @ 어.

106023 #1 경헨 안으론 실 나와도 베겏으로 실 안 나오게 허는 게 그 이름.

106023 @ 으, 숨은바농질?

106023 #1 숨은바농질.

106023 @ 그 다음 옷 허면 듬성듬성허게 해갓고 거 대충행 허는 바농질은?

106023 #1 건 시끄는 거주게.

106023 @ 건 시끄는 거.

106023 #1 시끔질 허는 거.

106023 @ 건 시끔질이엔 헤예?

106023 #1 으.

106023 @ 게난 시끔질, 홈질.

106023 #1 으. 뒷바농질.

106023 @ 예, 뒷바농질. 그게 중요한 거 하하.

106023 #1 하하하.

106024 @ 그 다음 삼춘 아까 남자 삼춘 옷도 만들엇텐 허니까, 그 남자옷 종류는, 맨 속에 입는 거부터 맨 겉에까지예?

106024 #1 으.

106024 @ 어떤 종류덜이 잇수과?

106024 #1 남저덜 옛날, 옛날에는게 지금은 무시거나 잠옷이엔 허주만은 바지 소굽에 입는 거.

106024 @ 예, 그 바지 일름은 뭐렌 곺아.

106024 #1 아니 그냥 그 진 바지엔 허주.

106024 @ 진 바지?

106024 #1 으, 진 바지.

106024 @ 음.

106024 #1 그 소굽에 팬티말고 진 바지.

106024 @ 예, 진 바지 입고.

106024 #1 그거 허고게 또 우이 또 바지 입고.

106024 @ 옛날에는양.

106024 #1 예, 지금은 쓰봉 입엇지만은 옛날은 쓰봉이 엇주. 순 바지이.

106024 @ 으.

106024 #1 중의바지만 입영 살앗주 남자들.

106024 @ 아.

106024 #1 그축행 바지허곡게.

106024 @ 우에는?

106024 #1 게, 우엔게 바지 입게 돼면은 저고리를 입어야 돼고.

106024 @ 예.

106024 #1 중의를 입게 되면 적삼을 입게 돼주게.

106024 @ 게, 적삼하고 중의는 여름옷이구나?

106024 #1 어, 어, 여름옷.

106024 @ 예. 게민 저고리하고 적삼하고는 어떻 특난 것파?

106024 #1 안 논 거. 저고리는 두겹으로 안 낡 힌 거고.

106024 @ 예.

106024 #1 적삼은 웨겹으로 힌 거.

106024 @ 웨겹으로 힌 거고예, 예, 예 알앗수다. 그 다음에 저고리 다음에 큰 일 힌 다음에 우에 입는 옷들?

106024 #1 두루막이엔 해근에 여름에 입는 건 두루막이고 겨울에 입는 건 저 무 시거고.

106024 @ 후리메?

106024 #1 으, 후루메고.

106024 @ 후루메예?

106024 #1 으, 건 안 논 거.

106024 @ 아, 후루메는 안 논 거.

106024 #1 안 논 거. 두루마는 핫 거.

106024 @ 아, 두루막은 핫 거예.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제사 허면은 두루막 말앙 더 우에 입는 큰옷도 잇지예?

106024 #1 아, 그거는양 그 집안에 따라근에.

106024 @ 으, 으.

106024 #1 옛날에는 그처럼 입영 큰옷 입곡 유건 쓰곡 행 켈 봐낫인디 지금은 경 안 험니다.

106024 @ 아.

106024 #1 옛날에는 다 유건 썩.

106024 @ 옛날에는 유건 쓰고.

106024 #1 예. 제 보젠 허민 스몯 출릴 사름 다 유건 쓰고 또 집사허는 사름도 유건 쓰고.

106024 @겐 우에 옷도 큰.

106024 #1 예, 큰옷 입고 도복.

106024 @ 도복 입고예.

106024 #1 으.

106024 @ 요즘은 도복 안 허고.

106024 #1 으. 기자 겨울에는 후루메 입고 여름에는 두루막 입영 허주. 제 보는 디도.

106025 @ 아. 그 다음에 여자 옷 종류는 어떤 게 잇어?

106025 #1 여자 옷도 옛날에 마찬가지게.

106025 @ 예. 맨 안에 입는 것은 뭐렌 험니까?
106025 #1 안에, 젤 안엔 요새 뽀스주만은 옛날엔 속곳이주게.
106025 @ 속곳.
106025 #1 속곳.
106025 @ 으, 속곳 입엉?
106025 #1 속곳 입엉 그 다음에 바자마 입엉 만들앙.
106025 @ 예.
106025 #1 경험게 몸빼 입게 뒤민 몸빼 입고 경 안 허민 치마 입고.
106025 @ 치마 입고.
106025 #1 치마 입을 때 또 속치마도 그 무시겔로 만들앙.
106025 @ 예.
106025 #1 광목으로.
106025 @ 광목으로. 으.
106025 #1 겐.
106025 @ 경험 멧 개를 입은 거 아니라?
106025 #1 으, 경험낫수게.
106025 @ 우에는?
106025 #1 우에는게 속적삼 입곡 겘적삼 입고.
106025 @ 겘도 적삼도 두 겐디 여자덜은?
106025 #1 으, 여자덜은.
106025 @ 여름에도예. 겐 저고리는, 겨울에는 저고리?
106025 #1 예, 저고리.
106025 @ 그 다음에 저고리 우에는 여자덜은 안 입어?
106025 #1 저고리 우에 옛날에 무스거 잇엇수과?
106025 @ 삼춘 그 시집올 때는 어떻게 입엇수과?
106025 #1 우리, 우리 시집올 때 정도는게 저고리에 두루막 입엇주 여자덜.
106025 @ 으.
106025 #1 여저덜 두루막 헤근에.
106025 @ 어떤 색깔 입언?
106025 #1 아, 우린 저 풋색으로 험에, 풋색으로 험에. 그거는 기지로.
106025 @ 예, 예.
106025 #1 양단 기지로 험에. 우리 그 때깃장은 두루막도 아무나 못 입엇수다.
106025 @ 으.
106025 #1 우리 결혼험 때깃장도. 쯤금 여유잇는 사름은 두루막깃장 험 입어근에 한복 우이 그거 입엉, 멤질에도 정월 멤질에도.
106025 @ 예.
106025 #1 그거 새새각시 뒤면은 방상에 다 멤질먹으레 멤겘주.

106025 @ 음.

106025 #1 시아부지허고 ㄹ치 제주 아정. 경허고 그디 가면은 심부름 허고.

106025 @ 음.

106025 #1 새새각시, 새며누리 심부름 밥 놓렌 해근에.

106025 @ 으.

106025 #1 요즘 어른덜 영 갈랑덜 해부난 해도 옛날엔 방상이 막 한에.

106025 @ 예.

106025 #1 막 마리에 스빱, 방에 스빱.

106025 @ 예.

106025 #1 아이덜은 마당에 앓곡, 경 허는디.

106025 @ 예, 그때는 심부름도 심부름이주만 얼굴 알리는 거 아니라예, 친척덜안 테?

106025 #1 으, 경허는 생이라.

106025 @ 겐 그 풋색을 장옷이렌은?

106025 #1 아, 장옷은 죽을 때 입을 거, 수의로.

106025 @ 아.

106025 #1 수의로 입는 거 장옷은.

106025 @ 장옷은 수의로 입고.

106025 #1 으.

106025 @ 그냥 일반은 두루막.

106025 #1 장옷은 우리도 시집갈 때 멩지로 행 갖수다.

106025 @ 아, 그걸로 입어가진, 입지는 안 해마씨?

106025 #1 그거예.

106025 @ 예.

106025 #1 족두리 썩 갈 때는 그 장옷을 입고 멘사포 쓸 때는 안 입고.

106025 @ 아. 경해도 행 가야.

106025 #1 으, 행 가사. 입지는 안 해도 행 가사.

106025 @ 겐 그 장옷은 잇어마씨?

106025 #1 잇수다.

106025 @ 아, 옛날 거 그대로예?

106025 #1 옛날 거 그대로.

106025 @ 겐 근데 그거 돌아가실 때 못 입을 건데 족양.

106025 #1 으.

106025 @ 그렇지 옛날에 행 온 거니까.

106025 #1 어, 이거 시집올 때 행 온 거렌 관에 놓렌.

106025 @ 멩지로 옛날 그거 다 허는 거잖아예?

106025 #1 예, 멩지로 파란 멩지로 해근에 허고 빨간 걸로 짓허고 곱.

106025 @ 음.

106025 #1 이 끄동 놓고 행.

106025 @ 음. 그런 게 중요한 거마씨.

106025 #1 중요한 건게.

106026 @ 나중에 사진 그거 다 찍어야켜. 그 다음엔예, 삼춘 아이덜 옷은 어떤 거 있어?

106026 #1 아이덜 옷도 그 시절엔게 그자 광목 험떡 해근에게 감 들영 영 졸른 바지 행 입지꼭 하하, 겨울에도 진 거 만들앙 입지고. 저 이땅 사진에 보든 저 웨국 나라 막 그추룩 그런 식으로 입영 옛날에서 다 헛수게게.

106026 @ 으, 광목으로?

106026 #1 예.

106026 @ 그리고 이제 애기덜 옷 보면은 오줌 누렌 강알 터진 바지?

106026 #1 그거는 굴중의엔 허주게. 우리 할망덜도 우리 다 굴중의 입엇주게. 이디 영 튼 거.

106026 @ 예.

106026 #1 게난 여기는 잇고 여기는 허리 돌아근에 곰 딱 메영 입꼭.

106026 @ 으.

106026 #1 영 사면은 몸빼 뒹고 앓을 때는 이디 튼 거니까 요디만 영 버영 앓아 근에. 소변도 눅고.

106026 @ 아, 가운데가 터졌구나.

106026 #1 으, 가운데가 터전.

106026 @ 아.

106026 #1 게난 굴중의엔 허주 그거는.

106026 @ 굴중의.

106026 #1 굴중의.

106026 @ 게니까 굴이 아 터져서 굴중의구나.

106026 #1 터져서, 터져부난 굴중의.

106026 @ 나는, 이렇게 헤싸근에 헛텐 현 거 치마식으로 웬 게 아니고.

106026 #1 아니.

106026 @ 가운데가 이렇게 터정 있어?

106026 #1 가운데가 터진 거. 이디도 다 꼬매고.

106026 @ 예.

106026 #1 이디도 다 꼬매고 헛는데 이디는 허리 들앙 영 곰 딱 메고.

106026 @ 예.

106026 #1 게민 일어사면은 그냥 이거 터진 거 안 보이난에 치마 바지 뒹주.

106026 @ 으.

106026 #1 겐 볼일 볼 때는 이거 영 보여근에 앓앙.

106026 @ 겐 속곳은 안 입는 거라 굴중의 헐 땀에?
106026 #1 아니, 속곳, 속곳 입어도.
106026 @ 속곳 입어도?
106026 #1 으. 속곳 입어도 그 우에.
106026 @ 속곳은 그러면은?
106026 #1 그 죽을 때 입는 입는 것도 그 굴중의는 꼭 헛주.
106026 @ 아.
106026 #1 옛날이난에.
106026 @ 굴중의는.
106026 #1 으, 옛날에 입는 옷이난에. 그걸 꼭 해놔주게.
106027 @ 알았수다. 그 다음에 삼춘 저 옷 만들엇엇던 헛잖아예. 옷을 하나 만들
아 봅서. 뭘 만들어 보코?
106027 #1 무시거 저고리도 허고 치마도 허고.
106027 @ 그 과정을 마름질부떠 그 과정을 한 번 곁아줍서, 어떻 만듭니까?
106027 #1 천 놔근에 자 놔근에 이녁 몸뻥이 자 멧 치, 멧 치인 거 허고 지레기
멧 치허곡 행 재영.
106027 @ 으.
106027 #1 그 천을 영행 딱 마련행 가근에.
106027 @ 으.
106027 #1 재단허주게.
106027 @ 예.
106027 #1 재단해근에 만드는 거주.
106027 @ 게른 재단허게 뉘면 재단허는 종이를 또 만드는 거?
106027 #1 종어로 재단을 허든 처음 배울 때는 종어로 본을 떠 놔야 헛주.
106027 @ 예.
106027 #1 겐디 우린 흔 번 늣 허는 거 그추룩 영 봐나난 천으로 아예 본을 떠.
106027 @ 예. 경험 본을 땡.
106027 #1 손바놓으로.
106028 @ 삼춘 그 바지, 옛날 바지에?
106028 #1 으.
106028 @ 영 텔 거 아니 바지가. 한 쪽에는 길고 한 쪽에는 영 뉘잖아예?
106028 #1 굴중의?
106028 @ 아니, 바지 바지도 이렇게 허면 이 부분은 뉘렌 헤?
106028 #1 허리주게.
106028 @ 허리. 그 다음에 여기는 뉘렌 헤 이런 건?
106028 #1 이 바지는 이디 다님 청 남자덜 입는 거?
106028 @ 예.

106028 #1 이거 곧작 간 거는 곧음폭이엔 허고.
106028 @ 예, 곧음폭.
106028 #1 여기는 영 홀타지게.
106028 @ 홀타지게.
106028 #1 홀타지게 허는 거 보난 밋이엔 허주.
106028 @ 예, 밋, 예.
106028 #1 경혜영 만드는 거.
106028 @ 곧음폭은.
106028 #1 양쪽에 곧음폭.
106028 @ 밑에는 뭐렌 해.
106028 #1 뭇 밑에? 밑에는 그냥.
106028 @ 이쪽에 이렇게.
106028 #1 으, 그거 바지난에게 그거 알게.
106028 @ 알. 알이엔 헤예.
106028 #1 알.
106028 @ 남자.
106028 #1 이거 남자 바지.
106028 @ 남자바지에. 그 다음에 저고리가 영 텔 거 아니라예?
106028 #1 으.
106028 @ 이렇게 저고리 하면 여기는 뭐렌 해?
106028 #1 거 목 아니?
106028 @ 목. 그 다음 요기는, 요기 동전 달린 데.
106028 #1 아, 짓.
106028 @ 짓.
106028 #1 짓이 영 느려올 거.
106028 @ 여기는?
106028 #1 그거는 앞섭.
106028 @ 앞섭. 앞섭도 잇고 뒷섭도 이십니까?
106028 #1 아니, 안앞섭 밋앞섭.
106028 @ 아, 안앞섭, 밋앞섭예?
106028 #1 으.
106028 @ 그 다음에 요렇게 돼고. 여기는 뭐렌 해?
106028 #1 건 소매.
106028 @ 소매. 이 부분은?
106028 #1 이건 소매 부리게.
106028 @ 소매 부리?
106028 #1 예, 소매 부리.

106028 @ 그 다음에 등글렁헌 데는?
106028 #1 그건 배알이엔 협주.
106028 @ 배알.
106028 #1 으.
106028 @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뭐렌 해?
106028 #1 소매 길이?
106028 @ 으.
106028 #1 소매 길이사 뭐렌 협니까, 소매 길이주.
106028 @ 그냥 소매 길이렌 허고예. 요 부분은 뭐렌 협니까, 몸통 해근에 몸통, 여기도 이름 잇어?
106028 #1 아니 요건 소미고.
106028 @ 예.
106028 #1 요거는 몸뎡이고.
106028 @ 몸뎡이 이몸이엔 현 말도 협니까?
106028 #1 아니.
106028 @ 몸뎡이?
106028 #1 으, 이건 몸뎡이.
106028 @ 이건 몸뎡이.
106028 #1 으.
106028 @ 이건 소매?
106028 #1 으.
106028 @ 이거 배알?
106028 #1 으.
106028 @ 요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치마 허게 되면? 영 쥘 거 아니라예?
106028 #1 치마는 간단허주게.
106028 @ 여긴 뭐렌해.
106028 #1 뭐 허리주.
106028 @ 이런 옆에도 잇어?
106028 #1 아니, 아니.
106028 @ 여기는 뭐렌 협니까?
106028 #1 아 건 피마폭이주게.
106028 @ 치마폭.
106028 #1 으, 옛날 멩지혈 때는 으답폭 치마.
106028 @ 으답폭 치마.
106028 #1 으답폭 치마라사.
106028 @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통으로 쥘 것도 영 펼쳐진 것도 잇잖아예?
106028 #1 통치마허고 깍치마엔 협니다.

106028 @ 아, 깍치메예. 옛날에 깍치메 입어난 거 아니?
106028 #1 처녀 때는 통치마 입고.
106028 @ 아, 처녀 때는 통치마 입고?
106028 #1 으, 결혼허민 깍 치마 입고.
106028 @ 그 다음 삼춘 보선도 직접 만들앙?
106028 #1 예.
106028 @ 이렇게 생겼잖아예?
106028 #1 예.
106028 @ 이것도 이름이 다 잇잖아예?
106028 #1 보선목.
106028 @ 여기가 보선목?
106028 #1 으, 저건 보선 뒤굽치.
106028 @ 이건 보선.
106028 #1 뒤치기.
106028 @ 보선 뒤치기. 그 다음이 여기.
106028 #1 그거는 툭, 발툭, 앞이 있는 거난에 발툭이 맞는 거.
106028 @ 으, 발툭. 이 끝에는?
106028 #1 거 발 봉오지.
106028 @ 발 봉오지.
106028 #1 으.
106028 @ 요 뒤에는?
106028 #1 거 뒤굽치 아니과?
106028 @ 여기가 뒤굽치고.
106028 #1 으, 뒤굽치.
106028 @ 이런 식으로 이름덜 다 틀리잖아예? 그 다음에 삼춘 여기에 영 영 헤 근에 바농 영 허잖아. 그거는 뭐렌 헤?
106028 #1 그거는 앞 부분이주, 앞 부분이엔 합니다.
106028 @ 수눅은 뭐우과?
106028 #1 수눅?
106028 @ 그런 말 안 들어봤?
106028 #1 으.
106028 @ 앞 부분을 영 허면 밖으로 향허게 허잖아. 그걸 기준으로 헤근에.
106028 #1 실밥?
106028 @ 실밥.
106028 #1 실밥으로 그 안터레 고부리지 안 허영 베꼈더레 고부려사.
106028 @ 으, 양쪽 다예?
106028 #1 으.

106028 @ 걸 보명 오른쪽 왼쪽?

106028 #1 으.

106029 @ 삼촌 예전에 단추덜?

106029 #1 단추사. 여기에 옛날에 단추는 저 무시거나 전복 겹데기로 멘든 거 옛날에는.

106029 @ 으.

106029 #1 전복 겹데기로 만든 단추난 막 알루주게.

106029 @ 예.

106029 #1 그거는 알파도 알록달록 전복 겹데기 색깔이 무지개 색 잇는 거 허면 단추 막 이빠.

106029 @ 으.

106029 #1 막 고와. 그런 단추랏수다.

106029 @ 이 동네도 단추 공장 잇엇수과?

106029 #1 이 동네 공장이 엇고 어디 나가야 잇엇고. 또 여자덜은 벌모작, 벌모작으로 단추행.

106029 @ 으, 벌모작으로예?

106029 #1 으. 저고리도 곰 안 든 거는 벌모작 들앙 입곡.

106029 @ 예.

106029 #1 대개 벌모작으로 여자는.

재단과 손질

106030 @ 음. 이런 식으로 허고. 삼촌 옷 멘들 때는 광목으로나 사 온 거 허게 웨면 그냥 만들면 줄어들잖아예?

106030 #1 음.

106030 @ 게민 옷 만들기 전에 건 어떻 손질해?

106030 #1 아, 줄어드는 기지는 물에 담가근에 흐 번 빨아 웨근에 영 손 봐근에 허는 거고.

106030 @ 예.

106030 #1 광목은양 경 줄어들지 안 합니다.

106030 @ 아.

106030 #1 줄어들지 안 허고 때문에 거는 지칫광목이엔 허주, 빨지 안 행 현 광목.

106030 @ 지칫광목.

106030 #1 으, 지칫광목으로 행 좋다게 허명 허주.

106030 @ 으.

106030 #1 지칫광목으로 허고 저 줄어들 것만 빨앙 허주.

106030 @ 지칫광목은 그럼.

106030 #1 안 빨앙 허는 거. 사단 바로 허는 거.

106030 @ 지칫광목. 계난 지칫광목은 다 슬진돼 나온 걸 말릅니까?

106030 #1 공장에서 기자 만들앙 나온 거주. 손질은 안 해도 짝 만들앙 천으로 나온 거고.

106030 @ 예.

106030 #1 계난 우리가 사다근에 빨앙 허젠 허면 빨앙 현 거난에 지칫광목이 아 니고 아이고 거 발헤연에 막 곱다.

106030 @ 아.

106030 #1 발레영.

106030 @ 계난 발레면 광목이 허영허영.

106030 #1 어.

106030 @ 지칫광목은?

106030 #1 흥끔 붉으스름 때가 흥끔.

106030 @ 때가 긴 것처럼 해도 그냥 그걸로 옷 허는 거라예?

106030 #1 예, 예.

106030 @ 겐 그런 거 헐 때 흥쓸 옷을 품을 크게 허켜예?

106030 #1 아니, 무신 그거 줄어드는 거 아니라부난 크게 뭐 안 행 치수대로 자 로 쟁 합니다.

106030 @ 색깔이 고우냐 안 고우냐의 차이우다예?

106030 #1 예, 예.

106031 @ 여기는 염색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헛수과?

106031 #1 그때 염색은 뭐 엇엇수게, 감베끼 엇엇수게.

106031 @ 감베끼.

106031 #1 예.

106031 @ 그, 옛날에 그 뭐야 속곳 같은 경우 물에, 속곳 헐 때도 물 들영 허지 안 헛니까?

106031 #1 속곳?

106031 @ 으, 아니 저 물질헐 때 허는 거.

106031 #1 계메. 물질 속곳.

106031 @ 으.

106031 #1 그건 흰 걸로도 허고 물 들영, 그때 웨민 물이엔 현 건 까망물 한 가 지만 낱.

106031 @ 까망물 한 가지.

106031 #1 으.

106031 @ 그 감물 들이는 거?

106031 #1 으.

106031 @ 그 과정 어떤 식으로 헤마씨?

106031 #1 여기서는 감 막 도고리에서 삐정.

106031 @ 예.

106031 #1 막 빠져근에 물 놔근에 젖엉 요즘은 다 걸러근에 허는디 그때는 그대로. 그 주시 잇인 채로 그 다라에서 물 들일 거 막 주물렁.

106031 @ 예.

106031 #1 경행 탁탁 털어덩, 경행 발헛수다.

106031 @ 경행 딱 한 번만 행 발허는 거?

106031 #1 어, 경행 발헛 때 들르민 물 적정 넣고 들르민 물 적정 넣고. 경혜사 막 잘 발주게.

106031 @ 예.

106031 #1 경행 우알 허젠 허민 혼 군데로만 우터레 가깁 행 발레고 우알 엇이 허젠 허면은 기자 혼 번은 데쌍 널엇당 혼 번은 영 행 널엇당 허민 우알 엇이 안팎 엇이 똑ㄴ치.

106031 @ 으, 으.

106031 #1 감 뒤고.

106031 @ 음.

106031 #1 겐 주로 옛날엔 우리 어무니네 시절에 그추룩.

106031 @ 옷을 만들어진 걸 가져 갖고.

106031 #1 만들어진 거로도 허고 천으로도 허고.

신발

106032 @ 아, 천으로 행도 만들고예. 신은 어떤 신 신엇수과, 신 종류는 어떤 거?

106032 #1 아이고 신, 초신.

106032 @ 초신.

106032 #1 찻신이.

106032 @ 으.

106032 #1 찻신허고 찻신으로 게따.

106032 @ 으.

106032 #1 게따엔 현 거 요새 쓰레빠.

106032 @ 예. 찻신으로도 그걸 만들앙?

106032 #1 어이구 그거 막 좋주. 하하하. 그냥 우리는 초신 우리ㄴ장은 쪼금 신 엇수다.

106032 @ 예.

106032 #1 쪼금, 쪼금 신으구 그 다음에 고무신 나난에 고무신 나부난 헛주. 우리 어무니네 경우에는 다 초신.

106032 @ 초신?

106032 #1 예.

106032 @ 초신 신고. 시집갈 때는 어떤 신 신언?

106032 #1 어?

106032 @ 그때사 고무신이주게.

106032 #1 으.

106032 @ 그때는 고무신 신고?

106032 #1 으.

106032 @ 가족신 신는 거는 안 봐 봅디가?

106032 #1 가족은 저 결혼할 때 남자나.

106032 @ 으.

106032 #1 저 가족신 신주, 여자는 고무신 신었어.

106032 @ 으. 뭐 가막창신 이런 말은 안 들어 봤?

106032 #1 가막창신이엔 현 건 옛날 새서방덜 주로 신영 허는 거, 그것ㄴ라 가막창신이엔 허주.

106032 @ 예.

106032 #1 나막신 나막 우리 남신 것ㄴ라 나막신이엔 해근에 그걸로도 코 돌힌 나막신 만들양 그거, 그것도 신어났주.

106032 @ 비 올 때.

106032 #1 으.

106032 @ 나막신도 신고.

106032 #1 으.

106035 @ 삼춘도 그 초신 멘들아 판마씨?

106035 #1 난 초신도 만들고양 초석도 절어나고예.

106035 @ 아.

106035 #1 멩텅이도. 멩텅이 알아집니까?

106035 @ 예.

106035 #1 멩텅이도 절어나고예.

106035 @ 예.

106035 #1 나양 어려도 못 현 거 엇이 다 해난 사람.

106035 @ 으. 겐 그 초신 삼젠 허면.

106035 #1 으, 노 꼬양.

106035 @ 맨 처음 노 꼬양.

106035 #1 각, 각 헐 거는 좀 ㄴ늘게, 노를 좀 ㄴ늘게 꼬아근에 이 밑창을 놓는 거라예.

106035 @ 예, 예.

106035 #1 노끈 딱 벌겨는 다음에 이 창을 놔.

106035 @ 으.

106035 #1 창을 논 다음에는 이게 좀 오그리멍.
106035 @ 예.
106035 #1 오그리멍 옆은 영 쪽으로 헤 가주게. 경혜영 요디는 코 멘들고.
106035 @ 예.
106035 #1 짝 폐왕 현 다음에 오그리민 코 날 거 아님이.
106035 @ 예.
106035 #1 게난 요거 앞에 경행 만들앙.
106035 @ 으.
106035 #1 우리 이제도 만약에 거 만들렌 허민 생각허멍 만들아짐직 합니다.
106035 @ 으.
106035 #1 게고 멩텅이나 멩석은 생각 안 헤도 헤지고.
106035 @ 음 하영 헛엇구나 삼춘. 게민 이 초신 이렇게 하면 이 길게 노 꼬우잖아예. 그건 뭐렌 헤? 노 꼬운 거는?
106035 #1 아, 기자 노 꼬운 거. 노 꼬양, 새끼 꼬와근예.
106035 @ 으.
106035 #1 새끼 꼬와근예 옆에 거는 ㄱ늘게 꼬왕 허고 창은 흐뎡 두껍게 허영.
106035 @ 예, 발창은 두껍게 허고.
106035 #1 예.
106035 @ 그 다음에 여기 세 개헛니까 멩 개? 여기 허는 거 있잖아?
106035 #1 아니, 세 개만 허여 무사. 일로 이레 다 헤사 허난예.
106035 @ 예, 그거 이름은 뭐렌 곶아? 거 놓는 거는?
106035 #1 아, 이거 영 놓는 거는.
106035 @ 으.
106035 #1 아, 그거 기자 신, 신 신발 만들젠 허민, 야 신발 만들어사 헐 거 아냐. 그디 새끼 꼬아근예 그 옆예.
106035 @ 깧, 깧?
106035 #1 깧 놓라.
106035 @ 아, 이거 깧예?
106035 #1 깧 놓라.
106035 @ 그 다음에 영행 동글랑 허게 무끄젠 허민 그 노끈.
106035 #1 그거 신 바위 돌르는 거.
106035 @ 신 바위 돌르는 거?
106035 #1 어, 어.
106035 @ 영 무끄는 것도 잇잖아?
106035 #1 초신은 무끄는 거 우리 안 헤 봤수다.
106035 @ 아, 건 안 무끄고.
106035 #1 그냥 바예, 신 바위 벵허게 돌라근예 울로 모작청 끈어볼주. 겐디 바

당에는 초신이 그렇게 좋아. 녀꼬리지 아니 헐.

106035 @ 아.

106035 #1 바당에. 그렇게 좋아.

106036 @ 음. 그 다음에 그 초신도 종류가?

106036 #1 아니 무신 거 남자 거 잇고 여자 거 잇고. 종류렌 헐 건 저 초신 거 여자 신허고 게다허고 그거주.

106036 @ 그 예전에 무사 그 거 뭐렌 곤더라만은 거 북각신이여 이런 말 안 들어환?

106036 #1 북각신 뭐 그런 말은 이딴 엇고 이딴 엇고.

106036 @ 으, 이딴 엇고.

106036 #1 그 초신이여 게다 찢저, 그거주.

106036 @ 그 상 나면 무사 신을 때?

106036 #1 삼?

106036 @ 상, 상.

106036 #1 아.

106036 @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허면은.

106036 #1 아, 아.

106036 @ 그 초신 신는데 보통 초신 안 신엇잖아?

106036 #1 보통은 안 신는 게 아니고.

106036 @ 으. 장례식 때 그 깍덜이? 왜 장례식은 신발이 이렇게 깍덜이 몇 개씩 막.

106036 #1 아이고 요즘 초신덜사 거 신이과 거, 거 기자 허는 채만 헐 거주.

106036 @ 허는 채만 헐 거

106036 #1 예, 우리 무신 것에 행 나오렌 혜근에 걷기 대회도 나가민 일출봉서 저기꺼장 걸어 가는데 빨리 걸어가근에 신발 탕 신어야 그디 간 거 합격 표시가 웬다 행 강 보민 그거 신이과?

106036 @ 예, 옛날에는?

106036 #1 옛날에 곱닥허게 헛수다. 신 곱닥허게 허여. 켜디 신사라로 허민양.

106036 @ 예.

106036 #1 신이 막 더 고와.

106036 @ 아, 신사라로 허면.

106036 #1 예. 신사라로 허면 신이 잘도 고와. 이 저 꺾으로 헐 것 보다. 왜냐 신사라는 노 꼬는 것이.

106036 @ 예.

106036 #1 신사라는 거 푸석푸석헌 것이 엇기 때문에 노도 잘도 곱고양. 신사라신은 잘도 고와.

106036 @ 아. 신사라로도 신.

106036 #1 예, 신사라 신.
106036 @ 질기기는 뭐가 질겨?
106036 #1 질기는 것도게 신사라 신이 질기주게.
106036 @ 아.
106036 #1 기자 이 산디찍 신보다.
106036 @ 산디찍 신 보다?
106036 #1 예.

모자 등

106037 @ 알았수다. 옛날에 모자는 어떤 모자털 썼신고예?
106037 #1 모자사 뭐 페랭이베끼 더 씩니다, 이녁냥으로 멘들앙.
106037 @ 아, 삼춘네도 이녁냥으로 멘글앙?
106037 #1 나도 그것도 잘 멘급니다.
106037 @ 아.
106037 #1 보리찍 그 대 뽑앙.
106037 @ 예.
106037 #1 보리찍 대 뽑아근에 이녁냥으로 그거 다 만들어 낵.
106037 @ 예.
106037 #1 모자 하나 헐 거만큼. 만들어 놔근에 거 이제 멧 메다 다 만들어져서
면은 그걸 이제 재단허는 거라예.
106037 @ 예.
106037 #1 그걸로 뱅뵁허게 쥐근에 이 썸 돌허는 건 그디 간에 흐뵁 힘 시작헿
뱅뵁 돌렁.
106037 @ 음.
106037 #1 그런 것도 얼마던지.
106037 @ 못허는 것도 하나도 엇구나.
106037 #1 게난 우리집 양반이 경 곶아. 저 못 허는 거라도 잇이라.
106037 @ 으. 하하.
106037 #1 겐 못 허는 거 빼민 다 자신 잇수텐 헤불민.
106037 @ 게민 그때 예전에 건 페랭이렌 곶아?
106037 #1 으, 페랭이.
106037 @ 여기는.
106037 #1 밀집페랭이.
106037 @ 밀집페랭이. 밀로도 헿수과?
106037 #1 밀냥으로가 더 줍니다. 보리냥보단이 좀 질긴 맛이 잇영.
106037 @ 아, 밀냥이.
106037 #1 좀 질겨. 질기주게.

106037 @ 겐 그거는 이런 식으로 허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다 꼬와근에 허는 것과?

106037 #1 밀남탱이를?

106037 @ 어.

106037 #1 꼬양 허는게 아니고게. 이녀 집이 밀 안 갈민 늬의 집이 강 밀남탱일 강 빠오주게.

106037 @ 예.

106037 #1 그 밀 영 흘테질 헤난 거.

106037 @ 예, 예.

106037 #1 흘테질 현 거 현 움큼씩 빠다근에.

106037 @ 음.

106037 #1 경허딩 그 우이 여물 돌아져난 거만 잘라베뵤.

106037 @ 으.

106037 #1 경허는 거.

106037 @ 경허영 그대로 이제?

106037 #1 으, 으. 그대로.

106037 @ 예, 그런 식으로 허고 저 뭇로는 안 헤, 대낭으로는?

106037 #1 대낭으론 대페렝이엔 헤근에, 대페렝인 우리 안 만들어 받.

106037 @ 아, 대페렝인 안 만들어보고.

106037 #1 으, 나도 페렝이 저디 잇는다.

106037 @ 으.

106037 #1 대페렝인 우린 저 수산 강 사단 찢주.

106037 @ 아.

106037 #1 수산 하르방 대페렝이 만드난.

106037 @ 샷갓 같은 건 여기 안 헤 봤수과?

106037 #1 샷갓은 안 헤 받.

106037 @ 그냥 여기는 다 페렝이, 삼춘네 헐 때는 페렝이 현 거라예?

106037 #1 으.

106038 @ 겐 여름 모자, 겨울 모장 행 트나? 남자영 여자영?

106039 #1 아이고 겨울 모자는 기자 천 두꺼운 거라도 잇이민 고녕이포 만들앙 것그라 고녕이포렌 허주게.

106039 @ 아, 고녕이포.

106039 #1 하하. 겨울 모자는 고녕이포엔 헤근에 영 네귀 반드허게 헤 낵.

106039 @ 예, 예.

106039 #1 경헝 여기만 쪼끔, 뒤에는 좁으니까 쪼끔 영 데여내여 뒤근에 일로 주 워근에 영 헝 허민 여기 틀 거 아니과 영 돌아왕.

106039 @ 예, 예.

106039 #1 겐 여기 틀 거니까 여기 턱 가는 디만 영 허영 영 만들민.
106039 @ 으.
106039 #1 이딘 얼굴 나오는 디난 그거 영 쓰민 고녕이포 하하하.
106039 @ 아, 고녕이포 썼덴. 삼춘 무사 옛날에 바농질헐 때도 실이영 실패영 놓는 거.
106039 #1 어.
106039 @ 그.
106039 #1 바농상지.
106039 @ 바농상지 해근에 천으로 만들앙 네모나게 만들앙 거 담지 안 험니까? 것도 고녕이포렌 해?
106039 #1 으, 고녕이포엔 해. 하하하.
106039 @ 것도 고녕이포엔 허고 모자도 고녕이포?
106039 #1 하하하.
106039 @ 으.
106039 #1 옛날에 그추룩 행.
106039 @ 그 다음에 그 드르에 가젠 허면.
106039 #1 수건베끼 더 잇수과, 드르에 가젠 허민.
106039 @ 으.
106039 #1 광목 수건 해근에.
106039 @ 여긴 정동 모자 그런 건 안 썬?
106039 #1 정동 모자는게 가끔 남저덜이나 행 쓰주게. 정동으로 만든 거.
106039 @ 으.
106039 #1 페랭이 그추룩 만든 거.
106039 @ 으.
106039 #1 정동 모자.
106039 @ 그 다음에 흑시 털로, 웨털이나 이렇게 행 털모자 쓰는 하르방덜은 안 봐 환?
106039 #1 거 사단은 써도.
106039 @ 으.
106039 #1 만들진 안 해.
106039 @ 예, 만들진 안 허고예?
106039 #1 으.
106039 @ 여기 휘향이여 뭐 이런 말은 안 허고?
106039 #1 휘향? 휘향은 어디 저 사름덜 귀향가는 거?
106039 @ 아니, 모자?
106039 #1 아니.
106040 @ 여기 탕건이여, 망건이여 이런 말은?

106040 #1 탕건?
106040 @ 으.
106040 #1 탕건은 저 남저덜 쓰는 탕건?
106040 @ 으.
106040 #1 으, 탕건은 것도 하르방, 옛날 하르부지덜은 다 돌아가부난에 탕건이
이젠 만드는 사름도 엇고.
106040 @ 으.
106040 #1 씨낫수다 남저덜은.
106040 @ 남저덜은예, 갓이영.
106040 #1 예, 거 하르방 막 탕건 쓰고 갓 쓰고 헨에 저 어드레 감서라 허멍.
106040 @ 음. 여기서 그런 거 만드는 건?
106040 #1 만드는 건 엇고.
106044 @ 아까 삼춘 그, 비웃?
106044 #1 으, 우장.
106044 @ 우장.
106044 #1 으.
106044 @ 우장은 잘 만들엇덴 허멍.
106044 #1 우장 그거, 옛날엔 그것이 비웃이랏수게게.
106044 @ 예. 건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라마싸?
106044 #1 거 어떤 식이냐 허면 거는 새로 허주, 새.
106044 @ 예.
106044 #1 새 비여당.
106044 @ 으.
106044 #1 겐에 노 꼬아근에 그 무시걸 다 본을 헤 놓 다음에.
106044 @ 음.
106044 #1 그 새로 헤근에 그걸 막 여릅니게. 게난 베껏디레는 이파리 가게.
106044 @ 음.
106044 #1 이파리 가게 쪽쪽 줄로 웬 거난에. 돌아가멍 혼 줄, 두 줄, 세 줄 행.
경혜가멍 이파리 베껏디레 가게 짹 헤 놓면 비가 이디 안 들어강, 이디 새난에. 겐
우장, 우장.
106044 @ 우장.
106044 #1 으, 우장.
106044 @ 겐 삼춘도 우장도 직접 헤 받?
106044 #1 아, 나 우장은 만들어 보지 않아.
106044 @ 아, 우장은 안 만들어 보고.
106044 #1 으, 우장은 안 만들어 보고.
106044 @ 보통 우장덜은 남자덜이?

106044 #1 남자덜이 행양, 완전 비웃이난게. 므쉬, 므쉬 ㄹ꾸레 이추룩 비 와도 가사 텔 거라부난 우장 썩 가주게.

106044 @ 음. 겐 삼춘네도 우장은 썩 보고?

106044 #1 예, 예.

106044 @ 아.

106044 #1 므쉬 ㄹ꾸레 갈 때.

106044 @ 므쉬 ㄹ꾸레 갈 때 우장하고 머리에는 이제?

106044 #1 머리에는게 거 무시거 쓰고.

106044 @ 페랭이 쓰고.

106044 #1 페랭이 쓰곡.

106044 @ 아, 알앗수다.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삼춘, 여기서 헤 먹어난 밥 종류들은 어떤 거 잇어마씨?

107001 #1 밥?

107001 @ 예. 옛날.

107001 #1 옛날에.

107001 @ 음.

107001 #1 옛날에게 보리밥허고 감저밥. 그 보리쌀에 감저 낱.

107001 @ 예.

107001 #1 경허영 보리쌀 살락허민 데기민 젓으민 감저가 풀어지민 밥이 흥쌀 영 병덩이저근엔에 그추룩헤근에 감저밥.

107001 @ 예.

107001 #1 또 막 그 어려운 시절엔 툄밥.

107001 @ 툄밥.

107001 #1 프레밥. 그런 거 행 먹엇수게.

107002 @ 음. 그러면 쌀 종류예? 밥 헤먹는 쌀 종류는 어떤 거 잇엇수가?

107002 #1 쌀종류가 잇엇수가? 보리허고 좁쌀이주게.

107002 @ 보리허곡 좁쌀.

107002 #1 밀쌀.

107003 @ 밀쌀도 허고 예. 게문 보리밥 흥번 지어봅서. 어떤, 보리밥 어뎡 허는 거?

107003 #1 보리밥게, 보리쌀 거평은에양. 거피는 거 알아지멘?

107003 @ 예.

107003 #1 ㄹ레로 벌렁.
 107003 @ 음.
 107003 #1 벌렁. 경행 그거, 그 쌀만 낱 밥허주게. 경허는디게 감저 농곡 해근에 밥을 분**떡젠 감절 놓는 거주게.
 107004 @ 반지기밥은 뭐우과?
 107004 #1 반지기밥엔 현 건 서꺼진 것이 반지기밥.
 107004 @ 예, 어떻 서꺼진 거.
 107004 #1 이 쌀 저 쌀 밀쌀에 보리쌀에.
 107004 @ 으.
 107004 #1 막 서끈 것이 반지기밥.
 107004 @ 밀쌀 허고 보리쌀에도 반지기밥?
 107004 #1 감저도 놓고 막 여라 가지 논 게 반지기밥.
 107005 @ 반지기밥예, 그 다음에 곤밥은?
 107005 #1 곤밥은 곤쌀만 낱 허난.
 107005 @ 곤밥은 언제 행 먹는 거?
 107005 #1 곤밥은 그때 시절에는 아무 디나 곤밥 먹지 아녀고 제사 때도 저기 메만 어제도 말헛주마는 그치룩행 흥뽀 낱근에 보리밥 우에 낱 메 거려올려똥 거 박박 젓어근에 쌀 하나씩 보리쌀에 서꺼지게 행.
 107005 @ 음.
 107005 #1 흥 사발씩 보리밥이난. 경허영 곤밥은 그치룩행 먹어난 거.
 107006 @ 예. 조팝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7006 #1 조팝도 감저 낱. 모인좁쌀이나 흐린좁쌀이나 감저 낱 허민 막 씨.
 107006 @ 으응.
 107006 #1 막 맛 이십니다. 조팝은.
 107006 @ 좁쌀만은 낱은 밥 안 험니까?
 107006 #1 무사 좁쌀만 낱도 저 밥을 허는디 감저 낱사 이 맛이 들끔들끔허영 맛이 좋아. 조팝만보단.
 107006 @ 옛날에는 보리밥에 좁쌀 놀 때는 씻지도 아녜텐 허명양?
 107006 #1 아니 거 씻영 먹는 걸 알앗수가?(웃음)
 107006 @ 웃음.
 107006 #1 씻영 먹는 중을 몰랏주.
 107006 @ 계난 그 밥을 해봅서. 보리밥에 좁쌀 낱 험 땀 어떤 식으로 현 건지?
 107006 #1 보리밥에 거핀 보리쌀은 좁쌀에 ㄹ찌 낱근에 밥을 허고.
 107006 @ 예.
 107006 #1 그 통보리쌀로 허는 거는 보리쌀 삶앗다근에 슣양 건져 낱당 식은 거 허영 흥디 좁쌀에 낱 밥허주.
 107006 @ 음.

107006 #1 경혜낮수다.

107006 @ 그런 식으로. 계난 그때 좁쌀은 안 씻어어예? 옛날예?

107006 #1 으, 씻으믄 무시거게.

107006 @ 계, 밥 현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밥허민 뜸을 들이는 거 아니우파예?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불 꺾당은데 다시 불습곡.

107006 #1 건 보리밥. 보리밥만 헐 때.

107006 @ 아.

107006 #1 보리쌀만 낱 헐 때.

107006 @ 건 어떤 식, 계믄 어떻 현 거?

107006 #1 계난 아까 식으로 바각바각 부경 뒤희민 진짜 불꺾다근에 뜸들엿당
또 불 흐쌀 부찌는 거는 밥이 흐쌀 고소현 맛나게.

107006 @ 음.

107006 #1 푸끈 상태에서 뜸 물 뺏당웬 행 그자 퍼놓민 창에 검은췌숫이난에.

107006 @ 예, 예.

107006 #1 창에 놓지도 안 허곡 기대로 문짝 벗어지민 밥맛이 꼬신 맛이 엇주게.

107006 @ 아아.

107006 #1 경허민 그 두 번 불 습양 허민 누룽지 놀민은 누룽지도 막 쿠싱허곡
밥도 맛싯곡.

107006 @ 음.

107006 #1 경혜영 그거 뜸 들이는 거.

@ 두 번 불 습는 거를 뒤희엔 곶아마씨?

107006 #1 뜸들엿단엔 또 저 밥 음.

107006 @ 뜸들이는 건 요즘 말이고 제주도말로 곶아야 뒤희?

107006 #1 아, 계메 틈제왓당.

107006 @ 틈제왓당.

107006 #1 틈제왓당. 틈제왓당은에 그레 불 흐번 습아불라 저.

107006 @ 빨류는 거렌 헤?

107006 #1 물 빨어지게, 빨어지게.

107007 @ 예, 경허고 풋밥은 언제 헛수가?

107007 #1 풋밥.

107007 @ 음.

107007 #1 아, 풋밥은 그루후제 그루후제제사 풋밥사 하영. 풋밥 먹기 시작헌 때
는 츠츠츠 좋아져 갈 때.

107007 @ 아아, 보통 큰일헐 때는 풋밥 허지 아녜수가?

107007 #1 큰일헐 때 풋밥. 보리쌀에 풋 낱 습양. 잔치헐 때도.

107007 @ 예.

107007 #1 보리쌀에 풋에 낱 습양. 쌀은 흐꼼만 놓곡 가마숫디서 밥허민 풋 물

들어근에 벌경허주게. 벌경허곡양.

107007 @ 예.

107007 #1 저 밥맛이 푸달푸달행 그 보리쌀 주냉이보리쌀 밥은 허민 푸달푸달헤 영 풏밥 허민 맛 잇주. 게민 옛날에 무신 다라가 잇어 무신 거 잇어? 멩텅이에 밥을 퍼근에 잔치 때.

107007 @ 음, 음.

107007 #1 멩텅이에 퍼근앵에 그거 사발에 거리멍. 경허민 풏밥 헤나민 사발엔 막 데닥데닥허민 그거 싯어근에 소님 오민 또 허곡 허곡 허젠 허민 더 바빻주. 경허영 풏밥은 그치룩행 먹엇수게. 잔칫 때.

107008 @ 우리 어렸을 풏밥을 먹엇던 기억이 잇어예. 삼춘 여기는 피도 갈앗덴 허니까 피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7008 #1 아 피밥은. 그 피밥, 피쌀은 내우젠 허민 막 정ㄴ레에서도 여라번 굴 아사 웨는 거. 그 여라 번 굴민 쫄이 헤영 헤여근앵에 밥해도 헤영허고 여라 번 안 굴민 쫄린 맛이 잇어. 피는.

107008 @ 음, 피는?

107008 #1 좁쌀 님지 아녕.

107008 @ 음.

107008 #1 경헌 때문에 그거는 피밥은 허민 막 피밥도 막 맛잇주. 물 맞게 잘 헤 농민.

107008 @ 음.

107008 #1 게민 헤영허난에 곤밥 님주게.

107008 @ 음.

107008 #1 헤영허난.

107009 @ 헤영허영예, 예. 여기에 그 감저, 아까 감저밥은 어떤 식으로?

107009 #1 감저 썰영, 채로 썰어근에.

107009 @ 예. 아, 채 썰영 허는 거우과?

프#1 채 썰어근에.

107009 @ 으, 이렇게 크게 놓는 게 아니고.

107009 #1 으.

107009 @ 게민 채 썰영 허면은 감저 형태는 엇이켜예? 젓어불민예?

107009 #1 으, 엇주게.

107009 @ 아아.

107009 #1 엇어근에 밥만, 밥맛이 맛만 잇주.

107009 @ 아아.

107009 #1 감저 놓난. 들큼드큼허영.

107009 @ 게민 채 썰영은에 쫄로 ㄴ치냥 허는 거? 아니면 나중에 허는 거?

107009 #1 ㄴ치ㄴ치 쫄영. 좁쌀에 ㄴ치.

107010 @ 좁쌀에 ㄹ치 낵예. 늻뵵밥도 헛수가? 여기.

107010 #1 예, 무수밥도. 무수도 채 썰엿 밥에 그치록 감저밥 허듯이.

107010 @ 감저밥 허듯이.

107010 #1 예.

107011 @ 그 다음에 톨밥. 여기는 톨밥 하엿 헿 먹엇덴 허난?

107011 #1 톨밥. 톨.

107011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7011 #1 톨 솟양은에 톨 칼로 썰엿 돛베에서.

107011 @ 음.

107011 #1 썰어근에 썬에 혼디 맛창 물 낵 밥해엿.

107011 @ 으음, 요즘은 건강식으로 먹엿신디?

107011 #1 요즘 어디서 건강식 그거 헿신고? 톨밥 그디.

107011 @ 톨밥. 어느 식당에 톨 하엿은 안 낵 쪼끔 낵은에.

107011 #1 쪼끔, 우리 시니어클럽에 갓당 서귀포 정심 먹엿가겐 해엿 식당에 들
어가난에 우돛 먹는다.

107011 @ 으.

107011 #1 우돛 먹는다 그 톨을 하나씩 낵어. 경헿 “에 이거 톨 무신 맛으로 이
거 우돛에 이거 다시로 낵는가?” 허멍 나가 그디서 허난, 옆의 사름덜이 “이디 이
거 톨 놓나게 놓나게.” “아이고 춤, 우돛만 해엿 저 그자 고명 낵 주주, 무신 톨을
고명 낵는가?” 허멍 지금도 허는 디 잇입디다. 서귀포에. 웃음.

107011 @ 웃음.

107012 @ 그건 영양으로 톨이 좋덴 허난 경허는 거예, 예. 폐밥도 헿마씨? 삼춘.
폐?

107012 #1 폐는양, 폐는 밥을 헿 게 아니구 못.

107012 @ 예.

107012 #1 못 솟양, 못 솟으는다. 못 솟으는다 폐를 하엿 봐야 폐가 맛 맛십네다.

107012 @ 아.

107012 #1 못에 못물 들엿은에.

107012 @ 음.

107012 #1 폐가 막 맛깃주게. 게난 펴 하엿 봐사 그 못 솟으는다 못 막 시장에
나강 막 풀곡 해낵어. 할망 하나가.

107012 @ 으음.

107012 #1 못 솟양. 요번에도 지금 못 잇엿시민 이 제초제 따문 못이 엿어. 못
잇엿시민 지금 정도에 폐 해근에 혼 가마 솟양 오일장날 가시민 진짜 돈 벌 거라
허멍.

107012 @ 음.

107012 #1 벨미로게, 거 사 먹엿. 그거 그 못 국물에는 보릿개엿 봐근에 버무려

근엥에 경 행 먹어났수게.

107013 @ 아, 보릿개역 낱예, 경 이제 하고. 국은 어떤 거 주로 헨 먹어수가?(8:03)

107013 #1 국사 옛날에사 장국벧괴 더 잇수가?

107013 @ 장국, 아.

107013 #1 에이고, 장국도 허민 요새는 버랭이 흐나 안 이는다, 무슨 짓을 해도 그런 건 없는다, 옛날엔 버랭이 오망오망 일엥 경허민 그 장 거리레 갖당 그 버랭이 다 다듬아뒀은에.

107013 @ 웃음.

107013 #1 웃음. 게, 그거 먹을 때가 건강했지 아녀우과?

107013 @ 맞아마씨. 다 자연식.

107013 #1 벧덜도 엇고 얼마나 건강했수가? 경허영 그치록 행 장국 행.

107013 @ 장국. 그 다음에 장국해도 녹물 낱은에 하고. 여기는 바당 동네니까 이제.

107013 # 미역도 허고 톨멩이도 허고.

107013 @ 무시거?

107013 # 믱음, 믱음.

107013 @ 아 믱음. 그걸 톨멩이엔도 헙니까?

107013 #1 여기서 톨망이엔 허주.

107013 @ 어, 톨망. 맞아예. 톨망도 허곡.

107013 #1 으. 톨망.

107014 @ 그러면예, 녹물국 끓일 때는 어떤 식으로 끓이는 거?

107014 #1 그냥 웬장 풀어놔근엥에 케민은 녹물 놓주.

107014 @ 케민 경허민 끗.

107014 #1 으.

107014 @ 간단허긴 허다양?

107014 #1 으, 간단헙니다.

107015 @ 콩도 여기 콩주름도 낱?

107015 #1 콩지름?

107015 @ 음.

107015 #1 콩녹물?

107015 @ 예.

107015 #1 예, 전윈 계속 낱 허연 먹엇주. 멩질 때 뒤여가도 허고.

107015 @ 케민 그걸로도 국 헙니까?

107015 #1 콩녹물국은 장국에 허영 허민 술 먹어난 사름 해장국으로 먹곡.

107015 @ 으음, 것도 웬장 해? 우리 제주도는 다 웬장이라예?

107015 #1 으, 웬장이 쥔 좋은 거.

107016 @ 음,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늪뺏국은 어떻 끓여?
107016 #1 무수국?
107016 @ 음.
107016 #1 마찬가지로.
107016 @ 음.
107016 #1 마찬가지로.
107016 @ 문딱 웬장?
107016 #1 으, 웬장.
107017 @ 웬장 낱은에 이제 끓이고. 콩국 한번 끓여봅서? 옛날.
107017 #1 콩국도, 콩국 끓일 땐 우리는 웬장 낱 헛 게 아니고.
107017 @ 예.
107017 #1 장물 낱에. 간장.
107017 @ 아아.
107017 #1 간장 뇌근에 콩국 영 무수영 와근에 끓여 올라고면은 콩물 물에 타근
에 그 우로 삭 비와.
107017 @ 으.
107017 #1 솟디레양.
107017 @ 예.
107017 #1 경허영 삭허게 비와근에 불을 그냥. 그냥 두께 툇 더경 불을 때면은
그게 콩이 익으면서 병땡이 지명.
107017 @ 음.
107017 #1 우트레 우깁허게 올라옵니다.
107017 @ 예.
107017 #1 게문 바로 저 무신 두부 ㄹ치룩양?
107017 @ 으.
107017 #1 경혜근에 그거 콩국.
107017 @ 으, 게난.
107017 #1 거 잘못 끓이면은 올라오는 것도 없곡 가르특혜영 물 땡어 불주. 기자
국 땡병.
107017 @ 게난 그 토실토실허게 이렇게 병땡이지게 끓이는 방법을 곱아줍서?
107017 #1 게난 그것이 나 아까 곱은 거. 물에, ㄹ르 물에 캥.
107017 @ 아, 물에 카는 거?
107017 # 1 으.
107017 @ 그냥이 아니고.
107017 #1 으, 물에 카근에 우로 비우든지 아니민 아예 언물 낱 솟디 낱 헛 때
에.
107017 @ 예.

107017 #1 혈 때에 콩그르 넣은에 막 젓은에 강. 카지게 솟디서.
107017 @ 아, 끓여 넣 놓는 거 아니?
107017 # 아니. 솟디서 카지게 끓여넣 봐도 돼는데, 서튼 사름은 아예 언물에 그
를 넣 젓영. 경혜영 불을 때면은 그 안 젓어불면은 넣어불주.
107017 @ 음.
107017 #1 게난 놀기 전에는 영 국자로 자꾸 젓엇당.
107017 @ 예.
107017 #1 남죽으로 젓당은에, 요거 익어갈만 허걸랑 특허게 내불면은 두께 특
더경 놔두면 그제 우각허게 덩어리로 올라 옵니다.
107017 @ 으.
107017 #1 게문 그제 바로 순부두처럼.
107017 @ 예.
107017 #1 국이.
107017 @ 게문 그 저 뭐는 언제 봐?
107017 #1 잘못 끓리민 **
107017 @ 그 저기 녹물이나 무수나?
107017 #1 무수. 무수 게난 흐살 흐 물 처음 켈 때에 무수 봐.
107017 @ 무수 농곡?
107017 #1 경허곡 그 끓인 물에 놓는 거는 무수 농곡 무수 놔근에 영 더운 짐
무수에 들어가면은 콩그르 물에 탄 거 우로 영 슬허게 비왕 내불면은 짓지 말앙 비
왕 내불면은 그대로 익으멍 우각허게 덩어리차 돼주게.
107017 @ 아아. 게니까 이제 논 다음에.
107017 #1 젓어불면은.
107017 @ 짓지를 안 현 거구나?
107017 #1 젓어불민은 그냥 뭐 돼불어.
107017 @ 게난 켈 다음에야 이제 허는 거예. 젓어부난 가르특현 거구나게.
107017 #1 으, 젓어불민 병댕이도 엇곡 무시거 아무 것도 엇주.
107018 @ 삼춘, 호박입국도 하영 혜영 먹어서예?
107018 #1 호박입도 그거 그자.
107018 @ 호박입은 어느 철에 맛종덴 험니까?
107018 #1 지금은 켈 맛싯주. 가을에.
107018 @ 사름덜은 여름에 하영 먹잖아예.
107018 #1 여름엔 호박입이 하난.
107018 @ 음.
107018 #1 번성허난 허곡. 지금은 꼭데기벧긔 엇주게. 먹을 게. 꼭데기 허민 준준
현 썩 아랑아랑현 거. 그거양?
107018 @ 예.

107018 #1 호박입 지금 해당은엥에 싹 빨아근에 칼로 한번 끊려 먹을 거 만씩 냉동시켰다근에 호박입을.

107018 @ 으.

107018 #1 냉동시경당은에 겨울이고 뭐고 국 끊여봅서. 참 맛습니다.

107018 @ 아, 케민 숲지 아녕 그대로 생채로.

107018 #1 예, 그때 시절 웨민 그뻘 느물도 하영 날 때주. 이 겨울웨민.

107018 @ 으음.

107018 #1 느물국 안 먹어. 호박입국 먹주.

107018 @ 아아, 냉동을 그 늘채로 행 놔두는 거?

107018 #1 으, 칼로 영 썰영 비닐 종이에게 한번 헐 거만씩 허엿당은에. 우리 시에 사는 아이덜은 호박입 그거 행 놔둬센 막 난리나주.

107018 @ 아아, 케난 가을에가 가장 맛 좋은 거라예? 조사허니까 가을호박입국을 먹어야 웬텐 허더라고.

107018 #1 음, 가을에. 지금. 나 어제도 우연에 가보난 문저 난 썸은 다 노랑케 밧고 막 세여부난에 그거 툃젠 헤도 가시가 썸곡.

107018 @ 예, 예, 예.

107018 #1 지금 봉오지에 번어가멍 난 거는 아랑아랑허곡 이파리도 존존합니다게.

107018 @ 음.

107018 #1 케난 그거 쥬 맛신 거.

107018 @ 아아, 냉동실에 그거 허영 놔둬도 웨는구나.

107018 #1 막 빨아근에.

107018 @ 아아, 냉동실에 놓는 거는 저 뭐행 놔두야 웨는 중 알안. 썸양은에.

107018 #1 막 빨아근에.

107018 @ 예.

107018 #1 그걸 영 문지그멍 빨아근에 물 싹 짜똥은에 칼로 썰영. 썰어근에 껍에 한번 먹을 거만씩 담양 냉동 딱 헛당 겨울나걸랑 느물국, 느물 처날 뻘랑 호박입국을 믹물카루 놓고 헤영 끊여봐봐.

107018 @ 믹물ㄴ르로예?

107018 #1 믹물ㄴ르 냥.

107019 @ 케민 막 으깬은에 썸으는 거 아니예? 으깬은에. 알앗수다. 이런 식으로 호박입. 뿔망국은 어떻 끓이는 거?

107019 #1 뿔망국[뿔망쪽]은 저, 뿔망국은 기자 집의서 큰일 때에 도새기 숲아나민 그것에 대개 헛니다게.

107019 @ 음.

107019 #1 경허민 도새기 다 숲아나민 건져똥 뿔망 농곡 무수이파리. 그 뿔망만 놓민 별로 또 뿔망도 경 하지 아녀곡.

107019 @ 음.

107019 #1 별로고 무수이파리 서꺼사 더 맛있주. 무수이파리 서경 그레 가마솥디 낡 막 허당 다 끓러지걸랑 믈물크루 캥 뇌근에. 아무튼 믈물크르가 들어가사.

107019 @ 예.

107019 #1 믈작허곡. 경혜영 끌렁 먹읍니다.

107019 @ 거난예, 조사를 허당보면 성산 요쪽엔예 그 들망국 헐 때 꼭 무수섭을 뇌.

107019 #1 음 무수섭 뇌야.

107019 @ 시에는 무수섭을 안 놓거든.

107019 #1 몰랑 그거우다.

107019 @ 예. 무수섭을.

107019 #1 따시랑 무수섭 낡 허렌 험서.

107019 @ 예, 무수섭을 낡 험 게 진짜 맛좋은 허멍 경 허더라고예? 시에서는 몹 쿡허지만 여기는 돛국물?

107019 #1 예, 돛국물.

107019 @ 몹쿡이렌 말은 언 썩지예?

107019 #1 들망국에는 안 허주. 기자 야, 돛국물.

107019 @ 돛국물예, 예?

107019 #1 게난 잔치나 허젠 허민 돛국물 헐 거 행은에. 만약에 무수섭이 좀 엇 어져 갈 때면은 미리 해당 뇌두주게. 무수섭을.

107019 @ 보통 옛날은 잔치 겨울에 허니까.

107019 #1 겨울에 허곡. 이딘 겨울에만 해나난. 집의서만 허곡 허난. 경혜영 뇌듭 니께. 지금도 식당에 메끼민 몹국 나와양.

107019 @ 예.

107019 #1 들망국 나오는다 안 뉘.

107019 @ 으음.

107019 #1 전의 우리 험 것만이 맛이 안 뉘여. 그런 무수섭도 안 서끄곡 그자 들 망만 흐끔 해부난 안 뉘여.

107019 @ 게난 들망국 안 허고 다 돛국물이렌?

107019 #1 돛국물.

107019 @ 돛국물.

107019 #1 돛국물 먹으레 역불 가곡. 저 친척 어른덜이 무신 바빠근에 돛국물 먹 는 날 못 오민 “아니 어제 오커랍디게. 돛국물도 떡곡게.” 인사가 그거주. 돛국물도 떡곡게.

107020 @ 예전에 뉘지고기들을 워난 못 먹으난 돛국물. 알앗수다. 그 다음에 삼 춘 여기는 예전에 여기 오토미도 하영 난덴 헛잖아예? 솔라니?

107020 #1 올토미. 올뉘미.

107020 @ 올테미. 여기는 올테미합니까? 솔나니?

107020 #1 올테미고 솔래기.

107020 @ 솔래기국은 어떤 식으로 끓여?

107020 #1 아이고, 솔래기국. 솔래기국도 그건 무수에 끓려사 시원합니다.

107020 @ 예.

107020 #1 잔치 때엔 꼭 무수에 끓입니다.

107020 @ 아아.

107020 #1 신랑상에 신부상 할 거는 꼭 무수에 끓리주. 메역을 왜 하느냐? 미역 민드락해부난 경허당 안 산덴. 그런 방법엔 해근에 그거엔 해근에 미역 종륵 국에 안 허곡. 꼭 무수.

107020 @ 무수.

107020 #1 게민 시원해근엔에 그 솔래기국.

107021 @ 여기 저 뭇도, 제사 때도 미역국 안 합니까?

107021 #1 아, 제사 땐 미역국 허곡.

107021 @ 아아, 잔치 때만 미역국 안 허는구나?

107021 #1 잔치도 새각시 새스방밥 딱로 합니께게.

107021 @ 예, 예.

107021 #1 옛날에. 게난 그때만 그 미역 안 허여.

107021 @ 맞아. 생선만 허곡. 무 허고 두부 쪼끔 넣 헛던 거 같애예.

107021 #1 예, 예.

107021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메역국은 어떻 허민 젤 맛좋아마씨? 은평리 메역도 좋은디.

107021 #1 보통 장국 끓리는 디난에. 미역 장 풀어놔근엔에 미역 썰영 그자 혼디 놔근엔에.

107021 @ 으음. 그런 식으로 옛날은 다. 요즘은 뭐 저기 웬장으로 안 허지 안합니까? 메역국 허젠 허민?

107021 #1 아니, 우린 웬장.

107021 @ 아아.

107021 #1 웬장을 병원에도 큰병 걸린 가난 주로 웬장을 먹으렌.

107021 @ 웬장이 그렇게 좋은 거예?

107021 #1 웬장이 그렇게 좋덴.

107021 @ 예.

107021 #1 웬장. 물장 ㄱ튼 것에 끓리민 메역국은 지르륵헤영 안 좋아. 국물이 멀경허영 지르륵허영. 게난 웬장헤사 **.

107022 @ 웬장 하곡. 그 다음에 옛날은 냉국 하영 헤영 먹어서예?

107022 #1 예. 여름엔 기자 냉국헤영 먹엇주. 웨도 헤영 냉국 허곡 미역냉국도 허곡 기자 여름에는 냉국만 헤영 먹엇주.

107022 @ 우리 동네는 누물 솥양 낫당.
107022 #1 으, 누물도 솥양 허곡계, 미역도 허곡 웨냉국 하영 허고. 물웨.
107022 @ 제주도는 이렇게 냉국 하고.
107022 #1 물웨.
107023 @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당이니까. 이렇게 성계를 이 동네는 뭐렌 헛
니까?
107023 #1 옛날엔 귀, 귀.
107023 @ 귀 가정도 국을 끓려난 옛날도?
107023 #1 으, 옛날도 귀. 옛날에는 사가지 아녀난.
107023 @ 예.
107023 #1 돈 주멍 사가질 아녀난, 경 심허게 잡지도 안 허곡.
107023 @ 음.
107023 #1 귀 잡아다근에 미역국 끓리나 가시리.
107023 @ 예.
107023 #1 가시리 알지예. 가시리국에는 미역보다 더 맞아. 성계가.
107023 @ 아아.
107023 #1 성계가. 가시리국에는. 경혜여근에 달래마늘이 거릴 때 썰어낱 허민양
가시리국에는 완전 태와. 숨허고 성기는.
107023 @ 으음.
107023 #1 미역보단.
107023 @ 미역보다. 그 가시리도 종류가 으라 개렌 허멍?
107023 #1 마카시리 잇곡 대웅가시리 잇곡. 대웅가시리는 게 주로 우리 메여당
먹는 거고. 영 빨강헌 게 동글동글 이파리가.
107023 @ 예.
107023 #1 영 동글락헌 게 아니고 이 질어도.
107023 @ 예.
107023 #1 동글랑헌 그거고. 마카시리엔 헌 건 색깔도 거멍허주마는 막 이, 이
이파리가 막 이치룩 받은 거.
107023 @ 아, 옆으로?
107023 #1 마카시리는. 막 여라 개로 덤삭덤삭 받은 거.
107023 @ 예, 예, 예. 그런 거는 잘 안 먹어? 마카시리?
107023 #1 그거는 옛날에 풀만 헤낫주. 이 방 불르는 디 메여당은에.
107023 @ 마카시리로 풀허고 먹는 디는 이제?
107023 #1 대웅가시리.
107023 @ 대웅가시리로. 이런 가시리 종류도 이제해서 먹는 거예.
107023 #1 두 가지.
107023 @ 그 다음에 삼춘, 여기 보말? 고동. 여기 뭐렌 해? ㄹ메기?

107023 #1 보말은 보말이고.

107023 @ 예.

107023 #1 수두린 수두리고.

107023 @ 음.

107023 #1 춤ㄴ메긴 춤ㄴ메기고 문다께는 문다께고.

107023 @ 음, 그 보말 해갓고 국 혈 때는 어떤 거로 주로 해연?

107023 #1 에 우리 식당혈 때 보말 막 잘 좇아났수다. 보말 해영 허긴 우린 하영 난 허난에 기냥 기자 식당에 강 보민게 원 그축헌디게 우린 이녁대로 해녀덜대로 잡아다근에 허는 거난 막 풍부허게 낱 허난. 보말죽은 허젠 허민 열앙 솥앙 열아근 앙에 딱지 다 다듬아똥은에 그 물 국 끓일만이 농곡 그 양도 보말 양도 어느 만큼 행은에 사발에서 즈물즈물 끼여근에.

107023 @ 예.

107023 #1 똥 다 해쌍 경행 낱은에 미역 낱 끓리주.

107023 @ 보말은 메역**. 미역 낱 끓이고예. 삼춘, 여기 넙폐국도 끓여난?

107023 #1 아이고, 넙폐 오죽 좋은 거우과마는 이젠 엇어. 오염똥부난.

107023 @ 넙폐국은 어떻게 허는 거우과?

107023 #1 넙폐국도게. 넙폐 메여근에 바당에서 움막헌 돌 흙텡이에 낱 막 보병 왕.

107023 @ 아아.

107023 #1 막 부벼야. 막 부병 발로.

107023 @ 예.

107023 #1 발로 불량 막 부병 물에 깨끗이 씻어똥 와근에 솥디 낱 삶앙.

107023 @ 으.

107023 #1 삶아근에 푹 삶아근에 그릇에 덜어 놔똥스르 끓릴만씩 웅장에 놔근에 끓영. 믈물크르 농곡 해근에.

107023 @ 아 거기는 믈물크르 놔야똥예. 넙폐국예. 그 다음에 가시리도 아까 국 해?

107023 #1 예.

107023 @ 가시리도 국허고, 프레?

107023 #1 프레도 먹는 프레가 잇엇수다.

107023 @ 예.

107023 #1 먹는 프레가 잇주 즘진 거. 프레국도 막 좋읍네다.

107023 @ 아아.

107023 #1 가시리 서경도 막 좋고.

107023 @ 예, 것도 프렛국이렌 해예? 그 다음에 물훤 같은 것도 하영 먹어서예?

107023 #1 물훤게. 자리훤도 물훤. 생선, 생선엔 헌 거.

107023 @ 음.

107023 #1 생선으로 물훤하고. 소라도 물훤하고.

107023 @ 음.

#1 해삼도 물훤하고. 물훤 못하는 게 있어. 바다, 바당에 거 다 물훤도 허곡.

107023 @ 이 바당에도 해삼 많이 нама씨?

107023 #1 예.

107023 @ 으음. 토렴 이런 식으로 써 잇더라고양.

107023 #1 겨울에 이디양. 하나에 이 키로 짜리도 잇고, 이키로 오백 짜리도 잇고.

107023 @ 완전 크겏네.

107023 #1 아이고, 이만씩 이만씩 헤여. 저 먼바당에 강 잡아 와. 그런 거 흐루에 이십 키로씩 십 키로씩 헤너가.

107023 @ 음.

107023 #1 경 잡주.

107023 @ 여기는 해삼이 많구나. 그럼 여기는 옛날부터 토렴을 행 먹은 거라마씨?

107023 #1 옛날엔 돈 안 줄 때난게.

107023 @ 음.

107023 #1 옛날은 그 바당에 강 잡아 온 게 아니고, 그 돈 안 줄 때난 심* 잡질 아녀니까.

107023 @ 음.

107023 #1 그냥 속옷만 입을 때주. 고무옷 안 입영. 우리도 속곳만 입을 땐디 여기 저 개겏이 이디서 그 바당은 가젠 허민 흐 아이고 전봇대 흐 여, 그깁장 세와가젠 허민 흐 스무남은 개 세와야 그 거리라양.

107023 @ 아아.

107023 #1 겐디 눈 올 때가 많이 나. 해숨이.

107023 @ 해삼이?

107023 #1 눈 파딱파딱 오는디, 이 바당에 간에 물에 들언 보난 해삼이 이레착 저레착 이레착 저레착 막 그냥 모살 잇인 디영 머홀에영 막. 게, 속곡 입은냥 얼만 못 살주게.

107023 @ 게니까.

107023 #1 눈 올 때고 추웁은에에. 경허영 잠깐 잡아 에이구, 질구덕에 낱 그거 메삭메삭 지어아정 오랑 돈 안 줄 때난 토렴도 헤영 먹고, 기자 쫘양도 떡곡. 쫘으민 저 흐끔 물 빠정 또락또락허민 꼬들꼬들허주. 해삼 쫘양. 경도 행 먹고 해삼이 오죽.

107023 @ 잘도 좋은 건디?

107023 #1 아이고, 요샌 돈 주는 때문에 잡는 사름도 안 먹읍니다.

107023 @ 웃음.

107023 #1 서방도 안 줘.
 107023 @ 서방도 안 줘. 토렴이라는 거는 살짝?
 107023 #1 데우친 거.
 107023 @ 데우친 거. 옛날부터 온평리는 해삼철이 오민?
 107023 #1 예, 잔치 때나 뒤했 때도 그 해삼 토렴행은에 손님덜안티 대접허곡 해
 낫수게게.
 107023 @ 음. 많으니까예?
 107023 #1 그만큼 낱이 나고 돈은 안 주는 거난게.
 107023 @ 우리는 저쪽에는 구경도 잘 못허는 건디.
 107023 #1 잔치 때도 계속 그거 해낫수게. 돈 안 줄 때.
 107023 @ 아아.
 107023 #1 돈 주기 시작해부난 풀기 시작허난.
 107023 @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그것도 이제 물뿔 하는 거고예?
 107023 #1 음.

죽류

107024 @ 죽 같은 거 옛날에는 쌀이 부족허니까 죽을 하영 해영 먹엇잖아예. 죽
 은 어떤 죽들 해영 먹엇수가? 보통은.
 107024 #1 좁쌀로도 죽 썰 먹고, 보리쌀도 썰 먹곡. 쌀엔 현 건 다 죽 썰 먹주.
 겐디 피쌀로 쏜 거는 해영현 곤죽 닭앙 맛이 좋곡. 해영허난예.
 107025 @ 예. 그 곤죽은?
 107025 #1 곤죽이엔 현 건게 쌀.
 107025 @ 예.
 107025 #1 산뒤쌀로 쏜 건 곤죽.
 107025 @ 음, 건 아무 때나 먹지 못허지 아님니까?
 107025 #1 아무 때난 엇영 못 먹으난예. (웃음)
 107025 @ 거 곤죽.
 107025 #1 곤죽.
 107025 @ 예, 곤죽 맛 좋아예? 맛 좋아.
 107025 #1 계난 어떤 사름이 그때 나도 감기나 들러버시민 곤죽이나 혼번 얻어
 먹을 걸. 앓안 놀명 경 글은디 밤에 간 누난 복삭 독감 걸런.
 107025 @ 아아.
 107025 #1 아이고 계난 계메 뵈이 다 알아듣는 거난 경 말허는 거 아니엔 허명
 덜 해낫주. 복삭 독감 걸런 얼먹어낫주.(웃음)
 107025 @ 그 곤죽도 썰 먹엇덴마씨?
 107025 #1 오죽 어려와사.
 107025 @ 계난 감기 헐 때는 곤죽 같은 거 잘 썰 준 거라예?

107025 #1 으게, 밥 못 먹으난애.
107025 @ 음.
107025 #1 계곡 그 곤죽도 잇인 사름 썬젷주 웃인 사름은 좁쌀 조축 썬 주주.
107026 @ 조축예?
107026 #1 으.
107026 @ 계난 조축이 혼헌 거구나.
107026 #1 조축.
107026 @ 영양으론 조축이 더 좋은 거 닻은디 이제는?
107026 #1 더 좋주게.
107026 @ 예.
107026 #1 조축 좋주.
107027 @ 조축행은에 이제 쭈곡. 풋죽은 어떻허는 거?
107027 #1 풋은게. 풋도 것도 슻아사 주물렁 놔야 죽이 돼는 거. 동풋으론 맛이 엇주가게. 주물렁 낭게 쓸영 혼디 낭 썬.
107027 @ 평소에는 저기 풋죽은 잘 쭈지 안 허지 아넌니까?
107027 #1 사름 죽어사만.
107027 @ 음. 사름 죽어사만 풋죽 쭈는 거? 경행 그 사둔칩의예?
107027 #1 사름 죽어사만 이넹 집의서 헤도, 죽어사만 이넹 집의서 영장 낫다허민 우선은 죽을 쭈주게. 풋죽을.
107027 @ 아아.
107027 #1 이넹 집의서.
107027 @ 이넹 집의서부터?
107027 #1 들어오기 전에. 죽으민 죽을 썬근에 매장헌 어른덜이영 방상덜이영 다 먹어사 죽은 성복나사 들어오주.
107027 @ 으음, 계난 아예, 여기는 돌아가시면 여기는 풋죽부떠 쭈는구나예?
107027 #1 아파근에 안 살암직허다 허민 풋 어시민 풋 사당 놔뒤야.
107027 @ 요즘도 경 험니까?
107027 #1 요즘도. 요즘은 저 식당에, 병원에서 헤부는 따문에 죽을 안 썬 그디 강 돈 썬 상 허는 건디 그디 가기 전의깁장은 그디 가는 것도 혼 십년.
107027 @ 예, 예.
107027 #1 그 정도벱기 안 뵈수다. 그 전에는 집의서 꼭 죽을 썬야 돼.
107027 @ 으음.
107027 #1 그 죽 쭈는 의미는 뉘냐? 상제덜이 부모가 돌아갓다 허민은 탁 가슴에 맥히거든.
107027 @ 음.
107027 #1 그, 뜻이 그거랍니다. 탁 맥히니까 죽은.
107027 @ 내려가게.

107027 #1 얇은 거니까 그걸 내려가기 위해서 상제덜 가슴 뻐히지 아녕 내려가기 위해서 죽은 허는 거고. 계난 밥은 성복 그 입관혜분 다음에라사 관 소곱에 들 여뇌분 다음에라사 밥을 먹엇수게.

107027 @ 아아.

107027 #1 영장 날 때.

107027 @ 영장 날 때 그래서 이제 죽을 쑤는 거고.

107027 #1 예.

107028 @ 콩죽도 하영 혜 먹엇덴 허명예?

107028 #1 콩죽도 마찬가지로 기자.

107028 @ 콩죽은 어떻 식으로 혜마씨?

107028 #1 콩죽힐 때 콩그르만 낱 쑤는 게 아니고 보리쫄이든 쫄이든 흐뎡 놔사 쑤는 거난. 콩죽은. 계난 그것도 언물에 카근에 솟디서 언물에 카근에 아예 쑤민 되는 거.

107028 @ 쌀이랑 같이 것도 낱예?

107028 #1 젓으멍.

107029 @ 젓으멍예? 여기도 믰물축 같은 것도 쑤?

107029 #1 예, 믰물축은 이제도 믰물쫄 사당 행 먹주. 아프민.

107029 @ 아아.

107029 #1 감기 걸릴 때도양 믰물축 먹영 뜸 내와사 파뿌리 뇌근엔예.

107029 @ 예, 예.

107029 #1 경허영 먹어사 뜸 내우곡.

107029 @ 으음, 요즘도 삼춘은 믰물축은 행은에 쑤는 거고예?

107029 #1 예, 예.

107029 @ 나는 저쪽 성읍에 그때 행사힐 때 간보난 믰물축 행은에 처음 먹어반 마씨. 맛 좋더라.

107029 #1 성읍리?

107029 @ 예.

107029 #1 민속촌.

107030 @ 그 축제힐 때. 그 다음에 녹두죽?

107030 #1 녹두죽도 막 맛좋주. 풋죽보다 맛좋아. 녹두죽이. 겐디 녹두죽은 한약 먹는 사람은 못 먹는 때문에 녹둔.

107030 @ 예, 예.

107030 #1 경허는 때문에.

107030 @ 옛날엔 녹두죽덜도 그냥 하영 행 먹은 거 아니라예?

107030 #1 다 밧디 싱거근에. 녹두 돔비이 돔비. 겨울에는 앳인베기콩 두불콩엔 허영.

107030 @ 예.

107030 #1 그런 거 다 집의 싱것당 풀지 아녀난에 양석으로벳권 더 먹엇수가?

107030 @ 으음. 맞아예.

107030 #1 예.

107032 @ 경허고 삼춘, 갱죽이렌 현 거 들어봣디가?

107032 #1 갱이.

107032 @ 으, 갱이죽도?

107032 #1 갱이죽이주 갱죽이 아니고.

107032 @ 으, 으.

107032 #1 예, 우리도 막 썬근에 식당에도 풀아낫주.

107032 @ 갱이죽을?

107032 #1 존존현 갱이.

107032 @ 그 다음에 옛날에 쓸들 귀허민 느믈 하영 낡 국죽. 삼촌네도 국죽 먹어봣?

107032 #1 (웃음). 거 (웃음) 쓸이 죽곡 쉬정이 하민.

107032 @ 으.

107032 #1 거 국죽엔 안 행 기자 죽 쑤는 디 호박입영 무시거 놔근에 썬 국죽엔 말은 안 허고. 기자 으, 죽 썬 호박입 낡 죽 썬저 허주.

107032 @ 호박입도 낡 죽 썬?

107032 #1 호박입도 낡 코싱합니다.

107032 @ 아아.

107032 #1 그 죽 쓸 때에. 웃음.

107033 @ 호박입 낡 죽 쑤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 꿩죽 같은 경우?

107033 #1 꿩.

107033 @ 으.

107033 #1 예게, 꿩게. 옛날에는 막 총 쏘양 잡곡 약 낡 잡곡 헛수게게.

107033 @ 예.

107033 #1 으, 꿩 잡아다근에 죽 썬 먹주게.

107033 @ 음.

107033 #1 죽 썬 먹고. 예기덜 주리벵. 옛날은 주리벵허는 애기가 하난에. 주리벵허는 애기덜 꿩 참기름 불양 구웁 그 애기덜 맥이면은 살로, 앞가슴살로 맥이면은 그 애기덜인 원기를 돼살령이, 질 보약엔 허주 애기덜은.

107033 @ 아아, 꿩 앞가슴슬허고.

107033 #1 경허민 그때 시절에는 개 질루명, 사냥개 질좌근에 꿩 잡는 하르방이 잇어어양.

107033 @ 으음.

107033 #1 그 하르방이. 지금 꿩비에기가 막 너미 늙어벳주, 지금은.

107033 @ 지금은?

107033 #1 으, 정월에 깨운 비에기는 삼스월에 잡아야 돼곡.
107033 @ 예.
107033 #1 지금은 막 큰땡 돼벳주게.
107033 @ 예, 예.
107033 #1 예, 게난 삼스월에 깨운 땡이 그것도 지금 막 비둘기만씩 커벳주.
107033 @ 으음.
107033 #1 경혜영 그거 개 들앙 강, 막 그디 주문헛당.
107033 @ 으음.
107033 #1 그 땡비에기 잡아다 줍센 혜영. 그거 사다가 에기덜 보약으로.
107033 @ 삼춘도 그렇게 혜영 키워?
107033 #1 아니 우리 애기덜은 경허지 아년.
107033 @ 경 안 하고?
107033 #1 우리 애기덜은 짓이 하부난에. 난 놈의 애기 다 뻑이멍 키워시난.
107033 @ 아아.
107033 #1 우리 영심이 난 때 애기 세 개 뻑여서. 영심인, 영심이가 스월 저 스무드레날 나고, 이디 사춘 열나을날 나고 또 우리 갑장 아이 하나가 스무나흘날 나고 허난에 그 애기어명이 병 걸련에 병원에 입원헤부난.
107033 @ 음.
107033 #1 애긴 내놓고 입원헤부난 그 웨할망이, 웨할망이 기자 기자 우리 뉘 잠셔도 애기만 올민 안앙 돌아와. 젓뻑여 드렌. 우리 셋동세는 이 유방은 막 커도 짓이 윈 엇어. 윈 엇이난에 애기덜마다 그 옛날도 우리 아지방이 워낙 부지런허난에 우유 ㄱ르 나온 거.
107033 @ 예.
107033 #1 그 우유로 애기덜을 키워신디 그 막내 그 영심이영 ㄱ치 난 아덜은 나가 키워주. 육 개월 동안 젓 뻑여쥬.
107033 @ 으음.
107033 #1 그 친구 애기는 삼 개월만 뻑이고. 우리 씨어머니가 막 육허연.
107033 @ 음.
107033 #1 이젠 애기가 다 큰 디, 세 개 먹어나민 어명이 살아지느넨, 것덜 뜯어 먹으민.
107033 @ 으음.
107033 #1 게난 영심이는 제집아이고 둘리 스나이고 영심이는 제집아이, 게난 할망이 젓 아이고 영허난 부젓집 사름은 암만 무시거 헤도 미두허는 거주. 이거 보라, 이 년의 즈석은, 혼 직 먹어도 헤 허영 안 먹엄세, 안 먹엄세. 난 유방이 찻끌락헤도 여물이 경 하근에양, 여물이 하근에 젓ㄱ라 곱젓이엔 헨가. 막 애기덜 크는 짓이엔 곱젓.
107033 @ 으음.

107033 #1 곱것이엔 허멍 그냥 세 꺄 경 맥여시난개.
107033 @ 으음. 영양이 그만큼 많은 게 ** 그게 곱것?
107033 #1 곱것, 것 이름이 곱것엔 헤영.
107031 @ 으음, 맞수다. 그 다음에 득죽도 하영 헤여?
107031 #1 득죽은 이제도 썩 먹읍니께.
107031 @ 옛날은 유월 쓰무날은 득죽은 꼭 행 먹어?
107031 #1 예. 그 방법으로 그것도. 유월 쓰무날 뤼헌 방법이나? 옛날은 이거 해 각이라부난 .
107031 @ 예.
107031 #1 몸살. 붓는 몸살이엔 헌 게 잇주.
107031 @ 으음.
107031 #1 바당에 이 기운으로.
107031 @ 아아.
107031 #1 체질에 따라.
107031 @ 예, 예.
107031 #1 게민이 발 흔쪽허고 풀 흔 쪽허고 손이영 막 붓어양.
107031 @ 아아, 경 헤낫수가?
107031 #1 그런 뵙이 잇수다. 이 바다쪽에는. 게영 우리도 친정어머니가 그 뵙을 헤양. 그걸 허게 뤼민 몸살 허기 시작허민 막 털어.
107031 @ 으음.
107031 #1 막 털민 목 이불 두 개 세 개 더꺼도 소용없어.
107031 @ 여름에 학질?
107031 #1 여름이라도. 막 털어놓면은 그 다음에는 막 열이 막 내푸끄주게.
107031 @ 으음.
107031 #1 경 막 열이 내푸경 막 더홀해. 그것에 임시 조치혈 거는 고기, 바닷고 기 중에 슬치엔 헌 거 들어봄디가?
107031 @ 예, 예, 예. 슬치.
107031 #1 가시 찢르민 혼 나는 거. 그것이 약이라양. 그 뵙에는. 게난 그거 뵓머 리 강 그거 잡양 오는 사름 이시민 그거 빌어다근에 옛날은 돈 안 쥐. 이젠 거 막 비싼덴 헨게. 빌어다근에 그거 쪽 썩근앵에 죽 썩든 꿩리는 행 환자를 먹이면은, 먹 어근앵에 폭허게 더경 누민 그걸 땀이 왈락 날 거 아니우과? 게민 그걸 풀어져.
107031 @ 으음.
107031 #1 게민 그 뵙이 풀어정양 게난 그 슬치 구허지 못헐 땀 꺼문우럭.
107031 @ 예, 꺼문우럭?
107031 #1 꺼문우럭. 그거, 그거라도 헤여근에 그축허영 허영. 우리 어머니가 그 병 때문에 유월 쓰무 날 먹을 수 잇는 득으로 큰 거 안 허영.
107031 @ 으음.

107031 #1 쪼꼬만헌 득 허영은에, 그 먹어난 거 먹어도 그 뺑을 올린덴 허주.
107031 @ 아아.
107031 #1 경허난 그걸 이제 스무날 먹을 거난에 아흐레날 저녁이 밤이 잡앙. 잡
앙 그 풋 담으곡 행은앵에 그거 짧앙.
107031 @ 풋도 낱?
107031 #1 으, 짧아근앵에 물항 우의양.
107031 @ 예.
107031 #1 옛날엔 향아리 물 낱 먹지 아녜수가? 부억에.
107031 @ 예.
107031 #1 게민 물항 우의 그걸 짧은 걸 건정 특허게 낱당.
107031 @ 으.
107031 #1 뒷날 아침에, 뒷날 아침에 해, 해가 빨끗허게 올라 올 때에, 그 정짓무
똥에 앳앙.
107031 @ 예.
107031 #1 정지무똥에 지팡에 영 걸쳐앳아근에. 옛날은 정지무똥 다 지팡이.
107031 @ 예, 예.
107031 #1 잇어낱주. 지팡에 걸쳐앳앙 그걸 먹어양. 그걸 먹영.
107031 @ 해가 올라올 때.
107031 #1 으, 해 불끗허게 올라오민 그거 그것이 방법이라양.
107031 @ 예.
107031 #1 그축허영 그걸 먹어근에 허민 다 못 먹으민 요새나 세멘헛주, 옛날은
땅 아니우과? 마당이.
107031 @ 으음.
107031 #1 게민 그 자리에 그걸 파근에 거 물어병. 그 먹당 남은 거를.
107031 @ 음.
107031 #1 경혜근에양 나도 역은 후제사 어머니 뺑을 고쩌넛수다게.
107031 @ 아아.
107031 #1 삼년을 행 맥이난에 고쩌집디게.
107031 @ 그렇게 헨 삼년을 맥인 거라예? 아아.
107031 #1 유월 스무날만 허난.
107031 @ 으음.
107031 #1 붓은 것도 돌아가실 땐 엇언엔 돌아가섯수다게. 엔간이 못 건디주. 그
거.
107031 @ 게영 한 쪽만.
107031 #1 혼쪽만. 양쪽 다 안 붓어. 혼쪽만.
107031 @ 아아.
107031 #1 혼쪽만 풀 다리. 막 기자 민짜 붓어.

107031 @ 으.

107031 #1 계민 상에떡 잘 핀 거치록 맨짜허게. 켜디 그거 아프기 시작허민 막 멧 시간 동안은 대게 얼떡주.

107031 @ 그렇게 헨에 붓은 병을 무슨 병이렌 험디가?

107031 #1 것ㄴ라 허민 바당병엔 험니다. 병완에 가민.

107031 @ 바다병. 아아.

107031 #1 쫄물 바다에 계난 이녁 체질에 따라근에 그 병엔 험니다.

107031 @ 그, 처음 들어싼.

107031 #1 으, 그거 붓는 몸살 아너는 지방은 아너난에 처음 들엄실 거우다.

107031 @ 예, 처음 들고 또

107031 #1 웃드르 ㄴ쁜 딘 안 헛어.

107031 @ 그 방법 험갓고 득 험은에 먹는 것도 처음 듣는 거.

107031 #1 그 그치록험 그 병 고찌는 거.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삼춘 어제 여기 범벅 얘기도 헛주마는 범벅은 뭘로 험 먹언?

107034 #1 범벅은양, 우린 그 옛날에는 딘 거 옛언에게 보릿개역, 보릿ㄴ르.

107034 @ 보릿ㄴ르.

107034 #1 개역이 아니고 개역은 보꾼 거고. 보릿ㄴ르허고 밀ㄴ르허고 그런 것만 잇이난에.

107034 @ 예.

107034 #1 계난 밀ㄴ르범벅은 허민 막 아이고, 저디 밀ㄴ르범벅헛저. 밀ㄴ르는 그때 배급인가 무시거 험영은에 웨밀ㄴ르 웨밀ㄴ르 허멍 그 어디서만 들어오는 거.

107034 @ 귀헌 거예?

107034 #1 스뭇 귀험근에 밀ㄴ르. 야, 누게네 밀ㄴ르 산에이 밀ㄴ르저베기 험영 먹켄 험라. 얼마나 부러와낫수가게.

107034 @ 어어.

107034 #1 경험나신디 밀ㄴ르범벅은 허민 막 밀ㄴ르범벅 헛젠 허멍 막 허곡. 보릿ㄴ르범벅은 보통으로 다 동네서 다 험 먹으난.

107034 @ 음.

107034 #1 경험 감저 농곡 그 보리ㄴ르 농곡 감저 낱 둔탁둔탁 썰어와근에 솥양.

107034 @ 예.

107034 #1 솥아지민 거자 솥아지민 그 ㄴ루 우터레 낱.

107034 @ 음.

107034 #1 경 와근험에 또 불 계속 때면은 그 더운물이 ㄴ르 우에ㄴ장 올라오게 똤주.

107034 @ 예.

107034 #1 계문 그뎨 남죽으로 막 짓는 거라. 감저 막 헤쓰멍 그거. 계문 그 범벅도 얼마나 맛좋아.

107034 @ 음.

107034 #1 지금도 허민 그건 맛 좋을 거라.

107034 @ 예, 왜냐하면 감저난예, 예. 그런 식으로 허고. 느쟁이범벅은 여긴 안 허여?

107034 #1 느쟁이게. 믰들 곶아나민 느쟁이범벅도 경 아무디나 잇어낫수가? 옛날 예. 잇인디만 잇엇주.

107034 @ 느쟁이범벅.

107034 #1 느쟁이범벅게 믰들 곶아나민 그 우에 거.

107034 @ 계난 범벅허는 거는 감저 낱 허는 거구나예?

107034 #1 감저 낱사.

107034 @ 아, 다른 게 아녀고.

107034 #1 경허곡 막 답지는 사름은 감저 엇인 사름은 무우 낱도 험니다.

107034 @ 아아.

107034 #1 우리 혼 해양, 으, 올허깁장 삼년인디 올허 또 이 시월들 나민 그 축 제허는디. 혼인지축제헐 때.

107034 @ 혼인지축제예.

107034 #1 그때게 옛날 음식으로 헤근에 전통음식으로 헤근에 믰들범벅허고 믰들정기 지젇수게게. 하객덜 오는 사름덜 하나씩 맛 보렌.

107034 @ 예.

107034 #1 아이고.

107034 @ 올해는 *?

107034 #1 육지 사름덜토 다 먹읍디다. “범벅이 뭐예요.” “범벅이 뭐예요?”(웃음)

107034 @ 그러니까 그 저기.

107034 #1 버무리난 범벅이지.

107034 @ 으음. 버무리니까.

107034 #1 버무리니까 범벅이지.

107034 @ 여기는 혹시 다른 데 가면 쟁이로도 범벅헤낫덴 허는디 여기는 안 허여?

107034 #1 쟁이로 범벅?

107034 @ 예. 쟁이로 반찬허는 거 뭐 잇수과?

107034 #1 아, 반찬허는 건 우리 쟁이 헤당은에 저 뭐 간장에 졸영 떡곡양. 간장에 둥가낫당 지금 개장 허듯이.

107034 @ 허듯이.

107034 #1 거 막 맛잇주. 저거. 경허고 저거 쟁이는 다리 아프는 사름덜 쟁이 혼 말만 먹으면 다릿벵 고친덴 헤낫수다, 옛날에.

107034 @ 아아.

107034 #1 경허민 요 밑에 할무니는 쟁이 잡으멍 난산리 강 믰물 바짜와났주. 쟁이 잡앙 강 믰물.

107034 @ 아.

107034 #1 난산린 믰물 주로 가난에. 경행 그 믰물 바짱 오멍 헤났는디 그거 빼정 죽도 썩 먹고 그 저 장에 헤근엿에 젓갈도 담앙 떡곡 쟁이 기자 기자 솥앙도 기자 떡곡.

107034 @ 으, 아 솥앙도 떡곡?

107034 #1 으, ㄱ메기 솥을 때 기자 혼디 낡 솥앙.

107034 @ 아아. 쟁이를예?

107034 #1 ㄱ메기 잡을 때 잡은 거는 따로 먹젠 안 허민은 기자 혼디 낡 솥앙 경허영 먹는 거.

107034 @ 예전에 이렇게 그 해녀식당 보면 쟁이 헤갓고도 이렇게 반찬덜 나오잖아예?

107034 #1 튀경 농곡 예.

107034 @ 건 튀긴 거 건?

107034 #1 우리도 경 헤났어. 튀경.

107034 @ 그 해녀식당마다 가면 저쪽에 가면. 지금도 시흥리 가도예.

107034 #1 지금도 시흥 쪽에 저 오조리. 아니여.

107034 @ 시흥리에 그거 나와.

107034 #1 쟁이죽 나와주. 쟁이죽 험주. 게디 그 쟁이죽은 그거 저 뭐냐, 식으민 못 먹어양.

107034 @ 아아.

107034 #1 비린내 낡.

107034 @ 아아, 경허는 거구나.

107034 #1 으, 계난에 썩 낯당 손님가민 데핍실 겨우다게. 데평 쥐사주. 뜻뜻헌 때 먹어야주 식으민 비린내 나.

107035 @ 쟁이는 으음? 거고 삼춘 아까 이제 저베기 헨텐 허는데 여기 옛날 저베기는 뭘로 헨?

107035 #1 저베기는 밀ㄱ르도 허고 보리저베기도 허고 밀쳐베기도 허고.

107035 @ 밀쳐베기도 허고?

107035 #1 으, 건 기자 밀쳐베기 뿐이주.

107035 @ 그 다음에 이제 믰물쳐베기는?

107035 #1 믰물쳐베기도 허고. 믰물쳐베기는 귀허난에 귀허난에.

107035 @ 여기가 믰물은 안 나난 믰물쳐베기가 귀헌 거라에.

107035 #1 귀헌 거.

107035 @ 다른 동네만 믰물말 가난 믰물쳐베기만 헤 먹는덴?

107035 #1 우린 옛날에 감저저베기. 감저 뺏데기.

107035 @ 감저뺏데기.

107035 #1 그르로 빼정. 빼저당. 그 그르로 저베기허민 잘도 쫄깃쫄깃하고 맛싱주.

107035 @ 아, 그 감저뺏데기로 저베기 해연예?

107035 #1 뺏데기 뿌수왕.

107035 @ 것도 처음 들었수다.

107035 #1 처음?

107035 @ 이 동네는 감저를 하영 현 거 닳아.

107035 #1 감저저베기 하영 현 먹엇주.

107036 @ 감저저베기도 허고. 칼국수도?

107036 #1 칼국수는 칼로 썰영허난 칼국수주.

107036 @ 칼국수는 큰일 때는 칼국수 허는 거?

107036 #1 칼국수는 저 칼로 썬에 칼국수엔 허는 거고.

107036 @ 으.

107036 #1 옛날은 다 칼로 썰엇수게. 요즘은 기계 잇이난 기계로 확 빠민 돼주마는.

107036 @ 삼춘 여기는 그 제사 멩질 때예 칼국수 제사 지냅니까?

107036 #1 안 험니다.

107036 @ 아, 어느 동넨 가니까 새벽에 제 지내기 전에 칼국수해갖고 제 지내. 저 송당이나 선홀이나.

107036 #1 문제 지냄구나.

107036 @ 문제 전에예, 그 뒤를 칼국수. 세백국수. 세백국수엔 행은에.

107036 #1 아니.

107036 @ 여긴 안 험구나. 알아수다. 여기까지 행은에 점심 먹으레 가게.

107036 #1 응.

김치

107037 @ 삼춘, 이젠예, 김치. 옛날 이 동네서 그 징꾸해난 거?

107037 #1 징꾸.

107037 @ 징꾸, 어떤 종류 징꾸들 헛수가?

107037 #1 (웃음) 배추게, 쪽도 안 앓은 퍼데기 느물 거 퍼렁헌 거 소금에 절엿당. 그걸 김치로 해영은에 멜젓이나 버무럿당 고춧그르가 이시카.

107037 @ 으.

107037 #1 그대로 경해영 짐끼행 먹곡 또 무수김치는 이만씩 썰영.

107037 @ 예.

107037 #1 뭉탕뭉탕 썰영은에 것도 소금에 절엿당 그거나 흐뭇 대산이나 놓고

그 젓갈 낙근에 버무려놔당 것이 김치랏주.
107037 @ 그게 반찬이라예. 계난 그 배추김치.
107037 #1 으.
107038 @ 옛날 짐장허는 거?
107038 #1 으.
107038 @ 밧 갈 때부터 그거 저기 과정을 쪽 곁아줘봅서.
107038 #1 밧 갈양은에 그때는 요즘처럼 모종 낱 허는 때가 아니난에 씨 뿌령
헐 때 아니우과게.
107038 @ 예.
107038 #1 씨로 밧 갈양 듬상듬상 그거 낙근에 포부뜬 건 떼여벼뵤 흥나씩 키왕.
경허영 요새는 쪽을 아정허는디 그때 버작 퍼진 상태에서 징뀌.
107038 @ 으.
107038 #1 계난 이름도 징뀌.(웃음)
107039 @ (웃음). 그 다음 여기 춤늑물로도 짐치헤?
107039 #1 춤늑물은 저 츠메기짐치엔 헤영은에 여름에 지금도 험니께.
107039 @ 그건 무슨 김치마씨?
107039 #1 츠메기엔 허영.
107039 @ 여긴 츠메기렌 험니까. 춤늑물엔 안 허고?
107039 #1 츠메기.
107039 @ 여긴 츠메기예. 건 여름에 주로 허는 거. 물김치초 허여?
107039 #1 물김치. 츠메기로 물김치허민 무시거난 찻쌀그르나 허여 농곡 허민 새
콤들콤 새콤들콤 허주 익으민 막 좋아.
107040 @ 예전에는 그 저 뭐야? 나박짐치렌 험에 여긴 안 헤낫수가?
107040 #1 나박짐치가 거 무수로 허는 거 아니?
107040 @ 으.
107040 #1 무수로 나박짐치, 너박너박 씨난 무수 나박김치. 그거 말고는 즐게 허
는 거는 나박으로 썰영.
107040 @ 음.
107040 #1 압짚허게 썰영은에 물김치허곡.
107040 @ 음.
107040 #1 또 기냥 김치 양념 무청 먹음도 허곡.
107040 @ 먹음도 허곡.
107040 #1 거는 깍두기엔 헤근에.
107041 @ 건 깍두기렌 허는 거예?
107041 #1 음.
107041 @ 건 요즘도 허는 거고. 그 다음에 봄 뵤가면 동지짐치 옛날은 하영 헛
짚아예?

107041 #1 동김치.
107041 @ 아아.
107041 #1 동지가 아니고 동김치.
107041 @ 아아, 여기는 동김치엔 험니까?
107041 #1 나물 동이난.
107041 @ 아아. 계문 우리 시에서는 동지렌 허거든.
107041 #1 동지?
107041 @ 으. 건 겨울에 이렇게 험 거 쪽 올라온 거예?
107041 #1 으, 동김치.
107041 @ 으 동김치. 아아. 계난 제주도가 정말 넓다니까. 계난 이거는 옛날부터
해난 거 아니?
107041 #1 지역마다 다 틀리주.
107041 @ 으.
107041 #1 옛날에는 김치 종류가 드룻마농 잇지이 달래.
107041 @ 예, 예.
107041 #1 그거 막 역불 그거 김치 우리 클 때도.
107041 @ 아아.
107041 #1 그거 밧되 가근에엥 평마늘엔 허멍 또 소금물에 절엇당 양념 엇일 때
고 허난 그냥 소금물에 등가냥.
107041 @ 예,
107041 #1 영 즈지 짓으멍.
107041 @ 음.
107041 #1 계문 그것이 익으면은 색깔도 누렁허곡 시큼시큼허주게.
107041 @ 음.
107041 #1 그 마농김치가 그렇게 맞셔.
107041 @ 음.
107041 #1 감저 쳐근에 그것에 조청 툄, 툄허영 널어난디 문디리면은 비 자꾸 와
나민 노랑케 밧주. 툄이.
107041 @ 예.
107041 #1 계민 그 툄 좃어당은에 싯어뵤 마농김치에 영영 싸멍 그거 먹어.
107041 @ 계문 그 김치를 무슨 김치렌 ㄱ는 거라마썌?
107041 #1 마농김치엔 허주.
107041 @ 그냥 마농김치?
107041 #1 그냥 마농지시. 지시엔 허주.
107041 @ 마농지시예? 그러면은 대신이로 마농지신 안 허여?
107041 #1 대신이로는 저 대신이로는 그자 늘차 허멍 지저 먹곡 데우청 먹곡.
107041 @ 음.

107041 #1 그치록허고 마농지시는 드룻마농 해당.
107041 @ 요즘은
107041 @ 장아찌엔 허주.
107041 #1 짱아찌렌 허주.
107041 @예전에는 마농?
107041 #1 마농지시. 짱
107043 @ 마농지시렌 허면 그걸 마농이렌 허는구나. 아아. 마농예, 예. 그 저기
과로도 됩니까?
107043 #1 으.
107043 @ 파, 우리 쪽파?
107043 #1 아, 쪽파.
107043 @ 예, 걸로도 김치해난?
107043 #1 으게.
107043 @ 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7043 #1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쪽파도. 이제도 경험니다. 이제는 양념을 버
무리난 거주. 것도 배경 손봐근에 소금물에 절엇당은에.
107043 @ 소금물에만.
107043 #1 소금물만 요즘은 양념 낱 허주. 쪽파김치, 패마농엔 허주. 패마농.
107043 @ 여기서는 패마농예, 예.
107043 #1 패마농.
107045 @ 그 다음에 배추 말고 요즘은 갓김치렌 허지마는 여기는 뭐렌 해, 갓을.
107045 #1 아 옛날에 저.
107045 @ 갓늑물.
107045 #1 지금 갓늑물.
107045 @ 으.
107045 #1 갓늑물엔 해낫수다게.
107045 @ 예예. 그거는 안 해?
107045 #1 무사 합니다.
107045 @ 갓늑물만으로도 김치 허여?
107045 #1 경허민 요즘은 갓김치.
107045 #1 옛날은 갓늑물김끼예.
107045 @ 옛날은 갓늑물김끼예, 예. 그 다음에 세우리도 김끼해?
107045 #1 예, 세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107045 @ 음.
107045 #1 그때도 세우리엔 허고. 요즘 말론 부추엔도 허고 정구지엔도 허고. 옛
날에는 세우리.
107046 @ 세우리. 그 세우리김치헐 때는 어떤 식으로 해마씨?

107046 #1 우리 그건 절엿당은 안 허곡 그냥.
 107046 @ 으.
 107046 #1 절이지 아년 상태에서 양념 버무렁.
 107046 @ 음, 뭐 어떤 양념을?
 107046 #1 양념 다. 고춧ㄱ르여 마농이여 무시거여 다 빠져 낱. 마농지시에는 마
 농이 안 들어가도 새우리 정도는 마늘이 들어가주.
 107046 @ 멜컷도 낱 험니까?
 107046 #1 예.
 107046 @ 멜컷 낱은에 이제 하고예?
 107046 #1 예.
 107042 @ 옛날 그 늠삐짐친 어떤 식으로 담아마씨?
 107042 #1 늠삐짐치 저 쥐 뭐냐게 각두기는 썰어근에 동글동글 썰엉은에 소금
 절엿당 물에 확 초불 싯어뵤은에 각두기고. 너박김치여 통김치는 그자 뭉탕뭉탕 썰
 엿단 소금 절엿당은에 허민 딱 제경와뵤. 요즘은 고춧ㄱ르 낱 허민 막 시뻘경허게
 먹음직스럽주게.
 107042 @ 옛날에는 그냥.
 107042 #1 옛날에는 그대로게. 고추 엿일 때.
 107042 @ 고추 엿인 때는. 그대로.
 107042 #1 그대로.
 107042 @ 작년에 어디 갔더니 늠삐헛갓고 그 체에?
 107042 #1 으, 무수체
 107042 @ 아니, 무수체 말고예, 그 산디체 거기에 묻엉 낱당도.
 107042 #1 아아 그거는 다팡 대신. 지금 다팡 단무지 대신.
 107042 @ 그 이름 뵤렌 헛수가?
 107042 #1 여기서는 그것을 단무지에는 허는다.
 107042 @ 예.
 107042 #1 색깔 안 낱.
 107042 @ 안 낱.
 107042 #1 기자 늠삐 물리왔당.
 107042 @ 으.
 107042 #1 물리왔당 허는 거.
 107042 @ 그 김치를 뵤렌 곶아라마는게.
 107042 #1 으음.
 107042 @ 여기는 그냥 다팡이렌 허여?
 107042 #1 색깔 안 놓은 거 다팡.

젓갈

107048 @ 그런 식으로 이제 행 허고. 젓같은 뭐 담았수가?
107048 #1 젓갈.
107048 @ 예.
107048 #1 옛날은 주로 자리젓 멜컷을 헤신디양.
107048 @ 예.
107048 #1 이 오염되는 통에 이 부락에 휘해도 맛싯곡 즐곡 빼덜 약헤여근에.
107048 @ 아아.
107048 #1 브들브들 헤영 종텐 세여낫수다게.
107048 @ 음.
107048 #1 우리집의 하르방도 자리 거리레 멧 년 텡겨나신디 배 잇인난. 경헤신 디 오염웨연 자리가 싹 도망가는 바람에 이젠 자리젓은 어렵고 멜젓벧기.
107048 @ 요즘 멜컷?
107048 #1 멜젓 성산포서 사근에 멜젓벧기.
107049 @ 삼춘 자리젓 잘 담가난마씨?
107049 #1 자리젓은양 사 대 일 농민 딱 맞입니다.
107049 @ 사대 일, 건 뭐가?
107049 #1 저 자리가 사 키로면은.
107049 @ 예.
107049 #1 소금 일 키로 노민 딱 맞아.
107049 @ 아아.
107049 #1 고리지도 안 허곡 짜지도 안 허고 딱 맞앙 줍니다. 자리 거릴 때 계속 자리젓을 허난게.
107049 @ 으음. 자리젓 거리레 갈 때 뭇로 아까 배?
107049 #1 베로, 베로.
107049 @ 베로 옛날 터워 아니?
107049 #1 터워가 아니가 우린 배 쪼꼴락헌 배. 무사 자리 거리곡 헤신고 허민 벵 걸련에 간암 걸련에.
107049 @ 음.
107049 #1 혈 때에 병원에서가 바당 공기를 많이 마셔라.
107049 @ 아아.
107049 #1 바다 공기를 많이 마셔야 건강을 헨다. 경허니까 이젠 이디 오란 경허 니까 이젠 이디 오란 이녁 배가 엇이난 놈의 배에
107049 @ 아프고 허니까.
107049 # 한두 번이 돼지. 미안허니까 쪼꼬만 배를 산. 산에 동서를 어른 돌리 부쩍. 경허영 자리 하영 날 때난 자릿그물 멘들앙 자리 거려신디.
107049 @ 음.
107049 #1 가민 경 거령 오민게 또 폭는 것도 놈보다 더 쥐불주게. 웨도 이만씩

쥐불꼭 막 그뎨 남으민 쥐불민 경허민 막 또 혼디 동서 어른은 “아이, 이 영심이 아방ㄴ라 돼지 말렌 허여. 나가 허커라.”

107049 @ 음.

107049 #1 막 그자 계난 그자 주는 성질이라부난 경 쥐불어.

107049 @ 음.

107049 #1 경허민 아방은 경 곤주게. 난 배소곱에서 태어날 때부터 놈을 주라허 연 태어나부난 안 주고는 못 준댄양. 이녁이 안 마음이 막 뒤희영. 지금 현재도양 그것도 진짜 팔즌ㄴ라. 무주껀 쥐야 돼지 안 쥐서는 마음이 막 불안행 못 산댄.

107049 @ 그니까 팔자우다, 예.

107049 #1 팔자 팔자. 지금도 어제도 봅서. 나가 항상 곤주. 엇인 거는 주렌 말 허지 맙서. 곱으면은 아방은 주레 그거 어떻 쥬 일이우파? 계난 항상 엇인 거를 잇어도 아방은 그거 어떻 쥬 나 부제엔 곱아벗저.

107049 @ 아들덜 잘 쥬난 부자엔.

107049 #1 아들들사 잘 별주게. 우린 나 항상 곱아. 놈들이 아덜이 잘 쥬민 자랑을 험주게. 자랑헤가민 안직 아이덜 살 날이 멀엇수게.

107049 #1 음. 자랑허는 거 아니. 자랑허당 만약에 잘못쥬민 그 어떻 쥬 겨우과? 얼마나. 계난 절대로 자랑이나 허지 말렌. 우리 아덜 혼들에 멧 백만 원 받고 일년 연봉이 멧 천이고 어떻허고 막 곱아. 자랑이랑 허지 말아. 자랑 허지 말아. 난 일절 자랑. 우리 아덜덜 경 잘 쥬도 물론 사름이 하. 동네서. 사름덜.

107049 @ 여기 안 사니까.

107049 #1 경 잘 쥬 중 물론 사름이 하. 쥬 난 아방 그치록 헤여가민. 그런 말 허지 맙서게. 아직 가네 살 일이 구만년인디. 사람일이 어떻 알아집니까. 사업만 아녀민 쥬다. 사업 안 쥬민 쥬다 허지만 직장도 멧기는 절대 자랑은 안 허는 겨우다 게. 경 곱아집니다. 자랑허는 거 아니.

107049 @ 어쥬든 뭇 이제

107049 #1 예.

107049 @ 사대일로.

107049 #1 예, 예. 거는 사 대일.

107049 @ 사 대 일 허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머리도 못양은에 험니까? 삼춘 어떤 식으로.

107049 #1 머리양, 그냥 무신 걸로 멧는게 아니고 자리젓 허젠 허민.

107049 @ 예.

107049 #1 옛날에 큰 전복 꺾덕, 전복꺾덕으로 놀러났수다. 전복꺾덕 헤근에 소금 버무려근에 전복꺾덕 엄지로 심어근에 영영영영 놀리면은 머리가 흐쫂 멜썩멜썩 거 웨냐 고리카부덴.

107049 @ 으.

107049 #1 소곱에 소금 안 들어간. 경헤근에 영 멧는게 아니고 영 놀러근엔에 항

아리에 답해주.

107049 @ 소금해난 다음에.

107049 #1 소금 버무려놔.

107049 @ 버무려놓은에.

107049 #1 소금물 잘 들어가렌.

107049 @ 예, 예, 예, 예.

107049 #1 판 걸로 겁떡으로 허나 겁뎡 잇이면은 웨약세기.

107049 @ 음.

107049 #1 웨약세기 쫄 거리는 웨약세기 그걸로.

107050 @ 계난 이렇게 머리를 한 덴 허더라고예? 멜것은 어떤 식으로 담아마씨?

107050 #1 멜것은 그자. 소금은 그대로 놓뉘.

107050 @ 사 대 일.

107050 #1 사 대 일로 놓대 건 놀리지 아녀도 됩니다. 멧것은 됩니다. 건 소금이 잘 들어가는 거난.

107051 @ 여기는 아우생이헙니까? 아구생이헙니까?.

107051 #1 어우생이, 어우생이.

107051 @ 어우생이로도 젓갈 담아봤수가?

107051 #1 어우생인 그건 저 무신 거냐? 갈치 어우생이나.

107051 @ 음.

107051 #1 양, 솔레기 어우생이나.

107051 @ 아, 솔레기도마씨?

107051 #1 솔레기도 하영 사당 헐 뎡 어우생이가 해주게. 거 맞서, 잘허민.

107051 @ 아아. 계난 솔레기 바당이난 그 말이 나오는데는 다른 디는 안 헛덴. 갈치는 헛는데 솔레기는? 고등어도 헛덴.

107051 #1 고등어도 창자 아우생이로, 어우생이로.

107051 @ 어우생이로 허고.

107051 #1 막 그건 저 맞은. 저 무시 것도 멡테 어우생이도 막 좋주.

107051 @ 음. 거는 멡테 사당 그것도 허는 거고. 그런 것도 소금이 사 대 일.

107051 #1 예. 아니 그 어우생인 그 정도는 사 대 일이 안 뉘주.

107051 @ 음.

107051 #1 건 아멡해도 뭐 헐사 뉘 거라. 우린 그건 짐작 삼양 영 버무렷 해나난 그런 어우생이 젓은. 하영 안 허는 거난 거는 안 떠보고. 멜허고 자리젓은 사대일 놓민 딱 맞읍네다.

107052 @ 계난 삼춘은 어우생이도 헐보고. 그냥 쟁이젓도 헐보고?

107052 #1 예게.

107052 @ 쟁이젓은 아까 소금 안 허고?

107052 #1 간장에.

107052 @ 간장에만?

107052 #1 존존헌 거난게 간장에 등갓당은에 곤 맞추민 밥 먹으로 잘도 맛십니
다. 존존헌 거난 쥬쥬헌 거 그냥 씹어먹주게. 그거 어금지 발만 떼여퓌. 영 접는 거.
그것만 막 저 존존헌 거난 막 부드러와근에.

107052 @ 예.

107052 #1 몸에도 좋곡 쟁이.

107052 @ 키토산.

107052 #1 예, 키토산.

107052 @ 예, 그 쟁이할 때는 어떤 쟁이로 짓을 답아?

107052 #1 아 그 쟁이는 기자 곳디 강 잡는 거난 춤쟁이 순스쟁이 똥쟁이 지름
쟁이 다 서꺼집니다.

107052 @ 아무 아무 쟁이라도 다 할 수 잇는 거예?

107052 #1 예. 흔 가지만 허는 게 아니고.

107054 @ 그 다음에는 우리 옛날에는 출레, 출레 영헛잖아예?

107054 #1 출레. 웃음.

107054 @ 뭐가 출레우과?

107054 #1 아니 이름이 출레. 자리젓도 지경 먹젠 허민 옛날에 전북 꺾덕으로 고
망 막양 그걸로 냄비 노릇헛수다. 막 옛날에.

107054 @ 음.

107054 #1 게난 (웃음) 그 자리젓이라도 놉근에 물 놓곡 해근에 보글보글 지지당
드릇마농 썰어놓곡 해영 출레 지지는 것에.

107054 @ 아아.

107054 #1 아이고, 반찬 엇이난 그것이 얼마나 맛싣다고. 출레 지정.

107054 @ 게니까 자리젓은 자리젓인디 그걸 갖고 반찬 만든 것ㄹ레 출레.

107054 #1 예, 예, 예. 무수도 잇이민 늣뻬도 썰어놓곡 해영 마농 썰어놓곡 지지
면양 그게 큰 반찬이랏주게.

107054 @ 게민 거기에 물을 같이 냅.

107054 #1 물 놉사주게.

107054 @ 그게 출레구나. 다른 자리젓을 출레렌 현 게 아니고예?

107054 #1 예, 예, 예.

107054 @ 예. 알앗수다.

107054 #1 냅 지져사.

장아찌와 회

107055 @ 그 다음에 삼춘, 아까 그 지시 담양 먹는 거. 지시는 뭘로 담은 거?

107055 #1 지시?

107055 @ 대산이 허는 식으로.

107055 #1 마농지시.
107055 @ 마농지시.
107055 #1 거 소금에 묻었은에 쫄물에 묻엇당 또 기자 근 맞게 행 쫄물에 등가 놓민 옛날엔 무신 것이 엇이난에양.
107055 @ 으음.
107055 #1 등가냥 기자 쫄끄만헌 단지에나 꼭꼭 등가놔근엥에 돌멩이 꺾딱헌 거 성장에 강 봉가당 놔두주. 대나무 헤근에 영영 짤랑 그 단지에 영 십자로 영허영 팔자 그 으답 가달로 헤영 우에 영 냥.
107055 @ 예, 예.
107055 #1 놔근에 이 여기다가 이 돌을 똑 지둘루민.
107055 @ 예.
107055 #1 그 대나무로 이 다 돌아가난에.
107055 @ 음.
107055 #1 게문 물이 물론디 엇이 다 들어갈 거 아니?
107055 @ 예, 예.
107055 #1 경헛당 익으민게 색깔만 누렁 헤근엥에 마농이 색깔이 누렁힙니다. 경허민 그걸 꺼내민게 쿠스릉헌 게 기자 시큼들큼 행 그거를 큰 반찬으로 허영 먹엇 수게.
107055 @ 그렇게 헤서 지시 답는 게.
107055 #1 그것이 지시.
107055 @ 마농이 잇고. 그 다음에 뭐 들망 이런 걸로는 안 헤봤수가?
107055 #1 들망?
107055 @ 들망으로 지시 답아보지 아녜수가?
107055 #1 들망?
107055 @ 들망?
107055 #1 예.
107055 #1 빨아똥.
107055 @ 그 물렁 장에 묻엇당.
107055 #1 빨아똥.
107055 @ 빨아똥 물렁 ㄱ치 담양은에 걸 큰 반찬으로 이쪽은 몰르더라고.
107055 #1 몰라.
107055 @ 계난 춤뚝.
107055 #1 믱음치.
107055 @ 예, 으, 계난 제주도 널르테니까.
107055 #1 예, 맞아.
107055 @ 경허영은에 허고. 유지는 유지시는 안 해난?
107055 #1 유 지시.

107055 @ 유?

107055 #1 꿏입?

107055 @ 유쩍.

107055 #1 꿏입. 옛날에 유 맞아.

107055 @ 그거는 지시 안 해봣디가?

107055 #1 무사 그거 지시가 아니고 짱아찌주게.

107055 @ 짱아찌로, 꿏입으로?

107055 #1 꿏입 콩입 다 짱아찌로 담앙 먹주. 지시가 아니고.

107055 @ 아아, 콩입도마씨?

107055 #1 예, 지금도 콩입도 따근에 콩입은 막 부드러운 거는 안 좋주.

107055 @ 예.

107055 #1 게난 흐썰 빠닥진 거. 늙은 거 간장에든 여름에든 반찬 막 줍니다.

107055 @ 아아, 옛날도 제주도에서는 콩입으로 경 해냇수가?

107055 #1 예예. 송기가 콩입을 많이 먹엇주게, 옛날.

107055 @ 예.

107055 #1 으.

107055 @ 간장에 그것도.

107055 #1 간장에도 등가도 꿏고.

107055 @ 으.

107055 #1 웬장에 묻엇당 먹을 때마다 꺼내당 거 지금도 맞서.

107055 @ 건 그 반찬을 무신 거렌 헤여?

107055 #1 콩입 짱아찌 묻은 거. 웬장에 묻은 거 영 곧주,

107055 @ 웬장에 묻는 거.

107055 #1 꿏입도 웬장에 묻은 거 영 곧주.

107055 @ 웬장에 묻은 거 콩입?

107055 #1 다 묻어 영 곧주. 꿏입도 다 묻어.

107055 @ 웬장 삼춘 반치엔 행 들어반마씨?

107055 #1 반치, 반치.

107055 @ 반치도 헛잖아예?

107055 #1 으, 반치 막 큰 나무 이파리 이만씩 현 거.

107055 @ 예.

107055 #1 그거, 그것도 짱아찌로 먹고.

107055 @ 그것도 간장에.

107055 #1 그것도 이파리 다듬아불곡 남뎡이 워낙 크난게 썰어근에 요샌 반치도 안 떡엄실 겨우다.

107055 @ 게난 반치도 웬장에 묻엉?

107055 @ 응.

107055 #1 계난 삼춘, 웬장에 묻고 장아찌렌 곶아?
107055 @ 아까 소금에 등근 거는?
107055 #1 으 징꾸.
107055 @ 건 징꾸.
107055 #1 마농징꾸. 웃음.
107055 @ 마농징꾸예. 그 다음에 양웨로도 헤난?
107055 #1 양웨는 저 짱아찌 허는 게 아니고.
107055 @ 음.
107055 #1 양에는 기자 양에 나가민 거 끊어근에 캐여근엔에 데왕도 먹곡 썩차
먹고 그 양웨는. 거 몸에 막 좋고 농약에 경 좋은 거라양.
107055 @ 아아,
107055 #1 농약
107055 @ 제허는 뭐가 잇구나.
107055 #1 그거예, 이디서는 독 제허는 거.
107055 @ 음.
107055 #1 남밭디 약 치레 강 오민 우선은 양웨 캐여다근엔 그걸로 웬장에 찍으
명이라도 밥 먹음네께.
107055 @ 아아.
107055 #1 농약 치레 가오민.
107055 @ 아아.
107055 #1 계영 위낙 심혈 때는 그거 득득 빠져근에 물 허영 혼 잔 먹어불곡.
107055 @ 아아.
107055 #1 농약 제거허는 거.
107055 @ 농약 제거허는 거?
107055 #1 예.
107055 @ 계난 양에로는 장아찌엔 안 행 먹어?
107055 #1 아니.
107055 @ 한번도 안 헤반 삼춘네?
107055 #1 장아찌 안 허곡 기자 이파리 밥 싸먹엇주.
107055 @ 이파리 그자.
107055 #1 밥 싸 먹엇주.
107055 @ 가을에 헐 때는 그냥.
107055 #1 장아찌 안 허고.
107055 @ 데청 무청 먹어예? 으음. 시에는 양에 장아찌 가을에?
107055 #1 양에 썩으로?
107055 @ 아니 썩으로 말양.
107055 #1 양에끈으로 허주.

107055 @ 으, 양에끈.

107055 #1 장아찌로. 양엣근으로 헤넌마다 행 먹읍네다.

107055 @ 기지예.

107055 #1 양에끈, 양에끈.

107055 @ 양에끈. 양에끈으로 짱아찌 허는 거예?

107055 #1 예.

107056 @ 그러면 이제 삼춘네도 요즘 대산이 장아찌 만들멘?

107056 #1 예, 흐끔씩은 허주, 다.

107056 @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맛 좋게 만드는 방법?

107056 #1 그냥 대산이 여물 까근에.

107056 @ 예.

107056 #1 우리 작년 것도 지금 먹당 쪼금 남아신디 저 무시 거냐 간장에.

107056 @ 음.

107056 #1 아이고, 그 이름 확 곤젠허난. 요새 그거 장아찌 허는 재료가 나오주.

107056 @ 뭐 미?

107056 #1 미향.

107056 @ 음,

107056 #1 미향 그것에 행은에 물에 끌렁 식으민 그 대산이에 헤영.

107056 @ 여물 까근에 허고.

107056 #1 으, 여물 짱.

107056 @ 그 대로는 안 헤?

107056 #1 아 대로는 마농.

107056 @ 마농지시는?

107056 #1 대로는 그거 저 대산이 처음 나올 때 비싸도 거 사당 요만이 현 통으
로 하나 행은에.

107056 @ 음, 삼춘네는 이제 뿌리로 하영 험구나, 그냥?

107056 #1 뿌리고.

107056 @ 음.

107056 #1 뿌리로 헤영허게 허젠 허민 그대로 소금물에만 헤사 헤영헤여근앵에
맛이 보기도 좋고 맛이 좋주.

107056 @ 소금물에?

107056 #1 간장으론 허민 색깔이.

107056 @ 예, 예.

107056 #1 붉으롱허고.

107056 @ 거기에 두 가지만 놔? 식초

107056 #1 식초 쪼끔 놔야주.

107056 @ 쪼금.

107056 #1 하영 안 낡 쪼끔 낡.

107057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당 동네니까 휘같은 것도 하영 먹어실 거 아니라양?

107057 #1 휘.

107057 @ 으.

107057 #1 휘 여기선양 상에, 상언디 비께가 엇어양.

107057 @ 예.

107057 #1 즈수덜 우리도 막 물질힐 때 거 찢러나신디 그 비께를 허민 비께 사시미가 쥬 맛십니다.

107057 @ 음.

107057 #1 술이 또락또락허곡예. 비켈 물에 들영 슴비당 하나 영 엉덕에 눈 거 보면은.

107057 @ 음.

107057 #1 그 동네 순비는 사름 다 오렌 불러. 혼자만 못해.

107057 @ 음.

107057 #1 하도 썬영.

107057 @ 음.

107057 #1 경허영 불러근에 오면은 즈너덜 댓이 오면은 소살로 다 아정 들어가 근에 들어강 소살로 찢렁. 망상이에 꺼꾸로 담아야정 곳디 휘여와. 불턱에 만약에 예를 들영 이십 명의 헤너가 있다. 찢러온 거 우리 다섯이만 찢러 왔다.

107057 @ 음.

107057 #1 게문 그거양 다섯이만 먹을 수 없어.

107057 @ 음.

107057 #1 게문 그 자리에서 칼 헤근에 그걸 다 거기서 벅경 도막도막 다 찢르 명 그디 잇인 사름안티 다 갈라 먹어.

107057 @ 음.

107057 #1 현 사름만 먹엇당은 이거 왕따 당헤 안 돼. 비께, 비께다 허면은 저만이 잇인 사름도 다 준다 허는 거, 비께.

107057 @ 아아.

107057 #1 구경헌 사름은 다.

107057 @ 잔치.

107057 #1 건 경행 먹어. 경허영 그거 휘 그거 헤영 떡곡. 자리휼 실피 잘 행 떡곡. 자리휼 이디 건 세는 자린디 엇어져벤 경허영 허는 거고. 휼 허는 거는 한치휼 하영 먹고.

107057 @ 여기도 한치도 하영 나마씨?

107057 #1 예.

107057 @ 이 바당에?

107057 #1 예 다찌도 다찌훤 좋곡. 바닷고기는 어랭이훤도 또 경 좋곡.
107057 @ 음.
107057 #1 어랭이훤 먹어봄디가?
107057 @ 물훤 맛좋아예?
107057 #1 물훤. 어랭이훤 좋곡. 훤는 싱싱헌 때는 다 행 먹주게.
107057 @ 옛날도 그렇게 헤 먹은 거라예?
107057 #1 예,
107057 @ 그 다음에 여긴 방어는 안 나?
107057 #1 방어, 아 잇어 이 바당엔.
107058 @ 모슬포 쪽에 잇곡. 그 다음에 그 이 바당 동네니까 계절에 따라 조림 들 잇지 아녀우광? 옛날도 조림 자리 지정 먹게.
107058 #1 지정 먹엇주게. 보깡 먹곡.
107058 @ 보깡먹고 지정 먹곡예?
107058 #1 보깡 먹게 헌 것이 이제사 생각해보민 조림이라. 물 잇이 바짝 보꾼 것이.
107058 @ 음, 지지거나?
107058 #1 그거 지지는 건 물 잇이게 지지는 것이 지지는 거고. 물 잇이 그게 보깡 ‘야, 자리 보끄라.’ 허주.
107058 @ 음.
107058 #1 게문 그것도 물장에보다 웬장에 보까야 팡이 더 부드럽고 더 맛잇어 양.
107058 @ 자리도 웬장에 보까마씨?
107058 #1 웬장에 보까야 까시가 더 부드럽고 맛좋아. 물장에 허는 거 보난. 대산이도 빠져놓곡.
107058 @ 아아,
107058 #1 대산이도 빠져놓곡.
107058 @ 게문 그렇게 해서 자리 한번 지지봅서.
107058 #1 자리가 잇어게.
107058 @ 게난 게난 말로?
107058 #1 아아, 게난 그거.
107058 @ 으.
107058 #1 자리 허민 “야, 지지라” 허민 지지는 거는 물이 시난 지지는 거고. 보끄는 거는 그 자리 놓곡게 웬장 물에 영 타근엔에 자리에 기자 자박허게시리 자리 우에 뜨게만 낱 대산이 썰어놓곡게 고추도 놓곡.
107058 @ 음.
107058 #1 뭐헤근엔에 기름.
107058 @ 예.

107058 #1 기름 조금 낚야 돼예.
107058 @ 음.
107058 #1 쪼끔 기름 농곡 혜연에 물 바작허게 바작허게 보끄면은.
107058 @ 으음.
107058 #1 잘도 부드럽고 좁니다게. 저 물장에 헨 것보단.
107058 @ 물장에 헨 거보단예. 게문 아아, 그게 자리 지지는 거.
107058 #1 으.
107058 @ 게문 우리가.
107058 #1 자리 지지는 거.
107058 @ 이렇게 하면 계절에 따라서 우력도
107058 #1 이제도 조림합니까.
107058 @ 우력은 어떤 식으로 헛수가?
107058 #1 우력도게 마찬가지로. 우력은 물 잇게 혜근에 그것에 요즘은 옛날은
혜도 요즘은 물엿도 쪼끔 농곡 양. 물엿도 쪼끔 농곡 그것에 마늘 농곡 파 놓고 무
시거 농곡 다 허영 쪼려. 고춧ㄱ를 놓고. 경혜영 쪼려근에 우력조림.
107058 @ 옛날 우력 쪼령 헐 때 허면은 보면 콩도 넣은예.
107058 #1 콩?
107058 @ 콩자반? 여기는 콩 안 낚?
107058 #1 우린 콩 안 낚.
107058 @ 콩허고 마농지시하고 같이
107058 #1 지지는 거.
107058 @ 여기는 지지는 걸 경혜마씨?
107058 #1 지지는 거주.
107058 @ 보끄는 거 하고 지지는 거.
107058 #1 틀리주게.
107058 #1 보끄는 거는 고기가 바작허게시리 보까내는 거고. 지지는 건 지지는
건 물 잇이.
107058 @ 물 잇게. 지질 때 하는 거고예? 그 다음에 고사리 무침 옛날 고사리
무침은 어떻허는 거?
107058 #1 고사리 말른 거는 그걸 또 삶양.
107058 @ 예.
107058 #1 삶으면은 벉들벉들 먹기 좋게 물에 담갓당. 고사리가 독성 잇젠 험니
다.
107058 @ 예, 예, 예.
107058 #1 물에 담갓당은에 다 우려나오민 무치는 거? 무치는 거? 게문 거 그대
로 무침은 안 돼주.
107058 @ 그러니까.

107058 #1 양념 다 낱 버무려낱 후라팬이드 뭐든 행은에 보까야주.

107058 @ 음.

107058 #1 경허는 겨우다.

107058 @ 게니까 예전에 저는예, 어렸을 때부터 고사리 막 꺼끄레 가는 거는 봐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말린 고사리. 제사 때밖에 먹는 거 안 봤거든요? 요즘은 늘 고사리들 혜근에.

107058 #1 늘 거, 늘 거 혜영 겐디 늘 거는 막 헤싸져볼주, 보까가민.

107058 @ 음.

107058 #1 퍼져병.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겐디 제사 때는 늘 거는 올리기 말렌 험니다. 이디선.

107058 @ 아아.

107058 #1 늘 거는 웨냐하면 제사 때는 산에 거니까, 산에서 난 거기 때문에 날 거는 하지 말라 허주게.

107058 @ 으.

107058 #1 날 것도 우리도 반찬으로 그냥 혜 낱당 먹는다 거 좋아. 그거는 기자 삶아 논 거니까 물에 담갓당 얼음만 풀어지민 얼음 풀어지걸랑 양념 싹 험에 조물 조물 서꺼놔근에 그대로 보깡 후라이팬에서.

107058 @ 요즘은 그런 식으로 혜근에. 옛날은 다 말렸는데.

107058 #1 요즘 그거 허민 요즘은 양념을 조개다시다.

107058 @ 예.

107058 #1 그거 낱 서깡

107058 @ 조개 같이.

107058 #1 메리치 다시다 말고 조개 다시다.

107058 @ 조개다시다예?

107058 #1 조개다시다.

107058 @ 다 자기 테운 것이 잇인 모양이여.

107058 #1 옛날 식으로 아무 것도 안 낱은 별로 기름내벳기 기름 맛벳기 엇주게.

107058 @ 경허고 삼춘, 옛날에는 보면 우리 그 제삿 때도 그 늑은호박?

107058 #1 으, 늑은호박.

107058 @ 늑은호박 무청은예 하영 먹지 아념니까? 데청.

107058 #1 호박메물험은예.

107058 @ 호박메물예?

107058 #1 제사 때 호박메물.

107058 @ 그거 어떻허는 거 곶아줍서.

107058 #1 거죽 벳기 꼭 씨 빼곡 행 동동동동 요만씩 몽클몽클 허게 썰영 물에 삶양 무치는 거 건져내영.

107058 @ 예, 거기에는 벨 거 안 놔도 맛 잇어예?

107058 #1 호박 든 호박은 막 맛있어. 껍허곡 지름만 놓민 되는 거난게.

107058 @ 경허면 식계집 가면 그거부떠 주지 안 험니까? 먹으렌.

107058 #1 옛날에 제삿 때 호박메물을 헤나신디.

107058 @ 예.

107058 #1 이젠 안 허여.

107058 @ 맞아.

107058 #1 이젠 안 허여.

장 담그기

107059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삼춘, 장은 하영 담아봘디가?

107059 #1 장은양 우리 처음 살림 살 땐예, 콩 닷 말씩 담아놨수다.

107059 @ 음.

107059 #1 콩 닷 말 삶으민 놉 빌영 일허고 헐 때난.

107059 @ 아, 그렇지예?

107059 #1 경헤난 허고 지금도, 지금도 메누리덜 다 장을 다 가져갑니다게.

107059 @ 아, 삼춘이 다 담양 줘구나.

107059 #1 서울이고 인천이고 딸이고. 웨냐허면 메누리 헤연 보난 우리가 파는 장을 일절 안 먹어집주게. 거 막 뒤 놓꼬 미그랑만 허곡 원 안 좋아근앵에 안 먹어 지는디 메누리덜토 헤연 보난 어머니가 담아준 장으로 먹엄십테게. 파는 장을 안 먹는다는 거라.

107059 @ 예.

107059 #1 게난 이젠 우린 장을 항상 묵영. 장을 닷 말 혼 말에치 혼 말에치 둘 이 아저가곡 영심이 아저가곡 서 말 에치 아저가민 두 말에치는 우리 먹다근에 남으민 새 콩 이제 저 겨울웨민 삶양.

107059 @ 음.

107059 #1 그거 삶아근앵에 그거 툄왓당 그대로 그 묵은 웬장에.

107059 @ 서경.

107059 #1 콩 삶은 물 놓곡 헤근앵에 서꺼근에 향아리에 또 담는 거라.

107059 @ 음.

107059 #1 담양 놔두면은 그 방법으로 고추.

107059 @ 예.

107059 #1 빨간 고추나 뭐 육지 사름은 슷은, 슷이영 놓는다. 슷은 엇이난 안 놓곡 영 놓는 안 빨간 고추 혼디 서경 해 놓민 그게 변허지도 안 허곡 장이.

107059 @ 예.

107059 #1 지금도 나도 서 말꺄장은 담아근에 웬장 헤근에.

107059 @ 음.

107059 #1 가네 날라가는 따문에 경 험니다.

107059 @ 항상예?

107059 #1 예, 항상.

107061 @ 그 장은 게문 언제 답아마씨?

107061 #1 그 장은 저기 저 선들에, 동짓들에.

107061 @ 음.

107061 #1 시간 잊어근영 메주 일찍 헌 사름은 동짓들에 남곡. 옛인 사름은 선들에 나사 담곡. 그거는 갈림은 언제 허느냐? 음력으로 이월들에, 선들에 동짓들에 담은 거는 에 음력으로 정월 선들 그믐 웨면은 갈림을 허고.

107061 @ 음.

107061 #1 또 이월에 시월에 못 허영 저 시월에 못 허영 동짓들 낱 선들 낱 동짓들 낱 메주허영 혼 들 동안 물리왕 선들 그믐날 담주. 물러래 등강. 경허영 담은 거는 이삼월 웨근에 갈림허는 거.

107061 @ 으음. 어느.

107061 #1 개월 수가 장물도 뭐허고 해야 웨난에.

107061 @ 게문예, 삼춘, 다시예? 우리 콩 손질부떠 헤갓고 장 갈림 헐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근에 콩 삶을 때부떠.

107061 #1 으음.

107061 @ 콩 씻은 것부터.

107061 #1 씻은 것부터 태작허는 거부떠.

107061 @ 소금은 얼마큼 놔야

107061 #1 그 만약에 닷 말에치 콩을 삶는다.

107061 @ 으.

107061 #1 게영 삶는다 허면 물은 옛날엔 허벽으로 집작해근에 담아놔수다. 그 향아리에 이 육짓향아리는 장맛이 엇넌 허주. 덜 난덴 허주.

107061 @ 예.

107061 #1 대정향. 대정향 장 담을 향은 대정향으로 담아놔수다. 우리도 지금도 있어. 대정향 장 담는 향. 그거 허민 저 으숫 허벽 메주 농곡 헤영 으숫 허벽 들 거민 그 다섯 허벽을 담아양. 물을 다섯 허벽 놔양. 다섯 허벽 놓게 웨면은 장물이 상당히 맛있주게.

107061 @ 음.

107061 #1 찢허영.

107061 @ 예.

107061 #1 잘도 맛있영.

107061 @ 혼 말에 혼 허벽이네.

107061 #1 그치룩해근에 향아리 헿 담양. 소금은 저 혼 말에 관웨로 두 개.

107061 @ 음.

107061 #1 웨로 웨영. 처음 무시거 허는 사람은 다라에 장 담을 때 소금물 녹여

근에 그 물을 뜯어놔 허곡.

107061 @ 음.

107061 #1 경 못한 사람은 소금 담은 잘리 멘들아근에 소금 담은 잘리 멘들양 장 담으멍 항아리에 들이청은에 그 잘리 움막 들어가지 못허게 끈 들양은에 항부리 [항뿌리]엔 영 즐라메영 소금 다 녹아시민 싱거우민 빨리 녹주게. 경허민 더 농곡 더 농곡 허는디 근은 딱 맞추젠 허면은 개탈?

107061 @ 예.

107061 #1 개갈을 들이치민인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 계란이 들어가민 장 간이 딱 맞는 거.

107061 @ 음.

107061 #1 그디도 경 험실 거우다.

107061 @ 예, 예.

107061 #1 경혜근에 장 허는 거.

107061 @ 예 예, 그러면 메주는 언제 삶으는 거우과?

107061 #1 메주 게게, 이거, 이거 음력으로 구시월에 삶아야 돼고.

107061 @ 구시월에 삶앙.

107061 #1 묵은 혜 돼민 장 담은 것도 날 안 보는디 구 시월에 헐 때는 날 봐. 날 뺑 삶주. 우리 이디서는 물날이 젤 좋덴 허주. 득날허곡.

107061 @ 아아.

107061 #1 메주 삶는 거. 득날 담은 것도 득날에 담으민 득날에 삶으곡 득날에 담으면은 벌거지가 없넨 허주게.

107061 @ 아아.

107061 #1 옛날 어른말이. 웨냐 닭이 그걸 좇어먹어볼기 때문에.

107061 @ 아, 그러네 벌레 먹는 거니까.

107061 #1 득날에 숨곡 득날에 담아.

107061 @ 경해도 득날에 집안에 본명일 잇인 사람은 안 담넨 허명예?

107061 #1 아니 우린 담아.

107061 #1 아니 우린 게도 담아. 우리 큰아덜이 득편디.

107061 @ 경해도 허고. 으음. 게난 득날이 젤 좋다 하고.

107061 #1 물날은 우리가 물띠라도 그냥 담는디.

107061 @ 아, 본명일. 건 안 굴렘구나예?

107061 #1 안 굴려.

107061 @ 므날이나.

107061 #1 물은 혀뜩헌 털이 탁탁 털어부는 때문에 물날이 좋앙 담은 거주.

107061 @ 털어부니까. 장에 다른 것들 이제 안 오는, 아아.

107061 #1 다 뜻이 그런 거랍디다.

107061 @ 예, 예. 그런 말은 누게가 알아주는 거우과?

107061 #1 난 이상허게.

107061 @ 어.

107061 #1 어릴 때부터 어른덜이영만.

107061 @ 검질메레도 가곡.

107061 #1 어른덜이영만 살아부난 거 막 늙신네덜 지금 살아시민 혼 백이십씩슬 백삼씩 난 할망덜 경헨 헤부난 베운 거주.

107061 @ 맞아. 몰라.

107061 #1 이상헌 덴 험니께. 유명허덴 험니께. 어려신디도 다 거자 알아. 아는 건 다 알아.

107061 @ 경허난 나가 조사험수게.

107061 #1 웃음.

107061 @ 이제 그치록 행은에 이제 장을 담고. 그 갈를 때 아까 장 갈림헐 때도 그때도 그냥?

107061 #1 아니 그때는 물장을 갈라야 될 거라부난. 메주만 툯툯 건져쥬.

107061 @ 아.

107061 #1 메주만 건지는 걸로 건져놔뵤 간장은 솟디 썬아야 돼니까.

107061 @ 아아, 간장을 한번 썬읍니까?

107061 #1 간장은 썬아야 돼예. 변허카부덴. 간장을 솟디서 이빠이 간장이 솟에 웨면은 요 정도로 느려가게 딸려야 웨여.

107061 @ 아아.

107061 #1 간장이 게난 옛처럼 맛이 잇읍니다게.

107061 @ 음.

107061 #1 막 맛있읍니다게. 간장도 그 해 그 해 먹어부는 게 아니고 이 년 삼년 색깔은 막 까망해도.

107061 @ 음.

107061 #1 맛이 그래도 잇주게.

107061 @ 게난 오래된 장이 약이렌?

107061 #1 맛이 잇어.

107061 @ 삼춘네 씨어머니도 썬읍디가?

107061 #1 다 썬읍니다. 느다.

107061 @ 서쪽은 안 썬아.

107061 #1 다 썬읍니다.

107061 @ 예.

107061 #1 간장도 나도 이 잔치 때도 뵤도 다 간장 이녁 장 행 낫당 웨지고기 먹을 때 이녁 장에 먹는 것광 푸는 장에 먹는 것광 맛이 확실히 틀려.

107061 @ 맞아예.

107061 #1 이녁 담은 장에 먹어사 고기맛이 훨썬 좋읍니다.

107061 @ 으으.

107061 #1 우리 큰일 할 때도 이 녀석 장 햇주 푼는 장은 아녀봤수다.

107061 @ 간장이 하영 안 나오커라예. 다 숯아부니까. 경허영 하고 웬장은?

107061 #1 웬장은 웬장 메주 막 풀어근에 막 끼영은에 하영 요즘은 밀그르 툴운 것도 사다 놓곡.

107061 @ 으.

107061 #1 누룩도 사다놓고 우린 지금도 그런 건 안 낡.

107061 @ 다 백 프로 콩으로만?

107061 #1 으, 그런 거 안 낡. 메주로만 끼영 묵은 웬장 남은 거 서꺼근에 기사 담양 먹읍네다.

107061 @ 장은 그렇게 돼면 이제 그 이만큼 좇아들게까지 끓영.

107061 #1 예.

107061 @ 경허영 항아리에 담양 놔두는 거.

107061 #1 식영은에 요즘은 병에 질어놔당 먹읍네께.

107061 @ 요즘은예? 항아리가 없으니까.

107061 #1 병에 다 질어놔당.

107061 @ 그런 식으로 물장 해영 먹고.

107061 #1 예.

107061 @ 경허면은 이제 한 햇동안 먹을 거를 할 거고. 여기 청국장 식으로 그렇게도 됩니까?

107061 #1 청국장양. 청국장 맛셔, 맛셔 그거 먹는 사람은 그것만 좋아합니다.

107061 @ 예, 예.

107061 #1 나가 흔번 텔레비에 보멍 청국장을 헛어. 콩 숯양 낡. 아니 국을 끌리 난 맛은 먹으난 좋은디. 하이고, 이 냄새가, 이 문을 으난 냄새가. 우리집의 하르방 이 처음 헤시난 퇴근행 오란에 문 열양 ‘아이고, 이거 무신 냄새닌’ 막 헤연. “청국장 찌개 헛수덴”. 아 먹으난 맛은 좋은디 냄새 통에양.

107061 @ 음.

107061 #1 절대 안 돼켤 헛 놈 다 쥐변 따신 안 허연. 냄새만 안 헛시민.

107061 @ 우리 제주도는 그런 식으로 안 헛어예? 청국장.

107061 #1 그 맛은 좋은디 냄새가? 냄새가 무사 경 냄새 남신디 몰라. 청국장이.

107061 @ 계난.

107061 #1 그거 허는 것은 어렵지 아넵디다. 청국장 허는 거는. 콩 숯양 띄와근 에 담는 것은 어렵지 아녀고 헛디. 아, 요즘 텔레비에 보민 청국장 막 청국장, 청국장. 아이고 저거 냄새 팍팍헛 거.

107061 @ 웃음.

107061 #1 아이.

107061 @ 고추장은 담앗지예?

107061 #1 예.

107061 @ 건 어떤 식으로 답옵니까?

107061 #1 고추장도 저기 물엿 농곡.

107061 @ 예.

107061 #1 소주 농면 갖을 안 써양. 흰 갖을 안 써양. 설탕 농곡 다라에서 그 물엿이여 무시거여 다 놔근에 끓여근에 그 물 식으민 다라에 고춧ㄱ를 농곡 그물 비와냥 막 짓엉. 경허영 이녁대로 답으민 맛도 더 잇주게. 푼는 거 무신 거 논 거라부난예.

107061 @ 믿을 수가 엇어.

107061 #1 그거허곡예. 고추도 보민 나쁜 고추덜양 혼디 곱앙 계난 김치 저 허는 고춧ㄱ르는 사온 거는 고추로 이녁대로 강 사근에 곱민 허카 몰라. 아이고, 그거 보민 버문 거 ** 돋은 거 무신 거 곱앙 허는 거 보민양, 계난 우리는 계속 싱거. 먹을 거.

107061 @ 아 먹을 거 다 싱겁구나예?

107061 #1 싱거근에 이녁대로 흰 장갑 쟁 고치 판짜 따까뒤근앵에.

107061 @ 음.

107061 #1 경허영 강 곱주.

107061 @ 계난 요즘은 고춧ㄱ를 아닌 걸 고춧ㄱ르엔 허영 푼는 생이라부난.

107061 #1 예, 아이고, 아니고. 아무 것도 믿을 수 엇입디다게. 뉴스에 보난.

107061 @ 예.

107061 #1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아무것도 믿을 거 엇입디다. 닭이든 아무 것도 먹을 거 엇입디다게.

107061 #1 다 무시거?

107061 @ 계난 먹는 거 가정은 장난을 말아야는데.

107061 #1 말아야주게. 하이튼 중국 통에 더허곡양.

107063 @ 그리고 예전에 보면 메주 숨거나 아니면은 장 담을 때는 뭐 허지 말라 허는 금기. 뭐 금기사항 잇지 안 허우과? 무신 날은 메주 안 숨는 날도 잇일 거고.

107063 #1 아아, 메주 안 숨은 날은 뱀날도 안 숨고.

107063 @ 으.

107063 #1 아, 소날은 안 숨고.

107063 @ 아아, 소날도?

107063 #2 소날은 웨냐, 소가 니치름을 허주게.

107063 @ 예, 예, 예.

107063 #1 영영 영영 곱명 니치름 잘잘허는 때문에.

107063 @ 으.

107063 #1 그 메주도 솥양 소날 슬망 만약에 쭉양 띄우는 과정에서.

107063 @ 으.

107063 #1 끈닥끈닥 너치름이 난덴 험니다.

107063 @ 아아.

107063 #1 소날 안 숲곡. 뱀날도 안 숲곡양. 쥐 날도 안 숲곡 도새기날도 동시에 허는 때문에 그 날도 안 숲곡 콩 숨는 거는 믈날 득날.

107063 @ 득날.

107063 #1 주로 허는 거는 그날이 제일 좋은 날.

107063 @ 너치름해근에 허고. 그런 거 몸엿거 곳인 거 오거나 허면?

107063 #1 장 돕는 그거는 골려보지 아녜수다.

107063 @ 장 담은 거는 엿고예?

107063 #1 그러는 거는 안 골려뵈. 산디뵈디 검질메는 거나 골려주. 안 골려주.

107063 @ 산디뵈디 것도. 삼춘, 지치지예.

107063 #1 웃음.

107063 @ 미안허영. 지청은예. 음. 떡흐는 거영 흐뵈 이신디 요만큼한 허지.

107063 #1 게메게 메틀을 헤영 이 책을 다 걷을 거라게.

107063 @ 게난 이제 메틀.

떡류

107064 @ 삼춘, 오늘은 떡허고 관련뵈는 거예? 옛날은 떡들 하영해서예? 떡은 어떤 종류들 잇어마씨?

107064 #1 그 옛날이사 떡엔 현 게 무신 떡이 잇엇수과?

107064 @ 으.

107064 #1 보리, 보리만뵈허고.

107064 @ 예.

107064 #1 만뵈엔 허주. 보리만두.

107064 @ 으.

107064 #1 보리만두허고 보리떡 묵도 헤먹을 때 보리묵 쭈고.

107064 @ 음.

107064 #1 그 옛날에는.

107064 @ 예.

107064 #1 예, 게 밥게 보리밥 서경 험 때난예.

107064 @ 음.

107064 #1 떡이 그거랏주. 무신 송편이 어디 잇고 무신 것이 어디 잇어?

107064 @ 그 다음예 여기 이제 식게허젠 허면.

107064 @ 음.

107064 #1 떡을 어떤 걸 만들영 현 거라마씨?

107064 #1 그 다음예.

107064 @ 으.

107064 #1 그 옛날 말고.
107064 @ 예.
107064 #1 그 다음에사게 시리떡도 청 허곡 솔벤 절벤.
107064 @ 으.
107064 #1 그 납작헌 거.
107064 @ 예.
107064 #1 솔벤 절벤 허곡게. 목도 ㅁ털목 쭈곡게.
107064 @ 음.
107064 #1 그 다음부떠는. 짓갈도게 질쭈질쭈허게 썰영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헌
것도 질쭈질쭈허게. 옛날 요치록 썰영 허곡.
107065 @ 예, 맞아. 손가락만큼씩예. 게믄 여기 시리떡을 친떡?
107065 #1 친떡.
107065 @ 아. 게믄 친떡을 만들젠 허면 재료는 어떤 걸로 허는 거라마씨?
107065 #1 쌀 물에 등갓당.
107065 @ 예.
107065 #1 건정 그거 옛날에는 방애가 엇이난.
107065 @ 예.
107065 #1 집의서 찍영.
107065 @ 예.
107065 #1 방애로.
107065 @ 으.
107065 #1 방애로 찍어근에 쪼꼬만헌 시리덜 이녁 집의 시리가 잇으니. 그 시리
에 놔근에 찢주게. 풋해근에 새새에 놔근에 징.
107065 @ 징으로.
107065 #1 경혜영 헛수게.
107065 @ 음, 게믄 삼춘네는 이제 식게허젠 허면.
107065 #1 으.
107065 #1 시리는 어느 정도 큰 시리로 헌 거라마씨?
107065 #1 그냥냥 옛날엔 막 갈라먹엇주게.
107065 @ 예.
107065 #1 방상에 다. 게난 혼 말. 혼 말 시리.
107065 @ 혼 말씩. 혼 말치 시리를 집에 이시는 거라예?
107065 #1 으.
107065 #1 지새시리?
107065 @ 지새시리. 아니민 어떤 시리?
107065 #1 지새시리.
107065 @ 그 지새시리에 떡을 치젠 허면 그 친떡은 허젠 허면 그 허지 말라 이

런 식으로도?

107065 #1 아이고, 부정 타근에 솟디 앓영 불습는다 부정 탄 사름 딱 오면은 그 시리 마게 막은 거.

107065 @ 예.

107065 #1 뱅허게 마게 막은 것이 이상허게 어디로 폭 터정 짐 나와불주게.

107065 @ 음.

107065 #1 게민 그걸 밀ㄴ르 카근에 또 부쩌도 짐 나오곡, 부쩌도 짐나오곡 떡 졸바로 안 웨영 그쪽은 설영.

107065 @ 음.

107065 #1 경혜영 막 부정은 탄 사름 왓덴 허멍.

107065 @ 거난예, 그 시리를 흔 시리 치젠 허면 쓸 이제 물 등그는 것부터 시작 혜영 쪽 글아봅서. 처음에?

107065 #1 흔 말 물 등강.

107065 @ 음.

107065 #1 즈늘민 폭삭 즈늘민게 건져근앵에게 방에에 뽏앙. ㄴ는체로 청.

107065 @ ㄴ는체로?

107065 #1 ㄴ는체로 처근앵에 그 우의 거 또 뽏으고 또 뽏으고

107065 @ 음.

107065 #1 경허영 마지막ㄴ장 문딱 뽏앙 물 쪼금 낱 버무령. 물맞게.

107065 @ 예.

107065 #1 것도 물 못 맞추민 떡이 막 떡 웨불곡 진짜로.

107065 @ 예.

107065 #1 익어근에 물 떡이 떡 웨불곡 진짜로 쪼끔 못 맞추민 쪼끔 혜삭혜삭 설어불곡. 게난 것도 기술자라사.

107065 @ 예.

107065 #1 그치룩혜근에 시리떡은 경헨 혜낫수다.

107065 @ 음, 그러면 그 맨 밑에 시릿고망은 몇 개?

107065 #1 시릿고망 다섯 개. 죽은 시리에는 다섯 개.

107065 @ 아아.

107065 #1 시릿고망이 다섯 개. 보통 다섯 개주.

107065 @ 시릿고망 막는 거는 뭘로 막아마씨?

107065 #1 아니, 무수,

107065 @ 예.

107065 #1 늣빠.

107065 @ 예.

107065 #1 늣빠 동글동글 썰어근에 그걸로 고망 툽툽 놔근에.

107065 @ 거 우에 노는 거. 그 다음에 놓면.

107065 #1 그 다음엔 떡쉬 낱. 풋쉬 낱. 그 다음에 떡쉬 낱 풋쉬 낱 무수 막은
고망 우에.

107065 @ 예.

107065 #1 풋쉬 낱 그 다음에 또 ㄱ르 거러낱 또 영 골로르 메짱 그 다음에 또
쉬 낱 또 ㄱ르 거러낱 경혜영 징징징징 놔근앵에 혼 시리 허면은 아읍 도리나 낱.

107065 @ 아읍 도리 정도나예?

107065 #1 아읍 도리 놓민 얹게 돼고.

107065 @ 예.

107065 #1 일곱 도리 놓민 흐끔 두툼두툼허게 빗이 나오주.

107065 @ 으음. 그러면 그거를 멧 빗이, 혼 말 허민 멧 빗에.

107065 #1 혼 말 허민양, 머리 베고. 머리 양쪽 두 빗씩. 혼 징에.

107065 @ 음.

107065 #1 혼 징에 두 빗씩 나오곡, 이 저 상빚은 네 개.

107065 @ 음.

107065 #1 경혜영 양쪽 머리ㄱ장 여섯 빗.

107065 @ 그럼 삼춘?

107065 #1 큰 시리는.

107065 @ 예.

107065 #1 그보다 더 나오주.

107065 @ 이렇게 허잖아예? 멧 개를?

107065 #1 두 개 우알로 떡빚을 ㄱ짱헝 허젠 허민.

107065 @ 예.

107065 #1 똥끌락 떡빚을 ㄱ칭허게 허젠 허민 베주게.

107065 @ 이렇게 베여붙어.

107065 #1 경혜영 베여뒸은에 영영 썰주게.

107065 @ 이렇게 이렇게 썬는 거잖아아예.그러면 이거는 질로 썬는 거렌 허잖아
예?

107065 #1 으. 그것이 상빚이엔 허주.

107065 @ 어느 게?

107065 #1 가운데 일자로 똥 게.

107065 @ 상빚. 이 양쪽에 거는?

107065 #1 건 옆빚.

107065 @ 이건 옆빚. 이것도 옆빚? 이것도 엇빚.

107065 #1 옆에 거는 옆빚.

107065 @ 옆빚.

107065 #1 가운데 상빚이 큰 시리는 여섯 빚 나오고.

107065 @ 예.

107065 #1 그 우리 혼 말짜리 시리는 떡빳을 쪼끔 크게 허면은.
107065 @ 예.
107065 #1 저기 저 다섯 빳 나오는데,
107065 @ 음.
107065 #1 족게 아니 크게 허면은 넷 빳.
107065 @ 네 빳.
107065 #1 그 상빳이.
107065 @ 예.
107065 #1 상빳이 조금 족게 허민 다섯 개 멩글주. 분할 있게 쓰젠 허민 다섯 빳
썩 멩글고.
107065 @ 옆빳은?
107065 #1 옆빳은게 양쪽에 두 개씩 허난에게.
107065 @ 게민 열 개나 뭐?
107065 #1 두 빳 텔 거주. 옆빳은.
107065 @ 두 빳. 음. 경허민 베 이상 텔 거니까예?
107065 #1 음.
107065 @ 아까 머리빳은 어디?
107065 #1 아니 게난 머리, 머릿빳이명 말명 이 양쪽 요거 영 끊으면은 이것그라
머리 끊으는 거엔 허주게.
107065 @ 이것도 머리고 이것도 다 머리.
107065 #1 이거 영영은 상빳이고.
107065 @ 머리빳 끊어내붙어야 상빳이 만들어지는 거라예?
107065 #1 으, ㅋ짱허게.
107065 @ ㅋ짱허게예. 아 그런 식으로 이제.
107065 #1 시리가 똥글락해부니까 옆빳 안 끊어병은 동글락허주. 베여도.
107065 @ 예, 예.
107065 #1 게난 요즘 떡집이는 네모난 거 딱 허면은 옆빳 엇이 영영 짤르는 건
데.
107065 @ 예.
107065 #1 옛날은 똥글렁헌 시리라부난 그 옆이 항상 영 베여버서. 경혜사 상빳
나오는 거.
107065 @ 예, 예, 예. 게민 상빳으로 이제.
107065 #1 제에 올리고.
107065 @ 올리고. 그 예전에 보면 제에 올리는 것도 풋쉬를 놔마씨?
107065 #1 으.
107065 @ 아 풋쉬 다 그냥 올리는구나.
107065 #1 동풋은 안 놓주게.

107065 @ 아아.

107065 #1 풋 빠진 건 물론 사름이 동푹 놓주. 동 거는 원래 잡귀 방법이엔 헤여 근에 동푹은.

107065 @ 으으.

107065 #1 무신 거 헤난 잡귀 뒤마무리 다올릴 때도 풋으로 허주게.

107065 @ 예, 예.

107065 #1 게난 동푹은 제스에 안 험니까. 상에 안 올림니께. 상에 안 올라감니까. 빠져사, 빠져사.

107065 @ 빠져사?

107065 #1 ㄹ르로.

107065 @ ㄹ르로?

107065 #1 숲아근에 딱딱 빠정.

107065 @ 요즘은 인절미나 허젠 허민 동푹 쓰잖아예?

107065 #1 예. 게난 분시 모르는 사름덜은 요새 기자 젊은 사름덜은 옛날식 험수 가게. 하나도 안 험지.

107065 @ 음음.

107065 #1 옛날엔양 웨도 안 올리곡 웨로 돌아간 덴 헤영.

107065 @ 아아.

107065 #1 예.

107065 @1 춤웨 안 올려마씨?

107065 #1 그런 것도 안 올리고 저기 저 이 뭐냐, 바나나 ㄹ쁜 것도 안 올리는 거. 바나나도 이거 원숭이 밥에 헤근에 원래 상에 안 올라가는 디. 그거 안 올라가고 거 올라가곡 또 안 올라가는 거 세 가질 올라가. 게민 우린 아이덜안티 아이고, 과일 한한헌 거 저런 걸랑 말라게, 말라게 헤도. 요새 젊은 아이덜 다 허니까.

107065 @ 예, 예, 예.

107065 #1 거 안 거 올라가는 거.

107066 @ 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예전에는 여기는 조개술벤 이런 건 안 만들어난마씨?

107066 #1 조개술벤은 우리 대 후제사 헛주, 우리 대에사.

107066 @ 여기 조개술벤 시에 모양이 딱나지 아녘니까?

107066 #1 하아, 똥글락헌 거 똥발굽에 허영 똥글락허게 만들고.

107066 @ 예.

107066 #1 솔롬헌 거는 조개술벤이주. 거 일름이. 조개술벤은 만두처럼 헌 거 그 거는 조개술벤 똥글락헌 건 똥말굽엔 허난에 그건 조개술벤이 아니주.

107066 @ 예, 예. 게난 그 여기도 똥말굽엔 헛 똥글락헌 거 해?

107066 #1 예. 똥글락헌 것도 허고. 젊은 사름덜은 허기 좋덴 허고. 우리 정도는 우린 씨집 가도 계속 이 솔롬헌 거 계속 조개술벤으로.

107066 @ 삼춘은 조개술펜?

107066 #1 계난 모양도 조개 닮으니까 조개술펜 아니?

107066 @ 예, 예, 예. 맞수다. 그냥 일반은 들발굽이렌 허는구나. 계면 그 송편허젠 허면 반죽허는 것도 뉘게 힘든덴 허명예?

107066 #1 으, 반죽허는 거게 그건게, 쓸 굴아다근에 그 쓸ㄱ르도 물 계와근에 반죽을 헤사 허주. 만약에 언물로 몰랑 헛당은 헤살헤살헤근에 떡이 안 뉘주게.

107066 @ 음.

107066 #1 영 만들아도 깨여정.

107066 @ 예에.

107066 #1 짹 짹 깨여정운에 떡이 안 뉘곡. 물 팔팔 끓렁은에 손 대지 못허게 남죽으로 짓영 반죽을 영 해낭 ** 손으로 꾸여근에.

107066 @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 조개술벤 만들 때 뉘 기구를 쓰는 거우과? 아니면?

107066 #1 손으로.

107066 @ 거 만들어봄서, 순서대로 헤갓고.

107066 #1 손으로게. 무슨 기지가 잇어야 만들주게. 조개술펜은.

107066 @ 응.

107066 #1 영영 보병.

107066 @ 예, 손으로 보병?

107066 #1 영 고망 영 내와낭 거기 쉬 담양. 푹쉬던 꿰던 깃ㄱ르든 담양. 경허영 마주 접양.

107066 @예.

107066 #1 영영영영 접으민 조개술펜이 뉘주.

107066 @ 손으로 영 조개술펜 모양을 만드는 거라예?

107066 #1 손으로 만드는 거. 요새 보민 만주 푹는 거. 육지 사름덜은 보민 영 오그리는데 조개술펜을 영 보면. 오그리는 거 아니. 영 깃ㄱ르 폐와지게.

107066 @ 깃ㄱ르 폐와지게예?

107066 #1 폐와지게헤영 이쁘게시리 영.

107066 @ 조개술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예. 조개모양으로 뉘게. 꺼꿀로 하면 여기 앞이렌 허여? 뉘렌 허여?

107066 #1 것이 썸이렌 허주게.

107066 @ 썸을 폐와지게 허는 거라예?

107066 #1 으.

107066 @ 아아,

107066 #1 오그리지 안 허영.

107066 @ 오그리지 안 허게.

107066 #1 오그리지 안 허영.

107067 @ 쟁기떡?

107067 #1 정기.

107067 @ 정기. 정기는 어떤 식으로?

107067 #1 정기는양 므똥 ㄱ르로 반죽행 그 소곱에 쉬 담곡. 그 지지는 거난에.

107067 @ 건 지정은에.

107067 #1 후라이팬에서 지지는 거난.

107067 @ 옛날에는 요즘은 후라이팬 허주만 옛날에는 어떻 헛수가?

107067 #1 옛날에는 솟뚜쟁이. 껌은 솟뚜쟁이로 이 불 슴으멍.

107067 @ 예.

107067 #1 삭다리 해당 낫당 그걸로 솟뚜쟁이로 지진 것이 맛있엇수다.

107067 @ 음.

107067 #1 노릇노릇 카니까.

107067 @ 카니까예.

107067 #1 전기 판에서 허민 카지 아녕 빨리 급허게 헤불민 줌 민드락허곡.

107067 @ 음.

107067 #1 요즘 건 정기 맛있어.

107067 @ 옛날에 정기할 때 솟뚜쟁이 허고. 그 지름도 요즘은 식용유허주만은 옛날은 다른 걸로 헛덴 허멍예?

107067 #1 옛날엔 유채 지름으로 허곡게. 으, 유채지름, 유채치름으로 주로 헛주 게.

107067 @ 돛지름으로 헛덴 허멍.

107067 #1 건 막 옛날. 유채 안 난 때.

107067 @ 예.

107067 #1 안 난 땐 우리도 도새기지름으로 ㄱ장 헤낫수다.

107067 @ 음.

107067 #1 헤나신디 돛지름 그 몰란에 분시 몰란에 도새기지름으로 제관 든 때.

107067 @ 으.

107067 #1 제청 든 때, 그 제관칩의서 분실 몰르니까 제관칩의서가 다 떡 지정 갑니다게. 정기떡을 헤가주, 판 거 아녕. 게난 도새기지름으로 정기 지정 간 분 거 라양?

107067 @ 예.

107067 #1 게난 그 췌 발앙 얼마나 아팡 혼낫수가?

107067 @ 으음.

107067 #1 도새기 이디는양 본향에 돼지고기 본향에 가젠 허민 혼 삼일 오일 전 부터 안 먹어.

107067 @ 아아.

107067 #1 갈 사람이. 이디 본향은 소벳기 안 먹어.

107067 @ 음.

107067 #1 제청 헐 때도 소 잡지 못허민 소머리나 소 다리 사당 올령 허주, 돼지고기, 돼지는 일절.

107068 @ 아아.

107068 #1 먹은 사름 못 갑니다. 썬 본향이엔 행은에.

107067 @ 아아, 경헌디 이제 돛지름으로 헤갓고.

107067 #1 몰란에 헨 갓단에.

107067 @ 음.

107067 #1 (기침) 막 혼낫수다.

107067 @ 다 동네마다 그 본향에 특성에 따라 허는 거라예?

107067 #1 예, 틀려.

107067 @ 그런 식으로 허고. 예전에도 이제 정기를 식게 때 올려마씨?

107067 #1 상에 그양 막 옛날에는 저 그거 해도 빙떡을 올리단에.

107067 @ 예.

107067 #1 왜 안 올렸느냐 허면 저 그 제사 먹으레 온 초상이.

107067 @ 예.

107067 #1 친구덜 나시 발앙 가야 뵈 건디.

107067 @ 음.

107067 #1 발앙 가당 보민 다 홀터근에 정기떡은 잘 그차전에 정기떡을 잘 끊어 지지 아넘니까?

107067 @ 예, 예.

107067 #1 경허난 그 어느 사름안테 꿈에 시판.

107067 @ 으음.

107067 #1 그 제스 먹으레 왓단 영혼이.

107067 @ 음.

107067 #1 떡 발앙 친구덜 나시 받아강 보난 문딱 헤싸져부난 하나도 엇더라.

107067 @ 음.

107067 #1 경허연 시파나부난 그 다음 정기떡 상에 안 올립니다.

107067 @ 음.

107067 #1 친떡.

107068 @ 침떡 행예?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상웨떡도?

107068 #1 예 상웨떡도 허여.

107068 @ 상에떡은 올리고예?

107068 #1 밀ㄴ르. 우리밀 조선밀. 그걸로 그거 상웨떡 헤사 맞은 잇주. 노리퉁은 해도.

107068 @ 노리퉁은 해도. 상웨떡도 동글락상웨떡도 잇고?

107068 #1 거는 빵엔 허주게.

107068 @ 그건 빵엔 허고. 빗상위로 허는 거구나.
107068 #1 빗상위로.
107068 @ 주로 여름에 허커예?
107068 #1 여름은 상웨떡. 경헌디 상웨떡 옛날엔양 기주.
107068 @ 예.
107068 #1 순다리 담양 기주로 헛주 요샌 약으로 해도.
107068 @ 예. 그거는 잘 부껴야 돼지 않음니까예?
107068 #1 예. 밀그르 헤근에 것도 물 맞창 제대로 안 허민 안 부끄민 시간이 부
끌 혼이 넘어도 안 부끄민 떡이 찌면은 납작해볼주게.
107068 @ 아, 아.
107068 #1 계문 것그라 낭웁엔 헤근에.
107068 @ 낭웨?
107068 #1 으. 상웨떡이 부각허게 부각허게 부껴야 돼는디 납작해부러. 그거는
웨 탈이나. 기주가 잘 안 뵈 거.
107068 @ 예.
107068 #1 으, 부각부각 막 레지 아년 걸 낭 돌아부난 피지 못헌 거, 상웨떡이.
107068 @ 그걸 낭웨? 계문 빗상웨허고 낭웨허고 트난 거우과?
107068 #1 계난 그건 올리지도 저 상에.
107068 @ 아아.
107068 #1 아아 저 집원 식게 헛 때 상웨.
107068 #5 우리 사촌형이 부면장을 헛는데 아까 친떡 잇엇는데.
107068 @ 예.
107068 #1 친떡은 땅 영 들반착 잇잖아. 건 달. 벨 우주시가 별. 경해서 그 차례
로.
107068 #1 달 헤 벨 맞아.
107068 #1 우에 갓당.
107068 #1 들반착이 우리 집안은 땅하고 달하고 헤 하고 별 그 차례로 놓메.
107068 @ 예.
107068 #1 친떡 두 빗 뇌낭은에 그 술변 짹허게 뇌낭 그 다음에 절벤 뇌낭 우지
시는 건 벨떡엔 헤근에 쥬 우에. 경 놓니다 여긴.
107068 @ 네 가지로 올리는 거라예?
(** 수산은 상 우에 제 보레 가면 안 올령 제 보레 가민 옆에만 논덴 헤라.)
107068 @ 예에, 계난 삼춘 계난 여기에 빗상웨허고 낭웨를 다른 걸로 보는 거?
107068 #1 아니, 딱 걸로 봐근에 그거 막 사름덜이 욱허고 웃주게.
107068 @ 예에.
107068 #1 이거 무신 상웨떡헌 상아리닌 허멍.
107068 @ 으.

107068 #1 기주 안 부플 때 영 먹는 것도 찢각찢각 즈베기처럼 경 험니다.

107068 @ 그치록 안 웬 거를 낭웨렌 허는 거예?

107068 #1 그치록웨부난 낭웨지.

107068 @ 낭웨.

107068 #1 납작해부난 피지 납작해부난.

107068 @ 으음.

107068 #1 요즘 낭웨는 기계로 강 나오는 낭웨는 따로 잇입니까. 상웨떡처럼 부 각허게 피는 거.

107068 @ 기증펜 허는 게 그거. 요즘 기계로 강 낭웨는 아까 기주?

107068 #1 으. 옛날은 안 핀 거를 낭웨.

107068 @ 안 핀 거를 낭웨렌 허고

107068 #1 으.

107068 @ 그런 식으로 아까 기주. 기주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마씨?

107068 #1 기주는 누룩. 누룩 사단에 밥 식게 해근에 석석현 밥에 혜영 물 낱 그 누룩을 버부령. 뜻뜻헌 디 흐루만 그거 놔두민 막 램니다게.

107068 @ 예.

107068 #1 경허는디 그것도 맞추지 못허는 사람이 잇언근엔에 기주가 잘 안 돼 는.

107068 @ 잘 안 돼니까.

107068 #1 우리 제청 들면은 초헌 초헌 각시가 가근에엔 그 술을 담주.

107068 @ 음.

107068 #1 요즘은 재료를 좁쌀 사오곡 누룩 사오곡 뭉헿 그거 저 좁쌀 죽 썬 근 에.

107068 @ 음.

107068 #1 경허영 담는.

107069 #1 그것도예, 옷제관 초헌제관.

107069 @ 으.

107069 #1 쥘 옷제관. 그 제관 앓은 옆에다가 그 술단지도 놔야 웨여.

107069 @ 음.

107069 #1 경혜영 뭉 더꺼야 웨여.

107069 @ 계난 그것도 다 정혜진 거라예. 위치도예.

107069 #1 예.

107070 @ 경허영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때, 제사 때 떡허고 상례헿 때 떡허고 영장헿 때 떡허고 뜨나잖아예?

107070 #1 술펜 절펜은 마찬가지로. 저 사름 영장 나근엔에 성복에 못, 아니 써 난 떡이든 저 제숙이던은.

107070 @ 음.

107070 #1 팽상시에 못 쓴텐 합니다.

107070 @ 예.

107070 #1 성복에 아녀난 거.

107070 @ 게니까 상 상 난 때 옛날 정성을 다헌 거라예?

107070 #1 진짜로 낭웨로게 고망 영영 딸라근에에. 밀그르로 밀영 낭웨 승웨 다 허영 요만씩 쓸랑쓸랑허게도 허고. 네모나게 기자 영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네모나 게 요만씩도 만들고. 또 요치룩 흐썰 크게 헌 건 고망을 젓가락으로 영영 찢렁 고 망 내와. 경허영허곡 세 가지 합니다게. 옛날에는.

107070 @ 영장?

107070 #1 영장 때.

107070 @ 게른 삼춘예 이런 이름은 뭐엔 해?

107070 #1 이것이 낭웨주. 상에 올리는 그 원칙대론.

107070 @ 으.

107070 #1 경혜근에 이거 세 가지 혜근앵에 요치룩 쓸랑허게 혜근에에.

107070 @ 게난 중계 약퀘 이런 말 들어판마씨?

107070 # 1 음.

107070 @ 중계 약퀘?

107070 #1 중계 약퀘주 이것이.

107070 @ 이게 중계 약퀘. 튀기는 것도 잇잖아예?

107070 #1 이걸로 튀기주.

107070 @ 이 동네도 과질은 헛수과?

107070 #1 과질은 이제도 허고.

107070 @ 아, 과질은 이제도 허고.

107070 #1 이제도 제사 때 과질은 허고.

107070 @ 과질은 어떻 멘드는 거?

107070 #1 과질은 우리도 기계해다난에 부녀횡서 나 부녀횡장헐 때 헤나신디. 떡 미는 기계가 다 나오난. 옛날엔 안 나온 땀 밀영. 밀영은에에 칼로 허영 짐작헤영 그걸 말류와. 그걸 널영 말류 다음에 ㄹ슬ㄹ슬 몰르면은 그게 기름에 튀경.

107070 @ 음.

107070 #1 튀겨근에 그레 옛 블랑은 쓸 튀긴 거 블랑. 경허영 과질.

107070 @ 그게 과질 헤갓고. 이 동네는 제사나 이런 때는 과질을 허는 거라예?

107070 #1 과질 합니다.

107070 @ 과질허는 허지 았은 동네덜도 잇어예?

107070 #1 이 부락에는 이젠 그거 설러부난에 요 신산리.

107070 @ 예.

107070 #1 게난 신산리 과질허는 사름이 잇주.

107070 @ 으음.

107070 #1 계난 그디 강 맞창덜.
107070 @ 맞창은에 아, 요즘도 과질은 햄구나?
107070 #1 성복에 옛날에부터 성복계 영장 때 헤나부난 그건 꼭 헤여.
107070 @ 아아 게믄 예전에 워 성복.
107070 #1 아너 난 딴 안 허고.
107070 @ 영장 헐 때는 곳인 제숙. 떡도 막 여러 가지 허는 거 잼아예?
107070 #1 으.
107070 @ 그거를 뭐 불르는 일름이 잇어마씨?
107070 #1 영장 때 떡이.
107070 @ 귀긱춘 거?
107070 #1 귀긱추는 것이 그것이 그거주게.
107070 @ 맨 밑에는?
107070 #1 아, 시리떡 놓곡.
107070 @ 시리떡 놓고.
107070 #1 올릴 때?
107070 @ 예.
107070 #1 으, 맨 밑에 시리떡 놓곡게. 그 다음 시리떡 두 빗 놓주.
107070 @ 예.
107070 #1 하면은 두 빗씩 네 빗을 올려도.
107070 @ 보통은 두 개?
107070 #1 보통은 기자 아래 두 개. 두 개 낱 그 다음 솔벤 들반착.
107070 @ 음.
107070 #1 그거 세 개씩 여섯 개 짝 맞게 안 허고. 경허민 영 머리맛디 요렇게 영 돌아가게 놔양. 요렇게 가다가 웬 거니까. 영허영 머리맛디 영 낱. 경허영 우에 영 놓곡 헤영은에 그 다음에는 솔벤 절벤.
107070 @ 절벤 동글락헌 거.
107070 #1 절벤 영 양쪽으로. 요딘 말고 양쪽으로 이 펜틀에 ㅋ칭허게.
107070 @ 예.
107070 #1 경허영 영 귀여 낱. 그 다음에 복판에는 벨떡.
107070 @ 으.
107070 #1 벨떡 영헤여근에 떡 빗이 쫄르면은 벨떡은 세 개만 올라갑니다. 세 개 올라가민 딱 맞아.
107070 @ 절벤은 몇 개마씨?
107070 #1 절벤은 다섯 개 으섯 개. 그 이거 놔부난에 이거 머리맛디 놔부난 올로 요레만 허는 때문에 짝수는 안 올려. 홀수로 올리주.
107070 @ 모든 떡은 올리는 거. 저기 친떡만 빼고.
107070 #1 예. 경허난 다섯 개.

107070 @ 다섯 개. 게영은에 이제 우지시 벨떡도 세 개나 다섯 개.
107070 #1 벨떡도 다섯 개.
107071 @ 홀수로 올리는 거예? 그 다음에 삼춘, 여기는 설귀떡이렌은 안 험니까?
107071 #1 설기떡은 헤영헌 거.
107071 @ 어.
107071 #1 백시리.
107071 @ 백시리는 안 해?
107071 #1 백시리허는 집인 험니다. 지금도. 제사에도 지금도 헤여.
107071 @ 그 쉬 안 놔갓고 백시리.
107071 #1 영장 때는 백시리 역불 허는 거.
107071 @ 영장 때는 풋 안 행은에 백시리로 허는 거?
107071 #1 영장 때는 백시리 허는 거.
107071 @ 예전에 뭐 송이떡, 송에기떡 허는 말도 들어반?
107071 #1 송에기떡이 뭐라?
107072 @ 아, 그런 거는 아니 들어보고, 여기는예, 예? 그 은절미도 헤마씨?
107072 #1 예 은절미사게.
107072 @ 은절미는 어떤 식으로?
107072 #1 은절민 지금도 허는 거. 은절미 쉬도 안 놓고 아무 것도 안 놔근에 기자 떡 밀어근에 트는 거. 터근에 기자.
107072 @ 다 기냥 텅은에 그냥 허는 거. 건 모양이 어떤 식으로?
107072 #1 인절미 네모나게.
107072 @ 옛날은 네모나게. 아까 낭웨허듯이. 은절미는 거는 뭇로 멘들안, 옛날에.
107072 #1 쌀로, 쌀로.
107072 @ 다예. 요즘처럼 인절미렌 헤영은에 참쌀로 만든 건 아니지예?.
107072 #1 아니.
107072 @ 게문 그 식게 때 인절미는 어느 자리에 놓는 거?
107072 #1 인절미 식게 땀 이 저 옛날에나 떡 하영덜 안 험 때난 헛주. 요즘은 인절미 안 험니다.
107072 @ 이제는 안 허고. 우리 저쪽에는예.
107072 #1 이제도 허여.
107072 @ 인절미도 올리고, 그 다음에 솔벤 절벤 웃지시 다섯 종류.
107072 #1 음.
107072 @ 여기는 네 종류 올리는 거 아니라예? 그 다음에 그 절벤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과? 그 저기 들반착허고는 흐뎀 따나지 안 험니까?
107072 #1 들반착허고 절벤?

107072 @ 응. 똥글락헌 거.

107072 #1 아, 응 똥글락헌 거 보시로나 뭐로 술잔으로 터근에.

107072 @ 예.

107072 #1 요즘은 기계로 나오난 똑똑 트주마는. 그걸로 영 텅 똥글락헌 거 아
니. 게민 그것도 이 손봉오지만 부찌근에 영허영 꼭꼭 벨을 접는 거라.

107072 @ 예.

107072 #1 똥글락허게.

107072 @ 응.

107072 #1 게민 접아근에 벨 모양으로 벨떡.

107073 @ 건 벨떡이고. 그것 말고 웨 동글랑헌 솔벤 말고.

107073 #1 아 그거.

107073 @ 절벤?

107073 #1 동글락헌 절벤. 그거 대나무로 해근에.

107073 @ 예.

107073 #1 동글락허게 만들안. 솔벤본은 만들기가 좋주게.

107073 @ 예.

107073 #1 기자 쓸름허게 영 오그라지기만 허든 되는 거난. 저거는 똥글랑헌 거
라부난.

107073 @ 솔벤본은 이렇게 생긴 거라예. 절벤본은 어떻 생견?

107073 #1 똥글락헌 거주게. 똥글랑헌 거난 그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들앙.

107073 @ 예.

107073 #1 대나무로 영 똥글랑허게 만들앙.

107073 @ 응.

107073 #1 경혜근에게 그거.

107073 @ 이제 이제 그치록 해갖고예, 이제 웬 거고. 그 다음 그 절벤은 낭 대나
무로?

107073 #1 대나무로.

107073 @ 만든 거? 이렇게 십자로? 이 말 글아**

107073 #1 그거. 그거 뿐으로 막 이빠.

107073 @ 이런 식으로 이용행 뿐 행 영 놀르는 거 아니?

107073 #1 으으.

107073 @ 건 멧 개로 행 부치는 거? 똥글랑헌 거 두 개로 부칭 허는 거 아니우
과?

107073 #1 두 개로 두 개로. 영 보병은에 두 개. 두 개 허는 집이 있고, 흐쓸 줌
못 사는 집의는 또 흐쓸 두겹게 행 하나로, 하나로 멩글고.

107073 @ 아, 하나로 허는 데도 잇어마씨?

107073 #1 음.

107073 @ 아, 어딘 간 보난 두 개로 허는 거예.

107073 #1 두 개로 헤사.

107073 @1 건 떼영 안 먹는덴.

107073 #1 그거로 먹어사.

107073 @ 예, 그 떼영 먹으면 무슨 뭐 굳는 말 십디다.

107073 #1 떼영 먹는 것이 아니고 건 기자 먹는 거.

107073 @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행 건 절벤본?

107073 #1 응. 영영 만들앙 막 좋아났주.

107074 @1 고와예. 딱 찍으면 모양 저기로 잇고. 그 다음에 솔벤, 솔벤은?

107074 #1 솔벤 저거 아니?

107074 @ 이거로 행 허고.

107074 #1 그거도 그치록 손잡이영 잘 기러신게게.

107074 @ 예.

107074 #1 게민 손잡이 잡고 요짜은 요영 잡앙은에 영허영 뜨민 딱딱 뜨민.

107074 @ 양쪽으로 이렇게.

107074 #1 끊영 나오주게.

107074 @ 딱딱 뜨는 거? 게민 절벤 솔벤은 물에 삶앗수가 아니면은 이겨 낱 모
 낱 만들엇수가?

107074 #1 아니. 저 절벤 솔벤은 옛날엔 아주 옛날에는 솔입.

107074 @ 예.

107074 #1 솔입 빠당은에 그거 데우쳐 텡 징징이 놓멍 찢주. 거 징징이 놓멍 찢
 허민 솔 냄새 나고 그렇게 맛이 좋아났주게.

107074 @ 예, 예.

107074 #1 우리 게난 옛날에 경헤나난에 한국부인회로 저 요리 시합 나간에 다
 떡으로 그날은 헛어.

107074 @ 음.

107074 #1 경허난 우린 솔입헤영 간 헨 허난 대상 받아났주.

107074 @ 음.

107074 #1 게난 우리 떡만 다 먹어비연에 그디 어디 도에서영 높은 사름덜이영
 온 사름덜 우리 것만 다 먹어비연. 솔 내음새 막 좋아가지고. 경헤사 솔 그릇도 영
 영 나곡.

107074 @ 나고. 떡에.

107074 #1 솔입 논 거.

107074 @ 칭칭이 낱은에 이제 삶은 게 아니라 여기는 찢예?

107074 #1 예, 찢났수다. 삶앙은 안 헛수다.

107074 @ 게영 찢은에 내면 다 기름도 불르지 아넘니까?

107074 #1 으, 기름만 불르주게.

107074 @ 춤지름예?

107074 #1 기름 불르명 기자 촉촉 뇌근에 상당히 맛있고.

107075 @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웃지시렌 해갖고 .

107075 #1 음.

107075 @ 벨떡은 주로 뭘로 멘들아마씨?

107075 #1 거 다 기자 그 찰로 합니다.

107075 @ 아아, 흰. 그냥.

107075 #1 흰찰로.

107075 @ 요즘은 찹쌀로 허지 아녘니까? 지름떡?

107075 #1 아 지름떡 요샌 찹쌀이라도. 찹쌀도 흰 거난게 흰찰로.

107075 @ 옛날에는 다 그 산디찰로.

107075 #1 뽕쌀로.

107075 @ 뽕쌀로예?

107075 #1 춤살이고 엇이난.

107075 @ 무사 그건 웃지시렌 허는 거라마씨?

107075 #1 질 우에 올라가는 거 아니?

107075 @ 아아.

107075 @ 열긱떡에 우지시.

107075 #1 으, 열긱떡.

107075 @ 열긱은 무신 말이우과?

107075 #1 떡이 열 가지라도 우지시가 잇어야 웬다 이 말이주게. 열긱떡에 우지시.

107075 @ 케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꾀 마무리를 못헛다 허면은 열긱떡에 우지시 이런 말을 한 거구나? 으으.

107075 #1 아무것도 엇어도 열긱떡에 우지시를 해야웬다.

107075 @ 으, 열긱떡에 우지시는 해야웬다. 마무리를 잘 해라.

107075 #1 제사에도 꼭 해사.

107076 @ 예. 그리고 이거는 영장이나 식게 때 허는 떡 아니우과예? 근데 여기는 옛날에 당에덜 하영 텅것잖아예?

107076 #1 당예?

107076 @ 으, 본향당예?

107076 #1 으, 으, 으.

107077 @ 그때도 떡 허영 가지 아녀마씨?

107077 #1 본향당엔양 저 칠월 칠성에 허곡예.

107077 @ 예.

107077 #1 시월에. 시월이 상들이주. 시월은 뉘민 곡석 산디고 뉘고 다 허여들일 때 아니우과? 경해난 곡석 영헨 해들엿수다 해근에 초상나시 떡해영 가는 거. 돌레

떡.

107077 @ 돌레떡. 그때는 돌레는 뭘로 만들어?

107077 #1 곡식 흰 걸로 쌀로.

107077 @ 으음.

107077 #1 산디.

107077 @ 산디로. 여기는 뭇뭇덜 하영 안 가니까 뭇뭇돌레는 안 허는구나?

107077 #1 뭇뭇돌레는양 그것도 집안으로 가근에 안 허는 집안은 안 허는 거. 문전 대접허는 것도 깨끗허게 맑은 떡으로 허영 허주, 뭇뭇은 검지 아녀우과? 떡허민 검기 때문에 안 허여.

107077 @ 아, 문전상 허거난 이럴 때도.

107077 #1 흰 걸로 허주.

107077 @ 흰 걸로만. 정말 엇인 사름덜은 흘 수 엇이 허주마는.

107077 #1 예.

107077 @1 으음. 계문 그 곳헐 때. 삼춘 여기 곳도 헛덴 헛잖아? 곳헐 때도 곳떡들도 뜨나지 아녘니까? 돌레떡 말고도 올리는 거?

107077 #1 올리는 거 시리, 사발시리도 잇고.

107077 @ 아, 사발시리도 잇고.

107077 #1 사발시린 사발에 낵 올리곡 ** 사발에 쥌쥌헐 사발에 낵 치는 거. 그 거 잇고게. 친떡.

107077 @ 예.

107077 #1 관뉼로 하나짜리 백시리로.

107077 @ 백시리로?

107077 #1 으, 그건 영 놀리는 거 이 대신 놀리는 거.

107077 @ 예, 예. 그 시리는 무신 시리렌 헉니까?

107077 #1 대신왕에 시리.

107077 @ 으.

107077 #1그거 대신왕에 치는 떡시리엔 기자 경 곧주마는.

107077 @ 계영 영 무경 막 놀리는 거예?

107077 #1 놀리는 거.

107077 @ 뭐 나까시리 이런 말은 안 헉니까?

107077 #1 아, 그것이 나까시리주. 그것이.

107077 @ 으, 요즘은 헛지만 옛날 삼춘네는 나까시리렌 말은 안 썻지예?

107077 #1 무사 나까시리엔 어른덜은 곱앗주.

107077 @ 아아, 곱긴 헛수가?

107077 #1 나가 틀내지 못헛주.

107077 @ 나까시리 허고. 거는 백시리로 하나로. 그런 거 말고 쫓꼬만허게.

107077 #1 쫓꼬만허게 사발시리로 헉 거. 큰 상 놔근에 이거 상에 다 올립니다.

계난 그거는 초상들 나시 저 올리는 뜻이주.
 107077 @ 아아, 사발시리는?
 107077 #1 사발시리. 으, 경허영 올립니다.
 107077 @ 그 다음에 존존하게 영 동글랑허게 멘드는 떡들은 엇어마씨?
 107077 #1 저 무신 거넨 허민. 그것ㄴ라 아이고, 확 곤젠 허난 잊어벗저. 동글랑
 허게 멘드는 게 아니고 돌레떡 말고.
 107077 @ 예.
 107077 #1 돌레떡 말고 즈매떡.
 107077 @ 즈매떡.
 107077 #1 음, 즈매떡.
 107077 @ 즈매떡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거? 이것도 굿떡?
 107077 #1 굿떡. 굿헐 때 즈매떡 쓰주. 탄 땀 안 쓰주게.
 107077 @ 어떤 모양이우과?
 107077 #1 모양이 저 무시거나. 만두식 닮으뵈.
 107077 @ 예.
 107077 #1 존존하게 딱 만두ㄴ치록은 안 해도 그거 닮게시리 헤근엥에 존존하게
 만든 거.
 107077 @ 아, 손으로 쫄매쫄매 즈매떡 꼭꼭 잡앙예?
 107077 #1 으, 즈매떡.
 107077 @ 게영 즈매떡 허면 그 속에도 뭐 놔?
 107077 #1 그 굿헐 때?
 107077 @ 예.
 107077 #1 안 놓주.
 107077 @ 아니 하얀 걸로 이렇게 해서. 으으, 즈매떡 하고. 그거 말고 엇 무치는
 떡도 잊지 아너우과?
 107077 #1 떡에다가 엇을 무친다.
 107077 @ 으, 뭐 연주청에 오물떡, 뭐 이런 말은 안 들어판?
 107077 #1 아니.
 107077 @ 아니? 여기는 즈매떡?
 107077 #1 그게 즈매떡.
 107077 @ 그러면 상에 올리는 게.
 107077 #1 으. 시리떡.
 107077 @ 시리떡 올리고 그 큰 거예. 그 다음에?
 107077 #1 즈매떡허곡 돌레떡허곡.
 107077 @ 돌레떡도 허고. 돌레떡도 허고. 사발시리 올리고. 즈매떡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아, 당에 갈 때 그 돌레떡은 멧 개 정도 가져가마씨?
 107077 #1 멧 개가 아니주. 혼 뵈치 헤근엥에 기냥 다 가정 가주.

107077 @ 아아. 흔 뉘치 헤갓고 그냥 가져가는 거.
107077 #1 으.
107077 @ 아, 게민 보통 당에 갈 때 흔 뉘치 험니까?
107077 #1 흔 뉘치헤영 가주.
107077 @ 당에 갈 때 돌레만 허고 시리는 안 험 가는거예?
107077 #1 아니, 아니.
107077 @ 무조건 돌레떡험 이제 가고.
107077 #1 돌레떡.
107078 @ 이런 거 말고 예전에는 웨 먹을 거 옛이난 큰일 때 하영씩 험 이웃집 에도 나눠주고 헛지 아너우과? 떡들 험은에.
107078 #1 아이그, 옛날에 무신 떡 헤근에 나눠주곡.
107078 @ 경 안 헤낫수가?
107078 #1 이딘 그런 거 옛엇수다.
107078 @ 아아, 우리 저쪽에는 허민 막 조침떡도 험 가져가곡.
107078 #1 잘 사난 거주.
107078 @ 여기, 그 막예, 열 말씩 떡을 헛텐 헤예? 그 영장험 때.
107078 #1 영장험 때 그건 뉘 피력이나 뉘험 때주, 뉘헌 떡이주.
107078 @ 으, 피력떡?
107078 #1 피력떡.
107078 @ 여기 피력떡 헤 헤?
107078 #1 으.
107078 @ 여기 피력떡은 뉘로 헤?
107078 #1 피력떡 허고 비역부째 허고.
107078 @ 으.
107078 #1 그거는 영장에, 영장에.
107078 @ 아, 영장에. 게민 영장에 허민.
107078 #1 나도 우리 씨아버지 돌아가난에 죽은아덜이라부난.
107078 @ 으.
107078 #1 큰아덜 저 떨어뉘 큰아덜허곡 셋아덜 조반 출리곡. 아 딸덜.
107078 @ 예.
107078 #1 딸덜 조반 정심 헤불민 경허난 아들은 죽은아덜이나 비역이 쉘 큰 거 주.
107078 @ 으.
107078 #1 게난 비역부째허난에 우리 그때 쉘 스무 말 등간 헤신디.
107078 @ 아, 그때 게민 무신 떡을 헌 거?
107078 #1 친떡.
107078 @ 친떡으로.

107078 #1 으.

107078 @1 으음. 경 해근에 친떡으로 혜영은에 비역부짬 하는 거고?

107078 #1 피력, 피력.

107078 @ 피력.

107078 #1 피력허고, 비역, 비역부짬은 딴 사름이 허고.

107078 @ 비역부짬은 뭐우과?

107078 #1 피역부짬은 피력은 다 낫나근엥에 헤어질 때 안네는 거고. 비역부짬은 중간에.

107078 @ 중간에?

107078 #1 으, 진투도 허곡.

107078 @ 진투도 허고. 게문 진투혈 때도 맥이고.

107078 #1 진투혈 때도 맥이고.

107078 @ 피력혈 때도 맥이고.

107078 #1 비역부짬도 맥이고.

107078 @ 게문 비역부짬혈 때는 뭘로 맥이는 거?

107078 #1 그때 당시에 다 떡 종류고예.

107078 @ 예.

107078 #1 저 그르후제 그루후제 잘 살 때사 비역부짬은 득이여 요샌 빵이여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엇인 때난에 떡으로 혜근엥에게 그때 빵이 잇이우파? 뭐가 잇수가게? 경혈 때난 떡으로 헨에.

107078 @ 친떡 허기도 허고 돌레떡 허기도 허고 헨은에.

107078 #1 으.

107078 @ 옛날에 영장밭디 가민 떡을.

107078 #1 막 받아오고.

107078 @ 구덕으로 하나씩 받아와서예?

107078 #1 예, 막 받아오고?

107078 @ 아, 그러면 영장혈 때는 피력이 뜨난 거고.

107078 #1 으.

107078 @ 비역부짬이 뜨나고

107078 #1 으.

107078 @ 진투도 뜨나고?

107078 #1 진투굿.

107078 @ 진투굿혈 때도 그 다음 또 떡 맥이고?

107078 #1 진투허는 거는 그 사름덜 강 땅 파곡 요샌 기계로 파난 허주마는 삼으로만 다 허지 아녀우과?

107078 @ 그 상뒤들예?

107078 #1 으, 그 경허민 떡도 허고 술안주허고 술이영 그 사름덜 또 그거 맥여

사 술힘으로 그 일을 헐 거난에.

107078 @ 으으.

107078 #1 경허영 진투굿을.

107078 @ 피력헌 거는 다 모든 사름안티 나놔주는 거 아니예?

107078 #1 피력은 다 주고.

107078 @ 으, 애기도. 저도 강 영장밭디 가난 주더라고예?

107078 #1 으. 문딱 문딱.

107078 @ 비역부짬도 문딱?

107078 #1 문딱.

107078 @ 거난 진투만 그?

107078 #1 진투만 남자덜만 먹주. 그 일허는 사름덜 허고 남자 상뒤덜만.

107078 @ 아, 남자상뒤덜만 이렇게 해서 맥이고예. 게민 보통 보편은 그런 비역 부짬이나 피력이나 진투는 누게가 맥이는 거마씨? 상제들?

107078 #1 자식들이?

107078 @ 다 나놔?

107078 #1 으, 다 나놔. 식구가 막 하민 들리씩 어우렁도 허는디.

107078 @ 예.

107078 #1 식구 엇이민 혼 사름이 하나씩.

107078 @ 켈 큰 게 뭐우과?

107078 #1 켈 크게 정심이주게. 정심.

107078 @ 정심?

107078 #1 조반 정심.

107078 @ 음, 그거는 뭐 큰상제가 허고. 으.

107078 #1 딸덜, 딸덜.

107078 @ 다 딸이 험니까?

107078 #1 정심, 조반 정심은 딸덜이 허주.

107078 @ 예에.

107078 #1 대개 딸이 엇이민 하나만 잇영은 해도. 우리 경우에는 서이난에 딸이 서이난에 죽은딸 혼디 셋딸에 부편에 조반 정심덜. 큰딸 정심허고.

107078 @ 음.

107078 #1 죽은딸 두 번차 딸허곡 조반허곡. 옛날엔 조반헐 댐 상뒤덜이 막 하난에.

107078 @ 예.

107078 #1 옛날은 다 집의서 먹엇수게게.

107078 @ 예, 맞아예?

107078 #1 기자 영장밭디 갈 사름은 문딱 집의서 먹기 때문에 들리 어울렁 조반 허고.

107078 @ 그 다음에 이것 말양예, 그 행 먹어난 떡 이름들. 우리 뭐 식게나 영장에 안 헤갓고 허는 떡들은 어떤 거 잇어난?

107078 #1 영장 때 아녀난 떡덜사 요새사 영장 때 아녀난 떡들이주.

107078 @ 으, 요새 그런 거지예, 예?

107078 #1 떡은 옛날 아녀난 떡덜.

107078 @ 아녀난 떡. 게난 일반적으로 뭐?

107078 #1 기계에 강 맞추와 오는 때문에 무신. 송편덜토 허민 기계로 나온 거 똥글락헌 거만 나오곡. 툄발콧. 그것만 나오고. 또 경 아녀민 어느 집안엔 보민 조 젊은아이덜이라노난 그 무신 생일떡 허는 거 그런 것도 헤영 색깔 그런 거 헤영 허고. 아이고, 또 썩떡헤근에 빠는 거. 절편 빠는 거.

107078 @ 절편 빵은예 허고.

107078 #1 그런 것도 요즘사 거 기자 한결허게만 허젠 해놓난.

소와 고물

107079 @ 예, 맞아. 예전엔 집에서 그 상웨떡 치고 허젠 허민 엄청 노력허고예. 다 불 슴으멍. 그 다음에 떡헐 때 쉬는 어떤 것덜 난마씨?

107079 #1 쉬는 여기서 대개 푯 슴양 허곡 앳인베기콩도 슴양 허고, 궀 보까근에 설탕 서꺼근에 궀도 담곡 기자 그치룩.

107079 @ 옛날도 그런 식으로??

107079 #1 옛날엔 그 어디 궀영 설탕영 하근엔예 그런 거 담곡 헛수과?

107079 @ 그냥 보통 푯쉬예?

107079 #1 예, 옛날사 어디?

107080 @ 으. 그 다음에 이거는 안에 담는 거고.

107080 #1 으.

107080 @ 밖에 뿌리는 것들은?

107080 #1 뿌리는 거 그 저 콩 푯 뽕양은엔예 막 ㄱ르로 그것도 막 영 체로 청은엔예 즈진 거 영 뿌리주게. 우예. 부뜨지 말렌.

107080 @ 그것도 쉬고.

107080 #1 예, 것도 쉬고 그것도 쉬고.

107080 @ 다 속에 담는 것도 쉬고. (웃음)

107080 #1 게고 만뒤, 만뒤 행은예 보리만뒤 행 제물이나 헤 가는 사름은.

107080 @ 으

107080 #1 감자 고구마.

107080 @ 예.

107080 #1 그거 담은 것이 또 그렇게 맛있어. 감자 담으난.

107080 @ 으음.

107080 #1 그거 감저 담양. 감저를 쉬로 담야근엔예 그, 그 떡은 이제도 우리 생

각 나집네다. 맛있어.

107080 @ 아아, 그러면 그 속에는 감자만 담은 거라마씨?

107080 #1 으, 감자 찌근에 담양 그 만뒤 속에.

107080 @ 아. 보릿ㄴ르 행은에.

107080 #1 진짜, 진짜 맛있어, 거.

107080 @ 으, 건 언제 제물행 가는 거라, 그런 거는?

107080 #1 아니 계난 딸덜이라도.

107080 @ 으.

107080 #1 부모 제사에 돼민 씨집간 사름덜.

107080 @ 예.

107080 #1 제사 때에나 무시거 헐 때 그 막 것도 생각행 오는 거주 만뒤.

107080 @ 으.

107080 #1 집의서 만들양.

107080 @ 집의서 만뒤 해갓고예?

107080 #1 만들양.

107080 @ 만뒤도 막 크게 헐게예?

107080 #1 훗은 거.

107081 @ 훗은 거예.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떡에 얹힌 속담허고 금지 사항?

107081 #1 금지 사항?

107081 @ 예.

107081 #1 아이고, 떡에 얹힌 속담 금지 사항이 무시거엔 허니?

107081 @ 우리 보통 보면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은 아이덜 안 먹은덴 이런?

107081 #1 아, 막떡.

107081 @ 으.

107081 #1 그것ㄴ라 막떡이엔 허주게.

107081 @ 예.

107081 #1 막떡은 안 주주게.

107081 @ 아이덜은예. 그런 것도 잇고.

107081 #1 그런 것도 잇고. 어 막떡 말고는 무신 거 잇어게, 금지 사항이.

107081 @ 침떡 칠 때?

107081 #1 친떡 칠 때게 부정 타근에 친떡 안 익고. 그 여자덜 몸엿거 온 때 몰랑 들어강 헤도 허곡, 불습양 치는 거난에 시리에 불 저 짐 아니 올릴 때에 그 부역으로 확허게 문에 베갓되서 안티레 들어와 불민 것도 부정 타근에 아니 익어근에 막. 계영 어떤 때 막 신착으로 시리 두드리명.

107081 @ 뿔로마씨?

107081 #1 신착으로 막 시리 막 때려.

107081 @ 아아.

107081 #1 송보지 말렌 때리명도 해도.

107081 @ 신착으로예? 어떻허면 신착으로 때리는 거라마씨?

107081 #1 그 막 바각바각바각 옆으로 짐 나와 불면 떡이 부정타난에 아니 웨여 가난.

107081 @ 예.

107081 #1 케민 신 벗어근에 신착으로 착착 부치명.

107081 @ 시리레?

107081 #1 으. 영허민 어떨 거니? 곱게 익어줘사주. 어떻헐 거니 허명 막 두드려?

107081 @ 아아, (웃음) 삼춘네도 그런 거 이제 봤구나?

107081 #1 예.

107081 @ 그 다음에 또 잘 막 브름 혜영 안 허면 그 푸는체도 막 세운덴 허명 예?

107081 #1 아, 푸는체는 안 세와봤수다.

107081 @ 아, 그거는 아니고.

107081 #1 신착으로 두드림막 헛주.

107081 @ 신착으로 두드리는 것만 보고예, 예.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떡을 하나 허더라도 다 정성예?

107081 #1 예, 정성.

107081 @ 만약에 식게 출리젠 허면 몸에 거나 와불민 식게 못 출릴 거 아니?

107081 #1 못사 출려?

107081 @ 어어.

107081 #1 쉬정이 원 엇이민 허* 다 동세덜도 잇고 메느리덜도 잇고 허난 못사 출렵니까게. 난 무사 저 경헤시니 그거 저거 다 뭐허느넨 허민 우리 씨아부지가.

107081 @ 예.

107081 #1 살아계실 때 보리떡을 해도 정성들영 자기 손으로 헤라.

107081 @ 으음.

107081 #1 거 기계에 강 뭐 어떤 사름덜사 현 것산디 개고기 먹은 사름사 헤신디 물고기 먹은 사름사 떡을 험신디 그거는 정성이 아니다. 경허영 곶이나부난양 그걸 그치룩 허게 헤지는다.

107081 @ 음.

107081 #1 우리 조카메누리 헤부난 큰집의.

107081 @ 음.

107081 #1 야, 이거 절대 아니다. 송편이라도이 ㄱ를 흔 웨만 곶아 오라 우리가 허져. 우리가 허켜 앗앙 노느니 허켜, 허켜 안 곶앙 그자 그레 헝 메껴병 흔 멧 번 헐 때ㄱ장은 막 시켜도.

107081 @ 으.

107081 #1 안 들었. 싹싹 더운 디 헤집네께 안 들었에 경혜부난 기자 내불어. 야, 하르방 막 툠아진 하르방이여, 이축행 안 웬다. 우리 아버지 씨아버지 씨어머니 큰 말을 그대로 들었 헤신디.

107081 @ 으. 이거 요셋 아이덜은. 요새, 요새 허는 통에 이거 원 돼지 안햄저마는. 경허명 근당 안 들어주난 내비연.

107081 @ 삼촌네 집에서는 안 헤마씨?

107081 #1 우린 족은아덜이라부난.

107081 @ 아무 것도 안 허고 음.

별식

107082 @ 그 다음에 별식으로 헤영 옛날에 뭐 수에예. 잔치 때나 이럴 때 수에 답았지예?. 수에는 어떤 식으로 답음니까?

107082 #1 아이고 수에. 수에 그거 아이고 요샌 근 ㄹ르로 햄주마는 옛날엔 느낌이 ㄹ르로 헤근에.

107082 @ 예.

107082 #1 ㄹ뎡 느낌이 강 사다근에 양념 낱 담는다. 잔치허젠 허민 옛날에 도새기 돼지고기 저 툡 돛박낭썸 만이. 이 부락엔 경헛수다. 저 툡 돛박낭썸 이파리만큼 썰어근에이,

107082 @ 예.

107082 #1 그거 흔 점 농곡 수에 흔 점 농곡 저 무신 준베설. 수에 못 답는 베설.

107082 @ 예.

107082 #1 그거 썸 거 요만씩 짤른 거 하나 농곡 헤근에 반 쥐낫수게.(웃음)

107082 @ 게민 돼지고기도 흔 점만 놔?

107082 #1 으.

107082 @ 석 점이 아니고?

107082 #1 석 점은 어디, 석 점은 우리 막 커사 석 점이주.(웃음)

107082 @ 아아.

107082 #1 그거 놔낫수게. 그거. 경헛, 막 경허민 얼마나 맛 좋을 겨우파? 그.

107082 @ 게니까.

107082 #1 고기.(웃음)

107082 @ 준베설을 반에 논 거라예?

107082 #1 으, 수에 못 답는 베설. 준베설이 잇주게 ㄹ는베설.

107082 @ 예.

107082 #1 그거 하나 농곡 그 수에 흔 점 놓고 고기 흔 점 농곡.

107082 @ 음, 게 반. 그게 삼촌 언제까지 그런 반 허엿수가?

107082 #1 우리도 그거 얻어 먹연.

107082 @ 으, 삼춘네도예?

107082 #1 우리도 그거 얻어먹언.

107082 @ 계난 옛날 온평리는 잘도 못살아난 모양이라예?

107082 #1 음, 토지가 나빠노난.

107082 @ 계니까 토지가 나쁘니까.

107082 #1 토지가 나쁘니까게 뭐 바당에 것만 올영은에 살아놓난 못 살앗주게.

107083 @ 음음. 됴비 지난번에 헛는데 됴비 만드는 거 한번 더 곱아줘봅서?

107083 #1 두부 만드는 거 이디서는 쫄물 바당이 잇이난. 먼동네도 질어 갑니다 게. 쫄물을 통 아정왕. 경허영 그거 레면은 저 뵈이거나 솟디 놔근에 헛 때에 콩그 르 그찌 낵 막 젓어근에 불솜양 그거 다 익어가민 우각허게 툽니께게.

107083 @ 예.

107083 #1 그거 두부가. 그 우각허게 트면은 그거 계난 두부 먹어도 심심허지 안 허는 거 이쪽에서 헛 거는.

107083 @ 쫄물허니까예?

107083 #1 이쪽에서 헛 거 심시 안 허는 거. 그거 건지명게 그 떡 건지는 걸로 건지명 그 판 놔근에 그레 험벅 낵 것에 담아놔근에 놀리민 두부 뵈는 거주게.

107083 @ 음, 계난 옛날에는 이런 됴비가 잔치 때만 헛 거우과? 아니면 영장 때 도 헛니까?

107083 #1 영장 때 안 헛봤수다.

107083 @ 아, 영장 때는 안 헛보고예? 잔치 때.

107083 #1 잔치.

107083 @ 잔치 받은 어떻게 놔?

107083 #1 잔치 반, (웃음) 잔치반이, (웃음) 잔치반은양.

107083 @ 예.

107083 #1 두 점 놓곡 레기.

107083 @ 아, 레기 두 점 놓고.

107083 #1 으, 두 점 놓곡 수에 놓곡 거 두부 헛 점 놓곡.

107083 @ 그게 잔치반?

107083 #1 으.

107083 @ 계도 영장 때보다는 레기는 하나 더 낵구나.

107083 #1 어, 경헛 막 헛여 오단에 우리, 우리 결혼헛 때 뵈난에 우리보단 헛 멧 해 앞서부터는 뵈지 잔치허젠 허민 두 머리 잡앗저 세 머리 잡앗저 헛낵주.

107083 @ 예.

107083 #1 경허민 석 점 낵에 줘낵수다. 경허 그때 당시 석 점 낵에 주단에, 우리 결혼헛 때는 다섯 머리 잡앗저 누게는 네 머리 잡앗저. 이치록 허멍 헛근에양, 우런 계난 어디 잔치허민 멧 점 놔서라 뵈헛라 막 곱주.

107083 @ 음.

107083 #1 계민 난 결혼할 때 예, 우리 온평리만 열두 사름이난양, 신랑 신부 허난.

107083 @ 예, 예.

107083 #1 열두 사름이난에 그 중에서 내가 켈 잘 허켄 헨 우리 오빠가 단스를 해주켄 허대.

107083 @ 음, 음.

107083 #1 단스 해주켄 허길래 나가 단스허지 말고예, 도새기 혼 머리 더 잡아줍서.

107083 @ 음,

107083 #1 뉘지 혼 머리 더 잡아줍은에 손님덜 나시. 그때 부주돈 이십 원 받을 때.

107083 @ 아아, 이십 원 받을 때?

107083 #1 십원 짜리라도, 이십원. 경헨에 이백 원, 이백 원. 그치록 허멍 헨에 친척 어른덜안티 나 착허텐 들으멍 헛주. 판 아이 ㄱ트민 욱심 췌어근헨에 소님은 어멍 헛든 단스헤영 갈 건디. 단스는예 다 아무도 아녀고 허난 놈 친구보단 췌 헛나 더 허고 찬장허고 헨시난 단스 허지 말앙 도새기 헛나 당헤 줍센 헨에 경헨에 막 그때 석 점 녁 점 낱 헤부난에 그게.

107083 @ 소문났구나.

107083 #1 예, 소문난에 그 다음부터는 츠츠츠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녁 점으로 계속 가단에.

107083 @ 으.

107083 #1 다섯 점으로 가단 이젠 뉘 으섯 점이여 무신 세지 아녕.

107083 @ 예, 세지 아녕 놆가지고

107083 #1 우리 아덜덜 풀 뉘양, 우린 영심이 풀 뉘 열네 머리 잡고 도새기.

107083 @ 웨냐허면 무사 조합장허고 허니까 또 얼마나 사람 하실 거라예?

107083 #1 함만 헛수가게. 일뤼잔치 헤낫수가. 열네 머리 잡고 큰아들 풀 때 열두 머리 잡고 죽은아덜 풀 뉘 열 머리 잡앗수다.

107083 @ 췌잔치난 처음에는 엄청났구나.

107083 #1 췌잔치고예 저 이 아덜덜은 욱지 사둔이니까.

107083 @ 아.

107083 #1 욱지 사둔이니까 그걸 차이가 잇엇고. 아이고, 부지.

107083 @ 부지도 하영 들어왔지예?

107083 #1 부지 봉투 까젠 허난에 우리 저 방상 아이덜 이거 뉘 투표함 까는 거 우과? 뉘 까는 거우과 헤낫어.

107083 @ 음.

107083 #1 그때 막 췌고로 받아사 혼 천오백 이천만 원 이천 얼마 영 받았젠 헨신디 우린 오천만원 돈을 받으난에게.

107083 @ 아아.

107083 #1 막 아이고.

107083 @ 그동안 다 저기 베푼 것들 다 헌 거지예?

107083 #1 예, 그치록 경해났수다.

107083 @ 세상에 돼지를.

107083 #1 경헌 디 엇덴 해났어.

107083 @ 돼지를 열네 마리 잡아시민 뉘. 제주도 사름 다 와신게예.

107083 #1 으, 췌도 하영 젓주. 목숨 열네 개 툇 하나 풀멍.

107083 @ (웃음)

107083 #1 목숨을 경 죽어시난. 게난 정기 지지는 것도 스물 말에치 해단에.

107083 @ 으음.

107083 #1 떡판. 그때 처음으로 정기를 우리 시작해부난에.

107083 @ 잔치 때.

107083 #1 어 시작해부난 그 지금은 겨울 때 정기합니다덜게.

107083 @ 아아.

107083 #1 경해연 허젠 허난 스물말에치 ㅁ물쫄을 사레 가난.

107083 @ 으.

107083 #1 아니, 무슨 잔치에 스무 말을 험수겐. 닷 말 일곱 말 험니덴.

107083 @ 으음.

107083 #1 경허는 거라게.

107083 @ 으.

107083 #1 어쨌든 남으민 우리 떡꾸덴 헨엔 이젠 스무 말에치 해단 허난에 떡 지지는 반 도새기 잡는 날 게난 일뤼잔치했주게. 무사넨 허민게 도새기 잡, 도새기 도 하루에 못허영 하루 잡앙 뒷날은 다 못 숲안 다 못 숲으난 뒷날 7장 숲곡 허당 보난 일뤼 걸려신디.

107083 @ 음.

107083 #1 게난 그 떡판을 으섯 개 낱 지젓수게. 하나에 혼 판에 네 개씩 나오는 거 여섯 개 낱. 경해도 들라 못 지정. 들라 못 지전 시에서 온 사름덜은 이 방에 앓아도 밥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줘렌 허멍 기자 나갓덴 헨에 거 넘어나사 또 사레 허곡.

107083 @ 으음.

107083 #1 소님이 그만큼 물려놓난양 저 집 우리집 다 터난 해도예.

107083 @ 음.

107083 #1 에이그.

107083 @ 완전 대잔치를 해신게예?

107083 #1 예.

107083 @ 음.

107083 #1 아이그 진짜 그치룩, 그치룩허는 디 윈 없어. 몰라 육지더레 높은 사
름덜 헐 때나.

107083 @ 육지는 더 안 헵니다.

107083 #1 높은 사름 헐 때나 헵신가. 아이그, 세 번을 허젠 허난.

107083 @ 경혜연 집에서 다 헐 거예?

107083 #1 요즘 잇엄시민 우리도 식당에 강 혼번 헤볼 쥬. 한걸리.

107083 @ 아아 웃음.

107083 #1 집의 줌자당 가곡.

107083 @ 음.

107083 #1 아이고.

107084 @ 그 므멸묵은, 식게 때도 므멸묵 헛수가, 여기는?

107084 #1 예. 므멸묵 헵니다.

107084 @ 그 므멸묵은 어떤 식으로 쭈는 겨우과?

107084 #1 거 쭈곡양. 쭈는 딴 쭈곡.

107084 @ 으.

107084 #1 지지는 딴 기자 지져불곡.

107084 @ 아아. 므멸묵도 여기은 지정은에 헤예?

107084 #1 간세허민 지져벼.

107084 @ 삼춘은 어떻게 헤?

107084 #1 원래 므멸묵은 쭈야 돼주게.

107084 @ 음.

107084 #1 우리는 큰동세 ㄹ라 쭈센 허영 쭈.

107084 @ 아, 어떻 식으로 쭈니까? 쭈는 겨는?

107084 #1 므멸묵?

107084 @ 으.

107084 #1 므멸묵도 언물에 ㄹ르 캉. 정기 지지는 것보다 쭈끔 두덱게 쭈ㄹ만 두
덱게 카면은 딱 맞추게.

107084 @ 예.

107084 #1 경혜영 솟디 아시에 낱은에 건 안 짓이민 흐뭍이라도 안 짓이민 솟디
막 늘어부는 때문에.

107084 @ 음.

107084 #1 익을 때ㄹ장 젓어사.

107084 @ 으음.

107084 #1 익을 때ㄹ장 젓어사. 다 익으면은 그거 영 밥자 들르면은 그게 툭툭
떨어정은에 아예 안 부뜨민 익은 거고.

107084 @ 음.

107084 #1 거 흐뭍 떨어지명 이레 영 등긴 겨는 설주게. 게민 경허도록 그거 막

계속 있어.

107084 @ 음.

107084 #1 경행 차판이나 뒷에 퍼냥 싹 다령 놔두민 금방 얼리난애.

107084 @ 음.

107084 #1 마끗데 화릿불에 굽곡.

107084 @ 묵도 또 귀마씨?

107084 #1 귀야주. 춤지름 불르멍.

107084 @ 아, 우리는 안 쾡은애 그냥 허던데?

107084 #1 화릿불애. 아니주.

107084 @ 음.

107084 #1 안 구는 거 닻아도 쾡수다. 후라이판애라도.

107084 @ 아아. 귀.

107084 #1 귀삽니다게. 기자 헤영게 아니 허주. 민드락허곡.

107084 @ 아, 게 옛날엔 다 화리에, 돌화리에?

107084 #1 옛날에는 화리에 솟불 행은애 그축행은애 쾡주. 요즘은 후라이판애 정
기 지지는 판에서 영영 놔근애 뒤쓰멍 굽니다. 요즘도.

107085 @ 아, 청묵은?

107085 #1 청묵은 믰멸촨도 허는 거.

107085 @ 으. 믰멸묵은 그르 곶양 허고?

107085 #1 으, 청묵은 촨 물애 등갓당은애 폭 즐루민 잘리에 놔 막 주물탕 쟁.
짜근애 그 물 쑤민은?

107085 @ 청묵 뒤는 거.

107085 #1 묵이 뒤는 거.

107085 @ 보통 청묵은 언제 허는 거마씨?

107085 #1 아니, 언제가 아니고 겨울애라사주. 여름엔 해도 얼리질 안 허주, 잘.

107085 @ 아아.

107085 #1 게곡 쉬어불고. 여름엔 허당 잘못허민 쉬어불고게.

107085 @ 보통 게문 묵은 겨울애 하는구나예?

107085 #1 겨울애.

107085 @ 게난 청묵을 허든 믰멸묵을 허든 아무거나 해도 뒤는 거? 그 청묵이
힘들켜 아무래도예?

107085 #1 청묵은 원래는 반찬으로 먹는 거주게.

107085 @ 아아, 기우과?

107085 #1 간장 찍으멍.

107085 @ 으음.

107085 #1 간장 양념 간장 해근애 찍으멍 그치록 허는 거주. 쯤디 정성 들영 허
느렌 청묵을 허주. 이디도 혼 집이만 청묵을 헤여.

107085 @ 아, 원래는?
107085 #1 다 쭈는 디.
107085 @ 다 쭈는 디?
107085 #1 ㄹ르로 다 쭈는다.
107086 @ 어어. 옛날은 이제 또 개역? 우리 개역?
107086 #1 보릿개역.
107086 @ 옛날에 그거 한번 더 알아봅서?
107086 #1 보리개역. 주녕이보릿개역은 껌덕이 두꺼우난 거주 뒤불 까까뒤근에
꺄민 문작헌 게 맛있고. 슬보리는 껌덕차 껌덕이 얄부난 껌덕차 보짱 ㄹ는 때문에
주녕이보리 만큼은 ㄹ시는 건 혼 가지라도 입에 먹는 거는 주녕이보린 문작허고 슬
보린 쫄끔 쫄끔 거친 뉘가 잇주.
107086 @ 음.
107086 #1 거친 뉘이 잇어.
107086 @ 거친 것이 잇어예? 경허영 곁양은예?
107086 #1 곁랑 체로 막 쳐.
107086 @ 체로 쳐.
107086 #1 요샌 하룽방에 허주마는 그때는 곁양. 정 ㄹ레에.
107086 @ 정 ㄹ레에 곁양예?
107086 #1 뉘 숲아근에 뉘국물에 개역 뉘양 떡곡. 아이고, 또 썰보리썰 곁아나민
그 ㄹ르 뉘국물에 뉘근엥에 비병 떡곡.
107086 @ 음.
107086 #1 우리도 거 먹언.
107086 @ 게니까. 경허고 삼춘 그, 여기는 콩으로는 개역을 안 험니까?
107086 #1 콩개역.
107086 @ 으.
107086 #1 콩개역, 그 콩개역은 무시거 험 때 양념 먹젠 허주 경 주로 그걸로 때
먹게는 안 험봤수다.
107086 @ 옛날에 콩개역 험영은예 무사 우미 험은예?
107086 #1 이제도 우미는 그거 험니다.
107086 @ 아아, 지금도.
107086 #1 우미 숲을 뉘 지금도 콩개역 험니다.
107086 @ 지금도 콩개역허고예?
107086 #1 곁아당 허는 거난게.
107086 @ 콩개역도 보짱은예 곁민 뉘는 거마씨?
107086 #1 보짱 곁민 뉘는 거.
107086 @ 무사 그 예전에 일 끝나거나 이치룩허멍 그 친정어멍이나 저기 씨어멍
안티 개역 허영 가곡 허는 이런 말도 들어판마씨?

107086 #1 (웃음) 씨어멍네 개역혈 정도가 안 돼면은 늙엉.
107086 @ 으. (웃음)
107086 #1 경허민 헤영 아저가사주게.
107086 @ 으음.
107086 #1 예, 아저가사주.
107086 @ 계난 보리 끝나면 일년에 혼 번 허는 거라예?
107086 #1 장마예.
107086 @ 장마예?
107086 #1 오월장마예.
107086 @ 음, 계난 동네, 그치룩허영 가정갓덴 허더라고예?
107086 #1 오월장마예.
107087 @ 그 다음에 여기도 지짐이 ㄴ쁜 것도 헤영 먹엇수가?
107087 #1 지짐이도.
107087 @ 옛날도.
107087 #1 지짐이사게 흐뎡허민 무시거 헤영근앵에 이거 지지미 허라. 지지미 먹엇주게.
107087 @ 음, 그때는 뭐 낵 헤여?
107087 #1 것도 여라 가지주. 아무 거라도게. 찌짐이 허는 것사 무신 해산물도 잇이민 찌정 그런 것도 찌짐이허고. 문어 ㄴ쁜 것도 즈녀덜 쳐잡으난 풀 디 잇이난 그런 것도 즈질게 썰어낵 지짐이 행 떡곡.
107087 @ 아아, 옛날도 그런 식으로. 역시 바다 동네니까?
107087 #1 으. 바다난. 순 바다 걸로.
107087 @ 계민 거기는 가루는 어떤 가루를 쓰는 거?
107087 #1 가루게 그뎡 ㄴ뎡 막 혈 때난 ㄴ뎡 ㄴ르주 다.
107087 @ 다 ㄴ뎡 ㄴ르예?
107087 #1 밀 ㄴ르허고.
107087 @ 으음.
107087 #1 밀가루허고 ㄴ뎡 ㄴ르 두 가지벧기 엇주게.
107087 @ 예, 예. 계문 바당에 거 낵도 지짐이를 험구나 여기선.
107087 #1 바당에 거 낵. 지금은 해물전엔 허주마는 그뎡 지짐이.
107087 @ 으음. 뭐 낵 현 게 가장 맛 줍니까? 이제.
107087 #1 해물 논 것사 맛잇주게.
107087 @ 예.
107087 #1 이 문어 낵 현 것도 맛잇고게. 문어도 즈질이 썰엉.
107087 @ 음.
107087 #1 즈질이 썰엉 눈 떼여벼췌. 눈이랑 떼여뵤 즈질이 낵작낵작낵작허게 지짐이 허민 얼마나 맛 좋아게. 문어도게.

107087 @ 으음.

107087 #1 경허영 먹주.

107087 @ 우리는 문어로 지짐이 허는 거를 못 보니까.

107087 #1 바당 아니라부난.

107087 @ 예.

107087 #1 산에난.

107087 @ 아, 게든 그거는 무사 눈은 무사 텐텐 허는 거?

107087 #1 아니 건 그디 혼디 놔봐야 무시거 빨룩빨룩 빨룩빨룩 보거나 싫주, 무신.

107087 @ 먹을 때도 눈은 안 먹읍니까?

107087 #1 먹을 때 맛은 잇주게.

107087 @ 먹긴 허고.

107087 #1 먹긴 허고.

107087 @ 지짐이 헐 때만.

107087 #1 빨룩빨룩해근에게.

107087 @ 지짐이 헐 때만 그렇게 허는 거라예, 예?

107087 #1 문어 죽 썬도 막 맛 줍니다. 득죽 닭주.

107087 @ 아, 기우과?

107087 #1 큰, 큰 문언 이디서.

107087 @ 너무 질기잖아예?

107087 #1 안 질겨. 큰문어 심어지민양?

107087 @ 예.

107087 #1 안 질겨. 집의 왕 떡 때여땡 옛날에 불치예.

107087 @ 으.

107087 #1 불만 슴으난. 불치예 버부령 작작 싯으민 그게 붉은 껍덕 싹 벗어지고 헤영허게 슬만 나오주게.

107087 @ 아아.

107087 #1 이 슬만. 슬만 나오민 솟디 낱 딸리민 닭고기 닭주.

107087 @ 아아.

107087 #1 거 뱃겨불민 짜지도 안 허고 비삭비삭 득고기 ㄹ치록 질각질각허멍. 문어죽 잘헐덜 먹엇주. 풀지 안헐 때.

107087 @ 풀지 안 헐 때는.

107087 #1 예.

107087 @ 그러면은 그 문어죽은 그 곁에 거를 다 때여땡 허는 거?

107087 #1 기자 허민 빨경허주, 죽이. 겁떡차 허민 벌경허는 때문에 그거 때여땡.

107087 @ 근데 벌경헌 게 더 몸에 좋텐 허는 건데?

107087 #1 하하. 웃음. 옛날엔 좋은 거 곳인 거 몰라부난 게도 먹어실 테주.

107087 @ 계난 그거 이제 허면은 맛이 덜 하는가 보다. 빨경헌 계.
107087 #1 덜하고 무신거 헌 거는 건 몰르곡.
107087 @ 음.
107087 #1 건 몰르주. 건 몰르주 그축만 헤영 먹어나난. 몰르곡, 보기는 좋주 헤영허게. 득죽 님양.
107087 @ 예, 예. 요즘도 문어죽달 행 먹읍니까?
107087 #1 예, 요즘도 무시거 헌 사름덜은 먹읍니다. 죽 쭈켄 허명 사가곡 헉니다.
107087 @ 으음.
107087 #1 해너들신디 왕.
107087 @ 몸에 좋은 거난예?
107087 #1 죽 썰. 산모덜도 좋곡게.
107087 @ 아아, 문어도 산모 좋아?
107087 #1 산모 좋곡양, 임신웬 때 자꾸 유산웨는 사름 잇지 아너우파?
107087 @ 예.
107087 #1 경헌 사름도 역불 문어 맥임네께. 부뜨는 거난.
107087 @ 아아.
107087 #1 바짝바짝 부뜨는 거난. 부뜨는 거옌 헤근에 그거 헤영 먹입네께. 그거나 전복이나.
107087 @ 전복이영. 아 게니까 임신하기 그런 식으로?
107087 #1 암 걸린 사름만 안 먹주. 오년 동안은.
107087 @ 아, 문어는?
107087 #1 암에 수술헤난 사름은 문어광 전복은 오년 동안은 안 먹어사. 우리도 지금까장 아방 안 안넵네께.
107087 @ 아, 기우과? 무사 경 허는 거?
107087 #1 부뜨는 거라부니까. 암세포가 어디 천리만리 잇당이라도 그런 걸 먹으면 부떠서 재발헌다.
107087 @ 으음.
107087 #1 경허는 때문에 부뜨는 음식은 안 먹읍네다. 5년 동안은.
107087 @ 오년 동안은?
107087 #1 암 흥번 수술허면 기간이 딱 오년이거든.
107087 @ 아아.
107087 #1 오년 동안 안 먹어. 지금도 안 쥬. 지금 만 사년인디.
107087 @ 예에.
107087 #1 지금도 난 안 줍니다.
107087 @ 딱 이제 뭐 허지 말라 헌 건 딱 지킴꾸나예?
107087 #1 예.

107087 @ 직허렌 허는 건 지켜볼민 좋아예?

107087 #1 요번에도 검사 가니까 아이고 막 완전 깨끗하게 그것엔 뭐 걱정 안 해도 돼쿠크텐. 경 원장이 곤진데 나가 이제 일년만 그대로 허민 죽기 생전 될 거우 다게 허멍 헤신디.

107087 @ 경해도 그런 거를 따라주니까 허지 만약에 밖에 강도 먹을 수 잇지 아 녀우광게.

107087 #1 안 따르민 어떻게 할 거우꽈? 이거 멧 번이우꽈? 우리 대수술 네 번 헛 수게.

107087 @ 경허난 안 헐 수도 엇주. 어시커라예?

107087 #1 안 헐 수도 엇주. 아이고.

107087 @ 죽은덴 헤신디 다 살려신디.

107087 #1 빼가 오그라져 요번에 병원에 가난 험니다. 아방, 나 이번은 수술 안 허켜. 다섯 번을 어떻 대수술을 헐 거니? 허관. 나, 제발 허지 말앙 나이도 들고 허 난 기냥 즘자명 놀멍 살당 가주 나 어떻 심부름험니까? 또. (웃음)

107087 @ 음.

107087 #1 웃음.

107087 @1 경허여도 헤야될 상황이민 헤야주?

107087 #1 헤야주게. 아이고.

107088 @ 경헝 이제 또 삼춘 오메기술?

107088 #1 오메기술. 오메기 헤영 낵 흐린좁쌀에.

107088 @ 거니까.

107088 #1 으, 오메기 헤 낵 술 허는 거. 오메기 헤 낵 막 꾸여근에. 막 꾸영 물 낵 헝 놔두민 오메기술 웨는 거.

107088 @ 오메기떡도 먹잖아예?

107088 #1 예, 오메기떡. 흐린 조 검은흐린조헤영 오메기 헤연에.

107088 @ 그 오메기를 멘들아봘서.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 오메긴?

107088 #1 오메기 물양게 술벤 허듯이 영영영영 허멍 낵 솥을 거주.

107088 @ 아, 거는 솥을 거?

107088 #1 으, 솥을 거. 술허는 것도 다 솥을 거.

107088 @ 다 솥을 거.

107088 #1 솥아근앵에 떡 솥은 물도 식으민 그 술 담을 때 ㄱ찌 그 오메기 꾸여 낵은에 헐 때 ㄱ찌 낵 담는 거. 더 맛중주.

107088 @ 옛날에 떡 솥으 물 헤갓고 국을 끓이거난?

107088 #1 아, 게 이제도 험니다게.

107088 @ 아, 이제도 험니까?

107088 #1 집에 무시거 허젠 떡 솥아나민 거 미역국 끓렁 먹읍니다게.

107088 @ 아아.

107088 #1 미역국 끌렁 먹읍니다게. 풀풀허게시리.

107088 @ 그게 영양가잖아예? 그추록 행 오메기 삶아난 물에.

107088 #1 쉬정 엇어부난 허주 허영 먹읍니다게.

107088 @ 무우 놓고 영혜근에 헛던 거 같애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메기술 멘 들젠 허면 그 순서?

107088 #1 으, 순서가게.

107088 @ 맨처음 찰 물 담글 때부터 술 쉼 때까지 쪽 곱아봅서?

107088 #1 좁쌀 물 등갓당. 좁쌀은 찰만큼 오래 안 등가도 돼주. 경헛당 그거 방 에에서 막 췌앙. 삶앙 물 미지근허게 반죽 꾸여근에 영영허영 앗앙덜 만들앙, 경헛 또 그거 물에 삶앙.

107088 @ 으.

107088 #1 삶앙 다 다 흐린 거난 막 다 흘탁탁허주.

107088 @ 음.

107088 #1 게민 건정은에 이제 흐끔 식어가민은 그걸 막 꾸여. 더운 때는 막 남 죽으로 막 영영 밥자로 놀리멍 허당. 경혜영 꾸여근엥에 그 삶아난 물 농곡 기자 물 농곡 혜영 누룩.

107088 @ 으.

107088 #1 누룩 서꺼근엥에게 뜻뜻헌 디 낱 이불 푹 더경 놔두민 바글바글 퀘주 게.

107088 @ 음.

107088 # 1 경허는 겨우다. 경혜영 뜰랑 먹는 거.

107088 @ 게니까 메칠 돼면은 그건 먹을 수 잇어마씨?

107088 #1 거 흔 사흘. 뜻은 디 막 낱은 흔 사을 흔 췌 새 돼민 다 먹주.

107088 @ 술이 빨리 만들어지는구나.

107088 #1 예, 뜻인디 놓민 경허주게.

107089 @ 옛날에 쉼다리덜도 하영 먹지 아녜니까?

107089 #1 쉼다리게 밥 쉬민게 어려운 때라노난게 쉼다리라도 밥 쉬민게 때 먹 곡 헛수게.

107089 @ 쉼다린 어떤 식으로 만들어?

107090 #1 쉼다리도 밥 쉬면 물 놔근에 그 누룩. 항상 누룩은 집의서 보리덜 곱 멩 허난에 만드니까.

107090 @ 예.

107090 #1 이녜대로 말들영 낫당 허니까 마음대로 쓴 겨주게. 만들민 누룩도예, 깨끗헌 사름 혜근에 만들아놓민 누룩이 잘 돼영은에 췌이 피여양.

107090 @ 예.

107090 #1 빨간꽃. 누룩이. 그거는 진짜 좋은 거고. 시장에 강 만약에 살 때라도 그 췌 편 건 허민 좋은 거고. 췌 안 피는 게 이십네다. 좀 부정헌 사름이나 문직아

불민.

107090 @ 아아.

107090 #1 꽃 안 피영 그대로 말부는 거. 검은 저 무신 곰팡이나 아삭 앓아 탕기 꼭 그추룩합니다. 물론 사람은 그자 막 사도 우린 아난에 딱 똥은에 무시겨 엇이민 기자 오주.

107090 @ 경허영은에 그 누룩만 놓면?

107090 #1 빠져.

107090 #1 걸 막 ㄹ르로 빠져. 경혜영 그걸 ㄹ찌 먹어야 되는 때문에 ㄹ르로 막 빼정 ㄹ는체로 또 청. ㄹ르로 서끝 거주.

107090 @ ㄹ르로. 예,

107090 #1 거 기자 먹을 거난.

107090 @ 먹을 거난. 경허영 허면 그 쉰다리 허면은 건 슯앗수가 아니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연 먹엇수가?

107090 #1 슯앙 먹어사주. 저 쉰다리 썩차 먹는 거는 건 막걸리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난에 쉰다리로, 쉰다린 슯아사.

107090 @ 슯아사아?

107090 #1 슯앙 먹어사주, 배 아파.

107090 @ 기구나. 슯지 아녀 갖고 먹는 디도 잇입디다.

107090 #1 그거는 막걸리 대신 먹는 거주게.

107090 @ 거 막걸리 대신?

107090 #1 썩채 먹는 건 막걸리 대신 먹는 거.

107091 @ 삼춘 옛날에 직접 옛도 직접 멘들아판마씨?

107091 #1 득옛도 멘들고.

107091 @ 득옛 공정이 것도 잘도 공정이 정말 복잡해예?

107091 #1 득옛도 옛기름 재료가 이시난에 사단근에 팡이영 뉘영 다 털어똥.

107091 @ 으.

107091 #1 재료가 다 털어똥. 옛 낱 딸리민게 영 밥자 들르민 진득진득행 허민 그게 다 익은 거난 퍼 놓고. 다 뉘지고기도 옛 딸렁.

107091 @ 으.

107091 #1 그 오닐 하르방. 휘장 하르방. 그 하르방은 큰각시 살 똥 뉘지엇만 먹연 살앗수다.

107091 @ 아아.

107091 #1 힘 나렌.

107091 @ 일 허니까.

107091 #1 각시 물질허레만 가부난에. 저 어른은 남즈라도 어디 흥번 나가보지도 못허꼭 기자 오로지 일만 헨. 일만 허지 아녀십디가?

107091 @ 예, 예. 손이 일만 일만 헤십디다게.

107091 #1 일만 행 살아서.

107091 @ 음.

107091 #1 지금 7장도. 각시엔 해봐야 뭐 요만은 거 흥나 도와주지 안 허는 거 그축행 사난에양, 각시가 어 재산이 엇이난 물질을 그 무신, 기계물질을 헛어.

107091 @ 머구리허는 거?

107091 #1 거 허난 돈을 많이 벌엇주. 많이 벌언 밧도 흥 대으섯 개 막 큰 밧덜 다 사꼭 저 집도 각시가 벌언 산 오고.

107091 @ 으.

107091 #1 그 부모덜이 재산이 엇이민 물려 올 게 어십니께. 아덜이.

107091 @ 예, 맞아.

107091 #1 계난 두 번차 아덜이고 허난 무시거 벨로 물릴 것도 엇이난 물질만 허레 땡기멍 그치룩헨 해수계게. 경허단 결국은 죽어벧주마는. 재산 문딱 일화나된 에 우리도 아이고, 언니 이제랑 그만 갑서, 그만 갑서. 재산 안 모두아도 에기덜 삼니다게. 아 서오누이주게. 아덜 둘 허고 그.

107091 @ 예. 예.

107091 #1 그치룩 험서, 험서 허난. 나 이번만 강 완 안 가켜, 이제 안 가켜 허멍헌 것이.

107091 @ 사고로.

107091 #1 그때 간 죽어분디. 저 보약 해당 행 맥여뵤 가쟁 그 뵤지도 승이나 판 고기도 안 허여. 승이나 이 목도리나.

107091 @ 음.

107091 #1 기름기 잇는 거.

107091 @ 음.

107091 #1 그런 걸로 헤영 엇 담양근엥에 복삭 일년 먹으렌 헤뵤 가민, 그것이 췌고 보약인 2라양 저 아저씨는 그것만 먹언 살앗수게.

107091 @ 지금 딱 봐도예 어디 아플 거 닻지 안 헤? 탕탕헤?

107091 #1 탕탕허여.

107091 @ 지금도 그런 **.

107091 #1 그치룩헌 어른이라, 저 어른.

107091 @ 아까 삼춘, 승은 어느 부분을 승이렌 헤여?

107091 #1 이 베.

107091 @ 벧살을?

107091 #1 벧살이 승이주.

107091 @ 목도리는?

107091 #1 목도리가 휘양도레기.

107091 @ 휘양도레기.

107091 #1 휘양, 휘양.

107091 @1 으음, 목도리를 휘양도레기엔 험니까? 여기서.

107091 #1 으, 목도리.

107091 @ 으, 목살, 요즘도 목살이 맛좋은 허는 게 그거구나게.

107091 #1 그거. 옛허젠 허민 그거벧괴 안 허여. 그거 허영 골 옛기름 사다근엥 에 그거 허영 썬근에 허민 딸리민 옛텔 거난에. 밥 먹을 때마다 그것에 먹읍센 허 영은에.

107091 @ 게난 그 옛기름 헤영 험 때 골도 삼춘 직접 만들어반?

107091 #1 예게.

107091 @ 골은 어떤 만드는 거?

107091 #1 그거 물 등갓당은에 막 즈늘앙은 안 나주.

107091 @ 음.

107091 #1 게난 어느 정도 기자 즈늘면은 아 요 정도믄 웨겏다 헤근엥에. 다라나 무시거나 낡 기자 더경 내불민 혼 댓새 웨민 콩늬물 나듯이 납니다. 그게.

107091 @ 예.

107091 #1 게민 그때사 들룰 거주게.

107091 @ 으음, 게영 들류왕은에?

107091 #1 들류왕은에 삐정은엥에 걸 반죽험 거.

107091 @ 으음.

107091 #1 경허영 동글동글허게 반죽헤영 들룰 거.

107091 @ 음.

107091 #1 요새 픈는 것덜 그치룩허영 나온 거.

107091 @ 게믄 그런 식으로 허는데 그때는 그 보리는 무슨 보리로 헤?

107091 #1 주녕이보리.

107091 @ 주녕이보리가 좋구나? 맛은 예?

107091 #1 주녕이보리. 껍덕이 여라 불 잇영 허주. 주녕이보리.

107091 @ 예, 골험 때도 주쟁이보리로?

107091 #1 으, 주녕이보리.

107091 @ 그 다음에 그, 그 골 놀 때.

107091 #1 으.

107091 @1 그 이 뿌리들예, 그거는 다 보병은에 헤야 웬덴 허는 거 아니?

107091 #1 무신 뿌리? 겁덕?

107091 @ 겁덕이나 뭐 험 때. 골 험 때 그냥.

107091 #1 아니, 그냥 그것차 헤사주.

107091 @ 그냥 그것차 허는 거라예?

107091 #1 거 베겏불민 나질 안 허주.

107091 @ 옛험 때도 그 밥은 뭘로 헤 어떻 헤?

107091 #1 밥은 기자 조팍 헤영 허는 사름. 대개 조팍헤영 허곡. 보리썰 서경도

허고 기자 이녁 먹는 거.

107091 @ 먹는 거?

107091 #1 먹는 쌀로.

107091 @ 옛날 옛허젠 허멘 보통.

107091 #1 예게. 조팍.

107091 @ 조팍으로. 보리밥으로 옛을 헤마씨?

107091 #1 예게 조팍 보리밥이난게. 옛허는 건 안 돼고.

107091 @ 흐린좁쌀로 헤서 옛은?

107091 #1 옛 허는 건 좁쌀도 흐린좁쌀.

107091 @ 이렇게 하고?

기타

107092 @ 이거 말고, 이 마을에 특별허게 아무래도 마당 동네고 허니까 이 마을에 뭐 특별허게 헤 먹엇던 음식 잇이카마씨? 이런 거 말양?

107092 #1 이런 거 말양 옛날 특별헌 뭐가 옛엇수다게. 지금에야 헛주. 옛날이사 무시거. 아이고, 그런 것도 마음대로 막 토지나 좋곡 뒀헌 사름이라사 믿음대로 헛주. 어디 경.

107092 @ 웃음. 맞아.

107092 #1 우리, 우리 어머니네보단 우리 할머니네 대에가 그렇게 살앗수게게.

107092 @ 예, 할머니네예?

107092 #1 예, 증조할머니네 대가 완전 그렇게 산 거 아니우과?

107092 @ 음.

107092 #1 경허영 허난에 또 우리 어머니네 대에도 그 기자 진짜 감저로 양식허 곡계. 감저만 떡곡계. 마농 캐당 징귀 담양 마농징귀 아무 것도 안 논 거 기자 새금 새금헌 거 그것만 떡곡 헛수게게.

107092 @ 어쨌든 삼춘네도 결혼할 때도 그렇게 산 거 아니라예?

107092 #1 아니 우리 결혼할 때까지 7장은 그치록은 안 살앗주.

107092 @ 그치록은 안 허고.

107092 #1 그 자락은 안 살앗주. 우리 결혼할 때 7장은.

107092 @ 흐뎀 그때는 세상 펼 때예?

107092 #1 으, 흐뎀 페울 때.

107092 @ 페울 때. 게도 삼춘네는 우리 남자 삼춘이 밖에 강도 돈도 벌어오고 영 하나까 헌 거고. 그 시절에도 못 먹는 사름이 하지?

107092 #1 우리 시절에도.

107092 @ 예.

107092 #1 우리 시절에도 경 잇수다. 아, 지금은 마찬가지. 지금은 나라에서덜 막 살려주난 거주. 지금도 나라에서나 협조 안 헤 줘시민 못허는 사름이 하주게.

107092 @ 기지예?

107092 #1 잊주게.

107092 @ 알앗수다. 잠깐만예? 이제 또 다른 거.

제2절 어휘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데가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굴
201005	제비초리	제비출랑지, 제비출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꺼럭,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머리터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빗,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닿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뽑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상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가르미, 앞갈를 거
201019	이마	임탱이
201020	넓다[廣]	넓다
201021	이마뼈기	이마뺨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얼굴, 뇧
201024	낫[面]	뇧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사리, 세숫탱이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멘경,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얌
201032	뺨따귀	불탕머리, 귀똥베기

201033	때리다[打]	후리다
201034	불	삐얌, 불탕머리
201035	불따구니	불치
201036	불거리	불치기, 귀똥치기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보지개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동자(애기동자)
201043	눈꺼풀	눈뚜께
201044	거적눈	더깨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진허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쑹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콧근둥이(?)
201049	수침(垂針)	바놓
201050	거머리	푸른지미
201051	폐롭다	폐까랍다
201052	눈곱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눈살
201054	사팔눈	사팔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쎄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퍼랭이, 누랭이
201062	콧물	콧물, 코
201063	닦다[拭]	씻다, 다끄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춤말, 바른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바위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입노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놈의말 허지 말라
201077	허풍	건풍
201078	뇌다	노이다
201079	침[唾]	꿈, 춤
201080	삼키다[呑]	숨지다, 느려우다
201081	가래침	게춤
201082	뱉다[吐]	바끄다, 바트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디
201085	혀	세
201086	핥다	할라먹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송곳니(小), 걸니(大)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벌은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아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옥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옥물다	(니)즈그물다
201099	턱	턱, 아굴턱
201100	턱살	턱군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자락
201105	귓볼	귓봉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밑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염
201113	목	목, 야가지
201114	굶다[飢]	슬지다
201115	모가지	야가지, 야개기
201116	먹살	모가지, 목고디,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심다
201118	뒤통수	뒤통수
201119	꼭뒤	머리꼭뒤
201120	뒹덜미	뒹더멩이

상체

201121	어깨	독지, 뚝지
201122	어깨뼈	독지짱, 푸는체짱, 옷독지짱
201123	어깨죽지	옷독지
201124	겨드랑이	저갱이, 저드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꼭지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닭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꼭지
201132	팔목(=손목)	홀모개기, 홀목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짱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갱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슴
201145	할퀴다	굽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맹꽁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울	젓명얼
201161	짜다[擻]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꼽, 배또롱
201167	옆구리	역갈리
201168	갈비뼈	갈빗뼈, 역갈리뼈, 역갈리꽁
201169	등	등, 등따리
201170	밀다[推]	걸어밀다
201171	굽다[曲]	오그라지다
201172	등때기	등따리
201173	가렵다[癢]	ㄱ릅다
201174	굽다[抓]	굽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언물, 실린물
201178	등마루	등막머리

201179 등뼈 등막머리꽁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즌둥이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볼기짜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꾸냥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더럽다, 버물다
201192	가볍다[輕]	게볶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삿툼
201195	가래똥	늦인돌
201196	다리[脚]	다리, 가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독머리
201201	무릎뼈	독머리꽁, 절벵꽁
201202	뼈다[脛]	ㄱ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강머리
201204	정강뼈	정강머리꽁
201205	종아리	종에, 종아리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
201208	복사뼈	독새기꽁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긷다[凶]	긷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빠다
201215	발등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뽕오지[발뽕오지]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저굴루다
201220	간지럼	저구름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어금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뎃발가락	상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발눈
201224	티눈	티눈, 켈이진 거, 퀴눈이
201225	고린내	구린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즌베설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아져가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기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낱다[媿]	낱다
202006	태(胎)	애깃봇
202007	텃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묻이
202011	갓난아이	근난애기,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제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업퀘
202018	업저지	애기업퀘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황
202022	오줌버캐	오줌능쟁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리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꾸지람
202029	배냇저고리	벤넝이저고리
202030	기저귀	삿바
202031	배두렁이	배불레기
202032	포대기	걸레, 애기보제기
202033	보자기	포떼기
202034	보따리	포떼기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걸레

202038 띠 걸레
 202039 개구멍바지 *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즈매즈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섬메섬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혼발 두발
 202046 걸음마 걸음바
 202047 걸리다 걸류다
 202048 곤두박질 박아지다
 202049 곤두서다 *
 202050 가동가동 가당가당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정게고게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내다
 202056 엄살 엄살, 흙새
 202057 샘 개심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술, 몽니
 202062 밋다[憎] 밋다
 202063 옛말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일]
 202066 딱지치기 떼기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곱을락, 곱을네기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가름뜨기

202073	풍계문이	돌아라 돌아라 누구
202074	줄넘기	베뿔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바둑치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막주제기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베기
202086	겨루다[競]	심백허다
202087	채기차기	쪼끼차기
202088	혜엄치다	휘다
202089	웃놀이	웃누는 거
202090	웃가락	웃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지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강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범벅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돔치기
202100	편벽하다	펜백허다, 펜들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네모난연
202107	가오리연	*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공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어로 붙인 대	연대
202108-3	꿇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별이줄	별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별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별이줄	*
202112-3	공숫줄	연의 공숫구멍에 꿰어서 공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별이줄	*
202112-4	활별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별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별이줄	*

202113	얼레	썰도로기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밀신개	*
202121	굴렁쇠	자전거 바퀴 돌릴 거
202122	구르다[轉]	등그리다
202123	썰매	*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깎장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위염
202128	선하품	하위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허다[정끼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래다
202133	졸음	즘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롭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깊은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무충이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허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트름
202145	말꼭질	털국지
202146	채채기	채채기
202147	개치네췌	털쉬 (나가라)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복제기

202151	구린내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노린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고뻬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한집, 족은한집
202157	학질	터레기병
202158	천연두	큰한집
202159	곰보	곰보[뽀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득진
202163	두부백선	득베기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백버즘
202167	진버짐	도리버즘
202168	주근깨	프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물축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푸리다
202174	굳은살	꿩이
202175	부스럼	허물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썸중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허물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긧인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허물그르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데기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칭맹과니	뜬봉스
202192	면산바라기	뜬봉스
202193	애꾸눈이	앵꼬눈
202194	사팔뜨기	사팔떼기
202195	다래끼	개썸
202195-1		개썸(아래)
202195-2		들윗(윗)(위)
202196	언칭이	청보, 얼챙이
202197	외언칭이	*
202198	쌍언칭이	*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쉬
202201	병어리	버버리, 말물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더들다
202203	혀짤배기	세쪽른사름
202204	입비뿔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등꼬부랭이, 곱새
202209	절뚝발이	절뚝발이
202210	얇은뱅이	얇은베기
202211	문둥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무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명
203005	할아버지	할아버지
203006	할머니	할머니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부체, 두갓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
203012-9	막내아들	*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나아덜
203014	의붓아들	새앙아덜,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나딸
203017	의붓딸	새앙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새끼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애딸
203025	어이아들	에세끼
203026	말이	몬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동생
203031	언니	성님, 언니
203032	아우	아시, 동생
203033	외아들	웨아덜
203034	외딸	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오누이성제
203036	다르다[異]	뜨나다
203037	같다[如]	답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자가 되는 것	양제가다
203038-2	양자를 데려오는 것	양제들다
203039	처녀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 중매
203045	권당	권당, 켄당
203045-1	덥덜	덥덜사니, 덥덜
203045-2	방상	방상(육촌 이후)
203046	앉은잔치	*
203046-1	암창개	*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버지
203050	시아머니	씨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장인어른
203052	장모	가시어멍, 장모님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버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머니
203055	삼촌	큰아버지
203055-1	삼촌	(동네어른)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구짝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병쭈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거동허다
203065	손자	손지, 손자
203066	손녀	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친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켄당
203072	외척	웨펜켄당
203073	종내기	종내기, 우던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부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무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부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무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
203087	넋할머니	*
203088	넋손자	*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아버지, 친아버지
203092	친어머니	친어머니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비린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놈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ㄴ음, 천, 옷ㄴ슴
204002	끓다	끓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엿새무명	*
204011	생목	깃찾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베치마
204016	숨	소계
204017	풀숨	설맹지
204018	숨틀	소계틀
204019	숨틀집	소계태우는집, 소계공장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씨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낭썸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토종뽕낭
204029	오디	뽕, 뽕낭열매
204030	다듬잇돌	다듬잇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개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버꿈
204035	물거품	버꿈
204036	빨랫돌	광돌
204037	빨랫방망이	빨레마깨, 물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세답구덕
204039	행구다	해우다
204040	빨랫줄	세답줄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세답작데기, 빨레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래다
204046	험걸	험벅
204047	찢다[裂]	찌지다
204048	나부랭이	(험벅)주제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단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웃고름	곰
204056	웃깃	웃짓
204057	웃섶	웃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불ㄷ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스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두루메기(홀-여름), 후루메(겹-겨울)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
204070	누더기	더데기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걸뱅이
204072	구두쇠	쫓보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
204075	주머니	주맹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쭈
204077	넣다[入]	찢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모각지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발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앞코쟁이

204079	길목버선	질목보선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얇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깃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새
204094	누비이불	노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털 미다(보푸레기 생긴 거)

204097	홀청	홀청, 이불홀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홀청
204100	눅다[臥]	눅다,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요팡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개홀청
204107	베갯머리	머리맛
204108	베갯모	베갯모메기
204109	몽침	몽침, 남베개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털모자
204114	밀짚모자	밀짚패랭이
204115	미사리	썩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딤총박이	*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가족신
204123	부르트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일본어)
204127	부채	선제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ㄴ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려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빠다[湯水]	뜸제우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팍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밥
205013	고두밥	꼬두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누렁지
205016	눌은밥	승냥(물)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괘밥	*
205019-2	괘래밥	괘래밥
205020	밥보	밥통
205021	밥술	밥순가락
205022	밥알	밥풀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짜로 밥 얻어 먹던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카는대, ㄱㄱ령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나물국, 장국
205032	콩국	콩국[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흰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깻죽	나물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징끼, 짐치
205050	배추김치	나물징끼
205051	무김치	늬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춨메기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김치
205055	갯김치	갯늬물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205057	각두기	각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물장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소금허다
205069	콩나물	콩늬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지름
205071	무나물	늬뻬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늬물
205074	고사리밥	고구매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고단
205077	고비	평고사리
205078	미나리	민네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웨
205085	참외	츨웨
205086	수세미외	수세미
205087	말물	체죽쟁이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갈장귀
205090	원두막	웻막
205091	갯잎	웃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작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우생이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식)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제펜
205110	부스러기	(떡)보스레기
205111	송편	조개솔펜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205122	물다[淡]	얄롭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봉지	봉투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취, 든술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배기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주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술독, 추니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광절다리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꺾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부침개
205149	산적	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굴
205154	불뚝	불뚝
205155	부엌비	정짓비차락
205156	내[煙氣]	네
205157	낮다[低]	늦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으다
205164	부뚜막	*
205165	봇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동숫
205168	무쇠솔	췌숫
205169	끓다[沸]	레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갈레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줄깨방석
205182	성냥	화곽, 화각
205183	성냥개비	화곽살, 화각알
205184	성냥갑	불곽, 성냥
205185	부시	불췌
205186	부싷돌	불돌
205187	부싷깃	불쏘시개
205188	부시쌈지	*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각깃불, 등잔불
205191	관솔	슬각
205192	호롱	호롱불
205193	남포등	호야불
205194	접싷불	접싷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구덩이
205199	뜬숯	끈숯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나다
205202	탄내	카는냄새
205203	불태우다	불살르다
205204	불티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덴그르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가락
205215	다리쇠	적췌
205216	석쇠	적췌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츄
205217-2		츄항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배통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루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눗사발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껍	뚜껍
205235	접시	젍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잇인접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제기
205240	간종지	장물종제기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저붐
205243	수저통	숟가락통[수까락통]
205244	설거지	사발 씻지라
205245	구정물	긫인물
205246	도시락	밥차반지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꺅
205251	뒤옹박	두룽박
205252	조롱박	장꺅왁
205253	쪽박	작박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독사발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고망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떡바트렝이
205262	함지박	도고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조릿대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죽신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지칼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썰돌
205282	날카롭다	늘쓰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숫뚜껑이
205285	국자	낭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돔배
205291	밀개	*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코
205292-4	(받이뿥)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두벙들이뿥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삼발이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초가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낯다[古]	묵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흔거리
206012	안채	안커리
206013	바깥채	밭거리, 밭집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몽커리
206016	곁채	몽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독, 안튀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쉐왕
206023	잃다[失]	잊어버리다
206024	마구간	*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지들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맞사다
206029	냄새	냄살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웃담, 울안담
206032	울안	울안

206033	터알	우연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쉼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예피다, 짜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마리
206047	마루문	*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정짓방
206062	방문	방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즈룩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
206070	시렁	선반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비알
206075	풀비	풀술
206076	찾방	*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놔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허다
206081	안뒤결	안튀, 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가지
206088	처맞기슭	집가지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땃돌	잇돌
206091	흙	흑, 흑
206092	진흙	질흑
206093	찰흙	춘역
206094	흙덩이	흑병에
206095	새벽	*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沍]	뀌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생깃지둥

206101	뿔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
206108	반자틀	빈지
206109	귀틀	귀틀
206110	외(椽)	튀기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
206117	문홈	*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창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단이	미단이
206127	여단이	웨단이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도절귀
206133	암톨쩌귀	암도절귀
206134	수톨쩌귀	수도절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게철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합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대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췌기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마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께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흠베기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뿔다[鑿]	뿔브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흠손	췌손
206167	쇠흠손	*
206168	나무흠손	남손
206169	흠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뒤틀름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사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엮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툄메기, 토갱이
207006	병작(並作)	반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손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뺏어나간 나무	몽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뺏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뿔뻥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머리
207014	밭두둑	두둑, 에엮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파니
207017	거웃	파니, 고랑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계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괭이
207022	곡팽이	꼭괭이
207023	파다[堀]	파다, 일루다
207024	쇠스랑	쉐스렁
207025	삽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맹탱이
207034	꿈개	끄서귀
207035	남태	목마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막불검질
207042	가다[去]	밭디 글라
207042-1		집의 가게
207043	호미	골게기
207044	홍아기	검질매는노래, 검질매는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기다
207047	품삯	품, 품삯, 일당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식
207050	폼앗이	어울림, 수놓음
207051	삼태기	글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기록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날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패기	*
207055	새끼	스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꼴
207059	끈	끄넛기
207060	참마(바[索])	베, 쉼베
207061	짐바	닷페
207062	질빵	질빵, 질페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쉼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맷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맷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게
207067-2	붓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부줄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폐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댄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줄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오리목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가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겟방석
207068-5	지게꼬리 (밑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끈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작대기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발채 바지게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
207077	그네	보리틀, 홀테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마장질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젓먹은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도깨틀레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쭈정이	쭈쟁이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왓
207089	꼴꾼	(출)낫꾼
207090	꼴단	출단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마차, 몰마차
207093	복두	용돛베, 구루맛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
207097	채	채
207098	가는채(고운채)	ㄱ는채
207099	굵은채	대채
207100	말총채	말총채
207101	챗바퀴	챗바퀴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멍이
207104	키[箕]	푸는채
207105	키질	푸는채질
207106	까불다	부끄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빱]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제기
207112	되	뒹
207113	관되	관뒹
207114	사샷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근대
207119	불당그래	굴목근대
207120	떡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멍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젓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뒹들이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한량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노리롱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시락, ㄱ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등갯ㄱ르,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것보리
207138	쌀보리	슬우리
207139	맥주보리	주녕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칩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베기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팏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비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츨
207154	조짚	조칩
207155	벼	나록
207156	벼이삭	나록고고리
207157	볍씨	나록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뒤
207160	밭벼 이삭	산뒤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뒤왓
207162	밭벼쌀	산뒤츨
207163	밭벼짚	산뒤짚
207164	맷돌	정ㄱ레

207164-1	멧돌짜	멧돌의 위아래 돌	정 ㄹ레착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짜	*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짜	*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ㄹ레죇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정 ㄹ레체

207165	멧방석	ㄹ렛덕석, 덕석
207166	매함지	*
207167	풀멧돌	*
207168	풀매	*
207169	썰기	뜸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
207171-1		*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하룻방
207174	븨비다	븨리다
207175	방앗공이	방앗귀
207176	남방아	*
207177	연자매	ㄹ레방
207178	방앗돌	*
207179	연자멧간	돌 ㄹ렛방
207180	절구	절구
207181	절긱공이	*
207182	햑다	햑다
207183	뉘	니
207184	고르다[擇]	골르다, 좇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콩지름콩, 콩늬물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짚
207192	꼬투리	콩겹질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
207195	뜨겁다	데불다
207196	비지	비지
207197	찌꺼기	주시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앗인베기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폿
207202	팔알	폿방울
207203	팔밥	폿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츨지름
207208	깻묵	팻주시
207209	고소하다	ㅋ시롱ㅎ다
207210	메밀	ㅁ물
207211	메밀밭	ㅁ물팻
207212	나깨	ㅁ물느쟁이
207213	메밀겹질	ㅁ물체
207214	메밀국수	*
207215	메밀수제비	ㅁ물츨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ㅁ물칼국
207217	메밀떡	ㅁ물떡
207218	메밀묵	ㅁ물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고구마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뻬데기, 절간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감저
207225	마늘	마농, 콧대산이
207225-1	마늘대	*
207225-2	마늘밀	*

207225-3	마늘쫘	마늘쫘
207226	마늘장아찌	마늘지시, 마농지시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과밀동	*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삐썸
207230	시래기	쓰레기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츄늪물, 츄메기
207233	배추	늪물, 배추
207234	고깡이(배추)	쭈
207235	나물	승키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유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깎
207240	옥수수	강낭대축
207240-1	옥수수	강냉이
207241	수수	대축
207242	쌀수수	*
207243	비목수수	피대축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축
207245	수수깡	대축남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즈네, 즈수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속곳, 물웃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족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족사들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 돛배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돛, 베초석, 벳돛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이대선
207264-2	세대박이	삼대선
207265	노(櫓)	노,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돛구멍	*
207273	돛줄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
207276	돛줄	*
207277	돛들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터베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돌아보다
207287	마을	막슬
207288	고을[村]	막슬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동네
207291	옮다[移]	옮기다
207292	아랫마을	알동네
207293	마을가다	막슬카다
207294	밤마을	*
207295	가게	점방
207296	구멍가게	점방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거스름돈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매황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망근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견다[編]	*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사농바치,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흐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덱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뒤	흔 말
208005-2	(2/두)	두 뒤, 닷 뒤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뒤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뒤	너 말
208005-5	(5/닷)	다섯 뒤	닷 말
208005-6	(6/엿)	웃 뒤, 말가웃	웃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개	흔두 뒤	흔두 말
208006-2	(2-3/두세)	두세 개	두세 뒤	두세 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네 개	두서너 뒤	두서너 말
208006-4	(3-4/서너)	서너 개	서녀 뒤	서너 말
208006-5	(4-5/네댓)	너댓 개	너댓 뒤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 개	대웃 뒤	대으섯 말
208006-7	(6-7/예닐곱)	예슬곱 개	예슬곱 뒤	예실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덟 개	일고으덟 뒤	일고으덟 말
208006-9	(8-9/여덟아홉)	여덟아홉 개	으덟아홉 뒤	으덟아홉 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재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빌
 208014-1 *

208014-1	무명	30자
208014-2	명주	30자
208014-3	광목	*
208014-4	베	20자/30자

208015 마지기(평) 100평
 208015-1 (겉보리 한 말)100평
 208016 못 단,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솔가리 묶음) *
 208020 조짐 께비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

208021-1	보리	30단
208021-2	조(이삭 있음)	6단
208021-3	콩	18단
208021-4	밭벼	30단
208021-5	꿀	30단
208021-6	띠	30단
208021-7	각단	30단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직
 208023 섬 섬
 208023-1 15 말

208024	덩이	*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흐나, 둘, 셋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소)	머리
208028-2	(말)	머리
208029	축	못
208030	웨미	웨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단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베넛옷
209005	배넛머리	벳속엿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마, 뽕계
209010	시집가다	씨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게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樣]	부서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밖사돈
209022	곁사돈	곁사돈
209023	상갓집	영장난집, 영장집[짚]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복)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상장대
209031-1	(아버지상)	왕대
209031-2	(어머니상)	머구남
209032	짚동	복심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웨건가다, 웨건허다
209035	뒋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생여틀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접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장날
209044	장지	영장밧, 장밧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층	*
209048	무덤	봉분,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마치다
209054	벌초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전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제사
209058	제삿집	식계집
209059	편틀	편틀, 정반
209060	퇴물	테물
209061	메	멧밥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제숙(바닷고기)
209064	제편	친떡, 제편
209065	인절미	*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벨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209070	몫	나시, 내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초하루, 정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팽과리	팽과리, 켈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구침
209085	추석	팔월멩질, 추석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문전코시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밭
210008	명두	멩뒤칼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거
210017	어둑서니	그신새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크시
210021	고수레	크시레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플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붙다[點火]	부뜨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
211007	물가	물긋디
211008	따르다[從]	넘어가다
211009	건너다[渡]	넘다
211010	낭떠러지	절벽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설덕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돌머들
211016	갈림길	세카림
211017	묻다[問]	묻다, 듣다
211018	비탈길	동산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내려가는길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질
211022	길가	질긋디
211023	큰길	큰질
211024	분화구	굼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오름밭
211028	산바람	* /하늬브름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서리, 상강
211031	구렁	흙덩이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자울지다
211035	자빠지다	갈라지다
211036	천상수	물통
211037	숲	*
211038	성(城)	жат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갯이, 개갯디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븨름(쌈븨름 마븨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물먹다
211046	모래	몰래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자갈
211049	갯가	개갯디
211050	펄	눗
211051	먼바다	먼바당, 난바르(솔레기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민둥절
211056	굼뉘	놀
211057	물결	*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일, 24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0일, 25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1일, 26일
211059-4	너무날	너물	12일, 27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8일
211059-6	여섯무날	여섯물	14일, 29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일, 30일
211059-8	여덟무날	으답물	16일, 1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7일, 2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18일, 3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19일, 4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0일, 5일
211059-13	(열서무날)	조금	21일, 6일
211059-14	아끈쨌기	아끈조기	22일, 7일
211059-15	한조금	한조기	23일, 8일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쌀물	쌀물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제적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엇그지게
211074	그썩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백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빋
211079	아침	아적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ㄴ슴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별
211091	은하수	칠성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구름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ㄴ슬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셋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름

211110-1	하루	허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췌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댓새	너댓췌
211113	대엿새	대웃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초허루보름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덜
211119	선달	선덜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우내년/또내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벳살[베쌀]
211127	따스하다	뜻뜻허다
211128	땡볕	뻬벳
211129	가을볕	가을벳
211130	양지받이	벳남석, 양지바른 디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낭청 (치다), 그늘 치다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우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잇주제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오월장마, 고사릿마, 풀돋잇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쟁이
211151	소나기	쏘낙비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씨원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편개[편께], 번갯불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벅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애기몰론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헤영허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물눈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즈긱디
211185	옆	옴
211186	위	우의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웬착
211191	오른쪽	늑단착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흘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꺸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긱디, 예염
211199	가장자리	바위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놈, 부랭이(어린 것)
212005	쇠소	식췌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밭갈췌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췌망울
212011	쇠고삐	췌늑대
212012	끝다	꿏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췌반작, 반작췌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금승	일수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스수
212015-5	다듭(5)	다숫	오수
212015-6	여듭(6)	여숫	육수
212015-7	이릅(7)	일곱 설	칠수
212015-8	여듭(8)	으듭 설	팔수
212015-9	아듭/구릅(9)	아홉 설	구수
212015-10	열릅/담불(10)	열 설	십수

212016	작두	작도
212017	쇠죽	*
212018	구유	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물
212028	얼룩말	*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매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등 ⁷ 부레기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경이	글경이
212037	털[毛]	털
212038	말고삐	말늑대, 말줄레
212039	당기다	둥기다
212040	낙인	낙연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지꾸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렝이
212048	비루먹다	도롱이 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쥬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털떠구니	털턱

212058	산떡	산떡
212059	닭의어리	장막, 득수룽
212060	닭장	득집
212061	달걀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끓다, 골아불다
212063	빙아리	빙아리
212064	까다[剝]	까다, 깨우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암토새기
212067	암돼지	수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나누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
212072	생등이	서툼바치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돛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고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장버랭이, 버랭이
212089	구더기	버랭이, 벌거지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각다기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머리
212104	바구미	남송에기
212105	콩바구미	콩버러지
212106	굼벥이	굼벥이
212107	땅강아지	땅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레기
212111	지네	주녕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 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벥이, 옷입은들벥이
212117	민달팽이	옷벗은들벥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개염지
212120	왕개미	왕개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믈축

212123	방아깨비	산디물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소금바치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
212127	풍뎅이	*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물자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물자리
212141	장수잠자리	왕물자리
212141-1		*
212142	매미	꽃자리
212143	매미허물	왕자리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자리웃
212145	쓰르라미	오시악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왕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진드기새끼)		서미역
212155-2 (늪은것)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송충, 소남충
212157	개구리	가가비
212158	올챙이	고노리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
212161	뱀	베미
212161-1	뱀띠	베미헤치
212161-2	뱀허물	베미옷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콜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독사

들짐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쉐
212169	토끼	튀께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챙이
212172	괘다	괘다, 쓸다, 뚫다
212173	쥐구멍	챙이고망
212174	박쥐	다람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
212180	원숭이	즌내비
212181	원숭이띠	즌내비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꼴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꽁지	총지
212187	깃[羽]	늘개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밥주리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천이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수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
212199	빼꾸기	빼꾸기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옷밤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득세기
212206	꺼병이	꿩빙에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참메기
212212	명주고등	맹지메기
212213	눈알고등	문다닥지, 문다께
212214	밤고등	떡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메옹이
212218	대수리	마타슬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룡빨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벨망
212223	거북손	대오살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종류	췌군벗, 물군벗, 조계군벗(별경, 털 없음)
212226	진주담치	가메기부리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종류	민둥구쟁기, 쌀고동/>양살귀/쌀구쟁기, 생켁이
212228	전복	생복
212228-1	암컷	암천복/암핏
212228-2	수컷	수첨복/수핏
212229	전복갑	겍넝
212230	오분자기	조계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돌쟁이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춤쟁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물문주리
212242	성게	귀
212243	말뚝성게	슌. 슌.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위. 사위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물췌기, 우박망테, 호박망테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멍게
212251	서대	서대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개	멍지
212254	바닷물고기	퀘기, 바당퀘기, 바룻퀘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어둑다, 킁킁허다
212257	잘다[細]	즌즌허다, 쟈쟈허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닐, 비늘
212260	배따다	페쓰다
212261	생선(生鮮)	늘래기
212262	미끼	니깍
212263	갯지렁이	물주녕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숫대	참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숫줄	정수, 낙시줄
212268	붕돌	뽕돌[뽕똥]
212269	참대	참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쿠쟁이, 아우쟁이, 어우쟁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멜갈치
212279	베도라치	보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애리
212283	고생놀래기	코쟁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술멍이
212287	옥돔	솔래기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돌돔, 물뚝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뱅에돔	구릿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동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부찌다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괘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다찌
212308	방어	방에
212309	재방어	저립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도랭이, 준다니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쉐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남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풀	미우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승
213006	띠[茅]	새-긴것, 각단-짧은 것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뺑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ㄱ작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모시제완지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괭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베블레기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름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빈네쿨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못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스웁이
213046	썰기풀	*
213047	수크령	글리역
213048	망초	천상풀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콩풀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케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진썸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멘쑤
213063	살갈퀴	복계기
213064	차풀	자굴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두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푼채순이
213070	방가지뚱	소왕가시

213071	닭의장풀	*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꼭
213074	취덩굴	꼭줄
213075	취뿌리	꼭불휘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번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운동고장
213085	말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술란지
213091	애기수영	술란지
213092	짜리	근자리
213093	땀짜리	웹짜리
213094	명아주	제남
213095	갯	갯늪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춤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고장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생이풀
213137	복수초	*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낭)빨리, 상빨리
--------	----	------------

213142	잔뿌리	즌빨리, 가지빨휘
213143	줄기	줄대
213144	가지	가쟁이
213145	잎	낭썸
213146	나무	남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삭은낭
213149	소나무	소남
213150	솔잎	솔입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진을커, 멜감
213154	마디다	므디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폭남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빨강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믈쿠시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남
213163	녹나무	*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
213170	왕벚나무	왕벚꽃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가시낭
213173	주목	*
213174	종려나무	남총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냥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땡유지
213184	비자나무	비자남
213185	치자나무	지지
213186	비파나무	비파남
213187	오동나무	오동남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냥
213198	두릅나무	들굽냥
213199	향나무	상냥
213200	웃나무	칠냥
213201	소리나무	소리냥
213202	솔비나무	솔피냥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냥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복땅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
213238	초피나무	*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베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껍질	껍데기, 껍덕

213251	깎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계엄지탈
213255	명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황탈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
213268	상동	*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리
213271	개다래	유름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풋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굴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통지, 통지
213282	탱자나무	통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쫓락지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풋감	*

213288	청미래덩굴	멜레기낭
213289	맹감	멜레기
213290	찔레나무	가시낭
213291	영실	호레비
213292	사과나무	능금낭
213293	사과	능금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꽝배
213297	팔배나무	꽝배낭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쪽곶질
213302	복숭아나무	복성개낭
213303	복숭아	복성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쇠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프레
213313	툇	틀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넙페
213316	지층이	지층
213317	다시마	*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물망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개갓 두리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